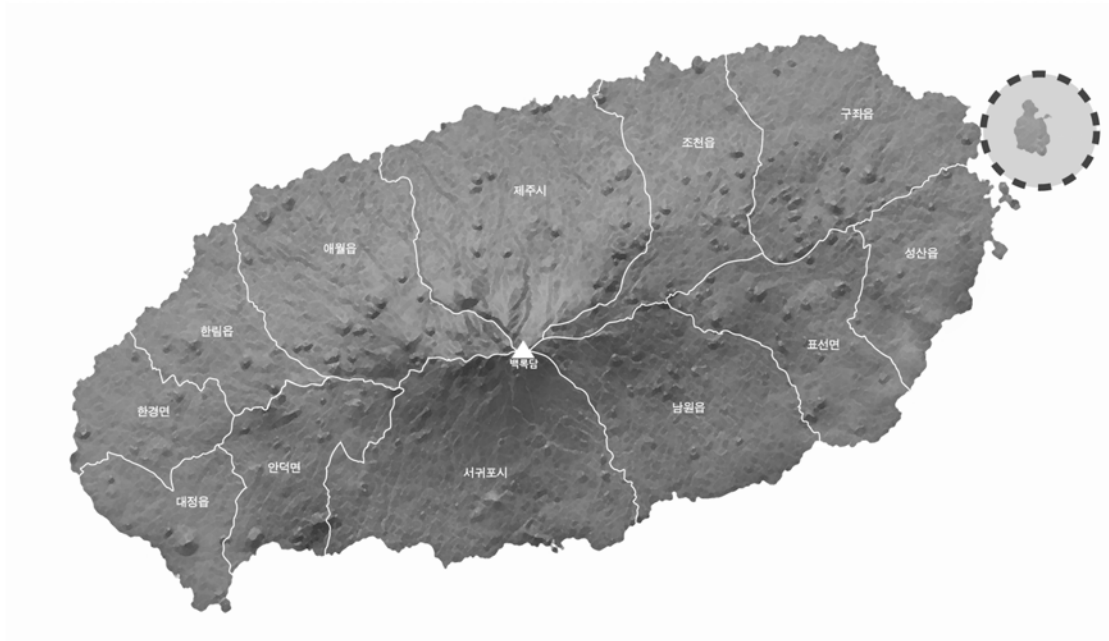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56-01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27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승연
조사지점: 우도면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7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우도면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밭일	122
5. 바다일	187
2. 제보자 일생	81
4. 들일	171
제2절 어휘	
1. 인체	227
3. 친족	240
5. 음식	249
7. 생업	263
9. 민속	278
11. 자연	281
13. 식물	299
2. 육아	233
4. 의복	244
6. 가옥	258
8. 수와 단위	275
10. 신앙	281
12. 동물	289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우도면 조사 내용

2.1. 제보자

한두영(남, 1940년생)

윤봉춘(남, 1932년생)

홍한옥(여, 1927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내용	과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마을	구술 1. 조사마을	한두영	02:13:00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한두영 고옥녀	01:20:34	○
3, 밭일	구술 3. 1 보리농사	한두영 고옥녀	00:40:18	○
	구술 3. 2 조농사, 콩농사	한두영 고옥녀	00:26:22	○
	구술 3. 3 밭벼농사, 고구마농사, 기타농사	한두영 고옥녀	00:24:18	○
4. 들일	구술 4. 들일1	한두영 고옥녀	00:21:17	○
	구술 4. 들일2 뽕감	한두영 고옥녀	00:32:25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한두영 고옥녀	00:56:50.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01:00:33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 밥과국, 죽류, 범벅과 수제비, 김치, 젓갈, 장아찌와 회, 장담 그기	홍한옥	01:09:55	×
	구술 7. 식생활2- 떡류, 소와 고물, 별식, 기타	홍한옥	00:31:28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1	윤봉춘	00:52:16	×
9. 신앙	구술 9. 신앙	윤봉춘	00:02:59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윤봉춘	00:41:01	×
11. 놀이	구술 11. 놀이	윤봉춘	00:56:28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윤봉춘	01:30:09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홍한옥	00:27:34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구술 14 경험담	홍한옥	00:12:41	×

<표 2> 어휘 채록 내용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홍한옥	01:36:09	○
2. 육아	어휘 2. 육아	홍한옥 윤봉춘	01:15:03	○
3. 친족	어휘 3. 친족	윤봉춘	00:35:40	○
4. 의복	어휘 4. 의복	홍한옥	00:49:00	○
5. 음식	어휘 5. 음식	홍한옥	01:40:05	○
6. 가옥	어휘 6. 가옥	윤봉춘	01:07:07	○
7. 생업	어휘 7. 생업	윤봉춘	01:47:28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윤봉춘	01:00:47	○
9. 민속	어휘 9. 민속	윤봉춘	00:41:00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윤봉춘	00:10:00	○
11. 자연	어휘 11. 자연	윤봉춘	00:41:00	○
12. 동물	어휘 12. 동물	윤봉춘	01:55:00	○
13. 식물	어휘 13. 식물	윤봉춘 홍한옥	00:47:00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승연, #1: 한두영, #4: 고옥녀)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기 삼촌님 삼촌님 이쪽으로 영 헤가지고 발름 영 예예.

101001 #1 그 만들어진 것은 이제 저가 지금 천구백 사십오 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예,

101001 @ 예.

101001 #1 예 그래서 그 때가 으섯 설 때 돌아가셔수다.

105001 @ 예.

105001 #1 저 으섯 설 때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저 저 마을이 어떻게 형성 된 건 자세히 모르쿠다.

105001 @ 아 예.

101001 #1 마을이 형성된 건, 그렇게 했는데 그 때가 이 저 우도 소섬이라고 헛고 또 행정상으로는 구좌면 연평리랏수다. 그 때까지만 흐두라도,

101001 @ 예.

101001 #1 이제 그 출장소가 소가 잇엇고 초등학교가 잇어나수다게.

101001 @ 예.

101001 #1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는 이제 천구백 에 오십사 년도 유월 이십일 날 그 고테주 교장 선생이 이제 좀 노력을 헤 개교 인가가 나왔수다게.

101001 @ 음,

101001 #1 경 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촌 통합이 된 것은, 이제 그 그 후에 더 육십년 데까지만 흐드레도 더 인구가 흐 집이 지금 흐 가정에 식구가 지금 흐 일곱 사름도 웨고 열 사름도 웨고예, 그 부부가 즈식을 보통 다섯으로부터 흐 열까지 열 열 흐 사름까지 난 가정도 잇수다. 그렇게 흐다보니까 인구가 흐 삼천칠백 까지 웨 나는데 그 이후에 한 칠십 년데 이후에는 그 가족 계획제도가 나와 가니까. 이젠 한 가정이 두 사름씩만 낳자, 이렇게 흐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헤여 가니까 이제 즈식덜 나는 게 줄어갓꼬,

101001 @ 예.

101001 #1 예 이금에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예 지금,

101001 @ 예.

101001 #1 저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에~ 흐 멧 년 전만 흐드라도 흐 육십 명

벋긴 안돼서마썸. 이제.

101001 @ 예.

101001 #1 또 중학교도 혼 삼십 명 벋긴 안돼고 이렇게 혼니까 이제는 통합을 해야 돼겠다 이렇게 통합을 헨 지금 통합학교로 돼엇수다.

101001 @ 예.

101001 #1 이제 학생 수는 이제 경 돼고, 마을은 또 저 중앙동이엔 혼 디가, 칠십 년테로 부터 춤 사름이 살기 시작헐수다. 그렇게 헐는데 거기가 이제는 중앙지가 돼다보니까. 상가들이 생기고 또 기관이 이제 딱시 하나 두 게 생기면서 불어나 게 돼어네 기관도 많아지고, 이렇게 헐네 지금, 마을이 중앙이레도 중앙동이렌 해서 그 세테가 혼 열 세테 이상이 돼어가니까 지금 세테수가 지금 가긋수가 지금 혼 삼십 가구 이상 웰겨우다게. 게 중앙동에서 열두 게 부락으로 돼어수다 부락은, 그 전에는 해방당시만 혼더라도 부락이 열 부락 이랏는데, 우리 상하고수동이 지금 또 분동이 돼어네,

101001 @ 예.

101001 #1 게 열 혼 부락 돼엇다가 또 칠십년테 이후에는 중앙동이 이제 사람이 많이 살게 돼어가니까 이제 또, 이제 거기도 이제는 부락이라고 해야돼겠다고해서 부락이, 이제 춤 반장도 부락장도 생기고,

101001 @ 예.

101001 #1 이렇게 해서 이제, 부락이 열 부락이 돼게 웰수다.

101001 @ 예.

101001 #1 부락 부락 형성은 그렇게 웰건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1001 @ 예, 그거는 또 예 경 웰구나예 지금은 뭐 막 그저 도항선 해가지고,

101001 #1 예.

101001 @ 그 관광지로 해서.

101001 #1 도항선은 그 구십이 년, 구십 년도 깐지만 헤드라도 범선,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범선이 텅기기 시작헐수다. 옛날에는 그,

101001 @ 예.

101001 #1 돛단배가 다니기 시작 혼다가, 육십 년도 육십일 년도부터는 그 오영 부엔 혼 사름이,

101001 @ 예.

101001 #1 그 머구리선 그 발똥기 그걸로 이제 저 도항선을 시작 헐수다.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는 이젠 또, 여러 사름덜이 이젠 또 발똥선을 헐갓고 지금 이제 저, 큰 섬을 드나들기 시작헐수다. 저 세화 장에도 장 보레도 그 배 탕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배 탄 세화리 강 오단 딱시 배 옆어져 갓고 사름덜이 죽은 적잇엇수다. 육십일 년도에 지금, 예 그렇게 혼 적도 잇엇고 헐는데, 그렇게 돼고 그 자연호 연 봉호엔 헌디가 도항선 허가를 받아갓고 정식으로 혼 이십 년 동안 다녀수다.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혼 번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다가 구십 년도에 강영길이

엔 현 사람이 그 도항선 자연호하고 연봉호를 자기가 인수를 받아갖고,
101001 @ 예.
101001 #1 그 배로해서 인젠 그거를 폐기 시켜볼고 군 지원을 받아 갖고 이제
바지선, 그 즈동차 싹끄는 배를 만들어수다.
1010010 @ 예.
101001 #1 만들어서 이젠 오일호라고 현 그 바지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젠 그
큰 차는 이제 못 싹꺼도 이제 승용차는 싹거 다녀수다게.
101001 @ 예.
101001 #1 그렇게 해가니까 이제는 저 그렇게 해서 현 일 년쯤 다녀가는 도중에
또 임봉순이엔 허는 사람이 서귀포에 가서 그 자연호 연봉호를 풀아두고 그 사람한
티 강영길이 현디 풀아두고, 가서 거기 가서 사업도 안돼니까 자기도 도로 이제는
도선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강영길이가 아 경정 현민은 배 수지도
안 맞이곡, 이제 자기가 또 위험 때문에 고생도 하고하니까 이제 강영길이 저 임봉
순이 안티, 자기 허는 배를 맡아 부리라 그래서 우일호를 그 사람이 맡꼬 또 그 사
람이 이제 또 가족들을 동원 해 갖고, 또 큰 배를 만들기 시작 해수다게.
101001 @ 예 임봉순이엔 현 사람이예-.
101001 #1 예 그 사람이.
101001 @ 계민 저기우도 소섬 사른잇과?.
101001 #1 예 하르버지 떼도 아버지 떼도, 육십 년테 테인호라고 도항선을 해나
수다 그 사람이 허다가 그 떼는 도항선 허는 배가 허가 없이 헐 떼니까 여러 사람
이 경쟁 허니까 밀려 나갔고, 그 벨 저 추자도에 풀아부러수다. 경 영에 허테기니
까. 예 그렇게 하니디 그 후에 임봉순이가 짝끔 자기가 좀 힘있으니까,
1010010 @ 응,
101001 #1 이제 그 또 고흥환우씨 흥황웅이엔 현 하르방 하고 마치 그 자연호를
마치 동아리를 하는거라마씨. 마치 이제 동업을 마치해서 마치하다가 꺾네는 이제
임봉순이가 그 자연호를 마트게 뵈거 십주.
101001 @ 예.
101001 #1 맡게 뵈고, 나중에 것또 자기가 수지 안 맞으니까 또 풀아두고 나갔다
가 또 도로 와 갖고 이제 저 또 이제 우도 도항선 이제 바지선을 크게 세 척을 멘
들아 놔나수다. 세 척을,
101001 @ 응,
101001 #1 멘들아서 이제 허는도중에 또 이제 강권일이렌 허는 사람이 이제 덕
일호, 이거 바지선을 이제 화물선을 만들어서 이제 허가를 못 받고, 도항선을 허가
를 못 받고 허는데, 하도 귀찮게 저 도항선을 싹꼬 다녀가니까 아 저저 저 다른 차
를 화물선이니까 실어 다닐 수가 이십주. 그렇게 해가니까 경쟁해서 귀찮타고해서
마치 동업을 해 버려수다. 하나로 무꺼 부러수다.
101001 @ 예.

101001 #1 무꺼서 이제 그 임봉순이렌 혼 사람이 이제 또 우일호, 우일호까지도 이제 군수안티 가서 자기가 맡으 맡겠다. 아~, 이 저 강영길이것을,

101001 @ 예.

101001 #1 이제 군에서, 보조 해 준 거주만은 군에서 유지하지 말고 나 한티 전 부다 전권을 주어서 나한테 풀게 해주시오 해서, 자기가 맡아 갖고 그 사람이 도항 성 세 척 네 척 중에, 스 십프로 이 그 주권을 가져 낫수다게.

101001 @ 예.

101001 #1 그래서 그 사람이 혼 몇 십 년 동안에 몇 십억 벌어 분 거라마씨.

101001 @ 예.

101001 #1 그렇게 해 가니까 이제는 우도사랑이란 저 회사에서 따시 이제 그 배 가 무신 회사가마는 에~, 이제 저기 도항산을 그치 허겟다고 저 자기네가 허겟다고 해서 하우목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식을 모아 갖고 우도 사랑이란 1 호 2호 배를 만들게 나와십주. 이제 삼백 톤급, 그렇게 해서 그 때가 에 이 천 혼 삼 사년도 돼수다 그 때, 그 때에 에 그 해를 나니까 또 그 후에 이제는 그 사람들 배 해가니까 또 이제 우도렌드라해서, 이제 세 번째 회사가 나와네 이제, 지금 가치 경쟁을 행 허다가 또 경영하는데는 머 주식을 배당하는데는 이제 각자가 다 갈르주 만은 그자 운영하는데만 합이를 해 갖고, 이제 싸움없이 합이를 헨 해 갖고 잇수다 게. 도항선에,

101001 @ 예, 그러면은 그 배에 관해서는, 마을 이 우도 사람들이 소유권 같은 것도.

101001 #1 주식 주식에서 다 가입 헌겁니다. 출자를 해서.

101001 @ 출자를 해서 다 가입허고?

101001 #1 예예.

101001 @ 주식 그 배당금도 다 가입헌 사람들은 받고.

101001 #1 예예. 게서 이익금들도 배당을 받고.

101001 @ 예. 계난 삼촌님도 이제 주식투자 해 가지고.

101001 #1 나도 지금 저 일차로 이천 처음 헐 때 우도 해운에.

101001 @ 예.

101001 #1 에 저 돈 액수로 그자 저 천오백만 원 출자 해네 지금.

101001 @ 예.

101001 #1 저 용돈을 벌엄수다.

101001 @ 예, 용돈 벌엉예, 용돈 버는 거는 해 마다?

101001 #1 예.

101001 @ 해마다 갈라그네예?

101001 #1 예, 계문,

101001 #1 달달이 이제, 그 데여금으로 해서 인수를 받읍니다.

101001 @ 그러면 참여헌 우도 주민들이 대략 몇 가구정도, 회원이 몇 사람,

101001 #1 또 에 한 오 년 전만 허드라도 지금 이제 막을 전 십이 개 자연부락에 그 마을에,

101001 @ 예.

101001 #1 마을세를 내야 됩니다. 마을 운영비를,

101001 @ 예예.

101001 #1 네는 훗 수가 혼 오백 줌 오백 호는 돼나수다게. 겐디 마을에 네는 게 일 년에 혼 돈 십만 원씩 내야돼마씨. 마을 운영비로 이제,

101001 @ 예.

101001 #1 그렇게 허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름들은 여기 안 살고 다 노인들만 우도에 살게된 거라마씨. 게난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이제 톨 그쁜 것도, 이제 그치 부역을 해서 톨을 그치 케면은 그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늙어노니까 톨을 케질 못허는 거라마씨.

101001 @ 예.

101001 #1 예, 게민 케지 안허는 사름은, 그 배당을 안주는 거라마씨.

101001 @ 아.

101001 #1 안취마씨 그렇게 허다보니까 노인들은 이젠 톨을 못 배당 받을 바에는 막을에 춤여 행 머 허느냐 세금을 낸 가입행 머 허느냐 그래서 다 사뵈를 헤불 엄수다게. 허다보니까 지금은, 삼백 오십 가구 삼백한 구십 가구벧기 안뵈수다 지금,

101001 @ 예 마을회에 참여한 사름은예.

101001 #1 예,

101001 @ 응,

105001 #1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모르니까 이번에 또 우도사랑 협동조합이라고 발족해서, 거기가 생긴지가 지금 지난 십이 월 달에 호당 십만 원씩 출자 헤갓꼬, 이 우도 사랑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도에서 뭐 이제 그 춤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이제 에 관광객덜을 실러서 우도 구경을 시키면서 헤 불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도 즈동차 전기즈동차가 보급헤 줄테니까 또 보조도 헤 줄테니까 전기 즈동차를 헤 바라.

101001 @ 예.

101001 #1 이 십 인승.

101001 @ 예.

101001 #1 그걸 헤 보겏다고해서 지금 이제 지난, 저,

101001 @ 예.

101001 #1 십이 월 달에 호당 십만 원씩 출자를 헤 갓꼬 지금, 발족을 헤연에 에 지난 스 월에 법원등기를 마친,

101001 @ 응,

101001 #1 이제 정식으로 사업 헬라고 해서, 지금 호당 천만 원씩,

101001 @ 예.

101001 #1 출자금을 조성 모금을 하고 잇수다.

101001 @ 예-.

101001 #1 그 때 모금허는 거 통지를 보니까. 삼백 오십사 가구로 돼 잇어마썸.
건 뭐나허면 십만원 씩 넨 훗 수만 삼백 오십사 가구라마씨.

101001 @ 예, 우도사랑,

101001 #1 예.

101001 @ 협동조합이.

101001 #1 예예. 출자금 일차 십만 원씩 넨 훗 수만, 그렇게 해서 지금 출자 모
금을 흐는디 나도 천만 원 출자 해십주.

101001 @ 아예.

101001 #1 나도 이제 헛는데. 지금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백 오십 가구만 천만 원
씩 냅다흐어마씨.

101001 @ 예.

101001 #1 지금 현재 그래서,

101001 @ 이거는 자동차에 관한 한거예.

101001 #1 예 자동차를 사서 이제 허는 거.

101001 @ 예에 허는 거고예.

101001 #1 사업 그 관광사업을 해 볼라고.

101001 @ 관광사업예.

101001 #1 예예.

101001 @ 그러면 아까 삼백 오십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 도항선에 관계된 저
저기 그 우도에 출자헌.

101001 #1 천 오백만 원은 도항선에 출자를 헛고.

101001 @ 예. 도항선에 헌 거고 거기에 또 십 만원씩 낸 사람도 전부 합천 삼백
오십명 정도,

101001 #1 이번에 보니까 우도 사랑협동조합은 그 십만 원씩은 일차로 등록을
헛려면,

101001 @ 예.

101001 #1 이제 출자금이 잇어야 된다고 해서 십만 원씩만 우선 출자를 헛갓고,
헌 후에 이제 등록이 끝나니까 이제는 천만 원씩을 모아 갓고,

101001 @ 예.

101001 #1 이제 즈동차도 사곡 또 부지도, 즈동차 이제 헛 차고지도 사곡, 또 모
든 준비를 허자.

101001 @ 예.

101001 #1 예 이렇게 해서 헛고잇는 걸로 ㄱ타 뵈디다게.

101001 @ 예. 그거는 자동차 부분예.

101001 #1 예.

101001 @ 자동차 그 출자하는 거고,

101001 #1 예.

101001 @ 그러면은 저 멘 처음에 그 도항선에 출자는.

101001 #1 출자는 천오백만 원 출자했다가,

101001 @ 헛다가.

101001 #1 나중엔 도항선 그 등급을 하나 이제 폐기하게 됐수다.

101001 @ 예.

101001 #1 폐기해서 세로 큰 배를 예 삼백 톤급을 하나 지어야 돼겠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또 천만 원씩 또 추가 출자를 했수다.

101001 @ 아,

101001 #1 겐 나가 이천오백만 원씩 출자한 셈입주마씨.

101001 @ 게민 그런디 출자한 사람들 다 모두 몇 명 정도 돼쿠과?

101001 #1 우리 우도 회원에,

101001 @ 십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01001 #1 출자한 사람은 한 오십 명 될거우다.

101001 @ 아~, 우도 회원은 오십 명에.

101001 #1 예, 우도회원.

101001 @ 예에.

101001 #1 또 우도사랑에는 한 백 여명 될거우다 우도 사랑에는 또,

101001 @ 예,

105001 #1 또 우도랜드에는 한 이백 명쯤 된다하는 거 님니다.

101001 @ 한 이백 명에. 예에, 경 헛구나. 그러면은 이 처음에 질문이 이 마을이 형성에 대해서 해준센 허니까는 삼춘님 그, 저기 태어난 후로부터는 말씀 해 주신 거 부터고 그 전 이야기를,

101001 #1 예.

101001 @ 그 전 이야기들 뭐 하르버지 안티 들은거나, 누구 이웃 누구안티 들은 거라도 잇이민예 곁아줍서 그니깐 삼춘님 태어난 그 전에, 들엇던 일도 이거는 되는 거니간예.

101001 #1 예.

101001 @ 삼춘님 경험헌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들.

101001 #1 게 그러니 마을이 형성이 된 건 네가 이제 좀 천팔백 스십이 년도에 이전에는 여기가 독립 목장이엔 헛낫젠마썸 여기가,

101001 @ 예에.

101001 #1 거 이형상 독립목장 독립목장이엔 헛다고 허는데 예, 천구백 스십이 년도에는 그 이형상 목사가, 이제는 목장을 헤지시겨볼것다.

101001 @ 아, 천팔백사십이 년.

101001 #1 예, 스십이 년에 개인이 갈아 갈아먹으라.
101001 @ 예.
101001 #1 저저 땅을 만들어서.
101001 @ 예.
101001 #1 그래서 또 스십스 년에는 이제 김성님, 그 이제 그 김진사님네 김성님 이라는 그 분이 그 진사 배슬을 해난 모양이라마씀.
101001 @ 예.
101001 #1 그 분이 여기완 서 살면서도 쩌금 나앗던 모양이라 겐 관에 가서,
101001 @ 예.
101001 #1 우도도 행정구역 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인가를 해 췌텐해마씨.
101001 @ 사십사 년에예.
101001 #1 예예.
101001 @ 예 천 팔백 사십사 년에.
101001 #1 예예. 그 때 경 흥곡 그 때 웨로는 하르방덜이, 이 우리 우도가 정이 먼 허고 예~ 옛날 정이면 허고 모관 모간흥고 이제 양 사이에 잇수다게.
101001 @ 예.
101001 #1 정이는 성산이고 모관은 종달리 이 쪽으로 아닛과.
101001 @ 예.
101001 #1 게난 우리가 양 사이에 잇수다.
101001 @ 예.
101001 #1 그러니까 이제, 웨 그 때 웨 모관 쪽에 붓뻗느냐. 게난 그 때 하르방덜이 나온 하르방덜이 이왕이면 좀 높은 사름 밑으로 가자.
101001 @ 예.
101001 #1 모관에는 그 때 관관이 저,
101001 @ 예.
101001 #1 이제 ㄱ뜨면은 이제 그저 제일 높은 수령이랏고, 저 이 서이는 사또,
101001 @ 예.
101001 #1 즉 말허면, 그런 사름이 헛기 때문에 판사가 저 관관이 높지 않으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붓뻗다고 헛니다게 그래서.
101001 @ 예. 경 헛구나예.
101001 #1 그렇게 해서 행정구역은 그 쪽에서 흥고, 또 우도에 어느 쪽 사름들이 많이 왔느냐 흥면은, 보통 김녕, 월정,행원 예, 하도, 세화 이 쪽 사름들이 많이 온 거라마씀. 계경 허가가 나오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라마씀. 들어서 이제 우도 가면은 이제 저 네 분 땅에 네 버린 땅에 이제 춤 주어서 담 다와서, 이제 밧을 만들어서 해 먹을 수 잇더라 허드라 그 소식을 듣고 우도 다 들어온 거라마씀.
105015 @ 예.

105015 #1 그 이전에도 사람이 목장 때만 흐드라도 사람은 출입은 해난 모양이라마씨.

101001 @ 예.

101001 #1 그 이 저 해산물 허레.

101001 @ 예.

101001 #1 터우선 터웃배로 다니명 많이 중간 오다가 풍파도 만남 죽고, 여기 우도지 보문예. 사람도 죽으면 뭐 성씨 깎지도 이름 깎지도 다 나와잇수다게. 우리 한씨도 많이 죽어서마썸. 이 사이에 그 터웃배로 다니다가.

101001 @ 예 터웃배로 다니다가예.

101001 #1 예, 풍파 만나갓고. 이제 그렇게 헛다고 해서해서 흐면은, 보통 보면은 그 쪽 사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여기와서 이제 처음에는 저 해안가,

101001 @ 예.

101001 #1 해안가는 돌이 만허고흐니까 돌 구허기 쉬우니까 해안가 쪽으로 담을 쌓와서마썸.

101001 @ 예.

101001 #1 그래서 해안가 쪽으로 가 보면은 돌이 겹담으로 막 쌓아 잇수다게마썸.

101001 @ 예.

101001 #1 그걸 우리 면에서는 문화제로 보호허자고 해서, 거기를 이제 거기를 어떻게 허는데 그걸 파손도 못 허게 흐는데 그 곳이 이제 관광지가 돼 가니까 일부가 좀 파손 웬디도 잇어마썸. 집을 지어가니까 우리 면에서도 건 막지 못 허는 거라 자기 땅에 뭐, 자기 기지에 저 집짓는 게 저 그걸 파손 해서 집짓는 게 이 뭐냐 해서 허는데, 그 대신 면에서는 그걸 보호 흘랴고 노력을 험수다. 지금,

101001 @ 예.

101001 #1 저 문화제 허가가 있는 가 없는가는 모르쿠다마는 지금 문화제로 보호 흘랴고 허고, 저 산호사만는 막 지금, 문화제로 보호 해네,

101001 @ 예.

101001 #1 지금, 폼짝도 못 허게 멘들암수다게.

101001 @ 예, 저기 저,

101001 #1 겐디 여기 돌담 둘른 건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험게 허지는 못 허는 모양이라 험 수도 잇게허는 모양이라마씨.

101001 @ 예. 거난 그 돌담은 바람 막젠.

101001 #1 예, 바람막이로마씨.

101001 @ 예, 썸 쪽으로 이쪽엔 엇언게 마는.

101001 #1 예, 이 이 쪽으로가 이 동네에서는 허는 거고.

101001 @ 예.

101001 #1 저 쪽도 썸썸은 잇수다. 저 서쪽으로도,

101001 @ 예.

101001 #1 짚끔씩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했는데 여기는 계절적으로 옛 저 셋브름 셋브름 여기는 동풍,

101001 @ 예.

101001 #1 동풍이 많이 불주마썸. 겐 조 ㄱ든 걸 해 먹젠 허민은 담막이를 해야 마썸. 담막이 없스면은 조를 그 바람에 쓸어버리면,

101001 @ 예.

101001 #1 그 조가 잘 안뵈주마썸.

101001 @ 예.

101001 #1 그 때는 조허고 보리만 갈아 먹엇서 옛날에는,

101001 @ 예.

101001 #1 그러다가 이제 예~ 팔십 년도, 육십 년도 부터는 고구마를 갈기 시작 헛수다.

101001 @ 예.

101001 #1 그 브름에 그 피해가 덜 가니까. 고구마를 갈아먹기 시작헛니까. 고구마를 한 칠십 년 팔십 년도 ㄱ지는, 고구마를 갈면서 처음에는 고구마 갈면서 중요 로 헛다가 이제는 절간 고구마, 워낙 생산을 그 옛날 고구마보다 고구마는 잘 들어 나서마썸.

101001 @ 예.

101001 #1 지금 나온 고구마가, 절간을 해서 마른 고구마.

101001 @ 예예.

101001 #1 마른 고구마를 헛면은 그걸 이 제 또 말려서 농협에서는 수메를 해서마썸.

101001 @ 예.

101001 #1 예 즉 말헛면 그 소주원료로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 갈기 시작 사다가, 그 게 이제는 저 구십 년대 썸 나가니까. 고구마 말린 고구마 허는 것 보다 전분 원료로 전분 원료로 이제 파는 것이 좋겟다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분 원료로 해서 헛 두어 번 헛 이 년 동안 육 ㄱ 큰섬에 가서 폴아오는데 아 것도 폴기가 까 다로운거라 이제, 경 헛고 또 이제 그 오염돈이엔 헛 사름이 거 우리 땅콩을 헤봄 시다, 땅콩. 그래서 땅콩을 갈기 시작 헛 거라 또 그 때부터 땅콩도,

101001 @ 예.

101001 #1 그래서 이제 고구마보다 고구마를 육지에서 폴랴고 헛니까 그 때는 절간이 육지에도 이제는 전분공장이 많이 잇다가, 공해가 웬다고 해서 전분공장도 육지에선 큰섬에선 못 허게 헛거라마썸. 그러니 이 므른 이 저 전분이 고구마 저 늘 고구마를 므음데로 폴아먹지 못헛 거라마썸.

101001 @ 예.

101001 #1 경 허난에 땅콩을 갑시다. 게 땅콩을 갈면서 이제는 또 땅콩을 이제

저 면에서 저저저 농협에서 몇 년 동안 추곡을 헤수다게.

101001 @ 예.

101001 #1 헝다가 몇 년후에는 이제, 농협에서도 추곡허기가 골란허다 이제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저 유통공사 깃지도 가야웨는데,

101001 @ 예.

101001 #1 유통공사에기 이 이 땅콩 사 들이걸 꺼리고 잇다에. 이제 수량도 적꼬 또 이제 그걸 또 저 원료로 누게 사 갈려고 앓고 또 이제 사먹는 사름이 없다.

101001 @ 예.

101001 #1 이렇게 헝니까 땅콩을 받아들이기가 골란허다 그렇게 말 헝기가 우리 막을 대표들이 국회이원을 데려가고 유통공사에 가서 우리 삼 년만,

101001 @ 예.

101001 #1 갈 테니까 삼 년 동안만 다른 작물로 교체 흙 동안 물색 흙 동안 좀 어떻게 기 달려헝니까 그렇게 허라.

101001 @ 예.

101001 #1 그렇게 헝는데 삼 년 쫓난 후에는 아 우도에 이제 관광객이 다녀가기 시작 헝수다게. 아 이제 관광객안티 이 걸 자기테로 저 수확 헝갓고 볏아 가고 푼니까 돈이 웨는거라마썸. 예 수지가 맞는거라마썸 그렇게 땅콩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헝서 춤 또 마늘도 이제는 그전에는 마늘도 쫓금씩 갈았는데 폴아먹기가 힘들엇수다게.

101001 @ 예.

101001 #1 힘들어 낫는데, 아 이젠 농협에서가 마늘을 수메헝갓다.

101001 @ 아,

105001 #1 아 이렇게 헝서 농협에서 수메헝갓다해서 계약헝지 계산 제 값도 많 이주지이제. 이렇게 헝니까 이제 또 마늘을 갈기 시작헝서마썸.

101001 @ 예.

101001 #1 경 헝다가 또 쪽파를 갈기 시작 헝 거라.

101001 @ 예.

101001 #1 아 쪽파도 이젠 같아보니까 아 그 씨앗용으로 저~ 절라도 보성 싸름 덜 또 충청도 서천 서산 이디 싸름덜 이제 아 쪽파를 이제 월료를 씨로 이제 막 사 가거든마썸. 아 것도 수지가 맞는거라마썸.

101001 @ 예, 종자로예.

101001 #1 예, 그렇게 헝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정착 웨기는 땅콩하고,

101001 @ 예.

101001 #1 이 저 아까 쪽파,

101001 @ 예.

101001 #1 마늘을 많이 갈다가 구십 년도부터 헝 이천 헝 십십오 년도까지는 십 헝 이삼 년도까지는 많이 갈다가, 이 제 마늘은 좀 수지가 맞추마는 이 힘들어마썸.

사람 빌어서 허곡 제 따시 그 게 뽕곡 뭘 흐기 힘드니까 이 쪽과는 기계로 흘 수가 있어마썸.

101001 @ 아~.

101001 #1 예예, 갑을 이제 시 섯가를 변동을 시세 변동은 심흐주만은 허기가 쉬우니까는 이제는 쪽과를 흐는거우다게.

101001 @ 예,

101001 #1 예 그래서 이제 쪽과하고 거이가 이제 그 땅콩농가 주 농작물로 많이 정착이 되어잇수다게 지금.

101001 @ 예 농산물로는예.

101001 #1 예예. 켌디 그 다음에 이제 저 마늘,

101001 @ 예.

101001 #1 마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ㄴ만이 네가 농스를 지어보니까 이제, 예~ 저 땅콩이 연작 피해가 있어 연작이 잘 안돼어마썸.

101001 @ 아,

101001 #1 두 해 계속 같은 피해가 있어마썸. 그래서 흔 해 놀랐다가, 흔 해 놀면 또 그 그르에 우선 마늘이나 쪽과나 같았다가 그 그르에 쪽과 같곡,

101001 @ 아,

101001 #1 또 쪽과 그르에 또 마늘 같고,

101001 @ 마늘 같고,

101001 #1 이렇게 교차하고 같니까 되고 또 이제 유채 같고 유채,

101001 @ 예.

101001 #1 보리를 갈라고 하니까 보리가 또 수지가 안 맞아마썸. 이 자기 기계 말리는 기계나 자기가 이제 비는 기계가 없는 사람은, 요 비는 품 말리는 품 주다 보니까 보리가 수지 안 맞아마썸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예 정부에서 또 우도가 이제 관광지니까 유채 환경축불금이라 해서 이런 제도가 잇으니까. 유채 갈 커든 갈렌 해서 이제는 유채를 같고 잇수다게 지금예.

101001 @ 예, 지금 현재예.

101001 #1 예, 유채 그리에 이제 유채에 어떤 사람은 보리를 가는 사람도 잇수다. 몇 사람 그래서 우도에는 보리가 지금 천 가마니 이상 나올 거우다.

101001 @ 아,

101001 #1 보리를 갈아 갖고 자기 기계 잇곡 또 자기데로 갈곡 비곡 물리곡 흐는 사람들은,

105015 @ 음,

105015 #1 이렇게 해서 한 삼백 가마니까지 흐는 사람이 잇수다 흔 두 사람은 지금.

101001 @ 아,

101001 #1 경 흐곡 또 그렇게 못흐는 사람은 그자 유채, 자기 소유에 잇는 사람

들은 흔 천 평이나 흔 이 천 평까지도 유체를 가는 사람들이 잇수다 지금.

105015 @ 예.

105015 #1 나도 이제 흔 저 이 천평 유체를 가는데, 이 지금 유체는 환경기불금
으로 해서 천 평에 흔 칠십만 원 나옵니다게. 저 영 흔곡.

101001 @ 아~.

101001 #1 보리는 뭐 천 평에, 흔 백 흔 이삼십 만원씩 나지만은 이것저것 따중
당 보면은 벨 이익이 없어마썸. 게 보리를 자연적 아까 말흔테로 자기테로 허는 사
름은 허곡 자기테로 못흔는 사름은 그자 유체 가는게 쉽수다게.

101001 @ 아, 경 헛구나예.

101001 #1 게서 그런 작물을 지금 같고 잇수다게 지금 현재는,
101001 @ 예. 저기 대충 전체에 대해서 산업도 말씀해 주시고,
101001 #1 예.

101001 @ 예 바다 일만 아니고예.

101001 #1 예.

101001 @ 예, 그거는 곱아주시예.

101001 #1 예, 바닷 거,

101002 @ 예 그거는 또 나중에 다 다르게 질문 허쿠다예. 예, 이 마을에 성씨 성
씨는 주로예 보통 이 성.

101002 #1 예.

101002 @ 성을 한번 저기 대부분 영, 곱아줍서.

101002 #1 예, 성씨는 우도이 으라 성이우다 지금.

101002 @ 예.

101002 #1 김, 이, 박이 잇고 첫체는예.

101002 @ 예.

101002 #1 김, 이, 박, 그 다음에 강씨도 이제 제비 강이 잇고 웬안 강이 잇고예.

101002 @ 예.

101002 #1 또 우리 한씨도 잇고 전씨도 잇고 이제 예~ 공씨도 잇고 임씨도 잇고
여기가 한 이십 성 이상 켈거우다. 지금예. 이십 다 허면은 게민 나가 기록을 해 보
면 알지만은 예~, 한 이십 성 가까이 켈거우다.

101002 @ 오씨.

101002 #1 예, 오씨 오씨도 잇고 정씨도 잇고.

101002 @ 정씨 송씨도 잇수과?

101002 #1 예, 송씨도 잇수다 송씨도 잇고.

101002 @ 송씨도 잇고 고씨~.

101002 #1 응 고씨도 잇고요. 으 아까나 고히량부,

101002 @ 고히량부예.

101002 #1 고히량부도 잇고.

101002 @ 고량부는 잇고예.
101002 #1 예, 우씨도 잇고.
101002 @ 우씨도 잇고예.
101002 #1 예.
101002 @ 최씨.
101002 #1 예, 최씨도 잇고.
101002 @ 어, 최씨, 희귀성 가진 아까 공씨엔 헛지예.
101002 #1 예, .
101002 @ 예 공씨,
101002 #1 공자,
101002 @ 예, 공씨 잇고예.
101002 #1 또 여기 편씨도 잇수다. 편씨,
101002 @ 편씨마씨.
101002 #1 예. 편씨도 그 사름 죽어벗는데 어머닌 살앙잇수다. 편○○ 이라고 으
작년이 죽어벗는데 경 우리도 앓이면 아 희성이 잇다고 영 헤나시명 이야길 험주마
씨게.
101002 @ 예. 변씨 잇수과 변씨? 변 가.
101002 #1 변씨가 변씨는 엇일거우다. 여기.
101002 @ 변 가없고예.
101002 #1 예.
101002 @ 최씨 잇고예.
101002 #1 예, 최씨가 잇고 체씨가 잇고.
101002 @ 아, 체씨 잇고예.
101002 #1 예.
101002 @ 체가 잇고,
101002 #1 최예 최씨가 잇고 체씨가 잇고. 전씨, 마씨도 잇고예.
101002 @ 나씨?
101002 #1 예.
101002 @ 마 마?
101002 #1 예. 임씨.
101002 @ 나~ 나씨?
101002 #1 임, 마 마 들 마 짜.
101002 @ 예. 마씨예.
101002 #1 예 들 마짜.
101002 @ 예, 임씨는 아까 잇고.
101002 #1 예, 임씨도 잇고.
101002 @ 나씨는 없고예.

101002 #1 수풀 림짜 림씨도 잇고.
101002 @ 아 림씨?
101002 #1 예, 수풀 림짜 림씨.
101002 @ 예 그러면 나씨 나, 나.
101002 #1 나씨~가 엇어 엇어마씨.
101002 @ 나씨는 엇고예.
101002 #1 예 나씨는 여기 우도 등테와네 우도 등테소장이 나씨우다.
101002 @ 아, 등테장으로예.
101002 #1 그 웨에 나씨는 엇일거우다.
101002 @ 아~, 그러면 석씨?
101002 #1 석씨도 엇수다.
101002 @ 탁씨 엇고예.
101002 #1 탁씨도 엇수다.
101002 @ 예, 거문 그 정도 쓰물예. 쓰물 여 남은,
101002 #1 쓰무 남으 성 뿔거우다.
101002 @ 예 쓰무 남으 성 뿔수다예.
101003 @ 예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은 농사 짓고,
101003 #1 또.
101003 @ 바당일 허고.
101003 #1 예 잠수들은 바다에.
101003 @ 바다에 허고.
101003 #1 바다에 허고예.
101003 @ 배 부리는 거.
101003 #1 예. 배도. 옛날에는 많이 헛는데 이제는예, 네저용으로 뱃기 허는 사람
이 없어. 또 구물 허는 사람.
101003 @ 그물?
101003 #1 예 그물을 으 저저 허는 사람이 흔 배가 너땃 척 서너 척 뱃기 안 뵤
어. 수지가 안 맞아 이젠 구물 헤봐야.
101003 @ 지금 그물 해 가지고.
101003 #1 예.
101003 #1 절문 종사 헐랴고 사람도 없고 이제는 관광업에 많이 종사를 헤 부는
거라.
101003 @ 관광업에,
101003 #1 예, 오도바이 ㄱ뽏거예.
101003 @ 예.
101003 #1 예 이런 거 허지 장사 허지 이렇게 헤서 허고 또, 바다에 종사헤 봐야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말라 버려서마씨. 그러니 구물을 안 허는거라. 구물뻘을 헤봐야

수직 안 맞는다고 해서.

101003 @ 주낙도 주낙으로.

101003 #1 주낙도 엇고마씨.

101003 @ 주낙도 없고예.

101003 #1 예.

101003 @ 저기 소 키우거나 몰.

101003 #1 소 키우는 사람도 지금, 데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두 사람이 죽어부러. 혼 백 므리덜 키우는 짜름덜이. 갑자기 혼 사람은 즈술 행 죽어불고 혼 사람이 암 결연 죽어불고 혼난에. 지금 뭐 소 키우는 사람이 소 혼 서너 므리 키우는 사람이 혼 사람이 잇일울거우다. 으 특구로 잇는 사람이.

101003 @ 예.

101003 #1 이저 우리 우도에 양특구라고, 이제 현재 면사무소에 특구~. 도서지역 특구라고 그 사람이 혼 몇 므리 질람실거우다.

101003 @ 예, 돼지 키우는 사람.

101003 #1 돼지 키우는 사람도 혼 사람 잇다가 하도 마을에 말썽도 나고 헤가니까 또 그 사람이 돈 벌만이 벌어서, 혼 이십 년 동안 벌어지니까. 이제 괴롭고 허니까 이제는 폐기시켜 부러수다.

101003 @ 닭.

101003 #1 예,

101003 @ 양계 허는디는?

101003 #1 양계도 양계도 아녀고,

101003 @ 양계도 엇고예, 공장도 공장은 저기 저기 녁미역허는디 공장이라 나신디 이제는,

101003 #1 것도 아녀고 우도 땅콩허는디 이제 가공공장이 하나 잇수다. 가공 해서 이제 푸는 사람 그건 이제 거 우리 저 조합으로 헤갓고,

101003 @ 예, 조합으로,

101003 #1 예 땅콩 가공 공장에 예그 감사로 헤기네 이천 삼백만원 출자도 헨 잇고예 헤네 허니까 이제 가공공장에서 일 년에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 험수다.

101003 @ 아~.

101003 #1 삼 년 동안에 그삼십억 보조를 받아네 시설을 허고 상품개발을 허고 헤네, 삼 년 동안 준비허단 보난에 금년부터 시작을 허는데 금년에 한 만 오천기로, 땅콩을 수메 헤갓고 지금 보끄명 풀암수다.

101003 @ 아~.

101003 #1 예 경 허곡 또 그 이 웨로, 땅콩만 푸는 게 아니라 땅콩을 가미헤 갓고도 다른 상품도 개발헤연 허고.

101003 @ 응.

101003 #1 또 그 웨로 미역 ㄴ뜯거,

101003 @ 예.

101003 #1 또 툇 ㄹ똥거, 이 지역에 생산되는 거니까. 똥시 이제 저 ㄹ미자 ㄹ똥똥
ㄹ똥 거. 이런 것도 풀고,

101003 @ 예, ㄹ똥고예.

101003 #1 이제 저 ㄹ꺠리 향토주로 해서 저 제주시에 가서 이제 그 공장에, ㄹ꺠리
기계를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비싸니까 아적은 우리가 살 준비가 안돼어네,
저 제주시 ㄹ꺠리 공장에 위탁 해어네,

101003 @ 예.

101003 #1 겐, 거기서 이제 제조 해당 허고 우리가 여기서 풀암수다게.

101003 @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 허는 어른덜은 저기,

101003 #1 일허는 사름은 세 사름인디,

101003 @ 예.

101003 #1 아적은 그 이제 공장이 한정적이라노니까.

101003 @ 예.

101003 #1 보까그네 이제 ㄹ는 일만 해노니까.

101003 @ 예.

101003 #1 아~ 이제 또 월요도 준비가 돼고 자본도 또 준비가 안 돼서마씨.

101003 @ 예.

101003 #1 자본이 어렵수다게.

101003 @ 예, 경 허고,

101003 #1 저 지금 한 이억 삼천만 원아치 저 땅콩을 수메해네, 에 그걸로 더러
ㄹ꺠리 허는 디도 보내주고 월요로예.

101003 @ 예.

101003 #1 또 그 타 그 웨로 가공허는 상품이 이수다게.

101003 @ 응.

101003 #1 경 해서 이제.

101003 @ 거문 여기 저기 예전에는 뭐 그 옛날에 이삼십 년 전에는 그니까 그물
똥그네예 배도 부리고.

101003 #1 예 배도 해나곡.

101003 @ 줌수도 허고 해신디 이제는,

101003 #1 예.

101003 @ 대부분 식당허고,

101003 #1 예.

101003 @ 우도 사름이 험지예.

101003 #1 예.

101003 @ 식당허고 펜션.

101003 #1 펜션.

101003 @ 식당 숙박업 허고. 마트 허고.
101003 #1 마트도 허고 마트도 뭐 마트도 두 곤데 뿐이우다. 농협 마트허고.
101003 @ 아~.
101003 #1 또 그린 마트라고 개인 사름이 허고.
101003 @ 예, 상점,
101003 #1 그 전이는 이 우도에 각 마을마다 저 점빵.
101003 @ 예, 점빵.
101003 #1 이 가게가 잇어나수다게.
101003 @ 예.
101003 #1 게 메일 그 가게에서 저 동남 마튼디 출입 해그네, 여기 이제 생활 필 수품, 첫체는 식료품.
101003 @ 예.
101003 #1 이제 반찬거리를 해다가 풀았는데, 이제 마트가 다 독점 행 잇수다. 마트가 독점행 풀아부니까 이제 가게덜도 수지가 안 맞는 거라마썸.
101003 @ 예~.
101003 #1 계난 각 마을마다 가게 설러분지도 이거 흔 십 년 이상 됩수다.
101003 @ 마을마다예.
101003 #1 예, 구좌 농협마트가 다 독점을 해 해서 풀아부니까 농협에서 이제 전부다 우리 반찬거리나 머이나 다 농협에서 폰니까.
101003 @ 예.
101003 #1 예, 그렇게 해 버리난 이제 이 가게가 이제 전부 엇어져불고,
101003 @ 그러면.
101003 #1 쌀 마튼 것도 옛날엔 흔 사름이 쓸도 이제는 그 공급을 허다가 이제 는 것도 농협안티 일러부련, 농협이 다 말안 해 불이고.
101003 @ 거문 바다에서 레저 저기 관광객을 상대로 허는 그런 일들은,
101003 #1 낚시배는 흔 두어 척 잇수다. 허가 받은 낚시배는 잇수다.
101003 @ 낚시배는 거 허고,
101003 #1 예.
101003 @ 또 저기 영 돌아보니까는 해수욕장에, 그 직업들이 막 하합디다 오토 바이라든가 뭐,
101003 #1 예.
101003 @ 그런 것들은 허는 사름들은 누구?
101003 #1 거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름들이.
101003 @ 아~, 젊은 사름들이.
101003 #1 거 돈을 많이 번 답니다 그거, 오도바이 하루 흔 시간에 빌려주면은 이만 원도 반곡 삼만 원도 반곡 허는데 오도바이 빌려주면, 거 돈을 엄청나게 벌어 노니까 아, 심지어는 막 농스허던 사름덜이 막 농사도 설러버려두고 거이 다 종사

를 햄서마썸.

101003 @ 아~.

101003 #1 계난 우리 저 우도 사랑 협동조합도 그걸 해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잇수다게. 켜디 그 건 해안가에 자기 기지가 있어야돼여.

101003 @ 예.

101003 #1 그 차를 거기 놔야 되니까. 직접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면 직접 눈으로 보니까.

101003 @ 예.

101003 #1 아, 그렇게 해도 난 우리 거 데포 되는 사람하고 우이 중앙지에 차고지를 멘들아 갖고 직접 인터넷으로 우도에 오면 좀 거기보다 헐허게 홀 테니까 여기 배에서 저기 사람덜 하고 약속 해 갖고 차로 그 사람덜을 실러다가 그 장소에 놔 갖고 오도바이를 빌려주면서 허는 방법도 잇지 않으나.

101003 @ 예.

101003 #1 그렇게 이야길 하는데.

101003 #1 우선은 자기 기지가 있어야돼어마썸. 그 앞에 놔 갖고 해야 그 싸름덜 안티 그 빌려주는 게 좀 쉬운 모양이라마썸.

101003 @ 그 젊은 사름들은 보면 들어오당 보니까는 그 배에예.

101003 #1 예.

101003 @ 막 그 안네 허고 주차를 허고.

101003 #1 예 그 안전요원, 안전요원예.

101003 @ 안전요원덜도 다 우도 사름들이 허는거 아니웃과예.

101003 #1 예. 지금 선원덜 배에 오를 떡에는 이제 여기서 배에 오를 떡이는 우도 사름들이 하고,

101003 @ 예.

101003 #1 또 성산포 주차장에서 저 뭐 허는 사름들은 그 성산포 부두 부두에 위탁을 줘 분거라마썸.

101003 @ 아,

101003 #1 선원 노조에,

101003 @ 예.

101003 #1 노조가 그 안전관리 노조에서 말앙 허라. 여기에 거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그전에는 종사할 사름이 잇었는데 이제는 오도바이 헨 수지가 맞아노니까. 오도바이 종사행 돈 벌랴 하지 이건 뭐 혼 들 해봐야 이 백만 원 미만 받으니까 오도바이는 몇 백 만원 버는 모양이라. 오도바이 종사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도 사름 몇 사름 종사햐수다 거기 이제.

101003 @ 아~.

101003 #1 배 선원들은 이웨에는 이제 선원들토 멧 사름이 엇수다. 다 이제 저,

101003 @ 외지에서.

101003 #1 예, 웨젯싸름덜토 멧 사름 잇수다.

101003 @ 성산포 성산포 사람덜.

101003 #1 예 배.

101003 @ 월급 받았 허는 거난예.

101003 #1 배 네 척, 저 열 에 배가 지금 혼 일곱 척인가 으덱 척인가 되는데 , 으섯 척인가 일곱 척인가 되는데, 전부 거 그중에는 한 삼십 프로가 다 웨젯사름이 우다. 지금 이제 본도사름은 육십 프로벳기 안돼마썸.

101003 @ 것 벳기 안 돼고예.

101003 #1 예. 게고 그거 큰 월급은 아니니까. 막상 해봐야 뭐 그 선원들도 이제 백 오십 만원에서 이백 만원 그 사이 받았실거우다. 아 그렇지만 좋은 월급 아니웃 과게. 집이서 잠 자곡양 지금 허는 거니까 좋은 월급인데 얼마 받는지는 모르쿠다 지금, 우리 떠 나도 주주주마는예, 월급은 얼마 메 월급은 얼마 받는 사름이 멧 사 름 멧 사름 이렇게 이야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해마썸.

101003 @ 예.

101003 #1 그냥 인건비 얼마, 으 토탈로 토탈로만 이야기흐니까. 혼 사름이 얼마 썸 받는지는 난,

101003 @ 삼춘 대략 작년에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 이익 배당금은 어느 정 도 받았수과. 그 배에 관해서는.

101003 #1 예~ 게난 우리가이제 일단은 저기에 출자를 헐 거 아닛과.

101003 @ 예.

101003 #1 게민 이젠 배에서 빚을 지는 거 아닛과.

101003 @ 예.

101003 #1 게난 배에선 별면 걸 출자헌 걸 우리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데여를 데 여금을 갚아 지는 식으로 흐는거니까.

101003 @ 예~.

101003 #1 흐는데, 보통으로 그자 예~ 보통 혼 삼천만 원 출자헌 사람들이예.

101003 @ 예.

101003 #1 이천삼 년도에 삼천만 원 출자 헌 사름들이 혼 들에 그자 혼 백만 원 썸 받아마씨 예.

101003 @ 아~ 이천만 원.

101003 #1 그리고 천오백 만원 출자헌 사름은 한 오십만 원 경 받았수다.

101003 @ 이자.

101003 #1 게난 이자보단 훨씬 많이 나옵주.

101003 @ 훨씬예.

101003 #1 이자는 천만 원이에 지금 삼천만 원이면은 지금 농협에 지금 정기예 탁은 혼 게 저저, 십육 프론가 십칠 프로 벳긴 안돼우다. 십칠 프로면은 저 천만원 에 십칠만 원 벳긴 더 되는것과게.

101003 @ 예 십칠 프로면은 일 점 칠 프로얘기허는 거지예.
101003 #1 일 점칠 프로 예예.
101003 @ 예 맞추다예.
101003 #1 일 년치는 십칠 프로 벳긴 안 돼는 겁주.
101003 @ 예. 그런 사름들이 이제 금액에 따라가지고예.
101003 #1 예.
101003 @ 한 오십명?
101003 #1 예.
101003 @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예.
101003 #1 예 예 예.
101003 @ 그리고 저기 조합이 여럿이니까는예.
101003 #1 예 예.
101003 @ 이것도 만만헌 거는 아니우다게.
101003 #1 겐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천, 이천 이 년 도예, 신규로 들어 갈 적에는 삼십억 투자를 해놔수다.
101003 @ 예.
101003 #1 배 세 척에, 네 척에 그걸 깎으로 환산 해갖고, 출자를 해고 또 우도 사랑은 돈을 모안 지어오단 보니까 스십 억 인가 걸려놔수다. 겐 배 두 척을 짓고, 그 뎨 셋갑이 헐허고 헐 뎨디 지금은 배 이상 줘야 됩니다.
101003 @ 예 예.
101003 #1 배 이상 줘도 못 험니다.
101003 @ 예 예.
101003 #1 이번에 우리가 배 저, 예 삼백 톤급짜리 하나 지어오는데 헐 스십억 이상 걸려실거우다 지금,
101003 @ 아,
101003 #1 그 전에는 이제 전부 함청 오백 톤급짜리가 삼십억 벳기 안걸려놔는데 지금,
101003 @ 예.
101003 #1 경 헐 스 십억짜리 경 예 삼 십톤짜리가 하나에 스 십억 이상 걸려마 씬 그러니까 이제는 벨 수지가 배 배도 저거 연령이 여녕이 잇거든마씨.
101003 @ 예, 연령이 이서예.
101003 #1 저거 이 십 오 년이 못 운영 허거든마씨.
101003 @ 예예.
101003 #1 아무리 좋은 배라도 이십오 년 뎨민 딱 폐기 시겨야 뎨여마씨.
101003 @ 예.
101003 #1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든지.
101003 #1 예. 유조선하고 도 도항선하고 또 차이가 이신디, 유조선은,

101003 @ 예.
101003 #1 삼 십 년까지 돼고,
101003 @ 예예.
101003 #1 도항선을 이 십 오 년까지 더 못 헤여마씨.
101003 @ 예예 맞수다.
101003 #1 계난 이게 도항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십오 년이민 배 여녕이 끄
나는 모양이라마썸 지금은.
101003 @ 계난 지금 현재는 농사 일 보다는 관광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101003 #1 예, 경 하고.
101003 @ 이 저 운송업이다예 배하니간예.
101003 #1 예예.
101003 @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공장.
101003 #1 공장을.
101003 @ 특산물 해서 공장이라마씨.
101003 #1 공장을 공장도 없서마씨.
101003 @ 공장도 없고예.
101003 #1 예.
101003 @ 그럼 바다 잡녀는 어떻 됩수과.
101003 #1 잠 잠 줌수는 이제, 현재 지금, 예~ 막 젊은 줌수가 지금 오십 세우다.
101003 @ 예.
101003 #1 젊은 줌수가. 오십 세고 늙은 줌수가 이제 구십 하나 쉰 할망도 우리
집 할망도 잇고 경 흔데.
101003 @ 아, 구십하나예 예예.
101003 #1 앞으로 문제는 삼 십년 이 십년 후 삼 십년 이후에는 어떻게 이 지역에,
101003 @ 예.
101003 #1 그 바닷물을 누가 따 갈 건고예,
101003 @ 예.
101003 #1 천초나 툇이나 이건 헤마다 나거든마썸, 육지에 풀 저 나듯이 저 풀
나듯이,
101003 @ 예.
101003 #1 떼가 돼거든 나 거든마씨 나는건데 저걸 어느 사람이 왕 수확 할는지
모르쿠다.
101003 @ 예~.
101003 #1 예, 지금예. 지금 천초덜도 더 남서마썸. 우리 할망도 지금 금년에 지
금 팔십 쉰데, 이 쓰물다섯 게가 천초 저 삼 십 키로짜리,
101003 @ 예.
101003 #1 그 전에는 열 게도 못 허다가, 헤 마다 점점 더 왓서. 천초가 이제,

101003 @ 아,
101003 #1 또또. 이제 해에 따라그네 잘 나는 해도 쫘 잇고 안 나는 해도 잇수다
마는 그레도 쓰무 게 안들진 안해여마씨.
101003 @ 예~.
101003 #1 거 툃이 문제우다 툃이, 툃을 저거 케면은 여기 사람 사람이 없어.
101003 @ 예.
101003 #1 사람을 빌지 못 허여.
101003 @ 예.
101003 #1 계민 곳에 사람을 빌어당 제와 제우면서, 이제 그 툃을 헐려고 허면
은, 지금 인건비도 많이 췌야 돼고예. 도 이디 왕 자면서 헐려고 허는 사람이 없어,
지금.
101003 @ 예~ 그거는.
101003 #1 그레서 여기 와서 이제 툃 하루 케 영 비는 거, 흔 시간 헐민 세 시간
하는 거 오만 원씩 줍니다. 또 영.
101003 @ 그 것도 하루니깐예.
101003 #1 예. 영 지어 네는 거, 지어 네는 거 딱시 십만 원씩 줘야 돼어 세 시
간 일 현 거에.
101003 @ 지어 날르는 건 남자 어른들이 허는 거 아니웃과예.
101003 #1 남자들이니까 그건.
101003 @ 예. 툃 마중이엔 험니까.
101003 #1 예, 툃 마중이라고 허면서, 십만 원씩 줘야돼어 하루.
101003 @ 십만 원씩예.
101003 #1 그 난에 어중간이 툃 해봐야 인건비 들어볼고 해 가민 벨 그 것도 수
지가 안 맞으크라. 옛날에는 자 그 동네 사름을 쓰고 헛는데.
101003 @ 예, 그 일 뱃기 엇어부니까.
101003 #1 예 예. 그 때도 사름이 많으니까 저 호수가 줄어드는 거라 지금.
101003 @ 예.
101003 #1 예 다 늙어버리고 젊은 사름은 없지 젊은 사름이 얼마 없어마씨 지금.
101003 @ 예.
101003 #1 계난 이 나중에 바닷물에 바다엿 거는 해 마다 이제 그 때가 돼면은
이제 생산이 췌 건데 날 건데 이 걸 누가 췌 건고 다 늙어버리면 지금,
101003 @ 예.
101003 #1 예, 지금.
101003 @ 물고기도 누게가 잡을 지도 모르쿠다.
101003 #1 계난 네가 삼십 년이나.
101003 @ 이 바당에 고기 췌기도 잡을 사름이.
101003 #1 고기 고기가 없어마썸.

105015 @ 고기가 엇어예.

105015 #1 고기씨가 물라 버려마썸. 구경을 못허여 옛날 우리 어릴 떡이는 뒤
돛, 돛이다 북바리다 응 뒤 저 웨유다 아니면은 굶 구름맹이다 니면 다금바리다 헛
는데예. 지금 구경을 못해마씨. 완전 씨가 물라버려가지고.

101003 @ 씨가 말라버려 가지고.

101003 #1 또 전복도 씨가 말라 전복도 전복도 구경을 못 해마썸. 여기 지금 전
부다 상가에서 푸는 거 이 저 완도서 사당으네 해당 풀암서마씨.

101003 @ 예, 전복은예.

101003 #1 여기서 토종 아니우다 전부다.

101003 @ 오분제기는 아예 꼴을 못 보고예.

101003 #1 오분제기도예 흔 이십년 동안은 많이 나다가 엇어진디가 흔 삼스 년
후에는 엇어져 버셔 으 싹하니.

101003 @ 아, 이십 년 동안은 잘 낫구나예.

101003 #1 예, 흔 삼 십년까지만 흐여도게 흔 스오 년까지만 흐여도 우리 할망이
메날 가도 이 키로 스오 키로 해왔는디,

101003 @ 아, 오분제길틀마씨?

101003 #1 예. 이제는 구경을 못흐크라 물라 불언 어느 아침에 갑자기 물라 불엇
다고 지금 예.

101003 @ 아~예.

101003 #1 그렇게 흐고 소라도 여기는 이 어장이 흔 군데 어장이 아니우다게. 어
제 어촌계는 행정적으로 네 군데지만은, 바다는 딱시 으숫 군데가 뒤후다 바당은.

101003 @ 예.

101003 #1 그러니까 이젠 그 바당 관리를 누가 흐느냐 어촌계장도 못 헉니다. 어
촌계장도 법으로 흔 건 돼지. 그 동네 즈수회장,

101003 @ 예.

101003 #1 그 동네 부락장 어촌 어장 어장 관리를 흐는데, 이 부락장들은 무관심
해버리는 거라.

101003 @ 예.

101003 #1 또 즈수회장도 자기 즈수질 흐고 뭐 흐고 흘라흐당 보면은 관심을 안
두어. 계민 준 소라 ㄱ뜨거 봐지면 특히나 늑신네 할망들이 보아지면 늑 몰래 잡아
다가 못아그네 어릴 때 부떠 먹어 불기 시작허는 거라. 경 허민 상품 돼기전에 빨
씨 반 이상은 죽어버리는 거라.

101003 @ 아~ 기간을 저기 뭐 못헤영 예 간수 못헉.

101003 #1 예 경 허민 그걸 즈수덜,

105015 @ 예.

105015 #1 그 사람덜이 그걸 준 소랄 잡지 못허게 해야웨는데, 이 늑은 늑신네
보아지면은 나 보아질 거 저 소라는 이제 크면은 커갈수록 저 먼 바다로 나가거든.

101003 @ 예.

101003 #1 먼 바다로 나가면은 상군들 상군덜 허여 상군덜 그 사름들이 따 먹을 거라 그, 늙은 할망덜은 이 곳에 잇을 떡에 따 먹는거 뿐이거든.

101003 @ 예.

101003 #1 경 허난 나 뭐 따 먹지 못할꺼, 눈에 봐진 거나 따 먹쫄텐 허기네 누가 말도 안허민 슬쩍슬쩍 헤가멍 저저 따 먹어볼민 상품 돼기 전에 쉼 케영 보면은 벨 물건이 없어. 또 이 네중에 따시 이제 물건을 헤저 헤도 굿덜거 예.

101003 @ 예.

101003 #1 메 흥 지금 스 월 들 부떠 금지허기 시작 합니다. 구 월들 구 월말까지 흥 육 개월 동안 금지허면 그 동안 이제 관리는 돼어 이제, 쫄끔씩허멍 관리는 흥는다 또 이따가 나이롱 그물배 나일롱그물배들이 밤이 왕 그 어장에 왕 슬쩍 낚당 건너가 나이롱 그물 이 저 소라가 밤이민 영 물 중간에 나 거든마씨 이동 흘떡에, 케민 그물에 걸리는 거라. 경 행 거기서 저 따 가버리지 예, 예예 걸어그네, 따 가버리지,

105015 @ 음,

105015 #1 이렇게 흥지 또 이 헤지허민 굿덜거만 상군들이영 뭐 ㄴ짜 굿덜거만 따 먹는거라. 게 먼 바다엿 건 흥 동네에 흥 두 세 사름씩만 잇는거라 상군덜,

101003 @ 예.

101003 #1 단 십오 메다 이십 메다 들 수 잇는 사름들이 흥 동네에 두세 사름벳기 안 됩니다. 그 사름들은 지네만 독점헤여, 메날 가민 이십 만원어치 오십 만원어치 잡는 거라 그 싸름덜은 메 날, 세 바당 세 바당 허멍 겐디 늑신네 우리 할망덜은 걸 저 헤경 흥 는 날은 잘 흥민 이십 키로 강 따 오면은 그걸로 쫄나는 거 상군덜은 ㄴ짜 따고 뭐 헤볼면은 굿디는 없어 따기 쉬웁고, 또 바다가 좁고 뭐 헤 노니까 게도 우리 할망은 그자 처음 소라 그자 따 오민 나 처음 얻어먹어 본 양 못 얻어먹어 봅니다게 지금.

101003 @ 응~.

101003 #1 겐 다음에 보민 상군들은 십오 메다 이십 메다 즈수질을 흥는 사름들은 날 가면은 삼십 만원씩 잡앗저 이십 만원씩 잡앗저 이렇게 헤그네게 경 헤그네 여기 상군덜은 잘 버는 싸름덜은 천초 허지 천초 허여그네게 삼썸 키로짜리 한 삼사십 개씩 만들어 잡지 도 소라 잡지 이 영 흥다 보면은 한 이 천만원 천오백 만원이천 만원 그렇게 돈벌이 합니다. 상 상군들은,

101003 @ 연 소득이예.

101003 #1 예, 우리 할망들은 헤 봐야 저 저 천초 헤 봐야, 그자 허면은 흥 삼백만원 흥 오백 만원쯤은 벌주 우리 할망은.

101003 @ 천초로예.

101003 #1 예, 팔십 난 할망이주만은.

101003 @ 예, 경 헤도예.

101003 #1 이 것 저 것 다 합치면은, 계난 줌수라고 다 벌지 못헤여마씨.
101003 @ 예.
101003 #1 삼백 만원 버는 사람 오백 만원 버는 사람 천 만원 버는 사람 이천 만원 버는 사람 부부가 썸.
101003 @ 계민 바다에 관리허게 되면은 이녁네 어장만 가는거 아니웃과예.
101003 #1 예 계, 예예.
101003 @ 딱 경계 헤기네예.
101003 #1 옛날 우리 하르방네 저 듬북.
101003 @ 예.
101003 #1 옛날 듬북헤기네 그걸 비료로 헤기네 헤 먹엇거든마씨.
101003 @ 예예.
101003 #1 경 행 하르방 때부터 듬북 김이 있어.
101003 @ 예.
101003 #1 듬북 헤 먹어난 그 계 경계라 원칙으로는, 좁은 단일 어촌계면 단일 어장이 돼야되는데 법이 필요엇수다게 어촌계에.
101003 @ 바탕으로.
101003 #1 행정적으로 말만 경 뗏지 어장은 다 구분 돼어잇수다 옛날식,
101003 @ 옛날식 그테로예.
101003 #1 단일 어촌계에 단일 어장에 단일 어촌계가 돼야 되는데, 경 뗏질 아녀 마씨. 이게 이 마을에도 다섯동고 크고 어촌계가 허난데 어장이 지금 네 계로 갈라 졌수다 네 계로 지금.
101003 @ 예.
101003 #1 네 계로 다섯 계로 갈라젓수다.
101003 @ 아~.
101003 #1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양 이 늬 또 어장 때문에.
101003 @ 어장은 어디 어디 무슨 여 무슨 여는 어디 저기 다섯 개민 어떻게 갈라 질것과.
101003 #1 여기 오봉리민예.
101003 @ 예.
101003 #1 오봉리 안네 이 주흥동 저저 상고수동 이제 상하고수동은 툄 빠당은 툄려마썸. 툄 케는디는.
101003 @ 예.
101003 #1 경 혼디 수십초, 천초허는 거는 그찌 허여 옛날 풍습이.
101003 @ 예.
101003 #1 경 뗏잇고 전흥동 삼양동 상고수동.
101003 @ 예.
101003 #1 거기도 툄 바당은 다 툄려.

101003 @ 툄 바당은
101003 #1 다 툄러마씨.
101003 #1 거기도 수심초.
101003 @ 예.
101003 #1 뉘 옛날 하르방덜 기성훤 바당은. 무신 거 바당은 구실 부찌멍 바
다를 다 찢라 낫다고 이렇개 헤 노니까.
101003 @ 예~.
101003 #1 이 바다 따문에예 참 감정덜이 감정이 아넛네다게.
101003 @ 수심초가 저기 우미를,
101003 #1 우 우 우미.
101003 @ 우미를 저기 저 수심초엔 험구나예.
101003 #1 예 우미를 수심초엔 허곡.
101003 @ 수심초는 이기 저기 소섬 말잇과?
101003 #1 예게 우리 소섬에.
101003 @ 소섬에는 수심초렌 험니까?
101003 #1 천초게 천초~ 천초.
101003 @ 천초를 수심초렌 험니까?
101003 #1 예예 물쑤에 잇이난게 물 쑤에 잇이난.
101003 @ 아~, 예 천초를 소섬에는 수심초엔 험구나예.
101003 #1 예예, 툄 그뉘 것은 물이 쑤면은 쉼 수가 잇고, 저 천초는 머 곳디서
도 물 쑤면은 쉼쑤가 잇주만은.
101003 @ 예.
101003 #1 으세는 물 쑤에서 케니까는.
101003 @ 그 수심초엔 험구나예 저 소섬에는예.
101003 #1 예 천초 천초.
101003 @ 천초를 수심초엔 허는구나예.
101003 #1 수심초엔도 흙주마씨게.
101003 @ 아, 수심초 그냥 옛날,
101003 #1 물쑤에 잇는 풀이다 허는 말인데.
101003 @ 예.
101003 #1 겐디 천초가 주릅쑤게 천초.
101003 @ 천초가 주로예.
101003 #1 우뉘가사리 우미 우미 우뉘가사리엔도 허고.
101003 @ 예 우미엔도 허고 천초엔도 허고예.
101003 #1 예 또 이 걸 한천 월요일로 나가거든마씨 한천 월요일로.
101003 @ 예 예예, 게난 우뉘 말 우도에서 곤는 말.
101003 #1 예.

101003 @ 우도에서 곧는 말은 그냥 우미?
101003 #1 예 우미 우미.
101003 @ 우미예 예예, 그,
101003 #1 켜데 우미도양 잘 나는 바당 잇고 소섬도,
101003 @ 예.
101003 #1 잘 안 나는 바당 이서마씨 우뒤는.
101003 @ 예예.
101003 #1 이 동네가 제일 우뒤 많이 납니다.
101003 @ 주흥동이?
101003 #1 예 저 우리 전흥동.
101003 @ 예.
101003 #1 삼양동. 이 상하고수동이 제일 많이 납니다.
101003 @ 아~. 우미는예.
101003 #1 우미 우미는.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이 우도에 오름,
101004 #1 예.
101004 @ 내, 바위, 굴 같은 것이 잇어민 소개해 줘씨.
101004 #1 켜데,
101004 @ 오름은 우도봉,
101004 #1 게메 오름은 저 저 뭐 저 서머리,
101004 @ 서머리.
101004 #1 서 서 머리엔 험주게 여기선, 소 소 머린데.
101004 @ 서머리.
101004 #1 서머리엔도 이렇게 허고 굴은 여~디 가민 오상땃굴이엔 헤그네 그 헤
안까에.
101004 @ 예.
101004 #1 쪼꼬마현 굴이 흥나 잇어마씨.
101004 @ 오상땃굴
101004 #1 옛날에 오상땃이란 사람이 그게 어떤 목적으로 행 거기 숨어 낫다가
네중에는 관에서 알안에 잡여 갓다고 흥는디 잡현에 그 사람이 이에 잡혀갓다고 하
는데, 예 또 그 사람 시체가 딱시 여기 잇젠 말도 잇고 그게 정확흥지 못헤여마씨.
오상땃 굴이엔 홉쭈. 거기 잇고. 또 저~ 포경 소섬 밋테 가면은 굴이 잇는데 그 건
무신 굴이엔 흥는지 몰라마씨. 거기도 굴이 잇긴 잇서 거기.
101004 @ 음.
101004 #1 그거 완전히 탐지를 안헨 잇수다게. 그 게 절~로 강 저 서머리 밋트
로 가민 나올 수 잇다고도 말이 잇고.
101004 @ 어디로 들어가민마씨.

101004 #1 저저,
101004 @ 예.
101004 #1 밑에 굴이 잇수다게 거기,
101004 @ 글로 허면은 저쪽 서머리로 헤그네,
101004 #1 서머리로 나올때도 잇고,
101004 @ 헤보진 안허고예.
101004 #1 헤 보진 아녀쑤다 그 깐지 통해 잇다.
101004 @ 예.
101004 #1 이런 말도 잇는디 누가 탐색을 흔 적이 엇수다.
101004 @ 그 디 저 동굴 잇인디예?
101004 #1 예 그 디에 동굴이.
101004 @ 뭐렌 험니까 그 디는?
101004 #1 그 디에 주간 명월~ 그 굴이엔 흐는 디가 잇는데, 그 굴인데.
101004 @ 예.
101004 #1 그 굴 안네 들어가 안이 들어가면 헤식 굴입쑤게. 헤식 헤식굴이라.
101004 @ 예.
101004 #1 헤식굴이고 이런 천정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보아 납디가?
101004 @ 아니 저 사진만 봐수다.
101004 #1 바위가 이렇게 둥구렇게 돼 잇서.
101004 @ 예.
101004 #1 바우드령에 꼭 달 ㄴ치.
101004 @ 예.
101004 #1 돼잇고 가을에, 헤가 남쪽으로 갈 떡에는, 한 열두 시쯤이는 그 게 반사 돼어마쑤. 그 게 물을 비추면 물은 또 그데로 반사 헤어마쑤.
101004 @ 예.
101004 #1 그 돌이 불그스름 현 모양이라.
101004 @ 아,
101004 #1 그래서 그 때 옛날 오십 년도에 그 어느 지방검찰청 검사장 싸름이 그 디 잇다고 헤서 그걸 보레 왔다가, 실지 봐신ㄴ라 주간 명월이라고 헤서 그 사람이 지왔다고헤 주간명월이라고예.
101004 @ 아 주간명월.
101004 #1 또 우도 팔경이렌 흔 사름은 팔십일 팔십이 년도에 김찬흠, 그 교장이 라고 이수다.
101004 @ 예.
101004 #1 저 향토사학잔데 육성 휘장 때 여기 저 교장으로 와 나수다게. 그 분이 향토에 관심이 만헤연, 참 옛날 이 지역 사름덜 신분들도 잘 압디다게.
101004 @ 예.

101004 #1 향토 사학가니까.

101004 @ 예.

101004 #1 옛날 여기 독립투사덜 잘 내용도 잘 알고 해서, 나 우도에 와서 하나 우도 팔경을 이 하나 지어뎡 가쿠덴 경 헨 춤 우도 팔경을 지영 가십주게, 우도팔경을,

101004 @ 나 잘 모르쿠다 곱아줍서.

101004 #1 우도 팔경 모릅네까?

101004 @ 예 잘 모르쿠다.

101004 #1 이런.

101004 @ 하나하나 곱아줍서,

101004 #1 계도 저 천지.

101004 @ 예.

101004 #1 계민 저, 이 여기에 잇실건디, 천지 주야 예,

101004 @ 예.

101004 #1 천 주간명월 또 천진관산,

101004 @ 예, 관산예.

101004 #1 천진관산하면 저 도항성 들어오는데 잇잖웃과?

101004 @ 예.

101004 #1 그디서 할라산을 보면 그렇게 산이 고와.

101004 @ 예.

101004 #1 보기 좋지 아넛과게.

101004 @ 예예.

101004 #1 저 시에서 보면 악산이라고 산 ㄱ따보지 안하는데 여기는계 천진관산 이라하고 주간명월 아가 나 말 헌디가 잇고예.

101004 @ 예.

101004 #1 또 서빈백사.

101004 @ 예.

101004 #1 으서빈백사는 서쪽에 그 백사장이 잇잖웃과.

101004 @ 예.

101004 #1 또 동안경굴.

101004 @ 예.

101004 #1 또 예, 주간명월도 헛고 천지 주야 또~, 주야 주간명월 으, 아까 뭐이 엔 천~ 주~ 헛수과?

101004 @ 서빈백사, 동안경굴,

101004 #1 동안경굴예, 저 주, 야흥어봉, 주간명월, 아저 주간 양.

101004 @ 주간명월예,

101004 #1 아, 주간명월 주~ ㄱ만 잇자,

101004 @ 거문 이 거는 나중에라그네.
101004 #1 전포망도.
101004 @ 전포망도,
101004 #1 후에석벽.
101004 @ 예?
101004 #1 전포망도.
101004 @ 예.
101004 #1 후에석벽.
101004 @ 후에석벽.
101004 #1 예. 후에석벽이면 후에동이 가면 이 여기를 썩 쪽에 가면 이 그 후에 동이라고 합니다. 뒷바당 뒷바당 옛날에는 뒷바당이라고 해수다.
101004 @ 아~.
101004 #1 그 뒷바당을 뒷바당 동네를 후에동 이렌 해났는데.
1101004 @ 예 영일동.
101004 #1 예? 영일동이 이젠 그 에~ 영일동을 동명이 같안 동명이 변경 됐지 가, 혼 삼십 년 뱃기 안돼수다.
101004 @ 예예.
101004 #1 워냐 허면은 후에동이렌 흐니까 멘날 므을 체육대회 떼 지금 잘 해도 자꾸 뒤떨어지는 거라, 계난 이 훗 자 들어가부리니까 영 현 거라고 해서 동네 모 여갓고 동네에서 뭘 해갓고예.
101004 @ 예.
101004 #1 저 뭐이엔 허나 걸 사름이 이제 그그 뭐이라해서 이젠 저 영일동이라고 하자.
101004 @ 해를 맞이하는 곳이라 해서.
101004 #1 예예예. 해를 맞이하는 동네라고. 그 후에 체육대회에 일 등 해났수다.
101004 @ 아 갓과.
101004 #1 [웃음] 게 동네이름 ㄹ짜부니까 저 이제 헛다고.
101004 @ 예.
101004 #1 주간명월 주간명월 주간 아 주간명월 후에석벽 주간명월?
101004 @ 예.
101004 #1 예. 춤 지두청사.
101004 @ 예? 지두청사?
101004 #1 예 지두청사.
101004 @ 지두청사
101004 #1 주간명월은 맞수다 주간 명월은.
101004 @ 예.
101004 #1 ㄹ.

101004 @ 천지주야는 무스거렌 험니까?

101004 #1 그 분이 경 흔거라 이 우리 우주만상을.

101004 @ 예.

101004 #1 천지.

101004 @ 예.

101004 #1 동서.

101004 @ 예~.

101004 #1 좌우.

101004 @ 예.

101004 #1 주가 저 주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렇게 해서 팔 팔 상을 놔서 이제 그렇게 멘든 겁주.

101004 @ 아~ 게 김찬흠선생이예.

101004 #1 예예.

101004 @ 경 헤그네예. 예~ 우도팔경을 헛구나예.

101004 #1 예 게.

101004 @ 아이고 좋수다게 거문.

101004 #1 게 그 어른이 그렇게 허자, 마침 빠지선으로.

101004 @ 예.

101004 #1 그래서 김순두네 여기 출신덜 흐곡 우도에는 주간명월이 저, 우도 팔경이 있다흐니까 관광지로 다 궁급허는 거라 어떤 딘고.

101004 @ 예.

101004 #1 그래서 빠지선이 오기 시작 흐니까 택시 타기 시작헤네 우도 와기네 그 주간명월 어떤 디냐.

101004 @ 예.

101004 #1 막 와서 구경 행 가곡 허니까 그 때부턴 아~, 츠츠츠츠 우도가 이제 점점 이름이 나기 시작헤 가는거라.

101004 @ 예.

101004 #1 완 보니까 또 조커든마씨 또 츠체는 배 탕 오는 게 좋지.

101004 @ 예.

101004 #1 두 두 번째는 우도 와서 보뉘 조용허고, 또 저 오토바이를 타고 우도 흔 바뀌 ㄴ찌헤보니까 얼마나 좋을 것과 지금.

101004 @ 예 한 바뀌 오래 시간도 오래 안걸리고예.

101004 #1 그게 오토바이 타러 오는거다. 아 여기 우리가 여기 오토바리를 이제 타지 못허게 허자 흐난 ㄴ 오토바이를 타러 오는거지 못오게 행이야 그 사름덜 읍니까.

101004 @ 아 요즘은예.

101004 #1 예, 아 계난 오토바이를 타니까 시끄럽기야 시끄럽쑤다게. 어떤 멘 위

업도 흐곡. 스고에 흐루에 흐 번씩 죽진 아녀도 아적은 죽어본 적은 없는데.
 101004 @ 예.
 101004 #1 가끔씩 스고도 흐 번씩 나는 거라마씨.
 101004 @ 예 맞수다예.
 101005 @ 이 마을 기관 잊지안웃과예.
 101005 #1 예.
 101005 @ 기관을 학교 영 뒤.
 101005 #1 예게 기관은 많읍주마씀게.
 101005 @ 예 곶아 곶아봅서. 우체국으로부터 시작 행 경찰 파출소부터 옛날에는
 경찰 파출소로부터 있어낫수과?
 101005 #1 예 파출소로부터 예~ 옛날은 지서 지서 허다가,
 101005 @ 지서허다가.
 101015 #1 이제는 파출소로 뒤후니까.
 101005 @ 예.
 101005 #1 또 그 다음에 전화국 우체국 중학 중학교는 이제 통합학교 뒤후니까
 흐곡예. 농협예.
 101005 @ 예.
 101005 #1 수협.
 101005 @ 예.
 101005 #1 이제 예 우선은 기관이 들어 앓기로는 것벧기 엇입주 아적은.
 101005 @ 아적은 예 기관이예.
 101005 #1 예. 도 소방서 소방서.
 101005 @ 아~ 소방서.
 101005 #1 소방서도 요 근레 왕 소방데가 생겨잇고.
 101005 @ 예.
 101005 #1 그 스오 년 ㄱ지 벧기 안뒤풹�주. 소방데가.
 101005 @ 예, 소방서 현지는예.
 101006 @ 삼춘 옛날에 계 접이엔 험니까. 계엔 험니까?
 101006 #1 그 옛날에는 어떻 헤신고예.
 101006 @ 어떻 험니까?
 101006 #1 그 떼가 칠십 년도에는 계가 좀 잇어 낫다고.
 101006 @ 예.
 101006 #1 멧 사름이 으 그 동네에 막 경 허지는 아녀고 옛날에는 처음에는 무
 지계엔 무지계엔 그거 휘 돈모연 기관 장사가 돈 놀이 흐는디가 있어나서.
 101006 @ 아~ 돈 놀이가 아니고 마을에서어.
 101006 #1 예.
 101006 @ 영장 나면 영장계, 그 뒤풹�계.

101006 #1 아~. 아주 옛날에는,
101006 @ 예.
101006 #1 우리가 어리기 전에는 워정 때라 워정 때.
101006 @ 예.
101006 #1 우리가 혼 후젠 그런 계가 엇어서 워정시대에.
101006 @ 예.
101006 #1 워정시대에 이제 동네에,
101006 @ 예.
101006 #1 이제 젊은 사람덜 계를 구성 해갖고 늬 밧담도 다와주곡, 밧담도 다와
주곡 해그네게 그 디서 돈을 모으면,
101006 @ 예.
101006 #1 걸로 모아 낫다그네 겨울 때 돼면, 소도 잡아 먹꼬 돼지도 잡아 먹꼬
그렇게 해낫다하여.
101006 @ 젊은 사람덜.
101006 #1 예예.
101006 @ 이름이 뭐고예?
101006 #1 계난 그런 이름이 없어마씨. 이름은 없고.
101006 #1 예.
101006 @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들끼리?
101006 #1 예. 경 흐다가 예, 팔십 년 데에는 우도에 친목회가 이제 우도 면쪽으
로,
101006 @ 예.
101006 #1 좀 그 좀 나나 좀춤 나한 짜름덜이 모여그네 친목회를 조직해난 적은
잇어.
101006 @ 예.
101006 #1 친목회를 해 갖고 협동친목회다 또 이제 세마음친목회다. 시무친목회
다 해서.
101006 @ 예.
101006 #1 으 친목회를 해 가지고 지네들끼리 이제, 이제 그 협동 경노잔치도 혼
두어 번씩 해서.
101006 @ 예.
101006 #1 그 회가 주관이 돼서, 노인덜을 이제 중앙에 모셔갖고 이제 춤 우동
그쁜 것도 해여그네 술도 데접히고 음식도 데접히고.
101006 @ 그거는 협동친목회는 경로 효도 관광 뭐 저가 질문하는 거는 저 농사
할 때.
101006 #1 예.
101006 @ 농사 할 때 수놓을 때나 아니면 영장 날 때,

101006 #1 예.
101006 @ 잔치 할 때,
101006 #1 예.
101006 @ 그 마을에 마을에 뭐.
101006 #1 그 마을엔 화단 7쁜 건.
101006 @ 예.
101006 #1 행정적으로 동네서 만들어 놔주 동넛비용으로 화단 7쁜 건 동네에서.
101006 @ 동네에서.
101006 #1 옛날엔 각 동네마다 화단이 있어났다고.
101006 @ 예 계난 그 말을.
101006 #1 흐다가 으 근래는 차로 운반하기 시작흔 후로는 그 화단이 다 엇어져 부러서.
101006 @ 그 계난.
101006 #1 상여도 메어 가곡 무시거.
101006 @ 예.
101006 #1 선소리 허멍,
101006 @ 예.
101006 #1 상엿소리 허멍 돈도 이제 모으곡 영 헤그네.
101006 @ 예.
101006 #1 그 청년회 공금으로도 쓰곡 이렇게 헤났다고 그 상여허면서,
105015 @ 예.
105015 #1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나 못 가겠다고 이제 상여허는 사람이 이제 상주들 돈도 내놓고 헤그네 그 돈 모아그네 청년회 공금도 만들고 이렇게 헤났는데, 그 후에 차로 당깁시작흐니까 또 젊은 사람도 청년도 엇어지고 없어져가고 그게 괴로우니까.
105015 @ 예.
105015 #1 차로 운구흐다가 네중에는 또 이제 우도에 팔십 년데부터는 구십 년데부터는 저 우도에, 그 장례예식장을 만들앗다고 이제. 계민 사람을 죽으면은 집에서 죽어도 글로 옮겨간다고,
101006 @ 예.
101006 #1 게 거기서 이제는 소임도 받곡.
101006 @ 예.
101006 #1 거기서 감장을 해서 거기서 소임도 데접을 해서 가까우니까는 저 되지 안네.
101006 @ 아~.
101006 #1 집이 잇어요 지금.
101006 @ 아~.

101006 #1 세로 지언 계속하고 있어요 바로 금년부터.
101006 @ 예.
101006 #1 금년 육 억 육 억인가 면에서 저 행정에서 지원 받아갖고 아주 신식으로 계장을 하고 잇서요게.
101006 @ 난에 그문 현대에는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화단이엔 현 거 잇어그네.
101006 #1 예.
101006 @ 동네별로.
101006 #1 예.
101006 @ 그거는 웃동네 알동네도 아니고 그냥 마을별로 헛구나예.
101006 #1 동네별로.
101006 @ 동네별로?
101006 #1 동네별로 잇서났어요 다.
101006 @ 동네면은 만약에,
101006 #1 팔 계 동인데.
101006 @ 예.
101006 #1 팔 계 동에 다 잇어났어요.
101006 @ 팔 계 동에 여덟 개가 있다는 것과?
101006 #1 예예. 여덟 개.
101006 @ 더 하진 않고마씨?
101006 #1 예, 더 하진 않고 그 동네, 행정구역 상으로 그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101006 @ 예 그 동네서예.
101006 #1 그 동네에서 그걸 만들어 놔다가.
101006 @ 예, 그 동네접예.
101006 #1 그걸예.
101006 @ 그거를 그 오봉리엔 허문 오봉리 접이엔 헤신가마씨?
101006 #1 오봉니 아니고 동네.
101006 @ 아, 오봉리
101006 #1 예 상고수동 하고수동 삼양동 동네가 다섯 동네거든.
101006 @ 예예.
101006 #1 게 다섯 게가 잇었다고.
101006 @ 예예 다섯 개에서,
101006 #1 화단이 다섯게 잇었다고,
101006 @ 저기 예 상고수동 동네엔합니까?
101006 #1 상고수동에는 상고수동 사람이 그거 헤여네, 지금 그거 여기도 머만 잇어, 틀만 화단은 어디갔는지 모르크라 지금 슬아벗는가 어떻 헛는가 지금 그거 구경을 못허크라.
101006 @ 화단은 엇고예.

101006 #1 예.

101006 @ 그 터가 잇언예.

101006 #1 예. 지금 화단이 지금 다 슬아 벼실거라ㄴ만 동네 안에서도.

101006 @ 경 허면은 만약에 검질 메는 거 일에 관해서는 그 런 거는 엇일 것파.

101006 #1 검질 메것도 우리 어렸을 적에도 접 안허코.

101006 @ 예.

101006 #1 겐데 조 ㄴ쁜 거는 몰라도 수눌긴 쫘 헛어.

101006 @ 수누는 거예.

101006 #1 혼 두 세 사름 정도 두 집 세 집 정도.

101006 @ 예.

101006 #1 딱 혼 으 멧년 전ㄴ지만 흐드라도.

101006 @ 예.

101006 #1 예~ 마늘 심을 때도.

101006 @ 예.

101006 #1 접을 헨 심엇다고.

101006 @ 마늘 헨 때도.

101006 #1 마늘 심을 때도.

101006 @ 접을 헨예.

101006 #1 으 서너 집이가 뭐 한 천 평 이 천 평 심을 수 있는 집끼리만,

101006 @ 예.

101006 #1 서로 허다가, 나도 혼 이십 년 전에 허다가 누가 어느 사름이 밧 갈레 완,

105015 @ 예.

105015 #1 그뻬 트럭터로 갈 뻬데 아이 서로 접접 헤기네, 혼 사름이 이녁거 허 쟈 허민 남이 집이 혼 삼사일 걸릴 거 아넙니까.

101006 @ 예.

101006 #1 아 이녁 집이서 혼 자 편허게 흐민 말지. 남이 집이 강 허면은 비용도 마찬가지로 더 들거고, 오히려 이녁집이서 더 혼 일이 빠릅고 더 쉽지 아느냐, 허연 것도 들언 보난 올은 말이라. 겐 나 혼자 허기 시작했어 그거 이제.

101006 @ 아~.

101006 #1 그렇게 헛고 다른 사람도 경 허다 보니까 이제는 접허는 게, 벨 이익 이 없다는거야 오히려 손해다.

101006 @ 어,

101006 #1 분위기 상으론 좋지만은 실지 따지고 보면은 큰 이익이 없어. 쫘 비용 도 더득고,

101006 @ 예.

101006 #1 이녁 집이서 일 헨 때 이녁만 일 헨 떡에는 반찬도 안 출령 먹을 수

가 있는데, 집을 출령 하게 되면은 반찬을 잘 만들어야 돼거든께.

101006 @ 예~.

101006 #1 게 비용이 더들어 가는거라.

101006 @ 예.

101006 #1 짝끔 이녁 이녁데로 나홀 동안 일 허는 것광 ㄱ찌 집을 헤영 나홀동안 일을 허는 하루에 혼다고 해도 비용은 더 들어 부는거라.

101006 @ 예. 거문 옛날에 잔치 헐 때는, 그냥 동네에서 허는거고예.

101006 #1 예, 동네에서 허고, 또 동네에서 ㄱ치 돕자고 해서 혼 데 으섯 사름끼리 친목계를 해서.

101006 @ 예.

101006 #1 그 집이 관혼상제가 나면,

101006 @ 예.

101006 #1 그 관혼상제가 나는 동안에 헤 주기도 헤났어.

101006 @ 예.

101006 #1 우리 할망도 이 동네서 허단, 아 접원 웨는 사름하고 혼 번 말다툼을 해서.

101006 @ 예.

101006 #1 게 그 사름 미웁다고 나 탈퇴허겄다고,

101006 @ 아~,

101006 #1 탈퇴헤난 것이 있어 우리 할망도 지금.

101006 @ 예예.

101006 #1 으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 할망이 우리 할망이고 뭐시고 모범적이랏주게 겐디 우리 할망이 탈퇴 혼 후로 그 조직이 훗터지더고만 지금.

101006 @ 예.

101006 #1 겐 지금은 그 런 접이 없어.

101006 @ 그럼 예전에 바당에 멜 후림 같은 것이 잇잖웃과?

101006 #1 멜 후림?

101006 @ 예.

101006 #1 옛날엔 멜 후려낫주 옛날에는.

101006 @ 경 허난 그 때도 접으로 저기 헤실 건디예.

101006 #1 그 때 접으로가 아니고.

101006 @ 예.

101006 #1 동네로.

101006 @ 아~. 것도 동네로예.

101006 #1 여기 하고수동에.

101006 @ 예.

101006 #1 육십 년데 오십 년데 육십 년데 ㄱ지도 그 때는 이 과학이 발단 안웨

네 불싸네 뿔 거리는 배들이 엇일 떼거든,
101006 @ 예.
101006 #1 계민 가만이 있어도 계 안네 뿔이 들어와. 계민 후림 그물 만들어 갖고 가그네 둘러 싸그네, 땡겨다그네 그거 허면은 그걸 이젠 그 뿔 돈도 안 뉘고 전부다 밧디 걸름해서 걸름.
101006 @ 예.
101006 #1 말려그네 이제, 걸름 헛는데 아 이제는 저 춤 바다에 가그네 먼 바다에 가그네 불싸그네 잡기 시작헌 후론, 들어 올 시간이 없어 엇이 잡아버리는 거라 지금.
101006 @ 음 음.
101006 #1 그 후로는 후리가 엇어져부러어.
101006 @ 그 때는 저 후림해서 그 때는 접으로 헤 가지고 동네.
101006 #1 접으로 흐고 동네.
101006 @ 동네로 흐고예.
101006 #1 세 접이라서 우리 우도에도,
101006 @ 우리 저 고수동 이 주흥동접.
101006 @ 예.
101006 #1 우리 고수동접.
101006 @ 예.
101006 #1 비양접 으 어장 하나 놔 갖고, 으 서쪽에 관계가 뉘거든, 저 족 동네도 저쪽으로 짝끔 붓터잇다고.
101006 @ 붙어잇고예.
101006 #1 또 우리도 이 쪽에서도 붓터잇고. 이 주흥동도 그 때 우도가 한 어장이랴다고.
101006 @ 예.
101006 #1 뭐 저 줌수덜,
101006 @ 예.
101006 #1 소라 잡는 것도 한 어장이랴는데, 이제는 바당이 갈라지기 이 줌수덜 바당이 갈라지기 시작 현지는 지금 예~ 팔십 년도, 칠십 칠십삼 년도 스년도에 갈라졌다고 그 때는이동네 사름도 저 영일동.
101006 @ 예.
101006 #1 이 제 저 무슨 바당이엔 흐 디 가그넵에 믱음테로, 너른지 너른짓 바당에 강 믱음테로 잡아왔다고.
101006 @ 예.
101006 #1 배 탕 강, 이제.
101006 @ 예.
101006 #1 배 탕 가기도 흐곡 거기에 물빨이 쉼주게.

101006 @ 예.

101006 #1 물빨이 썰영 조금 때만 가민 즘수덜 흐는딘 디 여기서 배 탕 가기네 그 디 처 와긴 흐기도 했는디 칠십 년도부터 아, 칠십스 년도부터는 소라 깎이 올라가기 시작흔 거라. 아 그러니까 거기가 다 몰리기 시작 헨거라.

101006 @ 아.

101006 #1 아 그러니까 그 동넛 사름들이 우리 바당에 오느냐, 으 어떻 흐연 느네 바당이나 거 옛날 공동 바당 옛날 쩌 육지 사름덜토, 궂이 싸름덜토 와네 이 너른지 왕 잡아 가낫수다. 도 이제 반데 바당이엔 헤기네 저 토끼섬, 하도 앞이 토끼섬.

101006 @ 예.

101006 #1 거기 완도 우리도 우리 여기 사름도 간 물떼 조그면은 조금 때면 거기 간 소라도 잡아와 나숫다게. 게 그렇게 헤낫는 아 칠십 스 년도 부터는 어장 분쟁이 생겨갓고 나도 그 때 부락장라어서 여기.

101006 @ 아~.

101006 #1 흐 겨울 네낭 서울 저기 시에서만 살앗수다 이제, 저 김찰청 허고 김찰에 고발 뤼연에 그 때, 저 칠십 삼 스 년도에 지금 삼 년도 아 삼 년도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헸구나 삼 년도 저 삼 월 들부터, 지금 생기기 시작헤여네 스월 칠십 사 년도 만에 헤결 뤼연 흐 칠십 오 년도 육년도 7지 그 분쟁이 가다가 지금은 어장을 또 이젠 획을 지어 낫어요 획을,

101006 @ 예.

101006 #1 획을 지어난 후에 그래도 막 지네끼리 싸웁다 지네덜이 싸웁다가 이제는 저 고정 뤼어 부럿어요 이제는 완전이.

101006 @ 이제는예. 여기에서 우미예.

101006 #1 예.

101006 @ 우미 막 올 때는 그 것도 저기.

101006 #1 우밋 바당도.

101006 @ 우밋 바당도 접헤그네.

101006 #1 옛날에는 공동으로 허다가.

101006 @ 예.

101006 #1 그 돈깎 안가고 헐 떡엔 허다가, 이제는 저 그 때 나는 저 바당으로 고정 뤼시작흐니까 우밋바당도 자기만이 고정뤼기 시작 헤 부럿어.

101006 @ 자기 만씩.

101006 #1 예.

101006 @ 것도 어촌계로만 허는 게 아니라 것도.

101006 #1 동네.

101006 @ 그 동네로 허는거예.

101006 #1 예 동네로 헤서 저 동네로 부락장이 권한이 이 물질 실 때는 부락장

이.

101006 @ 예.

101006 #1 부락장 덜이 다 지휘를 하고.

101006 @ 으.

101006 #1 잠수회장 하고 또 협의 해갖고.

101006 @ 거문 여기 소섬은 동네로 다.

101006 #1 동네로 어장이 형성돼어서 지금 이.

101006 @ 어장이,

101007 @ 이 마을에 풍습에.

101007 #1 예.

101007 @ 우리 저 우도 마을 풍습, 옛날에는 칠십 년대는 잔치 허젠 해도 썩 동네서 썩 동네 가젠 허문 가마타고 말 타고 행.

101007 #1 예.

101007 @ 갓덴 허멍.

101007 #1 예.

101007 @ 저기 해 나신디 마을이기 저기 차가 엇이난예.

101007 #1 예 나도 육십 년 육십 년도에 결혼 했는데,

101007 @ 예.

101007 #1 나 결혼 할 때도 할망하고 저~ 비양동서 결혼해서 했는데 나도 뭇 탕 장게 가 낫어. 그 때 그치록.

101007 @ 예 뭇타기네 영 가리곡예 가마꾼헤기네 가마 행 오고,

101007 #1 예, 흥 칠십 칠십년도 77지만 해도 동네에서어,

101007 @ 예.

101007 #1 가마타고시집가고 헤낫어 그 때 칠십 년데77지만 흐드라도 그 후로는 없어지기 시작했어.

101007 @ 예 거문 그 때 가마 탈 때는 웨딩드레스 입엇수과 한복 입엇수과?

101007 #1 한복 입엇주게.

101007 @ 한복 입엇수과?

101007 #1 예, 가마타기 시작헿기에는,

101007 @ 가마타기 시작 흘때는,

101007 #1 여기는 신식 결혼식장이 엇어서,

101007 @ 거난,

101007 #1 막 머흔 사름은 기자 신식 이녀 집이서, 가 건물 만들어기네,

101007 @ 예.

101007 #1 신식 허는데 거 한 두 집이 헤낫고 불편헿니까 허지도 안코, 보통 이제는 시에 강 많이 헤 와 버려 이젠.

101007 @ 예 지금은 시에 왕 결혼식 헤 불곡예.

101007 #1 응 시에 강 시에 시에.

101007 @ 그 때는 가마 탕 올 때는 마당에서,

101007 #1 마당에서.

101007 @ 결혼식은 어떻 해 신고예 옛날에,

101007 #1 옛날에? 옛날 결혼식은?

101007 @ 예, 삼춘네 결혼식 헐 때.

101007 #1 사모관테 씨곡 여자들은 다 족뚜리 씨곡.

101007 @ 예.

101007 #1 경 헤그네 신랑이 이제 저 돌 타그네 저 신부집이 강 그 디 강 상 받
곡, 헤여그네 이젠 또 사돈덜 안티 이젠 상 받곡 헤그네 이젠 저우시로 간사름은,

101007 @ 예.

101007 #1 거 사돈 사돈덜 안티 인사허곡 이제 우리가 데령 갑수덴,

101007 @ 예.

101007 #1 인사 허곡 헤여그네 이젠 여기 오면 이제 올 뻐이는 또 예, 저 신랑이
춤 신랑집이 갈적에는 옛날에는 느람지 저레 폐와그네 느람지 우로 이제 저 영
면은 흘 발 저 우시가 저 중방 산 사름이.

101007 @ 예.

101007 #1 중방이엔 흐주 그 안네자주.

101007 @ 예.

101007 #1 영 흐민 흘 발 놓곳 허민 흘 발 놓곡 흐명 이젠 이 깃지와그네 여기
왕 딱시 이젠 예장,

101007 @ 예.

101007 #1 예장을 다 씨영 검토를 헐다고.

101007 @ 예.

101007 #1 예장을 검토 허영 합격이 뤄면 이젠 들어오렌 흐민 들어 왕 상 받곡
헤그네 민 상 낋나민 이젠 우시 뵈 사름은 또 저 신부덜 친척덜 거기다 인사 이제
사돈데우.

105015 @ 예.

101007 #1 인사 헤 두곡 헤그네 신부 데려 앗앙 신부집이 가그네, 저 신랑집이
와그네 이젠.

101007 @ 예.

101007 #1 신부가 이젠 상 받으민 아이고, 저 신랑 신부 어떻 와신고 와그네 막
동네 이 사름덜 와그네 막 이제 밥 먹는거 봐 가민.

101007 @ 예.

101007 #1 신부는 미안헤그네 밥도 안 떡곡 이제.

101007 @ 예.

101007 #1 ㄱ만이 앗기만 허면 이제 그 디 앗은 그 신부연 ㄱ찌 앗은 사름이 데

반.

101007 @ 예.

101007 #1 데반 앓은 사름이 신부안터레 영 허라 정 허라.

101007 @ 예 그르켜 주기도 허멍.

101007 #1 시겨주기도 흥곡 춤.

101007 @ 예.

101007 #1 이렇게 헤기네 또 시 식끗나면 이젠 집안 사름덜 옷,

101007 @ 예.

101007 #1 옷 그든 것 덜 이제 신부안티 선사를 허거든.

101007 @ 예 신부안티 선사를 헨예.

101007 #1 이 거 누가 헤 준 옷이여. 이 건 씨어멍이 헤 준 옷이여 아이면은 씨 누이가 헤 준 옷이여 씨할망이 헤 준 옷이여 헤그네 다 이제 이렇게 흥곡 지금은 돈으로 주지아녀 돈으로이.

101007 @ 예.

101007 #1 지금은 돈으로 주는데 그 때는 옷으로 전부다 신부안티 선물하고 이렇게,

101007 @ 으, 그 추룩헤영 저녁에,

101007 #1 저녁 펜 딱시 이젠 뒤면은 이젠 또 파티주 이제 그뜨면,

101007 @ 예 지금 그뜨면 파티주.

101007 #1 헤영 이젠 동네 청년들 다 모여그네 이젠 술덜 먹꼬 이젠 그 동네 저 사름 저 좀 머헌 사름 사훼 봐그네 다 돌아가멍 노래도 부르고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하고 신부흥곡 불르게 허여.

101007 @ 예.

101007 #1 거민 이젠 저 신부가 안 불르거나 신랑이 안 불르면은, 이젠 신부 안 불르면은 이젠 신랑 막 돌아메여,

101007 @ 예,

101007 #1 이젠 신부 저 노래 부를 때 그지, 돌아 메여그네 뭐 발창 때리곡 뭐 흥곡 이렇게 헤났는데 겨민 신부가 아니 부를것도 이젠 불려야돼여 이젠,

101007 @ 예.

101007 #1 불르멍 이렇게 행 또 끄나면 딱시 이젠 어떻게 험신곤 밤이 강 여 사그네 창그망 딸라그네.

101007 @ 고망 딸라그네.

101007 #1 어떻게 험신 딘 다 보곡.

101007 @ 예.

101007 #1 심지어는 저 으 장방 옷 이불 그든 거 앓아다그네 저 마당터레 앓아 당 땃겨두곡 돌망 가 불곡 그런 장난까지 허멍 우리.

101007 @ 아~,

101007 #1 아이고,

101007 @ 신랑 신부 저 줘 자는디 강 이불을 그냥 슬쩍허게 뺏어다그네.

101007 #1 경 우리 영 친구 혼 사름은 하도 지금 그 켜 군인 간덴 허난에, 군인 간덴 영장 받으난에 저 여름이주만은 영장 받으난 결혼 행 가젠 결혼 허는디 저 신랑 아방이 밤세냥 앓앙 지켜서,

101007 @ 예.

101007 #1 하도 신부신디 강으네 막 저 방이,

101007 @ 장난 치카부덴.

101007 #1 둘이가 자는디 강으네 으 장난 해부니까 경 허멍 이제 해난 적도 잇는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 이젠.

101007 @ 예, 이 동네가 다 친구도 벗이꼭 해니까는예.

101007 #1 예,

101007 @ 경 흐곡 결혼식은 경 허는디 이제 장례풍습은 어떻 해신고마씨 그 옛날에.

101007 #1 장례는 여기서 그자 사름은 죽으면,

101007 @ 예.

101007 #1 이제 집안에서 날 텍일을 뵙 오주게.

101007 @ 예.

101007 #1 아 게민 텍일을, 강 봐오면은 텍일이 잘 나면은 혼 삼일도 걸리곡 저 혼 사일도 걸리곡 일주일도 허는디 보통 스 일장은 아녀허 죽을 팔자 들어왔젠 흐영.

101007 @ 예.

101007 #1 삼 일장이나 오 일장이나 칠 일장이나 영 행 그자, 그 풍수안티 들었으네 날을 보가지작 저 날 자를 보아그네장례를 치렀는디, 나 나 모친 돌아갈 떡에는 나도 좀이동네 나보다 좀 유식흔 분이 잇엇는디 그분이 좀 계획적이랏어 이 저 뭇 볼 중 알명도, 육감은 짚으곡 딱시 풍수도 짝끔 씩 알안, 그 분이 와서도 나신디 오랑 ㄹ르치명 놀명 이 사람이 그거 옛 돌아가는 시테 무신 필요가 이신고,

101007 @ 음,

101007 #1 거 필요 없느니 경 흐멍 이젠 난 저 우리 누님이 와그네 오늘 좋은 날이나 굿인 날이나 장 돕아 드렌 해도, 장 담으켄 오늘 굿인 날이나 좋은 날이나 영 물어도 난 좋은 날이엔 험수덴, 워나흐민 저 육감 안 지편 그자 좋은 날이엔 거짓말 허미엔, 아 장 공장이서 멘 날 장 담으난 어떻 험신가, 그 어른이 나 신디 그런 이야기흐멍 해낫수다게.

101007 @ 예.

101007 #1 경 흐고 나 모친이 돌아간 후에는 돌아간 날 나 삼일장 원칙으로 험삼일장 나 봐낫어,

101007 @ 예.

101007 #1 겐데 게 여기는 삼 일장 경 흐는디도, 으 흐 몇 년 전만 해도 텍일을 고집하게 보는 사름들이 있어. 게민 텍일 보레가민 그 풍수가, 아 어느 상체가 걸러 부니까 이 건 몇 칠 날 날짜 이 해야 돼겠다. 또 사람이 땅속에 묻을 때 하관 할 때 이런 상증 보지 말아라 또, 이렇게 헤그네 그 때 안 보는, 상주들도 잊어났다고.

101007 @ 예.

101007 #1 경 헌데 예 그 풍수 말 들어그네 삼 일장도 걸리곡 오 일장도 걸리곡 흐면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곡,

101007 @ 경비도 많이 들어가곡,

101007 #1 또 불편도 흐곡,

101007 @ 예, 그 옛날에는 영장 흐 번 나젠 허면은 물 길어야 되는거예.

101007 #1 물?

101007 @ 물,

101007 #1 으,

101007 @ 여기 수도가 엇일 때는 물 해야 돼고.

101007 #1 아, 물은 또 이제 물은,

101007 @ 불 때는 것들 해야돼고 돼지 같은 것도.

101007 #1 아 게난 돼지도 옛날에는 여기 그 고이동이엔 헨 사름이 양돈 허기 전에는곳에 강 돼지를 강 사와나서.

101007 @ 예예.

101007 #1 경 헤다가 고이동이엔 헨 사름이 돼지를 많이 잡아네 여기서 보급흐 게웨니까 여기서 그 사름 안티 강 저 사다그네, 잡기 시작했는디 나도 우리 큰아덜 풀 췌 그 사름 시작 안헐 때라부난, 저 하도 가네 으둑므리 도세기 사다그네 잡아 나서.

101007 @ 아,

101007 #1 저 구십이 년도에,

101007 @ 예.

101007 #1 겐디 그 사름이 게업흐지는 구십 한 오흐 삼 년도인가 스 년도인가 게업흐난 그 사름이 돼지를 보급 흐난에 그 때부턴 큰섬이 간 안 사와도 돼서.

101007 @ 아~.

101007 #1 돼고 또 영장 췌나면은 보통 영장 흐 번 치루젠 흐면은 도세기 머 춤 다섯 므리까지도 죽어야 돼어. 잡아야 돼어.

101007 @ 예

101007 #1 거 그 동안 영장 흙 동안, 먹젠 흐민 흐루에 흐 므리 먹거든 보통 지금.

101007 @ 예.

101007 #1 경 닷췌 걸리면 다섯 므리 먹어야 돼어 지금 이제.

101007 @ 예.

101007 #1 잔치도 또 여기서 일주일치 걸려나서 잔치도 이제.
101007 @ 예 가문잔치 전에.
101007 #1 가문잔치로 시작 혜영 잡는 날 혼 잔치 본 결혼식 날 혼 이틀 앞서부터, 잡기 시작하면은 또 잔치 끝나도 혼 이틀까지는 또 가 지금,
101007 @ 예.
1010715 #1 경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영 혼명 혼는디, 이제 그 영장은 머 집안에 형편에 딸아그네 지금이제 오래 걸리는데도 잇꼭 좀 늦게혼는디도 잇는디 보통 그자 삼 스 일은 걸려야 돼어.
101007 @ 영장은예 삼사 일에.
101007 #1 영장은 경 혜어.
101007 @ 물품 같은 경우는 장례식 할 때 물품은 준비 헛당 놔그네 혜신가에.
2101007 #1 경 혼주게 이제.
101007 @ 예. 장례식 혼고 마을에 만약에 경사가 났다예.
101007 #1 응.
101007 @ 허면은 마을 잔치를 옛날에도 혜실거 뉘아예. 무슨 경사라도 경사를 났다 허면은, 저기 결혼식혼고 장례식 때는 말고,
101007 #1 예.
101007 @ 무슨 경사 나가지고 그 집에서 그 때는 마을에서 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뉘큰,
101007 #1 거 집에서 뉘 환갑잔치나, 환갑잔치 허는 사람도 몇 없어. 조용히 집에서 뉘치지 동네 싸름덜 다 오랜 혜기네 환갑잔치 혼는 사람도 없고, 또 뉘 칠순도 으세는 저 시에 가그네 저 전부다 호텔로 강 혼든지 식당으로 가그네 혼든지 경 혼는 거. 101007 @ @ 응,
101007 #1 칠순 혼 사름은 그 다음 팔 순 팔순도 크게 혼는 사름 없어 식구덜 끼리만 그자 저 시에 가그네 머 혼곡,
101007 @ 혹시 그 옛날에 특별나게 잔치나 거혼식 혜서 기억난는 건 엇수과? 결혼식 아니라도,
101007 #1 동네에서 크게 잔치 벌이명 혼 기억은 배랑 없어.
101007 @ 그러면은 정월달에,
101007 #1 으,
101007 @ 정월달에 마을 그 청년이 많았을 때 왜정시대라도예,
101007 #1 예.
101007 @ 거 뉘 즐겁게 놀아났거나.
101007 #1 그 때는 육십 년도로부터 혼 칠십 년도까지는 혼 십년 동안은,
101007 @ 예.
101007 #1 동네 청년들이 젊은 사름들이 많이 사니까 막년훤이라고 혜서 으.
101007 @ 아,

101007 #1 저 음녀 시 월들 돼면은 춤 저, 동네 청년들이 우동 2편걸 해서 동넛 어른덜 읍센 헤그네 혼 그릇씩 데접히고 영 헤났어.

101007 @ 아,

101007 #1 헛는데 이제는 동네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청년조직이 없어,

101007 @ 아, 그 때 조직이 있을 때예.,

101007 #1 해서 또 동네 청년 그거 먹으면 또 고마운 사름은 동네 청년회 기부 를 허렌 얼마 회사도하고 이렇게 헤났는디 여기서는 이제 짝끔 머 허는건 리 데항 체육데회를 헐 때.

101007 @ 예,

101007 #1 그 쎄 즘 우승이나 흥곡 허면은, 또 이자 그 리사무실에 모여그네 노래도 불르곡 그 자 축하도 흥곡 그런 것 벳기 없지.

101007 @ 예, 지금은예.

101007 #1 그런 거만 가끔 잇고 그 웨로는 동네잔치는 없어 이젠.

101007 @ 예.

101008 @ 이 마을에 특산물이엔 헤서예, 저 지금 현재는 땅콩.

101008 #1 예.

101008 @ 그리고 마늘,

101008 #1 마늘,

101008 @ 마늘예,

101008 #1 쪽파,

101008 @ 쪽파예.

105015 #1 특산물로,

105015 @ 예 그렇게 잡안예.

101008 #1 그 전에 이십 년 전에는 고구마.

101008 #1 어, 고구마.

101008 @ 고구마를 헛헛 허고.

101008 #1 아주 옛날에는 조허고 보리만 순 걸로 허다가.

101008 @ 예.

101008 #1 그 후에 즘 어떻게 고구마를 갈기 시작헌 후로는 짝끔 경제가 짝끔 저 먹는 것이 줌 쉬와지다가.

101008 @ 예

101008 #1 또 고구마를 많이 허면서 이젠 그 절간고구마.

101008 @ 예 절간 행.

101008 #1 절간 고구마하기 시작헛다가 그 것을 풀아서,

101008 @ 예.

101008 #1 이제는 좁쌀 쓸을 받아먹기 시작해서.

101008 @ 예예.

101008 #1 여기 저 쌀 풀아먹기 시작헌지가 고구마를 갈아서 절간을 만들아서
 쌀 풀아먹기 시작헌디가 조를 안 갈아서,
 101008 @ 예.
 101008 #1 조허고 보리만 주농으로 헐다가, 고구마 절간고구마 팔면서 쌀 풀아
 먹은 지가 헐 팔십 헐 오 년쯤에,
 101008 @ 예.
 101008 #1 부터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풀아먹기 시작헐어. 그 전엔 순 조허
 고 보리쌀을 먹기 시작헐서.
 101008 @ 조 허고 보리만 허단예. 그리고 이제 해산물로는, 이건 농산물인데 해
 산물로는 제일 한계, 그 유명헐게 넙메역이엔 헐.
 101008 #1 넙메역 헐건.
 101008 @ 예.
 101008 #1 예~ 칠십 년도 깐지만 넙메역 건젓서.
 101008 @ 게 넙메역을.
 101008 #1 겐디 웨 넙메역을 안 건젓느냐.
 101008 @ 예.
 101008 #1 육지에 양식미역이 나왔거든.
 101008 @ 예, 거난 그.
 101008 #1 그 떼는는 여기서 넙미역을 허면은 저 군납으로도 나가곡이.
 101008 @ 어~,
 101008 #1 깡을 잘 풀아 먹엇다고.
 101008 @ 예.
 101008 #1 허다가 육지에 양식 미역이 나오기 시작허니까 미역은 안 사먹는 거
 라. 이 미역 넙미역을.
 101008 @ 예.
 101008 #1 그래서 미역을 안 건지기 시작 헐고 또 메역을 건질라면 힘들어.
 101008 @ 게메.
 101008 #1 아, 한 십일 네지 십오 일꺼지 건지는데, 굉장히 힘들엇다고 그거 막
 깔쿠리로 멩길랴고 허면.
 101008 @ 예.
 101008 #1 사름이 반 죽어 낸다고.
 101008 @ 어~,
 101008 #1 풍선에 배 돛단배 해가지고.
 101008 @ 돛단배 해가지고.
 101008 #1 으,
 101008 @ 그 물에 들어 가그네 해녀.
 101008 #1 아 저 해녀가 아니지,

101008 @ 남자가,
101008 #1 이런 갈퀴릴 만들앙.
101008 @ 예.
101008 #1 물쪽에 넣엉,
101008 @ 예.
101008 #1 물쪽에 넣엉 돛 돛단배로 그 그그저 브람이 힘으로.
101008 @ 바람에 끌려와기네예.
101008 #1 으으, 끄는 거라.
101008 @ 아,
101008 #1 끝면 이제 돌아가지 물쪽에서,
101008 @ 예.
101008 #1 돌아가면서 이제 미역이 그 갈퀴리에 붙으는 거라. 게민 그걸 땡겨
건져서 이제 메역을 따로 떼어갓고 배에 싣껏고 이젠 집에 와서 그걸 말리는 거
라 이제.
101008 @ 예.
101008 #1 물러서 이제,
101008 #2 넙미역 연구허는 분들이라?
101008 #1 넙미역이 아니고 우도 우도 이제 풍습을 연구허레 온 사람들 제주데
학교.
101008 #2 으으, 설명 헤드려.
101008 @ 경 허문 예.
101008 #1 우리 저 여기 저 리장도 헤나곡, 우리 스춘메부예요.
101008 @ 아~ 그러시구나예.
101008 #1 잘 알아요.
101008 #2 고생허고 있습니다 야튼 우도를 피알헤 주는데는 우리 상당히 고마움
을 느끼지요.
101008 @ 예, 저기 넙미역 했던 과정에 데헤서 글아줍써. 그 풍선 헤야웨고 남자
들이 강 헤야웨고.
101008 #1 남자 풍선,
101008 @ 몇 사람.
101008 #1 돛단배 두 게에 보통 네 사람이.
101008 @ 네 사람이.
101008 #1 네 사람이 건져야 웨여.
101008 @ 건져야 되고예.
101008 #1 예예.
101008 @ 그 갈퀴리는 어떤 거엔 험니까?
101008 #1 갈퀴리는 다 만들어야 웨여.

101008 @ 예, 어땠.

101008 # 여기는 육지에 저 큰섬에 가면은,

101008 @ 예.

101008 #1 춤 남이서 참남 참남.

101008 @ 춤남?

101008 #1 예 참남을 그 베어다가,

101008 @ 예.

101008 #1 걸로 이제 깔코리를 만드는 법이 있어.

101008 @ 아, 깔꾸리는 호미?

101008 #1 아니아니.

101008 @ 호미로 험수과? 큰 낮으로마씨?

101008 #1 건 여기 깔코리에 빨이 돈는다고 빨빨빨.

101008 @ 아~예.

101008 #1 경 빨이 생겨갓고 빨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흥는거라 지금,

101008 @ 예 그렇게 해가지고예. 경 한 네 네 명 정도 헤 가지고 그거 갈르는 건 어땠 갈라신고예?

101008 #1 그거 이제 말려서 팔면,

101008 @ 예.

101008 # 돈으로 갈르는 거지.

101008 @ 돈 저 험 험 사름똑 같지예.

101008 #1 응.

101008 @ 배쩍시 흥나.

101008 #1 응 배 목시 흥 목시,

101008 @ 목시흥고.

101008 #1 또 흥 사름 목시마다 흥민.

101008 @ 흥고.

101008 #1 예,

101008 @ 깔꾸리는 또 누게 잇인 사람.

101008 #1 깔꾸리는 서로 흥 사름 자기 자기 건 질 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뉘.

101008 @ 예.

101008 #1 경 아녕.

101008 #2 우리도 데게 배를 운항 혈여문, 그런 거를 배 선주로써.

101008 @ 예.

101008 #2 그 다 준비 헤 논다고.

101008 #1 준비 헤 놓기도 허고.

101008 #2 그래서 이제 그 준비가 딱 뉘문 그 선원 즉 말하자문 그 런 그 줄,

101008 @ 예.

101008 #2 그런 넓미역 줄 넓미역 줄 허는데 그걸 뺏기면서 그 깔꾸리 바닷물에 던져서 쪽 돛 들어서 끌어 간 걸,

101008 @ 예.

101008 #2 올려그네 행 왕 이제 그 헤그네 건조 지금 저울로 돌아 또 놀로도 풀주만은 저울로 들어서 저 물건이 어디로 나가냐면 목포 목포,

101008 @ 예.

101008 #2 즉 그 쪽으로 많이 나갔어. 데게 우리가 알기로는 군납을 많이 헌거 같애 그 때 당시 군데 군인들 그저 국 끊여주곡,

101008 @ 예.

101008 #1 식용으로 많이 나갔고 어땡 양식미역 때문에 이것이 엇어진 거지.

101008 #2 응.

101008 #1 양식 미역 아니 나시민 지금까지도 건져실꺼여요.

101008 @ 예.

101008 #1 지금까지도 겐디 양식미역 나오니까 이게 값이 헐 헤지고어.

101008 @ 예.

101008 #1 힘이들고 또.

101008 #3 호미 어디섯과 호미 호쓸빌저.

101008 #1 호미마썸?

101008 #3 아 이디 저 나난 보난 검질이 이만 헤신디이, 호미가 앓어올 곁, 아 이디 저저 저냥 나두난 검질이 막 잇인게이.

101008 #2 그거 저분은 저 에 옛날 돛단배, 돛단배~, 그 때 당시에는 이제 데게 이 생활이 수준이 쯤금 영세하니까 [집안 전화기 울리는 소리.]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허는 걸 생각을 못했다고 그거를 이제 몇 년후다가 에 이젠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쯤끔 흔 삼 톤정도 이 저 독립선, 동력선해서 뒤으로 갈퀴를 놔서, 그거는 갈퀴 한 여섯개 쯤 놓지, 그래서 이제 수확을 많이 올리지. 거기에 기관을 해서 발동기로 허니까 만약 이제 그 열 흔을 놓게 뉘문, 한 세 흔을 벳쩍을 때 주고,

101008 @ 예.

101008 #2 일곱 흔 가지고 거기 그 종사헌 싸름덜 나누는거야.

101008 @ 예 헤납디가? 메역 넓메역.

101008 #2 아 그 그걸로만 헛주게,

101008 #1 나 허고 두 살차이 아넛과게 나허고 두 살 차이라.

101008 @ 아 깃과.

101008 #2 손이 어떤 뎨 부물영 다 터지고.

101008 @ 아,

101008 #1 게난 흔 칠십.

101008 #2 으죽음은 그레도 장갑덜또 좋은 것만 많이 나오주만은 그 때는 좀.

101008 #1 장갑이 벗었주.
101008 #2 우리 생활이.
101008 #1 여유가 벗었주.
101008 #2 여유가 벗기 때문에 맨 손으로 헛다고.
101008 #1 칠십 년데 이후에 장갑이 나왔주 그전에 장갑이 있어서.
101008 @ 예.
101008 #1 장갑이 벗었주.
101008 @ 아이고.
101008 #1 게난 손이 다 부르트고.
101008 @ 어느 계절에 해수과? 이 월에 해수과?
101008 #1 아니 아니 저 에~, 양녕 칠월 칠 일날.
101008 @ 예.
101008 #1 그 때 소서거든 소서.
101008 @ 예.
101008 #1 소서 소서 그 때 깎지는 여기서 조농사가 깎나야.
101008 @ 예.
101008 #1 여기는 소서에 이제.
101008 @ 예.
101008 #1 게민 뒷날부터 그 후부터는 이제 조농사 깎나면.
101008 @ 예.
101008 #1 그 후로부터는 넘미역을 혼 팔월 보통으로 칠월 칠 일부터는 시작을
허면은 에 팔월.
101008 @ 예.
101008 #1 혼 칠월 말 뉘면, 깎나지.
101008 @ 칠월 말 뉘면예.
101008 #1 응.
101008 @ 그러면은 이것도 쓰무날은 보끈해신게예.
101008 #2 응 보통은 이십 일.
101008 #1 열흘 네지 쓰물 날.
101008 @ 이때는 넘미역 다, 소섬 싸름덜은 넘미역,
101008 #1 예. 다 넘미역이주.
101008 @ 다 종사헛구나예.
101008 #2 게난 그게 또 배를 혼 또 아버지나 잇인 싸름덜은,
101008 #1 곳에 싸름덜 종달리, 어디 저 종다리 시흥리 오졸리.
101008 @ 예.
101008 #1 종달리.
101008 #2 이 다 넘미역 건지레 온다고.

101008 #1 그 사름 덜토, 다 녀미역 건졌어. 우도만 건진 게 아니고.
101008 @ 우도만 건진 게 아니고예.
101008 #1 겐디 우도가 더 좃건이 좋고 우도 해안이 더가까우니까 짝금.
101008 @ 가까우니까.
101008 #1 좃건이 좋고 우도 사름이 더 머해서 헛지.
101008 #2 우도에서도, 남편이 없는 짜름덜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101008 @ 예 이거 남자 일이라서예.
101008 #2 남편이 잇는 사름이 배를 헛을 때가 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동네가 만약 삼십 호가 산다면, 배 흐는 사람은 흔 데 으숫도 안돼여.
101008 @ 예.
101008 #2 한 두 사람이나 하게 뉘문 여기에 또게 실은 남자들은 그 선두뉘는 사람보고 아이고 난, 녀미역 허는디 우리 조금 부찌 달라고 허거든 그럼 배 하나 가진 사람이 흔 이 선원을 너이 쫘 데려서 이제 거를 운항 허는 거지.
101008 @ 예!.
101008 #2 혼자 그저.
101008 @ 헛 수가 엇어예.
101008 #2 여자 혼자 사는 사람 홀 어떻, 홀 어떻게 집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해녀들은 처음 해녀들은 그 녀미역을 즈문다고,
101008 #1 케기 시작해서 물 때 좋으민.
101008 #2 조물에 간다고.
101008 #1 물쪽에 가서 케오기 시작해서.
101008 @ 이 때도 시기는 이때?
101008 #2 으 이 시기여 녀미역 이 시기 놓쳐 버리민 이 보다 조금 앞뉘겨 하는 데.
101008 #1 이 거 해지 허기 이 전에.
101008 #2 이시기 놓쳐 버리문 이 녀미역이라는 게 삭아져버여 그 바다에서 그 시기가 뉘문.
101008 @ 예-.
101008 #2 삭아져부러는디 여자덜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101008 @ 예 즈물영예,
101008 #2 거 상군이 흐는거지 아무나 허는건 아니고,
101008 @ 거 녀미역 바당은 저기 가면은 거 상군 바당에 들어가야 뉘큰게 한 십 오 메타 정도예.
101008 #1 게지 흔 이 십메다 이상뉘어~.
101008 @ 이십 메다 정도예. 십오에서 이 십메다예.
101008 #1 예~.
101008 @ 예 예 남자들이예.

101008 #1 저 저 상군들이 아니면 중군 이하는 못 나가.

101008 @ 못 나가는거예.

101008 #1 예.

101008 @ 계난 이거가 특산 이거가 참 저 우도 허면은예. 소섬 허면은 넓미역 했던 헌 얘기를, 어디서도 좀 듣곡 해나니까는, 넓미역하고 그 다음에는 머 아까 땅콩 햇주만은 해산물에는 어떤 거 잇수과?

101008 #1 해산물에는 천초 우뭇가사리?

101008 @ 예. 천초는 저.

101008 #1 툇,

101008 @ 저기 삼월? 아니 사월?

101008 #1 천초 허는 건?

101008 @ 예.

101008 #1 천초는 보통.

101008 #2 원래 오월 일 일이 법정 우리 여기서도.

101008 @ 예.

101008 #2 이건 우리 자칫법으로, 오월 일 일이 법정 기일로 했었다고 천초 헤체 허는 데게는, 여기는 이제 그 즉 말허자면 우도 면민이 다 허는 게 아니고 그 몹미구역이 있다고, 십일 게,

101008 @ 예.

101008 #2 예, 십 게 동네가 바다를 갖고 있다고 나눠서 여기는 에이단 동네 비란 동네 여기는 비란 동네,

101008 @ 예.

101008 #2 이런 식으로 쪽 나가문, 물론 오월 일 일을 준수해서 허는 디도 있고 또 쪽끔 앞당기는,

101008 #1 동네 스정에 따라서 그.

101008 #2 데게는 오 월 일 일로 이제 천초는 헤체 헌다 이렇게 말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거지.

101008 @ 예.

101008 #1 헤서 저 칠 월 말까지.

101008 @ 아~, 칠 월 말까지.

101008 # 으,

101008 @ 거문 천초는 같이 헤가지고.

101008 #2 응 갖치.

101008 @ 천초는 다 나가는 거 아닛과.

101008 #1 천초는 다 자기 개인 나시 허여.

101008 #2 각자.

101008 @ 예.

101008 #1 공동이 아니라.

101008 @ 예, 경 해 가지고 허고 툃은 여기는 툃도 하영 나지 안협니까.

101008 #1 툃은 거이 공동으로 거 동네 공동으로.

101008 @ 툃은 이 월 부터 협니까?

101008 #1 으응,

101008 #2 응 데충 이 월 들 텔거라.

101008 #1 이 월 혼 십오 일부터.

101008 @ 이 월 십오 일 부터예. 툃은 예.

101008 # 사~삼, 삼월 십오 일부터.

101008 @ 아, 삼 월 십오 일마씨? 툃?

101008 #1 응, 삼월 십오일부터 저 스월 말까지.

101008 @ 사월 말까지예 툃 수확 하는거.

101008 #1 스월 십오 일까지도 허곡.

101008 @ 예, 툃은 경 허고 그 다음에는 우뭇가사리가 아까 그거고.

101008 #1 으, 오 월일이이 법정 기일이라해서,

101008 @ 예예 저기.

101008 #1 소라 소라.

101008 @ 예 소라는 십일 월?

101008 #1 시 월 일 일부터.

101008 @ 예 시 월 일 일부터.

101008 #1 우뭇가사리 날 떼까지. 사 월 저 삼 월말까지 보통.

101008 @ 삼 월 삼월 말까지예, 삼 월말까지예 소라는예, 저 시월 일 일부터예.

101008 #1 으,

101008 @ 아 소라허고.

101008 #1 법정기일이 여기서는 그렇게 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101008 @ 저 저기 저 듬북?

101008 #1 듬북? 듬북 안 케어 이젠.

101008 @ 아, 그 옛날에.

101008 #1 옛날에는,

101008 @ 예, 올라온 것들

101008 #1 저 어 옛날에는 하지 듬북이라고해서 보통 예 스월 들로부터 혼 오 월들까지,

101008 @ 예.

101008 #1 스월 오 월 혼 두 들동안 했는데,

101008 @ 예.

101008 #1 지금은 안케.

101008 @ 계난 지금은 안 케지만은 그 옛날 것도 우리 여기 일이니깐예. 역사

뭐 문화 머 다 들어간 거니까는예.
 101008 #1 예. 그리고 풍파에 올른 거.
 101008 @ 예, 풍파에.
 101008 #1 올른 건 언제나 허고,
 101008 @ 이거는,
 101008 #1 겨울에도 허고,
 101008 @ 풍조엔 풍조엔 허잖아예.
 101008 #1 풍조 풍조.
 101008 @ 풍조예, 풍조 이거는 겨울이든 어디든 해 가지고,
 101008 #1 예.
 101008 @ 저 물려 놔 뒷당 밧디에 흐는 거고예,
 101008 #1 예 밧디에 물려 텡
 101008 #2 저 남지 아까도 배 잇고 남자들 잇는 사름은 듬북흐는디 머흐난 줄났
 시라는게 잇어, 줄나시는 예 이건 여자들은 염두도 못네고 여기서 문 여기서 같으민
 저 깝지.
 101008 #1 으 칼 잇어.
 101008 #2 큰 칼 잇다고.
 101008 @ 줄 낫예.
 101008 #1 줄나시 줄나시.
 101008 #2 날카로운 칼.
 101008 @ 줄나시?
 101008 #1 예.
 101008 #2 그게 이제 바다에 던져 놓고 양쪽 줄을 걸어서 나가면서 빈다고, 해서
 힘으로 이거 비어진다고,
 101008 @ 예.
 101008 #2 비문 뒤에서 그 이제 즉 말허자면 범선이라도 크지 그러면,
 101008 #1 비어지면서 바다로 뜨지 떠떠떠.
 101008 #2 전부 배에다 실어 놔서 말르면은,
 101008 #1 저 미역 화물선에 화물선에 건져 놓지 그걸 자구 그 웃터레.
 101008 @ 아~.
 101008 #2 뭐 동력선으로 허는게 아니고 이거는 즉 말허자면 저 범선,
 101008 @ 예.
 101008 #2 범선이라면 이 저 기관이 없는 거.
 101008 @예예.
 101008 #1 그 게 화물선.
 101008 #2 말르젠 그 줄나시 흐는 싸름덜 이 팀만 갈라먹는 거지 동넛 싸름덜
 다 주는 건 아니.

101008 @ 아~. 줄나시엔 현 거는.
101008 #1 뭇이 게를 헤 갖고 그,
101008 #2 응 줄나시가 상당 이 줄나시가 중요했다고 옛날에,
101008 #1 뭇 사름이 게를 헛다고.
101008 #2 이 듬복이 케는데는.
101008 @ 아,
101008 #2 또 아까 그 두 번째는 저 어디 건지는 거 풍낭.
101008 @ 예.
101008 #2 풍초 건 이 바람이 올르는 거는 그 이제 올라 있으면은,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바다에 나가서 저 곳드로 올라 있으면은 건조 헤그네 또 이제 따로 행 말럿 다가 밧디에 가져가고.
101008 #1 것도 허고 범선 잇는 사람은.
101008 @ 예.
101008 #1 스 월 오 월 달에는 먼 바다에 가서 배 타고 가서.
101008 @ 예.
101008 #1 그 물 조류에 흘러 다니는거.
101008 @ 예.
101008 #1 배에 건져 건져서 배에 싣고 와서 여기와서 물러 갖고
101008 @ 예.
101008 #1 것도 이제 걸름으로 것도 헛어요 물린 것도.
101008 @ 그러면은 저기 당 저 땅콩예.
101008 #1 으.
101008 @ 땅콩은 어느 제 심고 어 제 수확합니다까?.
101008 #1 보통, 저 오 월 이십 일부터 심어서,
101008 @ 예.
101008 #1 예~ 구 월한 구 월 말 구 월말일 깎지는 수확헤요.
101008 @ 아~.
101008 #2 땅콩 역사는 길지 않다고 으 근레와서 헛다고 이게.
101008 #1 빨리 심으면 빨리 수확돼고 늦게 심으면 늦게 돼는데.
101008 @ 예.
101008 #1 보통 지금은 백이십 일 백 삼십 일에서 백 스십 일 그 스이 백오십 일은 그 스이에 수확헤요,
101008 @ 예.
101008 #1 심어서.
101008 @ 그러면은 이거 저기 윤작으로 땅콩 다음에는 저 마늘예.
101008 #1 아 땅콩그리에 보리나 보리나 유채.
101008 @ 보리나 유채마씨?

101008 #1 으 땅콩그리에는.

101008 @ 예예.

101008 #1 또 저 그 그리에.

101008 @ 응.

101008 # 또 마늘이나 으,

101008 @ 예.

101008 #1 마늘 심지 그 쪽파나 마늘.

101008 @ 예, 마늘 그르에예.

101008 #2 상품이 뒤편이 웨그러냐 허문이 저 땅콩이 보통 이제 구 월 이상 뒤편은 그 때 땅콩 해두고 쪽파를 심어 노문, 이렇게 굵어버린다고 굵으문 만약에 이제 그 종자용으로 절라도 ㄹ 뜬 데서 알아주질 않는다고.

101008 @ 아.

101008 #2 으 그래서 데게는 땅콩 해난 뒤에는 아까 이 한회장이 얘기 했지만은, 저 뭘 허냐문 저 머 유체하고 유첼 심편가 보릴 심편가 허지. 다른거 지금 마늘 ㄹ 뜬거 너무 늦따고 늦어, 상품 까치가 떨어져. [부딪치는 소리] 아판 누워시카부텐 왔주게. 이젠 귀찮웃과?

101008 #1 아, 갓단 아침이,

101008 #2 으,

101008 #1 갓단 이 사름들 와네 이거 흐켄 해부난.

101008 #2 으.

101008 #1 그 디서 흐젠 흐니까 여러 싸름덜 잇고,

101008 #2 으.

101008 #1 또 텔레비전도 잇고 흐니까 이사름들이 더워도 여깃 흐켄 허연.

101008 @ 아 덤지 안허우당예.

101008 #2 난 또 안 나왔길레.

101008 #1 아이 아니.

101008 @ 그러면은 지금은 보리, 어 그거는 보리허고 유체는 잘 아허는 거 아니 웃파예.

101008 #1 지금은 같지 않주게.

101008 @ 거문 옛날에 조 하고예. 보리는,

101008 #1 예. 그 건 도 이제 팔십 년도 이전에.

101008 @ 예예 그 전에는,

101008 #1 땅콩허고 마늘 나오기 이전에,

101008 @ 콩 콩도 같지 않읍니까예.

101008 #1 콩~.

101008 @ 콩그르에 조~.

101008 #1 아 아 짝금.

101008 #2 큰섬에는 콩 갈아도.
101008 #1 이 이 기는 콩 안 갈아.
101008 @ 콩 안 갈고예.
101008 #2 이기 콩 안 간다고 전부 조 ㄴ쁜 거나 그 때는 조만 갈았다고.
101008 @ 조 불리는 거는 유월에 유월에 시작합니까?
101008 #1 칠월에 칠 월들에 보통.
101008 @ 칠월?
101008 #1 응.
101008 @ 유월 지나그네?
101008 #1 응 칠월, 칠월 칠일이 유월절이거든 .
101008 @ 예 유월절 지나그네.
101008 #1 그 때 ㄴ지가,
101008 @ 예.
101008 #1 가름지에 좋은 밧이문 그 때 ㄴ지 같고 경 아년 건 칠 월 흔 초승에,
101008 @ 예.
101008 #1 이 일 일 경에 갈아야돼.
101008 @ 예, 유월절에예.
101008 #1 예예.
101008 @ 그 다음에는 보리씨 부릴 때는 언제 됩니까?
101008 #1 보리씨는 옛날에 입동들어야 간덴 허주게 입동,
101008 @ 예.
101008 #1 입동 지나야 돼는데 이 입동을 기준으로 예옛날에 입동으로 헛주만은 보통으로 이제는, 말 이렇게 갈아야 돼주.
101008 @ 예 이렇게 행 갈아그네예. 그 다음에 사월 오월경에.
101008 #1 수확.
101008 @ 예, 사월 오월 경에 수확하고 조는?
101008 #1 조는 저 옛날에는,
101008 @ 조는 구월에?
101008 #1 예에 칠월 말에 갈아 갖고 구월 말경에 수확.
101008 @ 구월 말에 수확하고예. 조하고 보리는데.
101008 #1 조 보리는 구경 못허여 맥주보리 이제는.
101008 @ 예.
101008 # 옛날 보리가 아니고 메주보리 이제는.
101008 @ 맥주보리도오.
101008 #1 맥주 월요로,
101008 @ 예, 맥주보리도 지금 짝끔 여기 수확을 많이 헌덴 허는 거 아니라예.
101008 #1 으게, 맥주보리.

101008 @ 맥주보리는 또 가는 그거는 언제
 101008 #1 맥주보리는 데게 아까 말헌 식으로.
 101008 @ 아까 말헌 식으로예
 101008 #1 으.
 101008 @ 유체는,
 101008 #1 유체도 유체도 보리갈 때 ㄴ치.
 101008 @ 보리 갈 때 같이 허곡예. 보리 갈 때 같이 허곡.
 101008 #1 그 전에 갈아 비여 꽃만 피면, 수확 안코. 여물은 수확 안 헤.
 101008 @ 예.
 101008 #1 꽃만 피워서 이,
 101008 #2 스 월 ㄴ지.
 101008 #1 스 월한 이십 일 스월 말 돼민 딱 비여서 갈아 비여야 돼여.
 101008 @ 거문예 바당엿 걸 한번 곶아봄서예.
 101008 #1 으.
 101008 @ 바당에 고기.
 101008 #1 고기~, 옛날에야 뭐 저기.
 101008 @ 다금바리는 언제 잡는 것과.
 101008 #1 다금바리, 북바리 저 돔.
 101008 @ 예.
 101008 #1 황돔,
 101008 @ 예.
 101008 #1 또 이제 흑돔 또 이제 예~,
 101008 @ 계절 별로 혼 번 곶아줍서.
 101008 #1 계난 건 계절이 없어.
 101008 @ 아~.
 101008 #1 그물 노면,
 101008 @ 그물 놔기네예.
 101008 #1 이 저 잡는데나 그물 놔기네 저 주낫에 잡는 거나.
 101008 @ 예.
 101008 #1 그 자 물 때 맞앙 더 흥고 싶으면 물 때 맞앙 그자 바다 속에다 놓으
 면 아무 때도 물었으니까.
 101008 @ 여기는 흔히 우리 그 시에 홀 때는 낙지도 잡으레 간덴 흥고예. 저,
 101008 #1 햇불이지 햇불.
 101008 @ 예.
 101008 #1 옛날에는 저,
 101008 @ 한치? 한치 바당도 잇읍니까 한치바당.
 101008 #2 응 한치잇어요 그 것도.

101008 #1 이 낚씨꾼덜.

101008 @ 예.

101008 #1 낚씨꾼덜 허고 저 그 갯?에 가서 그자 나끄는 거고 또 바다에 강도 나끄는 건데 아주 옛날에는 오징어가 들어 와나서 오징어가 이 앞에.

101008 #2 거 오징어가 한치데 한치도 잇고 일부는 강원도서 강원도 오징어렌헤서 거 오징어 생김새가 틀리다고 한치허고, 주 여기서 쩌금 여 큰디 가서 나끄는 것은 한치고.

101008 @ 예.

101008 #2 그 옛날 역살 알면 우도에 역살 알면 큰 고기가 잇어 저립이라고 저립은.

101008 #1 방어 종류데.

101008 #2 우도 전역이 나는 게 아니고.

101008 @ 음.

101008 #2 데게 이기 오봉리 지역이 낫다고, 이 오봉리 지역에 그거는 이 저 사람이 저 곳으로 가서 나끄는 것이 아니고,

101008 @ 예.

101008 #2 돛단배 일쪽에 우리 그저 녀미역 건지는 그런 돛단배나, 또 발동기 이제 즉 말허자면 이 삼툰 짜리로 가서 저립 그거는 한 백 이십키로 보통 이제 그 팔십키로 육십 키로 이런 저립을 낚았다고, 게문 이제는 저립이 없어진 일이 있다고 그거는 우리가 가만이 판단 해보문 에, 지금 이 저~,

101008 #1 멸치.

101008 #2 멸치도 허지만 저 성산포나 제주시나 굵은 배들 이 야간에 보게뵈문 전기 환한 불을 키고 갈치를 낚은다고.

101008 @ 예.

101008 #2 저립 저립이 먹이가 전드란게 전드미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 열데언데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열데어예요 지금 거기 살았다가 이시기 뵈민 여기에 들어왔다가 그 나가는 건데 그게 들어오는 건데 갈치불에 차단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허는거라 그러니까 저립이 안들어오는거라. 우지도 저립을 많이 낚았는데 상당히 저립을 많이 낚았지. 우리도 일 년에 저립 머 그런 팔십키로 이런

101008 #1 멸치가 플랑크톤에 따라 다니거든.

101008 @ 예.

101008 #1 첫체는 멸치. 멸치 먹는게 뵈냐면 갈치, 또 아까 말한 저립 미끼뵈는 저 전데미, 그 게 이제 저 멸치를 먹는건데 멸치가 이 연안에 엇어저분 거라.

101008 @ 아,

101008 #1 아까 바다에서 먼저 잡아 버리면 멸치가 이 주위에 전에 옛날에는 멸치가 오 월들만 나면, 음 녀 시월 오월 들??지 이 우도 연안에 꺾 찼어요.

101008 @ 예.

101008 #1 뭐 헤마다 꼭 차면은 흐는데 지금은 그 게 꼭차질 못헤 없어서부러
 지금 다 먼 배들이 와서 잡아 가버리면,
 101008 @ 예.
 101008 #1 그러니 그 멸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고기덜이.
 101008 #2 미끼가 안 들면은게.
 101008 #1 그 따위로는 고등어나 갈치나 아까 말헌 저립미끼나 안 따라 오는 거
 지. 그 미끼가 없어 노니까 아까 말한 저립도.
 101008 @ 예.
 101008 #1 미끼가 없어노니까 안들어오는 거라 지금.
 101008 @ 예.
 101008 #1 게메 그 것도 어디 혼이 잇느냐 물 조류가 썬, 이 방머리엔 혼데.
 101008 #2 으 으? 으기히고 또.
 101008 #1 으기가 많이 살지. 저.
 101008 #2 비양동 황돔 으두 군데만.
 101008 #1 저립이라는 게.
 101008 #2 주로 여기가 많이 낚지.
 101008 #1 거 또 물 센디가 많이 잇고 거기서 이제 저 저립이 그 미끼 작업을
 현다고.
 101008 @ 예 우돏말 우돏말 이 소섬말로 저립이엔 험니까?
 101008 #1 저립이엔 헤서, 소섬말로 저립.
 101008 @ 우돏말 예.
 101008 #1 겐디 그 게 천구백 년도부터 잡기 시작 헤갓고, 우리 ㅇㅇ가 잡기 시
 작험다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도에서는 주장허고 이제 살아시민 백 혼 삼십 세난
 하르버진데 일본사름 조수로 멩겘다고,
 101008 @ 아.
 101008 #1 그 사름안테 그 기술을 배와갓고 엄청나게 그 때 그 하르방이 저립을
 많이 나갓다고 하루가민 두 세 멩릿씩 잡앗다고, 그걸,
 101008 @ 아,
 101008 #1 그렇게 험 돈을 많이 벌엇는데 돈 번건 다 화투험 엇어저불고, [웃음]
 약험에 엇어저불고,
 101008 #2 나 케민 가쿠다.
 101008 #1어?
 101008 #2 내엘 병원에 갈꺼?
 101008 #1 어 가크라.
 101008 #2 어 네일 병원이 가민,
 101008 #1 나 저 저녁 때 배로 갓다그네,
 101008 #2 어 검사 잘 받아불여.

101008 #1 으, 기여게.
101008 #2 난 또 아판 누웠는가 해서.
101008 #1 아니 아니.
101008 #2 문병 왔는다.
101008 @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수다.
101008 #2 우리를 위해서 많이 피알 좀 해주십시오예.
101008 @ 예 예 경 험서.
101008 #1 피알이 아니라.
101009 @ 삼춘 마을에 자랑거리를 예 삼춘이 생각허는,
101009 #1 자랑꺼린 남들보단 먼저 바다에 가서 저저 바다에 가서 줌수질 해서
돈 많이 버어 올려는 거하고 벳긴 난 다른 건 없어요. 지금,
101009 @ 아, 옛날에 바다에 저 줌수 저기에 메역 즈물고예.
101009 #1 예.
101009 @ 저기 예, 해녀들 여긴 다 여자들은 다 물질 헐거 아넛과예.
101009 #1 게메 물질 물질,
101009 @ 물질은 안 허는
101009 #1 물질을 안허는 여즈는 업주게.
101009 @ 예.
101009 #1 물질 허는데 또 이 인심이 인심 포악해 박해여.
101009 @ 예.
101009 #1 저 서로 바다에 것도 ㄴ치 돌아가면서 춤 나는 깊은디 숨이니까 깊은
디만 강 허곡 또 저 어 늙은 할망덜은 얄은 디만 허니까 얄은 디만 헤기네 서로 돌
아가면서 허기로 허는데 그런 그러한 정신 저 양보심이 없어 먼저,
101009 @ 예.
101009 #1 가까운딛 거 좋은 거 먼저 쉬운 거 뜯어 먹어도그네 먼딛거 자기네
독점 흘거니까 자기네만 강 독점 흘라고,
101009 @ 예.
101009 #1 그런 심니가 난 궤썸해 웨여.
101009 @ 예.
101009 #1 그런 식 이제 협동심이란게 없어 아주 뒤튼.
1010010 @ 그런 이 마을에 대해서 삼춘님이 바라는 거 같은 경우가 어떻 돼쿠
가.
1010010 #1 바라는 거는,
1010010 @ 그 협동심 같은 것나?
1010010 #1 뭐 뭐 절문 사름들이,
1010010 @ 젊은 사름들이.
1010010 #1 우선 여기에 살아야 돼는데 살아서 이 지역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우리 지역에서 뭐 어떠헌, 이제 그 새로운 걸 개발해서 어떻게 살아 갈라고 해야
돼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안 살고,

1010010 @ 예.

1010010 #1 안 살아부니까 그게 문제라.

1010010 @ 예

1010010 #1 왜 안사느냐.

1010010 #3 원, 병원에 가주.

1010010 #1 아 하영 안 아프우다게.

1010010 #3 하영 안 아파도 게도,

1010010 #1 엇수다게.

1010010 #3 나이 먹어 가는 사람이,

1010010 #1 으.

1010010 #3 난 두 들에 흔 번씩 강 검사 받는 게.

1010010 #1 으 게메 나도 저.

1010010 #3 게 예약 해놔젠 허멍?

1010010 #1 예 게.

1010010 #3 으 경 행 게 가 사주.

1010010 #1 예게.

1010010 #3 게난 뭐 말씀 해 점서? 헤드려 점서?

1010010 #1 예 예.

1010010 #3 행 갑서덜. 나 영 우영빳디 풀 험저 약 처등.

1010010 @ 예 젊은 사람덜예.

1010010 #1 절문 사람들이 살아서 뵈도 절문 사람만이 잇겟습니까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갓고 이 마을을 이끌려고 해야 돼는데 지금 여기에 살면은 여러가지
쫓건이 나쁘거든, 지금 즈녀들 교육 시키는디도 문제가 만커든게.

1010010 @ 음,

1010010 #1 첫체는 으기 학원이 없거든 으세는 학원 학교 다녀야 으세는 늡히고
경쟁, 시업에서 경쟁 흘라고흐지 경 아녀면 그만큼 경쟁을 못 흐거든 학원이 없어
첫체는 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워도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네 보내는 거라
지금, 그런 데가 문제가 즈녀들 키우는데 좀 문제가 잇는거라.

1010010 @ 음.

1010010 #1 게문 으기는 도항선이 므음테로 다니게 뵈면, 수시로 밤에도 시에서
근무흐당 으기 왕 찾다가 출퇴근 할 수도 잇고 이렇게 흐는데 지금 저 뜯 섬이라노
니까 그렇게 못흐거든,

1010010 @ 예.

1010010 #1 그렇게 흐데 또 주이보만 네리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지금 도항선
저 주위보가 네리면 출입을 못 허는거라.

1010010 @ 음,

1010010 #1 이런 지금 불리한 조건이 되는거라. 그래도 네가 자녀들 넷 이라도 여기와서 살라고 권하고 싶질 아녀어,

1010010 @ 교육문제가 제일 크고예,

1010010 #1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1010010 @ ㅇㅇ환경,

1010010 #1 자녀들한테 딱 너이는 고향땅을 직허라 영 허지를 못하고 있어요.

1010010 @ 우도는 앞으로 어떻 변하시민 좋으쿠과? 자식, 우도 전체 마을 머 자연환경 다 헤기네.

1010010 #1 흠 나 고민을 많이 헤 집니다게. 머 계방을 해야 웨느냐 으, 아니면 땅을 그대로 지켜야 웨느냐, 게 우리 그쁘면 우리가 편리한테로 쯤 계방도 해야웨고 또 이 자연도 쯤훼손도 해야웨여, 지금 현재 우리 헤안 곳에 가면은 쯤 이제 그 진입노 어장 진입노, 툷 그튼거 케면 그걸 경운기로나 뭐 차로 실코 육상더레 오라 와야웨여, 훼손을 헤서 저 포장을 안허면 올라 올 수가 없지 그레 이제 포장을 해야웨는데 그 자연 훼손이라고 헤서 과거에 못허게 헤낫다고 행정에서 자연 훼손 시킨다고, 경 해도 우리 몰래 쯤썩히고 억지로 헤서 쯤썩 우리는 그런데로 허는데 어떤 부락에는 어떻게 못헤갓고 헛는 부락도 잇다고 계난 그런 거 조금 용서헤 줘야 웨겟고 쟤디 아근레 와서는 행정에서 쯤썩 용서는 허기는 헛다고 허는데,

1010010 @ 예.

1010010 #1 첫 체는 농사를 지을려고해도 사람을 구허지 못허겟어요 지금, 예 사람을 구허기가 힘들고 다 늙은 사람들만 살아노니까 또 절문 사람들만 저기서 구홀랴고 허니까 시간상 도항선 시간이나 시간상으로 저 큰섬에 사람보단 사람을 빌면은 헛 시간네지 두 시간을 일을 덜 시겨야 웨여, 시간상으로, 도항선 배,

1010010 @ 남은 시간에,

1010010 #1 맞창 다닐려고 허당 보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허지 또 인건비는 쯤더 비싸지 여기는 도립공원이 되기 때문에 도항선비 공원 입짱료 허다보면 스 천원 더 네야웨여,

1010010 @ 어.

1010010 #1 헛 사름이 여기 왔다 갈랴고 허면 스 천원 더 네야웨지 시간상으로 지금 헛 두 시간을 일 못 헤야웨지 지금. 그런 여건에서도 홀 수 없이 사름을 빌언 농스허는 사름이 있어요 잇기는,

1010010 @ 응,

1010010 #1 잇는데 그런 여건이 나쁘고 으, 저기는 으숫 시만 웨면 밧디 강 앓는데 여기는 으둑 시나 웨야 밧디 강 안꺼든 아침 웨도.

1010010 @ 예,

1010010 #1 그러니까 헛 두 시간 츠이가 나고 딱시 헛 삼십 분 딱 먼저 갈랴고 헤여 갈 사름도 도항선 문제가 잇고 이렇게 헤서, 그런 어려운 면에 있어서 농사짓

기도 어렵고 또 양식ㄴ쁜 것도 헐라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양식은 단지가 돼야되는 데,

1010010 @ 예.

1010010 #1 예 켜테 육지 큰섬엔 보면은 게도,

1010010 @ 양식허는,

1010010 #1 마을마다 쩍끔씩 양식허는 디가 있잖아요.

1010010 @ 예.

1010010 #1 청정환경을 만들라고 허고 줌수덜 사람이 우선 크니까.

1010010 @ 예.

1010010 #1 그거 반 저 줌수덜이 반대를 해서 못해요 지금. 또 젊은 사람이 누게 헐라는 사람도 없곡,

1010010 @ 음,

1010010 #1 투자가 많이 워니까 또 이렇게 해서 으 헐라면 딱시 줌지역에서 반 데 헐라는 사람도 잇을거고.

1010010 @ 음,

1010010 #1 이렇게 허는데 임시는 그자 이 그래서 지금이제 관광객덜이 왔다갓 다 허니까 그 사람덜 안테 그자 으 그저 허다가 그 사람덜 이용해서 돈벌이 헐라고 허는 사람벳기 없어요 지금.

1010010 @ 예 그 사람들이 오니까 왁작복작왁작복작허는게.

1010010 #1 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진 안 허지, 앞으로 이제 다섯 시만 워면 워 도체비 날 정도로 워여 다 가버려요 그 썸덜.

1010010 @ 맞수다.

1010010 #1 으, 아침 열 썸 쉰여 여기 왔다갓 확하게 돌아갓고 다 저기 가서 차는데 여기서 차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지금.

1010010 @ 예.

1010010 #1 가끔 그런데로 쩍끔 여기 숙박시설도 잇고 쩍끔 잘라고 허는 사람도 잇긴 잇는데,

1010010 @ 거난 다섯시만 워면 도체비 나온덴 해서,

1010010 #1 예.

1010010 @ 여러 가지 걱정도 잇고 청정해역도 좋긴 좋은디.

1010010 #1 예, 좋은데.

1010010 @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잇어서는,

1010010 #1 예.

1010010 @ 걱정도 되고예.

1010010 #1 그렇다고 청정해역이라고 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청정해역이라고 상표를 부찌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1010010 @ 예.

1010010 #1 으,

1010010 @ 자식들은 어디나 영 촌에 영 봐도에 자식들은 다 저 일자리 찾앙 저 직장 찾앙.

1010010 #1 저 이농현상은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우도만 아니라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지 이농현상은.

1010010 @ 예 그렇긴 허우다.

1010010 #1 농사 지어그네 수지 안 맞는다는건 세계적인 문제고,

1010010 @ 예 경 헐거우다.

1010010 #1 번저 가는데 그렇지만은 또 이제 생산 허는 사람도 적고,

1010010 @ 응,

1010010 #1 어 사람이 많이 살아와야 돼는데 지금 칠십 년 육십 년데 깐지만 허 여도 여기 육십 년 데로부터 칠십 년데만해도 삼천칠백 삼천오백 인구가 뒤편게, 이제 천칠백명뺏기 안뒤편까,

1010010 @ 예.

1010010 #1 경 뺏기 안뒤편주 지금 열한 개 열두 개 마을 헤기네 천칠백명 이라는 거 아넛과?

1010010 #1 으 그렇게 뺏기 안 뒤편는 거지 지금.

1010010 @ 예. 이제 초등학생 수는 몇 명 잇과?

1010010 #1 초등 아이 지금 초등 학생이 지금 한 칠십명인가 뒤편고.

1010010 @ 칠십 명마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10010 #1 응, 중학교가 한.

1010010 @ 중학교가 통합 뒤편잔아예.

1010010 #1 삼십 명 이십 오명 네지 삼십 명 뒤편거라. 백 명만 뒤편어도 폐교는 안 뒤편겁니다.

1010010 @ 응.

1010010 #1 분교도 안 뒤편고, 저 분교가 뒤편긴 뒤편 겁니다게. 우리 우에 특수지구기 때문에, 어떻게 헤난 교육당국에서 배려를 헤 주지 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겐디 그 이하로 떨어질까 걱정이 뒤편니다게 지금.

1010010 @ 음, 예 교육이 제일 걱정 인게예 삼춘,

1010010 #1 예 첫체는 으세 뒤편니뒤편니 헤도, 즈식 잘 키와야 여건이 좋와야 뒤편는 데, 도 여건 중에서도 으세는 학원교육시데기 때문에 옛날은 학원교육 아닌 본 교육만 뒤편어도 검사도 나오곡 판사도 낫주만은, 이제는 학원교육 아니뎸 뒤편떨어지지 아무래도. 나가 집작흐는데로 그렇게 생각흐여,

1010010 @ 예.

2. 제보자 일생

102001 @ 이번은 예,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거 한번.(00000,09:50)

102001 #1 사십 년도에 지금 어머니가 나가 나기는 저 부산 용당이엔 현디 있어 낮어요. 어머니가 출가 해녀 해갔고,

102001 @ 아, 출가 해녀예.

102001 #1 어, 출가 해녀 해갔고 용당에서 낳았는데, 나가 혼 세 살 네 살 네 살 째 돼갔고 다섯 살쯤에 우도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ㄴ짜 출가를 헛는데 술만 먹고 멘 날 술만 먹고 화투만 치고 혼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거기 살앙은 성공을 못 헐꺼 같으니까 이제 남편보고 제주에 가 살자 제주에 가서 살자고 해서 제주에 들어와서, 이 년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천구백사십오 년도에 해방되는 해에 저 제주시에 이제 저 징영으로 ㄴ지 갖다왔어요. 지금 저 아 아버지가, 갖다와네 그 해에 해방 돼니까 으 오 월 들썹에 징용에 갖당 해방 웨언 돌아 왔는데,

102001 @ 아,

102001 #1 해방 웨어네 혼 혼 들만이 늑막염으로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그레요. 지금 나가 알기로는, 늑막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으숏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네가 춤 학교에서 겨우 중학교 ㄴ지 다닌 것도 네가 큰 형님이 이제 군에 가서 전사를 헛어요 그래서 전사해여 어머니가 연금을 썬금 탕어요.

102001 @ 예.

102001 #1 그 돈으로 네가 공낙금을 네갔고 졸업짱을 받았어요 중학교 졸업짱을,
102001 @ 예.

102001 #1 받았는데 나보다 우리 보다 잘 사는 사람덜토 졸업짱을 못 받았어요.

102001 @ 예.

102001 #1 지금 겐디 어머니가 춤 나보고 게도 웰수있으면 공부를 허라고 어머니가 훌어머니라도 학교를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걸로 공낙금을 놔서 중학교 졸업짱은 받았는데 그 때도 훌어머니 자식이 웨노니까, 그 네선배가 그 때 있었어 여기 살았는데 나보다 세 살 우인디 아, 그 선배가 담배도 ㄴ짜 피와보자 또 화투도 치레 가는디 ㄴ치 나 딸아오라고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담배도 열 다섯 살에 담배도 피웁꼬,

102001 @ 음,

102001 #1 화투도 그 사름도 그 추록허다 보니까 혼썰 일찍 배웁꼬, 네가 청년 시절에는 화투도 아주 춤 망나이질 헛지,

102001 @ 으,

102001 #1 그러다가 으 우에 잇는 그 김ㅇㅇ씨렌 혼 분이 아주 유식 혼 분이 있었다고 그 분이 네 부모 ㄴ짜 해서 네가 그 분이 추데 해갔고 여기서 네가 열아홉 살 때 부락장을 헛어요. 절문사름 없으니까 부락장 헐 사름 없으니까 그레 나 보고 약

관동장 나왔다고 그렇게 해냈어요.

102001 @ 아,

102001 #1 약관이 어떠한 말을 험니까.

102001 @ 쓰무 살에.

102001 #1 이 사름아, 지금 어렷 떼 벼슬 헐 떼 벼슬 흐는 것이 약관이렌 흐는 게 아닌가. 으 그 분이 항상 김옥균이 말을 항상 나신디 와서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해 냈어요. 으 그 분이 또 역사를 좋아 해갖고 흐룬 나한티 와서 이 사름아 김옥균 이는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암신가. 으 또 이제 김성숙은 어떤 사람인줄 알암신가 해서 그 사름이 춤 나신디 와서 그런 이야길 해갖고 이 사름아 책을 보자 그 사름이 나한테 권흐데 나 그래서 웃십 오 년도에 육십 스년도에 디엠프젯드에 근무헐했어요.

102001 @ 예?

102001 #1 디엠프젯드, 전방에,

102001 @ 아, 디엠지.

102001 #1 군에 군에 갖고 전방에 가서 근무흐면서 나 책을 본 사름이여 학교 저 교육실에 잇는 거를 거 네무반에 책 잇잖아요

102001 @ 예.

102001 #1 일반 잡지책 책을 보면서까지 헐고 그 후에도 네가 춤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겠다고 책을 많이 보기도 봤어요게.

102001 @ 예.

102001 #1 보앗는데 그레도 네가 가난 헐어요게. 정말 눈물이 나요 저~[울음이 터짐] 네가 이 마을에서 일곱 밧디 중메를 샀어요.

102001 @ 아,

102001 #1 처녀 달라고, 게 가난뱅이라고 대답을 안헐어요 어찌다보니까 이 사름이 춤 네 아버지가 중메를 해네 네가 결혼을 헐는데, 춤 나 자서전 을 쓸라고 해도 으세 이것저것 춤 감투를 많이 쓰다보니까 또 네가 육십이 썰갓고 지금도 농사를 스천 오백 평을 농사를 관리흐고 잇어요게. 이렇게 흐는데 작은 아들 두 번째 아들 서울 잇는 두 번째 아들 꼭 쓰라고 영 헐는데 언젠가는 꼭 써야 돼겠어요 다문 멧 페이지라도, 쟈디 옛날 산 이야길 흘라고흐면 우리 큰아덜 웨 그 떼는 옛날 아넵니까 지금은 지금이고, 그 떼는 그 게고 또 난 너네들 공부시길랴고 이렇게 예를 썻노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 헐 노릇 아넵니까. 이런 말을 허면 헐 말이 없어요. 헐 일은 헐 일인데 게민 년 웨 학교에 가서 역스 교육을 뵙느냐 게도 아버지 헐던걸 게도 귀담아 들어 봐야 될거 아니냐 으, 이렇게 해도 즈식덜은 그걸 몰라 줍니다. 그거 경 흐데 우리 두 번째 서울아들은 또 다른 아들광 달라서 네가 과거를 춤 많이 들을랴곤 흐는데.

102001 @ 삼춘 요 자만 빼기네 해줍서.

102001 #1 으?

102001 @ 요 요 헐어요 헤그네 요는 표준 이 서울말 표현이라 부니까 우리 제죽

도 저기 소섬 말 허젠 허니까.

102001 #1 아, 네가 군데에 갔을 덕에 좀 표준어를 쓰면은 경기도 말 경기도 사
름이라고 이렇게 해놔어요게.

102001 @ 예.

102001 #1 겐디 여기에 와서도 순 토백이 말을 해야되는데 어땜 헨,

102001 @ 예예 지금은 토백이 말로예.

102001 #1 양심상 으 많이 허조 지금예.

102001 @ 예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옛날 말 이라부니까는 헛수다 경 헛주 경 안
해서예, 우스갯소리로 헤 뵈수다만은 요만 빼고예.

102001 #1 중학교를 다니게 고문 이상하게 중학교를 다니게뵈요 지금 그 때젠
국민학교 춤 졸업 해갓고 중학교 갓 힘이 없엇어 저 일 년을 지났어요 일 년을 날 지
났는데.

102001 @ 예.

102001 #1 아까 여기왔던 형이 나허고 갑장인데 야, 두선아 우리 저 친초 우뭇가
사리 메어갓고 공낙금 넬 걸로 해서 고등학교 입학허자. 아, 게딘 그 친구학교 그치
가서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했어요게.

102001 @ 아,

102001 #1 경 학교 그 앞서.

102001 @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 어디에마씨?

102001 #1 여기에 고등국민학교 중학교 인가 나기 이전에,

102001 @ 아, 고등국민학교,

102001 #1 으 고등국민학교,

102001 @ 예.

102001 #1 네가 여기 고등국민학교가 여기에서 친국백 혼 스십팔 년도엔가 고등
학교 설립을 해놔어요. 설립이 돼어서 이제 그 고등학교 공민학교 허다가 네가 우
리가 들어 간 후에 오십삼 년도에, 으 오십스 년도에 입학헌 후에 여기에 고테주
교장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여기 중학교 아니 저 초등학교 여기 출신인데 저 교장
으로 있었어요 여기, 그 분이 고등학교 저 고등국민학교 설립도 그 분이 헛고 또
중학교 인가도 그 분이 노력해서, 지금 이제 시켜줬어요 저 인가를 받은 건 웨냐하
면 그 때가 부○○씨라고 도 학무과장이 부○○씨라고 지금 구좌출신 구좌읍 출신
이랏어요.

102001 @ 음,

102001 #1 그래서 지역이 가까우니까 그 분안테 가서 아, 우도 지금 중학교 인가
받게 해 달라고 당신이 해주면 뵈지 않겟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 때도 춤 우리 중학
교 인가를 받게 했어요게.

102001 @ 음,

102001 #1 그래서 그 분이 후배들이 만혜요 지금, 뵈직 흘 때까지 한 삼십년 한

삼십 년 동안 여기 우도에서만 근무했어요. 으, 지금 근무해서 퇴직을 하다가 그 영감이 계 그 교장선생님이 우리 저 나 왜가론 나에게 팔 촌버릇인데 에 돌아갔는데, 그 분이 송덕비도 우리 세와있어요.

102001 @ 예.

102001 #1 겐디 공덕비를 세와줘야 계 송덕비하고 공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송덕비를 세와갔고 지금 구 초등학교 자리에 그테로 세와있어요 이제,

102001 @ 아.

102001 #1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네가 정신을 출려갔고, 그 분도 공덕비도 우리 중학교에, 세웁게 헤드려야 돼는데 공덕비 하고 송덕비 어떤 차이가 나는지 네가 그걸 좀 분석 해 갖고 공덕비를 세와 드려야 되겠고, 지금 또 그 웨로 우리 중학교 설립을 하는데 천백 평을 부지를 네 눈 사름이 있어요. 그 분 행년저 행연씨라고 아 그 분이 어떻게 착오 돼 갖고 지금 기록상으론 오백 평만 지금 회사 한 걸로 되어 있어서 네가 그 분도 이제 공덕비를 세와주겠끔 해야돼는데, 네가 육성회장 때 에~ 이제 그 비를 세울려고 하니까 그 비보다 그 사름보다 더 앞서 먼저 세울 사름이 있어 갖고 못세와갔고 이제 지금 그 일도 해주어야 돼는데 네가 가정일에 이 거 신경을 쓰다보니까 돈만 벌려 하다보니까 그 런 일도 지금 우선 선공 후사라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돼는데 나 욕심이 많아서예, 개인 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게 지금 이제. 그래서 좀 나가 이제 막음에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나가 으으 으 집에 박거리에 오 년 동안 늬이 집 살았어요 칠 년 동안, 남이 이제 박거리 그 때는 이제 돈을 안줬어요 방만 빌고 살았는데,

102001 @ 아,

102001 #1 여기에 오 년 살고 으 집이 이제 헤고해서 칠십삼 년도에 여기 이제 초가집으로 그 때 돈 구만천원 줬 갖고 이 집을 사 갖고 와 갖고 나테로 쓰렛도 다 올리고 이것도 나 손으로 다 헌거요 이 거 안백하는 것도.

102001 @ 아,

102001 #1 이 벽ㄴ뚝 것도 나 손으로 다 불리고, 이게 이제 칠십일 년도에 이저 쓰렛도를 올렸어요. 아 저 칠십삼 년도에,

102001 @ 예.

102001 #1 에 쓰렛도를 올려 갖고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경 혼디 나 가 좀 삼형제 어머니가 삼형제 나고 또 딸 하나 나 갖고 딱 형제만 낳고 다 죽어버리고 나 하나 뿐입니다게,

102001 @ 아,

102001 #1 어머니가 좀 에 구십오 년도에 돌아갔는데 팔십 다섯 설에 돌아가셨어요. 나가 그 때 병원에만 갔으면 살았을런지 모르지 아직도 살았으면 백 다섯 설인데, 나 그 때 간염 걸려 갖고 골골했다고 나 그 때 이장말기라 구십이 년도에 이장 해 갖고 구십삼사 년도에 간염 걸려 갖고 네가 우울증도 걸리고 네가 어머니 보다 먼저 죽어지릅디게 계, 어머니가 이제 그 앞서 도립병원에서 그 간 쓸개에 염증이

잇다고 해서 한 일주일만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이런 증상이 돌아 또 뉘풀이 뉘 줄 모르니까 멍심허렌 헛는데 아 네가 죽게 뉘니까 그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102001 @ 예.

102001 #1 게 어머니 나 앞이 돌아가야 뉘니다 나 그렇게 어머니 한티 말했어요 게. 이제 오 남메 나갓고 나만 나갓지 죽으면 어머니 더 험허니까 팔십 스 세갓지 살았으니까 어머니 흘 수가 엇수다 허니까 어머니가 흘 수 없다 그레도 스십일 만 이 저 방에서 돌아가셨어요게.

102001 @ 예.

102001 #1 [울음이 말소리에 섞여 알아듣기 어렵다.] 저 후회가 납니다. 지금만 이라도 건강해시면 네가 왜 병원에 어머니를 못 데려가느냐 아이들 하고 그렇게 애 기헤에 춤 네가 항상 후베들 보고 경 흡니다 저 부모불효 사후회라고, 부모가 살아 생전에 효도 못허고 죽어야 후회가 난다고, 그 연날 너무나 어렵게 살것 때문에 돈 벳기 모릅니다게. 돈벌 생각만 지금도 헤집니게. 경 흥고 또, 밧디 가서 일헤야 속 도 편흥고 밥도 잘 먹어지고 줌도 잘 오곡 놀면은 줌도 잘 아니오곡 므음도 그렇고 그 날 밧디 가서 물이라도 하나 허면 아, 나 오늘 벌일 헛으니까 이런 므음에서 밥 도 잘 먹어지곡 줌도 잘 오곡,

102001 @ 음,

102001 #1 나 춤 완전이 이기주이 잡니다.[웃음 웃는다.]

102001 @ 아이고 부지런 허신 말씀이주마씨예.

102002 @ 거난 부모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주만은 배를 헛구나 예, 배 출가 물질을 나가셨덴 허니깐.

102002 #1 아 그 때 그 어털 때,

102002 @ 예.

102002 #1 아버지가 젊은 때는 남이 집 머슴살이를 살았어요.

102002 @ 아버지가,

102002 #1 우리 할아버지가,

102002 @ 예.

102002 #1 술만 먹고 호걸로 살았어요게. 술만 먹으면서 우리 아바지나 우리 셋 아버지나 우리 작은 아버지나 다른 이 동네에 젊은이들은 다 서당에 보네곡 이렇게 헛는데, 우리 할르버지는 즈식들 공부 시키질 아녀고 당신 술 먹고 호걸 흘 생각만 해서, 우리 하르버지가 살아네 작은 하르버지 형제가 배를 헤여서 저립 나끄레 가 면 저립 저립 아가 말흥거.

102002 @ 예 아까 말한 거예.

102002 #1 낚아오면 걸 폴아 갓고 돈 나오면 술이나 먹꼬,

102002 @ 예.

102002 #1 이렇게 흥면서 우리 왜 하르버지가 워낙 사름이 유희니까, 그 춤 친구

말을 들어 갖고 우리 어머니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시겨서 아 우리 아버지가 또 어
릴 때 경 고생 헤어나도 우리 어머하고 저 용당이엔 혼디 육질 가니까 술만 먹으면
서 친구들 보아지면은 술 받아주기, 또 화투치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안
정돼게 시리 거기 생활을 못하게 허드랍니다게.

102002 @ 예.

102002 #1 그래서 여기 데려온 후에 일 년도 춤 댈자마자 그렇게 헨 춤 아버지
가 돌아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삼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밧 집이 으앞이 잇
는데 저기 이제 집을 폐가 시켜버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항상 우리 큰 누님이 거 육
이오 스변 때 가는 날,

102002 @ 예.

102002 #1 조반 밥도 못 먹고 갖다고 항상 죽어 갈 때까지 울었어요 거 아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 우이 형님은 성산포서 공사 성산 축항공사 하다가 낙반사고
로, 돌 떨어졌어 죽었어요게.

102002 @ 아,

102002 #1 형님들이 다 해서 그 덕으로 짝끔 네 재산은 짝끔 형님들이 멘들어
놓은 재산들은 있어요.

102002 #4 예-, 식사 어떻 헐것과?

102002 @ 엇수다 어수다.

102002 #4 미안 헤언마씨게 나면이라도 끌여주면.

102002 @ 전혀 아니우다 여기 말씀 이 듣는게 중 예.

102002 #1 저 우리 할망 허고 나허고 으 집이 시집 오란에 저녁 굶언 흐룻밤 잔
적도 있어요.

102003 @ 예. 게 어머니는 물질 하셨고예?

102003 #1 예.

102003 @ 원래 물질헤네예.

102003 #1 예 원래 물질 원래는 여긋 고향이랏는데 열세 살 때 우리 처남이 웨
아들이랏어요.

102003 @ 예.

102003 #1 어디 심방안티 물으니까 타향살이 허지 말고 저 육지 남방 낡 살아야
잘 우리 헐니까,

102003 #4 양 차 아니 끌여당 안네지.

102003 #1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동테무덜 제주시 동국민학교 뒤에.

102003 @ 예.

102003 #1 거기 강 자리 잡앙 살았어요게.

102003 @ 아,

102003 #1 그 때 초가삼간 마련헤언 우리 장인어른이 초가삼간헤언에 우리 장모
도 거기 남이 밧 빌면서 그 때는 빌면서 농사헐고 우리 장인어른도 노조 부두노조

에 다니는데 하필이면 우리 장모가 반신불수 돼갖고 삼 년 동안,
102003 @ 아,
102003 #1 삼 년 동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데소변을 머 헛어요게,
102003 @ 예,
102003 #1 약혼해도 좋은 데서 데려가겠다고 해도 차마 어머니를 놔둬 어떻 데
려 잡네 시집네까게.
102003 @ 아,
102003 #1 게서 이제,
102003 #4 아, 무사 우리 어머니 역사를 다잡숏과?
102003 #1 그 사람한테 씨집 못 갖다고 나한테 멘 날 싸우면은 후회를 해서싸웁
네다.
102003 @ 아,
102003 #1 그 사람한테 씨집 가면 잘 살건데 나 안테 와서 씨집와서 고생해노라
고,
102003 #4 팔자스주 풀이.
102003 @ 예.
102003 #1 지금 어떤 때는 그렇게 이해 하면서 허는데 그게 다 인연 아닙니까.
102003 @ 예예. 어머니는 몇 살 때까지 물질을 하셨수과?
102003 #1 지금도 험니다 지금 열세 설 붓더 시작 해갖고,
102003 @ 아 저 우에 우리 어머니 말고 할머니 돌아가신 저 할머니,
102003 #1 팔십 세 7진 헛습니다.
102003 @ 팔십 살 때 까지예.
102003 #1 예. 팔십 세 7지 어머니도 험 으집이 어머니가, 우리 조카들이 있었
어요.
102003 @ 예.
102003 #1 우리 나 우에형님 그 사고난 죽었다는 형님 그 자녀가 서오녀이가 잇
언는데.
102003 @ 예.
102003 #1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데령 살던 도중에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나가게
돼고 해서 어머니 혼자만 잇게 돼니 모셔다가 살았어요게.
102003 @ 아, 거 어머니가 거 손지들을 키웠구나예.
102003 #1 예 어머니가 저 스고난,
102003 #4 커피 저 무시것이 어디 가시니.
102003 #1 죽은 손지덜 키웠어요.
102003 @ 예, 경 헛구나예.
102003 #1 견데 그 손지 중에 큰손자가 이제 원일곱인데.
102003 #4 예, 코드 어디 벼수과 이디 코드.

102003 #1 이 거 아니라 코드는게 여기서 켜야주게,
102003 @ 음,
102003 #1 원일곱 인데 ○○○ 뒤통고 지금 ○○○, 게고 저 또 이제 밑에 저 수
산 그 디 저 시집 간 살고,
102003 @ 예.
102003 #1 또 망네는 학교도 못 땡겼어요. 학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일 학년인가 중퇴 해네 즘 자기데로 독학 해여네 한글을 겨우 알정도 허다가,
102003 @ 예, 삼춘 어릴 때예, 어릴 때,
102003 #1 예,
102004 @ 동네 아이들 허고 놀아난 기억이 이시민예, 한 번 곁아줍서 어떤 놀이
를 해나수과? 자치기여 뭐,
102004 #1 그 때 놀 떡이는 자 치기 허고 부단 치기,
102004 @ 예? 자치기 허고,
102004 #1 또 부단 치기,
102004 @ 부단 치기?
102004 #1 예, 이렇게 돌 세와 갖고,
102004 @ 예,
102004 #1 이제 돌 세와 갖고 돌 심어 갖고 마칩니다게.
102004 @ 그걸 부단 치기엔 해나수과?
102004 #1 예 부단 치기엔 해나서 부단치기.
102004 @ 부단 치기?
102004 #1 예 부단 치기.
102004 @ 예 경 흐고 또,
102004 #1 쪼끼 차기,
102004 @ 쪼끼 차기,
102004 #1 예예, 쪼끼 차기도 흐고 또 백토로 백토로 해서,
102004 @ 예,
102004 #1 저 우리 중앙에 가민 소방서 옆에 가면은 그 흑이 그 양병방통, 그 위
엔 현데 거기느 그 흑이 찰집니다.
102004 @ 예.
102004 #1 흑이 게민 그 흑 파다가 답아,
102004 #4 설탕 커피 엇수과?
102004 #1 설탕, 설탕 거 아니라게 설탕.
102004 #4 아, 설탕 커피.
102004 #1 설탕 커피 여기 잇잖여.
102004 #4 아니 오레만이 온디 뭐 헤드리도 아녀고 겿겿 안 다닐 때 흐니까양,
해녀질 아널 때니까.

102004 @ 예.

102004 #4 물엿 거시 업수다게.

102004 @ 예, 아이고.

102004 #4 예 물엿 거 혈 떼는,

102004 @ 너무 죄송해네 이거,

102004 #4 예 물엿 거 혈 떼는 이제 소님이 와도 좀 안주는 잇는디, 물엿것도 안
 허고 하니까 막 미안허우다게.

102004 @ 아이고 이 거 어떻 허코마씨 우리가 죄송해 가지고, 막 귀헌 말씀 듣
 는디 예.

102004 #1 거니까 다마 멘들아 갖고,

102004 @ 예, 다마 만들앙,

102004 #1 다마 치기 해서 다마 치기,

102004 @ 계난 흠으로?

102004 #1 예 흑예,

102004 @ 저기 다마 만들아마씨,

102004 #1 다마 만들아 갖고,

102004 @ 예예,

102004 #1 저 다마 치기를 헤요게 이제,

102004 @ 연도 만들영 티와 납디가?

102004 #1 예 연도 만들앙 뽕고 연도 만들앙,

102004 @ 삼춘예, 연들은 잘 만들아 낫지예?

102004 #1 으 연들은 게골라기가 잇고 딱시 이제 이에 니귀 방장헌 거시 잇고,

102004 @ 예 방페엔 헤신가마씨?

102004 #1 예예 딱 풀리 연 이엔 흔 게 잇어 골리연.

102004 @ 예.

102004 #1 게골라기엔 게골리기 연이엔 하고,

102004 @ 예 게골라기엔,

102004 #1 또 정연 정연이엔 흔건,

102004 @ 예 네모 반뜻,

102004 #1 이렇게 웬 건 정연이라고 헤요.

102004 @ 아, 정연예.

102004 #1 그 레 그 멘 줍 정연 띄우는 사람을 짝끔 저 뭐 하는 사람으로 보곡
 예,

102004 @ 예,

102004 #1 즈끔 높은 사람으로 보곡 게골리헌 사람은 좀 잘 서툰 서툰 사람이고,

102004 @ 예.

102004 #1 또 잘 못허는 사람으로 보고 영 이렇게 헤났어요. 것도 서로 생각허는

게.

102004 @ 예, 거 삼춘 연 허젠 허문 데가 잇엇아 웰거 안닛과예?

102004 #1 예게,

102004 @ 데는?

102004 #1 데는 까가그네,

102004 @ 예 깎아그네,

102004 #1 예 데헤그네 막 까까그네 이녕 양으로 밥풀 헤다그네 밥풀로 부치명,

102004 @ 예.

102004 #1 부치명 이제 만들명 이제,

102004 @ 그 데는 어디 강 헤다그네 헤수과?

102004 #1 데가 여기.

102004 #4 데 맛 잇어낫수다게.

102004 #1 집집마다 데 맛있어요.

102004 #4 겐디 지금은 다 없세벳수다게.

102004 @ 예.

102004 #1 게 데가 여기서는 데가 어디서 헤 오느냐면 저 에 수산.

102004 @ 예.

102004 #1 여기서 이제 겨울에 세 흐레 가 세에,

102004 @ 예.

102004 #1 여 우리 집 집 저 지붕 덩플 세 흐레 가면은,

102004 @ 예.

102004 #1 그 때는 춤데 흘라고도 허고 이 이제 지붕에 무꿀려고 허면은 여기에 그 데로 무껴주어야 돼어 여기에.

102004 @ 예예.

102004 #1 게야 그 기에 저 줄을 무끄든.

102004 @ 줄을 묶으니까예.

102004 #1 그 그런 거 잇으문 그런 걸로 헤그네 아까 말흔거.

102004 @ 짤라그네예.

102004 #1 그런 거 저 어디로 부튼 거 똥가리가 잇으면,

102004 @ 예.

102004 #1 그 런거 좇어서 이제 그 그런 거 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2004 @ 예, 썰은 어떻 헉디가 썰?

102004 #1 예?

102004 @ 옛날.

102004 #1 저 어머니네, 어머니네 저 며 흘라고 이제 현 거 잇엇고 그런 실도 또 어디서 또 저 어디 겹쳐지는 썰이 어디서 나와났어요 또, 예.

102004 @ 예.

102004 #1 그런 썰도.
102004 @ 그거에 허곡.
102004 #1 예.
102004 @ 삼촌 동네에서 연 잘 만들고 잘 날려놨수과?
102004 #1 아이 연을 나 그렇게 연을 많이 만들어 보질 못했어.
102004 @ 어,
102004 #1 연은,
102004 @ 연은예. 거문 딱 뺏장? 빠장 만든거? 빠장이엔 험니까? 저기 종이 헤가지고 탁 처그네 영 뒤집기 허고 그런 놀인 안 해놨수과?
102004 #1 그런 그런 놀이는 몰릅주.
102004 #4 이 거 이거 드셔 보십서 나 맛있게 못 헤가지고예.
102004 @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삼촌,
102004 #4 촌이 살아서 음식을 만들 줄 모릅니다게.
102004 @ 아이고 무슨 아이고 이거 잘 먹쿠다. 삼촌 거문 바당에 케기 낚으레 가는 거는 아이 때,
102004 #1 나 어릴 데는 갈치 낚으레,
102004 @ 예.
102004 #1 갈치 낚으레, 지금 나가 지금 총각 저저 결혼해서도 헛주만은 갈치 나끄레,
102004 @ 예 어릴 적에,
102004 #1 흐 오락 칠 년 다녔어요 그 멘 갈치 낚안 돈은 못 사고,
102004 @ 예.
102004 #1 이제 본격적으로 뎡 길 뺏이는 흐루 가그네 흐 두 세 마리씩 낚아당 그 자 집이서 반찬,
102004 @ 반찬정도,
102004 #1 어떤 때는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흐루에 가그네 흐 뎡 마리나 흐 오십 마리 낚을 때가 있어요.
102004 @ 예.
102004 #1 그 때는 젓 담양 먹기도 허곡,
102004 @ 아 예.
102004 #1 돈은 못사고,
102004 @ 예.
102004 #1 또 흐 두 세 마리 열 마리 씩 낚아오민 동네 이웃디 또 저 홀어멍 잇는디덜 또 나시 두게 씩덜,
102004 @ 예.
102004 #1 주곡 이렇게 헤났어요, 돈 사보지도 못 흐고.
102004 @ 예.

102004 #1 또 자리도 거리레 쫓 땡겨봐도 뺏겨리나 쫓 헛지 본격적으로 웨냐흐면 쫓 ㄴ치 땡기는 사름은 서툰고 서툰 사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아주 기술적인 사름이 아니민 자리를 많이 못 거릅니다게,

102004 @ 예 자리 거리는,

102004 #1 지금, 물 떼도 잘 보곡 여도 잘 알아야 땡곡,

102004 @ 예.

102004 #1 저 자리 나는 저 기술을 잘 알아야 땡는디 나영 ㄴ찌 흐 사름은 기술적인 사름이 못땡어요게.

102004 @ 예.

102004 #1 경 해서 게 반찬정도나 진행허고 뺏겨리나 쫓 헛지 큰돈은 못 사뵈어요게.

102005 @ 삼춘, 일제시대 때 왜정시대 때는 곤는디예, 그 때 기억 나는거 잇수과? 생활이나,

102005 #1 기억 나는 건 나가,

102005 @ 경 해도 여섯 살 일곱 살때 쫓,

102005 #1 헤방, 헤방 땡는 헤,

102005 @ 예.

102005 #1 헤방 땡는 헤 쫓꿈 기억 나는 건,

102005 @ 예.

102005 #4 미선이 아버지 왕 커피 드십써.

102005 #3 미선이 어멍 안 와십디가?

102005 #4 아니 나 이제사 어디 밧디 갖다왔수다게. 커피 드성 갑서게.

102005 #1 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님이, 자갈 께라곡 께레,

102005 @ 예.

102005 #1 저 서머리,

102005 @ 건 건 나라에서 막 그 떼 헤방땡기 전엿거니까.

102005 @ 예.

102005 #1 나라에서 이제 자갈을 께라거 현 거라. 그 콘크리 흘랴고, 자갈을 께려고 가 불 떼, 우리 어머니가 나 우리 아까 와 여기 와난 그 쫓 나안티 병원에 가라고 현 사름이 나 작은아버지요게, 오춘 당숙이요게 그 어른이 여기 살았어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네가.

102005 @ 예.

102005 #1 나 흐고 나 흐고 한 살우이예요 그 아깟분이.

102005 @ 예.

102005 #1 둘이가 나 죽은 할머니영 ㄴ찌 여기 이시렌 죽은 할망은 그 디 안 가고, 아! 비행기 쏘리가 바룩바룩 나 전쟁이 난거라 계난 우리 죽은 할망이 아까 우리 삼춘흐고 안아서 비행기가 절로 소리나민 이쪽 더레 오곡 또 절로도 소리 나민

이쪽 더러 오꼭 아 그렇게 헤났어요.

102005 @ 아,

102005 #1 경 흥곡 또,

102005 @ 그 때 폭격은 벗어나고예?

102005 #1 응?

102005 @ 폭격은 벗어나고,

102005 #1 폭격은 앓고,

102005 @ 응,

102005 #1 또 하루는 비행기가 먼데서 폭격 와신디 막 동네 사람들이 여기 몰궤
 량이 있어 몰궤량,

102005 @ 예,

102005 #1 아 몰궤량에다 모이는 거라.

102005 @ 아~,

102005 #1 으, 모이는데 저 나보다 흔 술 윗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생이 있으
 까 걸어서 거길 갖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동생이 없으니까,

102005 @ 업어줘

102005 #1 날 업어서 거길 가난 적이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102005 @ 아, 비행기가,

102005 #1 지금,

102005 @ 그 때 영 폭격기,

102005 #1 예 폭격기 저 디서 폭격해서 여기서예, 으 저 우리 형님 말론 허면 저
 북쪽에서 폭격기가 일본 비행기흥곡 미국 비행기가 서로 공중에서 싸웁다가 일본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게.

102005 @ 아,

102005 #1 지금, 이제예,

102005 @ 예예,

102005 #1 저 우리 형님 그런 말 이제 이렇게 허멍 이렇게 헤났는데 그 기억 이
 웨로는 엇고,

102005 @ 예,

102005 #1 또 헤방 뉘니까,

102005 @ 예.

102005 #1 우리 집 앞에서 영 보니까 막 테극기를 들면서, 거 일주 헤난거, 우리
 우도,

102005 @ 예,

102005 #1 일주 헤난거 그 기억은,

102005 @ 예 헤방 때에 그렇게 헨거예,

102005 #1 예, 쯤금 납니다 지금.

102005 @ 건난 공출은 그 서머리에 가그네 돌을 깨는거를 공출 해냈구나예.
102005 #1 경 하고 딱시 이제 거기에 저 여기 공출 하는 사름들이 있어났어요.
으 밥얻어 먹으레,
102005 @ 예,
102005 #1 이저 민ㄴ에 내려 와났어요. 그레 우리 어머니가 즐긴 없으니까 밥이
없으니까 누물 저 뽑다가 누물 뽑은거 주니까 누물 뽑은 걸 그 사름들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된장에 찍어 먹고 가랍니다게 웨낙 배고프니까.
102005 @ 예 된장에.
102005 #1 [웃음] 어머니 막 가난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뭘 줘니까게 지
금.
102005 @ 예예.
102005 #1 예 이제 해방 됐니까 그 사름들이 다 나가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102006 @ 삼춘, 사삼사건 때 저기 소개 행 은 사람덜 소개 해기네 사람덜 막 여
기도 와 났지예? 사삼사건 때.
102006 #1 사삼 사건 때,
102006 @ 저 하도리 사람이나 어디 수산 사람덜,
102006 #1 저 스삼 사건 때 쪽끔 연류 돼갓고 와 간 사람이, 지금 이제 김평집선
생이라고 그 사람이 구좌읍장 아버집니다게,
102006 @ 예.
102006 #1 그 사람이 연류돼가 그 때 쪽끔 저 스삼 사건 때 연류 돼갓고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 처가 들언,
102006 @ 예,
102006 #1 여기서 중학교 우리 은삽니다.
102006 @ 예.
102006 #1 게게 우리 이제 여기서 선생질 하다가 정식 선생이 돼갓고, 성산 중학
교에 졸업해연에 겐 여기서 난 각시는 구좌읍장 깐지하고, 그 성산중학교깐지 나온
구좌읍장깐지는 해서, 그 김평집선생이 성산리에서 저 춤 노인회장깐지 하다가 나
가 꼭 선성흔 거 흔 번 꼭 그 춤 선성의사 스승이 날은 꼭 식스를 헐랴고 허는데
나도 춤 흔 번 못했어요. 그 선생이 여기 살면서 나 웅변도 써준예, 육이오 사변 기
념으로,
102006 @ 웅변마씨?
102006 #1 웅변 원고도 써 췌 나 웅변도 해났어요.
102006 @ 아,
102006 #1 나 중학교 일 학년 때, 그런 인정 또 이 동네 살아부니까 우린 학교
갓다오면 캄쟁이 우력이라고, 으만헌 춤데 가정 강 우력만 나끄는 거라 아까 여기
왔던 형하고 ㄴ치,
102006 @ 예,

102006 #1 우럭 나끄레 가면은 그 선생은 장인 어른하고 그물 노래, 저 구릿 그물 노래,

102006 @ 예.

102006 #1 저 벙에돔 그물,

102006 @ 예.

102006 #1 그 곳 그물 노래, 가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 이 세끼덜 하면 이제 막야단하면 이렇게 하고 아, 또 우리가 못됐니까예 솔찍이 네가 이제 일 년 후에 또 년 후배덜 데려다가 성산 성산 짜 성 네곽,

102006 @ 예.

102006 #1 성냥 쌀 네길 화투를 했으니까 어떻 혼 말잇과.

102006 @ 예.

102006 #1 계난 그 선생안티 걸려 갖고 얼마나 메를 맞았는데 알았과. 저 동한 집어서 네가 어릴 때 못된 짓은 많이 해수다. 계나 그 아이들이 지금 이○○나 강○○이는 여기서 춤 부자 노릇허당 이 도항선 허멍 큰 부자 노릇을 허멍 죽엇고예, 삼 년 후벤디. 저 어디 춤 인물은 인물인디 그 디도 각시 죽어부니까, 춤 이제 저 사름 보민 저 도지 그 때 우○○이나 신○○하고는 춤 느영 나영 하면 이렇게 지네다가 그 싸름덜 하고도 멀어지어 버렸는디 게 삼 년 후배가 그렇게 해났어요. 머리가 좋아났어요 그 단,

102006 @ 예.

102006 #1 예 그 이○○엔 혼 사름은 이제 경찰에 들어 간 또 그 늑도 이제 경찰에 들어간 이 거 장난하던 파직 돼어네 이제, 저 삼천포 각시가 물질 나가니까,

102006 @ 아,

102006 #1 다이버 물질 허니까 이제 각시하고 삼천포 가네 이제 그 디 간 다이버 질 하면서도 복장이 크니까 돈을 잘 쓰니까, 나 그 혼 헤 삼 유도면 계발 자문위원으로 이실 때 그 삼천포 서금 동서금동 하고 유도하고 자매결연 했어요게, 일년에 혼 번씩 갖다 왔다 흡니다게. 나 그 때 갈 덕에 워낙 그 그딴 싸름덜 오니까 사천시 시이장이 우리하고 오찬을 하게 왔단 와수더라고,

102006 @ 예.

102006 #1 그 때 계난 그 사름이 다 소계를 혼 거라 그 사름이 연극을 꾸민거라. 다 그 사름 집이 자고 그 때,

102006 @ 예.

102006 #1 하고 어머니가 지금 훌어명인데 그 디도 훌어명인데 그 이○○ 하나를 키울라고 상당히 공을 드려고 춤 여기 절간에 다 지고 으 이렇게 하면서 다 키웁다가 삼천포 데령 갖는데 헨 어머니도 혼 삼 년전에 이제 그 늑도 77지도 암으로 죽어 버렸어 게 부인이 벌어서 다이버 하면 하루 스 오십 만원씩 벙 만원씩 벌었다고 다이버질 하면,

102006 @ 아,

102006 #1 그 번 돈으로 마작도 흥곡 그 높은 싸름덜 사겨 낫던 살렸던 거라. 게
흔 번은 나 줌 ㅇㅇ 헐 뎡가 저 도이원 시이원으로 나올라고 흥다가 못 나오게뎡
기념으로 우리 동창회에 뎡 만원까지 기안을 흥고 헛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일 년에 흔 번씩 자꾸 여기 행사 때 와요 이기 소라축제 때 이제,

102006 @ 계난 삼춘은 여기서는 사삼 사건에 대해서 겪었던 거는,

102006 #1 스삼 사건에 격었던 건 무사, 스삼 사건 때 깰지만 흥드레도 나가 스
삼 사건 말기 때도 어머니 흥고 저 뉘 흥레 가났어 저 세 허레, 지붕 더끌라고, 우
리 어머니가 우리 웨 하르버지가 아들이 없는 집안이주게 계난 웨하르버지는 몸 늙
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세를 해당, 흔 헤에는 우리집 일곡 흔 헤에는 또 우리 웨하
르방네 집 일곡 헤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헛다고 어머니가 줌 못살고 허니까 또
웨하르버지가 밧이 흔 천 평가랑 잇어서,

102006 @ 예.

102006 #1 예 계문 그 디서 밧디 나는 걸, 줌 쫄라다가 우리가 먹으면서 살았
고 지금 이제 그 디서 농사 지어그네 고구마도 갈곡 또 조도 갈곡 허어그네 하르버
지가 거기 힘이 없으니 농스를 못 지니까 초불 농스를 어떻 어떻 동네 쉼을 빌었
헛는디 쉼쉬령으로 우리 죽어분 형님흥고 나흥고 우리 형님흥고 또,

102006 @ 하르버지,

102006 #1 나 우에 형님흥고 쉼쉬령으로 굶으면서 조씨를 뿌려서 조를 갈면서
해난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고 어머니 안 난 할망 아니난 할망이라 쉼씨 할망
인디 아무것도 흘 줄 몰라요 지금, 그 할망이 육지서 못 살게 뉘니까 여기서 고구
마 싱근 풀러 가는 배, 절라도 저 어디고 해남,

102006 @ 예.

102006 #1 절라도 팔 간 배에 부떠 앳안 여기 얻어 먹으레 온 거라. 그 우리 웨
하르버지가 부인이 없으니까 그 때 딸을 두 형젤 데런 온 거라. 겐 형제 데령 완
어떻게 헛 우리 웨하르버지를 만나네 그 딸 들은 늙이 집, 양너로 다 주워버리고
우리 웨하르버지 흥고 살았는데 물질도 흘 줄 모르고 물질 흘 줄 모르민 못 사는거
아니라게 지금.

102006 @ 못 사는 거 못 살주마씨,

102006 #1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 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또 네중에는 우리 웨
하르버지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할망을 우리 집에서 모성 살다가 죽었어
게 지금, 이제 지금, 몰라 양자를 텍하다 보니까 저 강원도 사름을 강원도에 강 사
는 사람을 텍하다 보니까 양자 한티 못살고 우리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성
살다가 춤 죽었는데,

102006 @ 그 아까는 새 허레 어디 갔덴 헛지예?

102006 #1 세허레 수산,

102006 @ 수산에,

102006 #1 예.

102006 @ 계난 사삼허고 수산 저,
102006 #1 그 때는 스삼 사건이 다 완전히 끝나지 않을 때까지,
102006 @ 않을 때난,
102006 #1 예 계민 우리가 세 허레 쩌 에 군데오름, 수산에 군데오름 이엔 혼디 올라가곡 또 올라 가면은 저 토벌때가,
102006 @ 예.
102006 #1 산 위에서 그 세 허는 싸름덜을 보호했어요 지금 이제 보호하고,
102006 @ 아,
102006 #1 보호해서 이젠 또 성문 더끄기 전에,
102006 @ 예,
102006 #1 다섯 시 전에 들어와야 돼어,
102006 @ 예.
102006 #1 경 안허민 성문 다다 닫아 버리면 골란하니까.
102006 @ 예.
102006 #1 경 썩끄만 있으면 늦게 왔으면 성문 닫아 버릴 뻔했어요 지금.
102006 @ 아,
102006 #1 경 한 적이 잇고 또 우리 셋어머니가 또 수산 아는 집이가 잇어네, 우리 어머닌 그 날 세 허단 집이 오게 돼고 우리 셋어머니는 이제 저 못오게 돼니까 나하고 넬낭 꺾치 가자고 나 사는 디 가그네 나 자는 디 강 꺾 강 자겐 가니까 바로 성문 성땀 여피라.
102006 @ 응,
102006 #1 방이 암호 소리,
102006 @ 예.
102006 #1 서로 이제 서로 암호 하는 소리가 워~ 워 하는 암호 소리가 들렸다고 그 때 암호 하는 소리가,
102006 @ 예.
102006 #1 아, 그래서 나는 줌이 안 와 어릴 때도 지금 이제,
102006 @ 예.
102006 #1 그렇게 해면서 헛는데 그 후에 춤 몇 년 없어서 헛고, 또 우리가 벌초를 못 다녔어요 그 때 산에 우리가 지금 칠 데조로부터 십일 때까지 벌초가 저기 월정에 잇는데 스삼 사건 때는 벌초허레 못 갔어요게.
102006 @ 예.
102006 #1 게 완전히 스삼사건이 끝나고 간 보니까 아 우리 칠 데조, 산 뒤에 바로 산을 썼어,
102006 @ 아,
102006 #1 계난 옛날에 산을 잘 쓰민 즈슨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산을 딱 붓전 썼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훗을 길이 있어, 그래도 벌출 허다보니까 몇 년 후에는

그 산을 파갔더고마는 양심이 가책 돼신 그라예 이제,
102006 @ 예.
102006 #1 경 헨 이제 그 산에 우리 칠 데조들을 묻혀있어요 지금. 아 칠 데조로 부터 십일 데까지 이제,
102006 @ 응.
102006 #1 이제 파다가 이제 월정에 우리 칠 데조 삼형젠데 작은 가지가 월정입니다 한도실이라고 옛날에 저 구좌읍장도 헤나고 딱시 이제 저 유명한 사름입니다 유명한 사름인데 이제 그 사름덜 하고 이논 헤 가지고 우리 칠 데 조로부터는 십일 데까지는 산을 열세 열세 산을 파다가 다 화장 헤네 우리 칠 데조에 산을 묘에 자리에 그 자리에 묻천 잇는디 아 원래 십 데조에 묻을랴고하니까 아, 판 보니까 산 계관에 물이 그득 찻어,
102006 @ 아,
102006 #1 웨 그 득 찻느냐고 하니까 그 때는 정성으로 산 물을 계관 팔짜리를, 파 갖고 출혹으로,
102006 @ 출혹예.
102006 #1 출혹으로 막 다린 거라.
102006 @ 아,
102006 #1 그러니 물이 숨지를 못 허는거라 저 흔 거 그찌,
102006 @ 아, 빠지지 못 헨,
102006 #1 걸 몰랐던 몰랐던 거라 그 이치를 몰랐던 거라. 게 우으론 물이 떨어진 거지 그레 물이 우수고 잇는 거라. 아 게 파 보니까 계관도 삼백 년 헨 산이 계관도 안 썩언 잇어 저 관도 안썩언 잇어.
102006 @ 아,
102006 #1 게 손을 넣어 갖고 손으로 다 하나 하나 건전 겐 와네 화장을 해서, 아 그런 경우도 잇었다고 춤.
102006 @ 아,
102006 #1 아, 거기는 이제 정리 헨 입장이 못돼다 정리 헤 그 산들을 묻을려고 했는데 못 우들런 우리 칠 데조에 산에 정리 헨 묻읍주 경 헨 정리헨 지금 묻었다고,
102006 @ 그런 일도 있구나예.
102006 #1 예, 건 헨 나 항상 이제 경노당에 앓이면 아, 우리 하르방 삼백 년데 우리 십 데 십일 데 하르방인데 아, 그런 일이 잇었다고 지금 이제,
102007 @ 예, 거난 삼춘은 이제 중매결혼 헨 셈이로구나예.
102007 #1 중매결혼,
102007 @ 예, 중매결혼.
102007 #1 나 아까,
102007 @ 예.

102007 #1 여기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람이 인정이 있고 유식 했다고,

102007 @ 예.

102007 #1 또 큰형이 여기 이장도 해나고 나 바로 그 사름은 이 데 이장을 하고 난 삼 데 이장을 했어.

102007 @ 예예.

102007 #1 그 사름 우리 장모가 걸을만 하니까 이젠 이 언니 집을 온 거라 시에서,

102007 @ 예.

102007 #1 언니 한티 아이고 우리 셋 년 셋 년이주게 두 번째 딸이난 우리 셋 년은 나 때문에 좋은 디 잇어도 결혼 못허연,

102007 @ 아,

102007 #1 이젠 자유당 때난 어느 깡패안티 만났 고생을 흘는지 모르켄 영 허난 아, 그 아까 이 말 했던 아버지가 하 여기 암전헌 총각이 잇우텐 견 나를 소개 혼 거라.

102007 @ 아,

102007 #1 겐 그 그 아까 큰형이 나헌티 완 우리 어머니 안티 저 우리 두선이 결혼 시킵주 으 이렇게 이예길 혼 거라 아, 느네가 알아그네 헤여드라 허난에 알았 수다 게 두선이 우리 집이 와 봐 게 간거라.

102007 @ 예.

102007 #1 간 보난 그 아가 그 아버지가 흐는 말이 이 우리 처형이 지금 이제 딸이 잇엇저 게 딸이 알주게,

102007 @ 예.

102007 #1 과거에 이모네 집이 가깝게 땡기는 거 혼 번은 보아났주게.

102007 @ 예.

102008 #1 잇는디 이만 저만헨 여기 결혼은 못 헨 잇인디 느 어떻 허니 허길레 게메마썸 나 게민 죽은 아버지하고 강 이논을 헤 보쿠다 어머니광 이논을 헤보쿠다 흐연 어머니안티강 곱으난 아이고 좋다 경 헨 이제 우리 죽은 아버지 강 스주 강 가져옵서 그 때까지 스주를 봤거든,

102008 @ 아, 예 스주를 받을거니까예,

102008 #1 응 스주뵈주 겐 스주 앗앙 강 앗앙 읍센 보난 그 때 강스장이엔 혼 살아잇어서, 겐 보난 줍디텐 게민 약혼식 홉주 원칙은 약혼식을 우리 저 처가가 거 어디냐면 거 비양동이라.

102008 @ 예.

102008 #1 건디 우리 가시어명이 그 츠레를 몰른거라 으, 그 원칙을 안 따저와네 그 자 그저 동생네 집이서,

102008 @ 예.

102008 #1 쉽게시레 헤여분거라. 원칙으론 저 우리 처,

102008 @ 예,

102008 #1 본 이제,

102008 @ 집이 가그네,

102008 #1 큰 아방 잇엇주게 큰 아버지네가,

102008 @ 예.

102010 #1 큰 아버지네가 이시난 그 집이 강 해야 텔 건디 경 아년 경 약혼식을 헤여네 춤 결혼식을 헛는디 허게 웨난 아, 그 음녀 동짓들 열흘날 결혼 날자를 잡안 낫는디 아, 그 데에 나 지금도 그 배가 만 배가 혼 들 동안 아파 갖고 꼭 죽을지경이라 계난 그 때 돈도 엇고 병원에도 못 가지 안헤숫과게, 아 경 허단 결혼 날짜 열흘 남으난 흐끔 좋아지데 이제,

102010 @ 음,

102010 #1 아 결혼은 좋아지난 이제 혈 걸로 헛는디 어떠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죽은 아버지 안티 우리 시에 가그네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 거 이눈을 행 읍서 아 이제 죽은 아버지가 이눈을 흐레 가니까 우도에 강 결혼식 흐켄 우도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우리 아버지하고 갑장이고,

102010 @ 예.

102010 #1 갑장이라숫다게. 또 우도 우도니까, 이제 저 우도식으로 이제 계민 다 음 장에는 세화장으로 올꺼엔, 계 난 또 서화장에 갈 찍에 저 세각기 깃슴 왓시난 옷도 곱게 입영 간 거 뜻고냥 준운 옷을 입영 간 거라 뒤 준 옷을,

102010 @ 예.

102010 #1 계난 우리집 사람은 저 장모 안터레, 저 서방 ㅁ심 어느 것과 나 친구를 곁는 거라, 친구는 나보다 키도 죽고 얼굴이 좋앗주게 계난 날 ㅁ르킨거라 날 ㅁ르킨 거 보난 뜻고냥 터진 거 입고 흐니까 결혼 아니 흐겟다고, 원 막 둥굴 춤 흐거라 장에서 경 흐난 아 이년 말이여 ㅁ음데로, 결혼 허락하고 말이여 지금 이년 죽이켄 헤여가난 우리 집사람은 어멍 메 안 맞추젠, 흘 수 엇이 나 결혼 허쿠다 나 결혼 허쿠다.

102010 @ 아,

102010 #1 허쿠텐 헤네 이젠 하도 우리 집사람이 아방안티 에원 헤 난 계민 너 가고정 흐디 가라 경 헨 비양동에서 춤 음력 동짓들 열흘날 결혼식을 헛십주게 지금,

102010 @ 예.

102009 #1 헛는디 경 헨 이제 춤 그 뒷 헤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젠 뜬 빨리 지금 느네 뜬슬림나렌 마런헤여네 그 때 나 고기 나끄레가네 그 때 고질멩이엔 흐 고 길 나간 그 때는 고질멩이 폴아네 그걸로 숟가락 열 게,

102009 @ 예.

102009 #1 밧꿨어, 물물교환허고 또 집사람 이제 그 때 경북 저 출가 갓단 출가 해녀로 갓단에 헤 먹던 으만헌 냄비,

102009 @ 예.

102009 #1 그거 맞이고 헤여네 으 집이 가네 이젠 저 그거 빌언 가네 그 그걸
제산하고 어머니 좁쌀 흔 말,

102009 @ 예.

102009 #1 좁쌀 흔 말 이제 주는 거라 게 거를 가져 간 거라 게 거 다 먹으난
뒤 없지 그 때 마침 나 동장 떼난 저 교환미라고, 저 나라에서,

102009 #1 예,

102009 #1 저 보릿쫶 보릿쫶 저 받아 들렸단 저 보릿쫶이 저 뭐가 잇엇거든, 정
부미가 잇엇다고,

102009 @ 예.

102009 #1 계문 일반 저 일반 공민들안티 빌려 줏다가 또 보리수확 허면은 또
받아들이곡 허는거라 지금 계민 그 때는 이젠 그 보리를 정미 헤논거,

102009 #1 예.

102009 #1 정리 헤논 걸 이제 빌려주는 거라 게 다음에는 그 때 정미 헤논 건
스십 키로 짜리고,

102009 @ 예.

102009 #1 다음 네어 놓은건 오십 키로짜리.

102009 @ 예.

102009 #1 으 오십 키로 짜릴 네 놓아야 깎으면은 그 뭐가 뭐거든,

102009 @ 예 맞아,

102009 #1 그래서 나가 동장 힘으로 헨 그 때도 세 통을 먹은거라 세통은 이제
교환미를 먹은 거라.

102009 @ 세 통이면 몇 말 정도 될 것파?

102009 #1 몇 말?

102009 @ 예.

102009 #1 지금 흔 통 흔 말이면,

102009 @ 예.

102009 #1 흔 열 말 정돈 돼주게.

102009 @ 아,

102009 #1 그 게 열 말 계난 흔 서른 말로 흔 겨울 보리 날 때까지 먹은 거라,

102009 @ 날 때까지 먹언예,

102009 #1 보리가 날 때까지 못 먹었어. 못 먹었는데 그 헤 이월 들나면은 집 사
름이 저 물질 헤여그네 미역을 케거든 메역.

102009 @ 예, 메역.

102009 #1 메역 케네 풀멍 이제 걸로 이제 쫶 풀아먹곡 행 살아왔던거라 지금
이제.

102009 @ 아, 그 게 자본이로구나예.

102009 #1 예예 경 험 경 허난 이제 농스를 질 수가 있나 농스를 못 짓게 돼었
는디 아 마침 아까 여기 왔던 그 어머니가, 이모 거든 게 나 저 형이 나 하고 ㄴ찌
중학교 들어갔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거라.

102009 @ 예.

102009 #1 계난 신부 옷감이 엇인 거라 신부, 신부 저 신랑집이서 옷 금을 해 주
어사 돼거든 옷 금을 못 해주난에 아 그저 어머니가 우리집 사름안티 완란 이제 이
모네 저 작은 이모가 살았수다게. 그 디간 하루 저 즘 제올라 갈덕에 아 저 선물
받은 게 있어 그 이모부가 일본 무역선을 타났어.

102009 @ 음,

102009 #1 밀항선을 타났어 밀항 혈 덕에 양단치마 양단 저고리 금 잇인거라 이
렇게 흔 거 그 사람 뭉이 밧이 흔 오백 평 밧이 잇엇주 그 밧 헤어먹고 거라그네
날 드라 게 그걸로 이젠 저 신부 옷 금을 흔 거라.

102009 @ 으,

102009 #1 게 집사름이 그걸로 이젠 첫 농스를 짓게 시작 됐거라 거기 이젠 줄
갈안 줄갈안 그 사름이 좃 컴질 메젠 하니까 방석 그 덜 깰려 앗이니까 다리 시리
니까 집이가 방석 앗아 가그네 방석 깔앙 앗아그네 걸로 움직이멍 저 좃컴질을 메
멍 해낫수다게 지금.

102009 @ 아,

102009 #1 그렇게 헤여네 좃컴질을 메기 시작헿멍 첫 농스를 하기 시작 해숫다
게.

102009 @ 예, 경 헿구나예.

102009 #1 경 험 춤 쳇 저 [기침을 한다.]

102009 @ 계난 사주는 동네에서 헤네 가네 그 동네 강 강소장이엔 현 사름이 사
주는 봐주고예.

102009 #1 무시거마씨?

102009 @ 사주 사주 삼춘,

102009 #1 강소장 하르방이 스주는.

102009 @ 맞수다 강소장하르방이 봐주고,

102009 #1 예예.

102009 @ 또 혼수품하고 결혼예물은 그 새각시한테 해주곡,

102009 #1 아, 그 떤는,

102009 @ 예.

102009 #1 집이서 저 어머니가 어디가네 구헿 하고 아까 말흔 건 아까,

102009 @ 거는 샷,

102009 #1 나 밧 농스 밧을 구헿게 뵈 건 그런 식으로 헿,

102009 @ 그런 식으로.

102009 #1 밧을 구헤네 농스를 하게 뵈다.

102009 @ 저기 사촌,
 102009 #1 예예.
 102009 @ 사촌 혼수품은 그런 식으로,
 102009 #1 예예.
 102009 @ 허는 거고예.
 102009 #1 그걸 주면은 그 깎으로,
 102009 @ 예.
 102009 #1 밧이랑 공짜로 헤먹어라.
 102009 @ 해 먹은 거고예.
 102009 #1 저장하는 식으로.
 102009 @ 예. 경 하고 살림사이는 그 강원도 물질 갈 때 현 솔단지 하고,
 102009 #1 솟단지 하나 하고,
 102009 @ 삼촌 그,
 102009 #1 저 숟가락 저 숟가락 딱 열 게,
 102009 @ 열 게하고,
 102009 #1 나가 이제 나 이제 낚은 고기로 걸 사는 거 웨에는
 102009 @ 사온 거 하고,
 102009 #1 어머니가 또 이제,
 102009 @ 어머니가 또 이제 줍 쓸 혼 말,
 102009 #1 어머니가, 쓸 혼 말,
 102009 @ 지원 해 주고,
 102009 #1 으, 걸로 시작했다.
 102011@ 계난 집은 또 이제 동녘 서녘집.
 102011#1 ㅇㅇㅇ이네 박거리,
 102011@ 예.
 102011#1 박거리,
 102011@ 예 박거리,
 102011#1 방 하나 부엌 저 하나 마루 잇고 부엌잇고 헤네 세 칸은 세칸이랏수다
 계.
 102011@ 예. 그 축헤네예.
 102011#1 그 집이 우 저 오 년 동안 살아수다 그 집이
 102011@ 예. 오년 예.
 102011#1 예.
 102011@ 계난 결혼식은 뭐 삼촌 집이서예. 어머니 집이서 헤네예,
 102011#1 예 어머니 집이서 결혼식은 하고,
 102011@ 결혼식이엔 헤도 무신 신랑 상 받고 신부 상 받고 신부집이 강 비양동
 가기네 상 받고,

102011#1 예게 그 덴 가네 그 때 몰 타고,
 102011@ 몰 타고 신부는 가마,
 102011#1 예 정식은 어려와도 몰은 타고,
 102011@ 예 가마혜네.
 102011#1 가마호고,
 102011@ 가마는 사름이 저기 그 이 들렁 왓솨과 아니민 몰,
 102011#1 사람이 저 가마가마 들르는 그 때 믱을에 하인이,
 102011@ 가마꾼,
 102011#1 하인,
 102011@ 마을 하인,
 102011#1 믱을 하인이 들러다 쫓수다.
 102011@ 마을 하인,
 102011#1 그 믱을 하인한테,
 102011@ 예.
 102011#1 몰 품삯이나,
 102011@ 예,
 102011#1 가마 들러오는 삯이나 주어마썸 이제.
 102011@ 예 그축 혜기네예.
 102011#1 예 주어마썸.
 102011@ 예 그렇게 혜기네호고예.
 102010 @ 결혼사진은 그 때는,
 102010 #1 결혼사진은 그 때 우리 그저 결혼사진은 그 날 저 주이보 네련 못완,
 102010 @ 예,
 102010 #1 아, 몇 칠만이 우리 당숙이 사진을 찍어나서 그 사람 큰 형이,
 102010 @ 예,
 102010 #1 성상포에서 사진을 찍어나수다게.
 102010 @ 아,
 102010 #1 아, 겐디 사진끼를 앓영 오고 카메라 사진을 앓영 완 찍엇는데 그 사
 진을 찍어낸 잘 돼지를 안해서 그거 주어돈 어뎡연 흐지부지현 우리가 나가 엇어지
 어부러터,
 102010 @ 사진 찍어신디예
 102010 #1 아, 춤 나가 윈,
 102010 @ 아이고 아까운거예.
 102010 #1 아까운 걸,
 102010 @ 계난에 아까 저기 여자삼춘은 연지곤지호고,
 102010 #1 계난 결혼식 결혼 하는 건 못 찍고,
 102010 @ 예,

102010 #1 그 후에,
102010 @ 후에예.
102010 #1 뒷날 그냥 둘이만 찍은 건디, 그걸 나가 보관을 못헨 잇어서.
102010 @ 그 때 활웃 입고 이거 족두리 허곡 헤네 헨거라예.
102010 #1 예,
102012 @ 자식은 이거 사남 이녀?
102012 #1 스 남 이 녀,
102012 @ 그 결혼 허자마자 그 바로 살림 나신게예.
102012 #1 예 살림 결혼헌 뒷헤예.
102012 @ 예,
102013 @ 이 여자 삼촌이 있어야 들어 볼 건디 시집살이를 어떻 헤시니 헤가지
고.
102013#1 아이고 시집살이는 우리 집사람 나 저 경 헨 결혼 헤여네 지금 저 췌
헤 췌번 동장 흘 췌 아녀고, 저 나가 저 육십 구년도부터 칠십이 년도까지 동네 부
락장을 헤수다게 그 때,
102013 @ 예.
102013 #1 육십 년도에 흔 번 흐고 혁명 일어나는 헤에 흔 번 헤여난,
102013 @ 예.
102013 #1 흔 헤 흐난 머 동네 사름덜 귀찮게 흐고 흔 헤 흐난에 치완 집어 치
워돈에 집어 치어돈에 어디 저 삼천단,
102013 @ 예.
102013 #1 저 무신 서귀포 흐고 중상간 도로 빼는거 뭐웃과?
102013 @ 오일육,
102013 #1 오일육 도로 그 디 간 삼천당에 간 저 삼부토건에 소속웨언, 구락장
저 둘 저 삼부토건에서, 저 머 길 빨 떼게는 야 넷창뜰 께어,
102013 @ 예.
102013 #1 야 네창뜰 께어그네 야생뜰 걸 구락장에서 곶아,
102013 @ 예.
102013 #1 그 둘 ㄱ루까지 나오면 그 둘 ㄱ루흐고 또 자갈,
102013 @ 예.
102013 #1 흔 네 가지로 흐고 구분헤 나왔다고,
102013 @ 예.
102013 #1 훗은 자각 그 다음 즈 자갈 췌 그거 놔그네 그거 다저 놔그네 이젠
돌ㄱ루 ㄱ루 놔그네 곶탕 뿌리면은 이제 그거가 도로가 웨는거라. 췌 나 이젠 삼부
토건 일흐는디 간 처음에는 제주 추정공장에 취직허면 췌 그 디가 제일 췌고로 좋
은 직장이라.
102013 @ 아,

102013 #1 계난 우리 처남이 있으니까 처남이 연결로 그 디나 들어가 보카허영
처음엔 우쭐허게 시리 제주시에 나 간 거라, 아 나간 뒤 저 처갓집이 오레 잇기도
미안허고 동태문동 홀어멍 잇는디 하숙집이, 그 디서 그 할망이 좋은 할망이데,

102013 @ 응,

102013 #1 나 벌영 주커메, 하숙방이랑 웨상협준 헨 아 그 디서 이제 밥을 몇 칠
먹는거라. 아, 먹어보니까 머 그 게 어떻게 직장이 됩니까게 겐, 삼부토건에 그 디
가민 일 엇이 잇단 잇젠 허드라 경 헨 그 딜 좇아 가는디 가단 황세왔디 이제 저
일 허는 디 잇젠 허난 황세왔딘 가니까 황세왓 저 잔디 이기는 일 웨냐하면 그 딴
미깡 싱그젠,

102013 @ 아,

102013 #1 미깡 곧 나올 때난 미깡 밧 계간하면 그 때는 또 무신 저 샅으로만
밧을 계간을 흘 때라.

102013 @ 예.

102013 #1 아, 게 그 디 간 흔 번 나그라 우리가 헤보렌 허는 거라 헤보난 좋으
난엔 나 흔 몇 칠 잇이민 연락하크메 몇 칠 간 기다리렌, 아 경 헨 끝나지만은 아
건 믿을 수가 엇언 삼부토건에 올라 가십주게.

102013 @ 음,

102013 #1 올라 간 삼부토건에 간 허난 이제 일 하라고 겐 나는 이제 좀 하꿈
더 벌켄 헤네 그 네창돌 큰 다이내마이트로 깨면,

102013 @ 응,

102013 #1 이제 또 석수덜이 그 지엠쓰시에 싱글 수 잇게끔 돌을 깨는 거라.

102013 @ 예.

102013 #1 계민 그 돌을 우리는 싣끄는 거라 계민 동아리 치영 너 이가 동아리
헤그네 허나 싣끄면은 스 십원 그 뻗 돈 계민 흔 사름이 십 원씩 버는거라 으,

102013 @ 아,

102013 #1 계민 그 뻗 또 하루 너이가 동아리 헤그네 열 일곱 차 이상 싣끄면은
백칠십 만원이 되는 거라 흔 사름이, 백칠십 만원이상 벌면은 소득세를 공제 허는
거라 십 원씩 흔 차에, 계민 열오홑 차를 싣끄면은 그거,

102013 @ 없이,

102013 #1 흔 찰 싣끈 거는 공짜거든 계민 열오홑 차를 싣끄면은 아니 헤부는
거라.

102013 @ 예.

102013 #1 스무 차 싣끔직하면 우리 네병이라도 계민 두 차 더 싣끔 거난 세 차
더 싣끔 거난 허자고 겐 또 허기도 헤어가곡 영 허멍 허영 흔 스십 일 동안 거기서
흔디 회사에서 공짜로 보릿쌀 흔 통.

102013 @ 예.

102013 #1 또 장 흔 통 주뉘 웨상으로,

102013 @ 예.

102013 #1 게 그걸로 보릿썰 혼 통으로 장에 장죽만 먹으멍 걸로 경허멍 스십 일 동안 일 헤여네 이젠 겨울도 들어가곡 춥기도 흐뵈 지금 이제.

102013 @ 예.

102013 #1 겐 우리 집에 오키엔 헤네 경 헨 그것도 간조 간조엔 헛주 간조, 돈 나오기 이전에 으 그거 십 프로 공제헤그네 돈으로 바꾸는 곳이 전표를 바꾸는 곳이 있어 걸로 바판에 그 때 제건 복이엔 현 옷이 있어,

102013 @ 제건복마씨?

102013 #1 저 제건복이엔 혼 건 그 고리뎡으로 뵈거 그거 이제 삼천 원인가 그 뎡 돈으로 헤연 그 제건복 혼 불 저 사 입꼬 그런 집이 완 용돈 쓰멍 헤나수다게 지금예.

102013 @ 아,

102013 #1 아까 ㄴ찌 가난 그 사람도 가나고 또 혼 사람 죽어부러트주만은 그 사람들은 또 쯤금 덜 벌어도 뭐 허켄허영 구락장에 돌 등겨그넵에 드리치는 일 그 사람들은 그런 일 헤낫어 거 아까 그 사람들은 그 건 쯤금 나 보다 쯤금 덜 벌엇주 쯤끔.

102013 @ 예.

102013 #1 경 흐멍 이제 헤나고 헛는디 아이고 츄.

102013 @ 음.

102014 @ 자식들 결혼은 어떻 시킵디가? 어떻게 헛디가?

102014 #1 양?

102014 @ 자식들 결혼은?

102014 #1 자식들 결혼은예,

102014 @ 연애결혼 잇과 중매결혼잇과?

102014 #1 다 다 저 어떻 어떻 다 연애결혼.

102014 @ 다 연애결혼예.

102014 #1 예. 겐디 세 번째 아덜만은 어떻 어떻 소개헤네, 저 소개헨 결혼식을 헤줘서.

102014 @ 세 번째 아들.

102014 #1 세 번째 아들은예 호텔은 뎡겨도 아이가 운순헤여,

102014 @ 응,

102014 #1 경 헤네 연애를 못 허는거라.

102014 @ 아,

102014 #1 아, 연애를 못 헨 서른다섯 ㄱ지 뵈난 나가 미쳐질 지경입디다게.

102014 @ 응,

102014 #1 게난 처녀만 봐지민 우리 아들 만나보라 우리 아들 만나보아 응 나 농협 이사로 뎡길 뎡디 구좌농협 이사로 뎡길 뎡디 또 농협직원안티도, 으 직원들

시켜그네 영 만나보게 혜영 허명도 안되는 거라.

102014 @ 음,

102015 #1 경 허명 헌디 아, 흐루는 경 혜영 춤 저 육짓 아가씨까지 구홀랴고 흐 거 라. 헌디 으 육지 아가씨는 제주 아가씨보다 보통 아가씨보다 밋지 못 허지아니 웃과게. 야 춤아 육지 아가씨안티 홀티야 흐난, 우리 저 처형 처제가 흐나 부산 살 앓주게 게난 구혜주켄 흐여도 츠마가 어떻 흐코흐다 게민 흐 달 쩌금만 기다려보쿠 다. 흐쫄시난에 그 호텔에 그랜드 호텔에 근무해나수다게 제주전문대학 나완 그찌 일행이 우리 누나안티 장게옵서. 나가 소개 해줍주 아 경 헨 소개를 해준거라.

102015 @ 아, 같은 직장에서.

102015 #1 아, 게난 그 아가씨는게 제주여상 우등생으로 나완에 그 보험회사에.

102015 @ 예.

102015 #1 텡이는 지집아이라. 여즈라. 해서 이제 결혼 해여네 살암수다게 지금.

102015 @ 아,

102015 #1 게난에 그만시난에 인연이 따르난에 존걸 경 혜네 저 허는거라마씨. 아 게난 어찌나 거 사돈 봐지민 고마운지 지금 게난 아들 흐나 딸 흐나 낳는디 아 그 이제 메뉴리가 이제 막 발아지고 으망지우다게 제주여상양 저 뭇로 나오고 ㅇㅇ 가 취직허민 말주 대학은 뭇 대학이엔 대학도 안 시겨줘서,

102015 @ 아,

102015 #1 돈도 집이 세 책이엔 흐 거라 막 돈 예금흐고 혜노난,

102015 @ 아,

102015 #1 경 흐 하르방이 딸은 영리혜도 대학은 안 시겼던 하르방인디 게도 그 사돈이 고마와,

102015 @ 아,

102015 #1 우리 딸도 오누이 다 그 하르방이 다 키워줘서 지금 경노당에도 안텡 겨 그 하르방 그 손지덜 키워줘 그 손지가 흐 들 이십 일날 저 어디고 저저 서귀포 서 으 예술 뭇해서 발레 홀게엔 아 으번이 그 손지가 전나 와서 “하르버지 나 공연 홀 거예요.” 아 게난 그 날 가야웨는지 말아야 웨는지 모르고 아, 손진 또 웅변을 잘 해여 웅변학원에 텡기명 흐 번은 웅변학원에서 이제 웅변 허노렌 이제 또 웅병 데웨엔 와그네 이제 와그네 읍센 가나고 이제 영 흐명 허는디,

102015 @ 아, 아이고 것도 다복 허우다게예.

102015 #1 아, 게난 이 메뉴리가 또 이제 제주대학 그 아피 카페 출령 흐는디, 일중에 천만원 출자해여네 카페를 흐노렌흐는디 그 디가 수지 안 맞안 우도만만 땅 사그네 우도에만 장사헸켄 허길레 나가 반갑지 안허우다게. 즈식농사 잘 웨야 웰거 아니웃과게. 돈이 문젯과양.

102015 @ 예.

102015 #1 게고 나 이 지금 춤 플면은 천백 평짜리주만은 지금 한 십억 짜리 밋 잇수다게.

102015 @ 아,

102015 #1 그 풀민 혼 십억 받을 수 잇수다게 어.

102015 @ 예.

102015 #1 이제 풀렌 해도 지금 안 풀암서. 더 더 올르민 풀켄, 저디 저 마농 빌려줬는다. 경 헨 흐는디 돈이 문젯과게 난 즈식들 공부 잘 시켜줘야 텔거 아넛과게 지금.

102015 @ 예.

102015 #1 나가 지금 경 허젠 지금 공부 시키젠 나 오라 오라 안햐수다게. 왕 또 잘웨민 흐주만은 못 허민 미안헤지고 어떻 말잇과게.

102015 @ 아,

102015 #1 경 현디 메뉴리는 우리 제주에서 버틸 힘이 엇수다 제주 시네에선 소섬강 장스도 흐곡 허길레 경 기영 흐라마는 난 모르키여 경만 헤연 잇는건디 이거 혼 삼 년 전부떠 경 곶앗는다 땅값 오르난 지금 후훤 햐실 거우다. 우리 메뉴리 우리 집사람도막 옥헤서 너 소섬 뭐 땅값 올르민 얼마나 올르곡 부체웨민 얼마나 텔 줄 알람딘 즈식 잘 가르치렌 우리집 사람도 경 주장햐분 거라.

102015 @ 아.

102015 #1 저 큰 아들은 이제 저 지금 큰 딸 이야기나 헤 봐봐마썸? 큰딸?

102015 @ 예.

102015 #1 큰 딸은 나 중학교 못시겘수다.

102015 @ 예.

102015 #1 나데로 공등학교는 나 손으로 안 시견 지 냥으로 산업체학교 나왔수다.

102015 @ 예.

102015 #1 우로 아덜 세 성제 대학 보네곡 고등학교 보네곡 허젠 허니까 그아들은 도저히 그 딸은 머리 저 추저헝기가 힘들언 부산 산업체에 보넛수게.

102015 @ 아,

102015 #1 게네 나 그 딸 춤 부산 산업체에 보네는 날 양녀 일 월 일 일 날, 춤 그 날 가야웨기 때문에 배 잡안 보네명 주이보 네령 못 가명 헤여네 나 울명 햐수다게.

102015 @ 예.

102015 #1 그 딸은 제일 귀흔 딸입주 우로 아들 세 성제 나네, 딸 낳으니까양 여긴 딸나민 부체햐수게 옛날에는,

102015 @ 예예.

102015 #1 즈수질 헤네 돈 벌어주니까. 게난 그 딸 날 떼끼지만 해도 우뭇가사리 물질 헤서,

102015 @ 아,

102015 #1 그 쎄 양 우리 학교에양 텅텅 비어났수다. 저 학생덜 여 학생덜은 우

미 물질허레,

102015 @ 응,

102015 #1 중학교에도 지금 우리 딸 깃지도 물질 흘 줄압네께 이제예.

102015 @ 예.

102015 #1 중학교 땡이는 아이도 지금. 경 혼디 이제 그 딸을 그 디 보내젠 울멍 해났는데 이제 그 딸이 지금 이제 어디 살압수다게 저 우리 처제 처형이 저 죽은 아들하고 상고 동창이엔 경 아방도 어멍도 엇인 사름이주만은 워낙 착허니까 ㄱ찌 부찌보는게 어멍허닌 허길레 나도 어렵게 살아난 사름 아넛과 ㅁ음만 고우민 좋수 덴 경 헨 이제 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102015 @ 아, 사위가?

102015 #1 어멍 아방 다 일찍 죽어부난,

102015 @ 사위가예.

102015 #1 예. 겐 고모 밑에서 자란애 이제 춤 이제 저 고모가 상고 야간을 시겨줘서 어멍 고모가 잘 사난애.

102015 @ 예.

102015 #1 야간 시겨쥬 허는디 겐 그 때 우리 처형데로 이제 결혼을 약혼을 이제 빵집이 땡이는 즈격증 뺏기엇어.

102015 @ 예.

102015 #1 계난 빵집도 이젠 그 집이 땡기단 그 집도 폴아부난 이젠 못 하게 쥬 거라 저 무신 치킨 장스 허쿠덴 헤네 이제 뵤고 자기네 형이 이젠 일본 간 갑자기 죽어분 거라.

102015 @ 예.

102015 #1 일본 돈 벌레 갖단 죽어부난 일본 형이 이제 혼 일 억이 잇어나서 계난 치킨이 장스가 뵤여 이제, 경 허난 계민 이제 흘 수 없덴 이제 저 우리 큰 메누리가 자기네 오빠 양식장 허는디 양식장허는디 강 혼 번 일 헤보렌 경 그 디간 일 허디 또 허룬 가 보난 쥬기가 다 죽어분 거라. 아 계난 미안 흘게 아니웃과게 이,

102015 @ 아,

102015 #1 아, 계난 그기도 나와뵤다 계난 아까 서울 이신 죽은 스춘 형제가 이제 동아리 헹 거 비닐하우스를 허켄 혼 거라.

102015 @ 음,

102015 #1 아 그 디 간 허는디 저 허켄 헤보라 헨 아, 간 보난애 집도 이젠 지네 집이 저 살리켄 헤돈에 하우스 안에서 집이서 서 저 네 식구가 잠서, 겐 나도 이젠 딸을 생각 허는게 하우스 강 구경하고 강 검질도 강 메어주고 ㄱ찌 일도 허멍 허곡, 겐디 그 날 돈이 나오는거라 그 하우스 안에서 상추 키우면,

102015 @ 아, 상추,

102015 #1 걸 식당에 납품허면 하루 그자 오류만 원씩 버는거라 지금.

102015 @ 예.

102015 #1 아, 경 현디 흐루는 이제 아 엇던 형제가 싸운거라 스춘 형제가 으, 싸우난 이제 우리 큰 딸이 나와분거라.

102015 @ 음,

102015 #1 으, 이제 나완에 이제 춤 올명 우리집이 왓길레, 으 흘 수 엇텐 음, 경 헤네 이젠 춤 함덕인가 간 이젠 저 자리 잡안 사는 거라 사는 도중에 이제 저 거기 서 이제 그 문방구.

102015 @ 예.

102015 #1 함덕마트에 문방구 허는 거 허켄 헤여네 겐 경 안헤도 헤여보렌 허엿 는디 아 우리 큰아들이나 아 죽은 아들들은 그 디 헤봐야 수지도 안 맞을디 뿔허레 햄딘 막 반데허는 거라 게난 우리집 사람은 너네가 뭐이냐 망 헛든 흥 헛든 지가 알곡 헤는 거 헤봐야 흘 거 아니냐 아 경 헤연 이젠 그거 이젠 허겟금 헤여네 아 거기서 이젠 일어난 밥 먹게 뒤엄수다게예예.

102015 @ 아이고 뒤수다게.

102015 #1 밤 먹언 이제 거기서 허는디 우리 사위도 월급쟁이 흐는 것보다 나은 ㄱ라 두가시가 이제 아침저녁으로 오전 오후 교데허멍 그 점빵을 보멍 이렇게 흐는 디, 술도 안 먹고 춤 저 담배도 안 피우고 이젠 담배도 막 끈어서 우리가 끈으라 끈으라 흐난 이제 그 끈어네 이제 헛는디 착허우다게 경 흐난.

102015 @ 아,

102015 #1 죽은 아 죽은안 이제 그 딸이 이제 춤 어렵게 살암수다게,

102015 @ 예.

102015 #1 죽은 딸이 이제 저 하나 어떻연 처음에는 춤 나가 이저 김한구 이원 안티는 그 군이원 땡길 떼는 소게헤네 북군청에 군무하던, 거기서 이젠 나완에 딱 시 이젠 여기저기 땡기단에 이제 할라 그저 신진 자동차 회사에 땡기단 이 저 스나 이를 만난 거라. 이제 스나이는 그 떼 저 한라금고에 이 저 과장으로 근무흐난에 그 디 예금흐레 땡기멍 어떻연 그 지집아이흐고 눈 맞안, 결혼은 헛는디 아 나중엔 삼 년후에 보니까 이만저만 부도 날 형편이 아니라, 이것이 골프치레 땡기지 처음 엔 골프치레 땡점젠 우리가 무시거엔 골으면은 얻어 침숫게. 강 일헤주면은 얻어 칠 수가 잇읍니께 저 스홀 걸러 또 웨국에 땡기지, 또 밤 장 오면은 어디 가그네 잔 완딘 흐면은 저 스무실에서 스무보단 오ㄱ렌, 거짓말이라서, 나중에는 딸덜 아들 덜 저 아들흐고 딸흐고 어디서 돈 받은거 것까지도 다 저금헨 봐두난 걸 다 털어 썬불고,

102015 @ 음.

102015 #1 저 뒤직금까지도 다 각썬흐고 이논도 안혀고 다 썬부난에 우리 딸이 컴퓨터 정 찍어보난에 도저히 ㄱ썬 살면은 그 빛을 벗어남직 못흐난 나와 부러숫 게.

102015 @ 음.

102015 #1 나완 이제 혼자 이제 저 어디고 함덕 저 삼양, 거 무신 아파툏과 이제

야 생긴 아파트,
102015 @ 삼양에 저기 삼화 아파트.
102015 #1 아니 삼화가 말고 그 무시것과?
102015 @ 삼화 아파트 말아그네 주공아파트? 화북 말고?
102015 #1 아 삼양 삼양계,
105015 @ 삼양.
105015 #1 삼양계 이제야 들어가는데 지서 아피잇는다.
102015 @ 예예 이제.
102015 #1 그 디 무신 아파트엔 임대.
102015 @ 아아 동양 아니 무슨 멘션, 거기가 삼화 아파트 아닌가?
102015 #1 삼화 아파트 아니라.
102015 @ 삼화 아파트 말고예.
102015 #1 삼화 아파트가 아니고.
102015 @ 미리네 아니.
102015 #1 으.
102015 @ 그 무신 아파트 중흥아파트 에스,
102015 #1 중흥도 아니고 옛스케이 옛스케이 꺼라 옛스케이.
102015 @ 옛스케이마씨?
102015 #1 예예. 거기 이제 헛는다 하필 이제 우리 저 큰아들이 큰아들이 저 춤
그디 저 군청에 주택과에 잇어나난에,
102015 @ 주택과마씨?
102015 #1 어디고 살림조합.
102015 @ 아 예.
102015 #1 살림조합에 아는 사람이 잇언에 그 조합에 기능직,
102015 @ 예.
102015 #1 처음에는 그거기 근무하는 사름이 저 그 기능직도 안시켜주난에 나가
부난, 또 우리 아들안티 이젠 어디 소게 시겨주렌후난 우리 딸 처음엔 막 여기저기
땡겨놔수다게.
102015 @ 예.
102015 #1 춤 저 이 씨누이들이 저 시청에 저 시청직원이 둘이난에 시청에 아르
바이트 허레,
102015 @ 예.
102015 #1 아주망 안 늘리켄 땡이멍 하루에 오 만원씩 받으멍 이제 아르바이트
땡이단에 이제 그 디도 나와불고 허난에 이젠 그디 춤 흘 수엇이 간 그 디 간 헛는
디 우리 큰 아들 소게헨 살림조합에 들어간에 게도 혼 일 년쯤 땡난 기능직 시켜
쥬,
102015 @ 아,

102015 #1 경 혜네 이젠 그 아파트에,
102015 @ 예.
102015 #1 이녀 돈 좀 잇고 헛난에 그 디 이제 전세 넌 들어가수다게.
102015 @ 예.
102015 #1 서방헛곤 이혼 혜네 서방헛고 이혼혜네 이젠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런
이젠 사느디, 딸은 영리헛느디 아들 늙으 세끼가 이이 똑 지에비 닥안, 아 지에비가
키는 쩌그마헛디, 복장이 어떻사 크는지양, 게고 또 저 금고에 있을 떡에 한라금고
에 있을 떡에 그 어디 할라산에 네분거 잇이난에 그거 이제 경매 나왔덴 그거 말안
에 서이가 동아리헛 말은 거라 말앗단에 리조튼가 뭐가 리조트 머헛디, 안웁직헛난
에 ㄱ찌 동아리 헛 사람도 안헛켄 혜부난 지만 다 빗 질머진 거라. 지금 이제.
102015 @ 아,
102015 #1 경 헛 도저히 우리 딸이 컴퓨터 찍언 보난에 몇 억 빗이 뉘난 도저히
벗어남직 못 흠직 헛난에,
102015 @ 아,
102015 #1 안헛켄 나와봄 겁주게.
102015 @ 예.
102015 #1 지금 계난 저 법으로도 이혼수속 혜부러수다게 법으로도.
102015 #4 아이 심심 안헛과 안 넬 것도 업꼭게.
102015 @ 아이고 우리 일 막 재미나게 헛수다.
102015 #4 아 우리 하르방 잘 몰릅니다게 무신 알 말입니까게 아이고 무슨,
102015 #1 딸들은 딸들은 경 헛 살암수다게.
102015 #4 아 막 미안 허우다게.
102015 #1 큰 딸은 큰딸은 걱정 안웨느디.
102015 @ 예.
102015 #1 죽은 딸이 따시 아이덜 데령 살명 고생은 헛수다마는 뭐 지 팔자에
지 뭐 지냥으로 그 딴 지네냥으로 연에 행 가고,
102015 @ 예.
102015 #1 또 우리 큰딸은 지네 이모가 소개혜 쥘 흘 수 잇이 영 보난에 얼굴도
우리 큰스우가 키도 후리후리헛고 즘 뭐헛우다게 계난.
102015 @ 예.
102015 #1 인물도 흰헛난.
102015 #4 시에서 왓솟과?
102015 @ 예.
102015 #1 인물에 반혜여네 게 혜도 므음도 착헛고양.
102015 @ 예.
102015 #4 아 무사 그 딸 아기 자랑은 아기 자랑헛는 사람은 옛날로부떠 바보엔
헛네께.

102015 #1 으 딸 역사를 이애길 해줍센 해염주게.
102015 @ 삼춘 삼춘은 잠깐 쉬고예 우리 여자 삼춘이 흐끔만 곁아줍서.
102015 #4 으 난난 무시거 하나토 물론 사람이우다게.
102015 @ 옛날 말 아니고 삼춘 말.
102015 #4 옛날 말이고 뭐고.
102015 #1 나 노름행 예 메겨난 말이랑 허지말아이.
102015 #4 난 몰름니다게.
102013 @ 삼춘, 시집살이?
102013 #4 예.
102013 @ 경 해도 이 우리 이 우도 소섬에 대해서 옛말을 저기 험수다게.
102013 #4 에이그 그걸 아주머니 곤는 말은 다 알아먹젠는다.
102013 @ 시집살이 해난 건만 흐끔 곁아줍서.
102013 #4 에이그 씨집살이 나 씨지살이도 안허여수다 씨부모 잘 만나부난예.
102013 @ 예.
102013 #4 저저 남편이엔 험 만나보난양.
102013 @ 예.
102013 #4 완전히 노름쟁이 만나수다게 삼년을 노름험디당게.
102013 @ 예.
102013 #4 나 그 역스나 따끄주 다른 역스 따그도 안허, 아이고 나가 이 에기를
우리 큰아들은 엄마야 엄마야 허멍, 이 저 바짓가달 심영 엄마야 엄마야 가지 말아
가지 말아흐는 거양 눈에 등등 돌아지멍 설마 그 에기 네비등 돌아 나지 못허콧디
다.
102013 @ 예.
102013 #4 계난 그 에기를 민영 살당 보난예 이젠 행복허우다 옛날로 세민.
102013 @ 예 맞수다. 경 험 때 시어머니가 뭐엔 곁웁디가?
102013 #4 아 시어머닌 하도 순헌 할망이라서.
102013 @ 예 경 해도 막 속으로만 으지허고 험실 건디예.
102013 #4 씨어멍은 예 씨어멍 말 흘 수가 엇수다게 할망이 막 용허고예 할망이
난.
102013 @ 예.
102013 #4 무사 놀음을 경 삼 년을 허카붓과. 나가 양 벨눔으 말을 다해도양 귀
에도 안놓고 계난 이제 날 그라 하도 돈을 씩데다 돈이 부떠나지 안헤여.
102013 @ 예.
102013 #4 경 흐난 으걸 어떻 험시민 조콘 험 아기 업영, 돌아 나불민 아거나 흐
나 만이문 흐주만은 세 게가 웨고 알엿것덜 엇일 떼난 세 게가 웬디, 이 에기덜 들
양 어디 강 밥 얻어 먹코헤연 살단 보난 이 하르방이, 날 곁아 돈 오십 만원만 헤
다 드렌 험디당게,

102013 @ 예.

102013 #4 계난 무신 거 혈턴 허난, 이제 그 가는 구경 가는 사름 서울 구경 강 완 이 노름을 딱 웨켄, 그 건만 실지로 허켄 허문 난 오십 만원이 문제 아니다. 계 난 이제 어촌계안티 가네 계장신디 간 나 오십만원 줄 수 잇수과 허난, 우이만 즈 물양 주켄허민 주켄 아이고 고맙수덴 헨 그거 앓영 오난양 거짓말 ㄱ치 저 노름을 뽕디다게. 계난 그 날로부터 오늘에 ㄱ지 노름에 신경을 안써수다게.

102013 @ 아,

102013 #1 나가 그 떼는, 동네서 아무 오락이엔 혼 게 엇습주게 계난 겨울에 보 리 갈아불곡 허면 노는 거라. 게 모야지면 먹을락이 체염 먹을락이 흐는거라 먹을 락이 아, 먹을락이 흐단 찻찻이 이제 썩금 죽은 네기흐젠 헤가민 이제 츠츠츠츠 헤 가민 네가 돈복이 엇영양 따질 못허는 거라.

102013 @ 아,

102013 #1 계민 늑안티 돈 혼 폰 간 걸 추궁흐저 흐당 보민 자꾸 함정더레 빠지 는 거라.

102013 @ 아,

102013 #1 함정더레.

102013 @ 계난 오십 만원으로 딱 정리 헛구나예.

102013 #1 아 아니 아까 오십 만원혼 건,

102013 #4 아 그는 차비로 서울 가는 차비.

102013 #1 계난 그 뎨 나가 동장을 스년을 동장 헛숫게.

102013 @ 예

102013 #1 게 동장 뎡기멍 나가 화투를 친 거라 뎡기멍.

102013 @ 아,

102013 #1 계난 그 떼 화투를 흘수 잇는게 뭐냐면 양 동네 천쫓금 전조금도 나 가 강 말흐민 저 어촌계장이 주고,

102013 #4 그 시절 어뎡 사 살아신디 모르쿠다.

102013 #1 또 동네 공금도 썩 잇어나곡 경 허는거라.

102013 #4 노름에 미쳐노민,

102013 #1 계난 돈 풀이가 썩 좋은거라 나 데로 헤도,

102013 @ 예.

102013 #1 재산은 엇어도 늑으 돈은 갓영 뎡길 수 잇는거 아넛과게. 경 헨 이제 저 화투를 흐게 뎡 건디, 혼 번은 이제 그 어촌계장 흐는 사름이 우리 저 부락장덜, 서울 구경 가자 허는거라 계민 가자,

102013 @ 아,

102013 #1 겐 나도 이제 ㄱ찌 이제 갓다오는데 할망안티 이제 거진말을 흐는게 아넛과게 할망 나 이제 갓다왕 따신 화투를 안흐크라 으,

102013 #4 안 허긴 안현거우다 거짓같이 아니고마씨.

102013 @ 아,
102013 #1 겐 그디 갖다오쿠데 오일육 군사 십이륙 저 무시것고, 십이육스데 일어난 날 혁명이 일어난 날,
102013 @ 십이륙 사테마씨?
102013 #1 으, 그 때 아 십이륙 사테가 아니고 삼선개헌,
102013 @ 삼선개헌 이면은 육십이 년에
102013 #1 아니 칠십 칠십 삼 년도에,
102013 @ 아 그러면은 박정희 시댁 떼웃과?
102013 #1 칠십삼 년도에 박정희 떼.
102013 @ 예예 삼선개헌예.
102013 #1 삼선개헌 떼,
102013 @ 삼선개헌 헌디 국책문 단을 떼 우다게.
102013 @ 예.
102013 #1 그 떼 일요일 날 홍병철이 국책이원 떼우다 북제주군에는 이제 국책 구경 가네 동장덜이 갖젠 흐면 게 홍병철이 스무 그 디 안갑니까게.
102013 @ 예.
102013 #1 홍병철이 스무실에 가 나명 해나서 양녀으로 정월 초싱 저 초싱 떼 갖다와네 그 떼 서울 구경 흐켄 허연 갖다완 양 그 떼부터 화투 구경,
102013 @ 아,
102013 #1 안혜십주게.
102013 @ 그 떼 오십 만원 행 안넛구나예.
102013 #1 으.
102013 #4 예 오십 만원 갖다주난양 정말로 뻔텐 흐난 정말로 데켄 정말로 뻔디 다게.
102013 @ 예.
102013 #4 계난양 노름을 흐면예, 밤세낭 오늘 나가민 밤세낭.
102013 #1 아 나가민 경 흐주게.
102013 #4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102013 @ 예.
102013 #4 그 아기들은 엄마야 엄마야호고 아기 세 게가 네 게가 나가 이 바짓 가달에 심영 이 예기 들양 어디 강 얻어먹읍니까 운만 흐난 흐 번은 노름하는 디 좇양 가수다 밤이, 아저 낮이 낮이 좇양 가난 이 방으로 이만이 흐는 방으로 빙 돌아 앓양 남즈분들이 앓아서 가단 보난, 이 만큼헌 옛날에 짚 두드는 마께가 잇수다 게.
102013 @ 예 마께.
102013 #4 예 이만이 헌 마께를 갖언에 그 나도 복은 커수다 그 마께로 그 사름 앓은 수정을 마쳤으니까. 이녀 서방이 마쳐야 뵈건디 그 마께를 던지면은 누게가

맞일런지 알말잇과. 계난 들어가멍 마께를 심영 던드렁 마께를 심영 바락하게 넷기
난양 사름도 안 맞꼬 그 마께가 방안에 떨어져도양 가운데 강 떨어집디게, 아이 경
흐난 그 디 우수게 잘 흐는 우리 집이 주인 양반 갑이 잇수다게. 두선이 각썬 던드
렁 거 누게 각신 요강단지 거 누게 각썬 거 무시거 허멍 막 역스를 따까 갑디다게
계난,

102013 @ 예.

102013 #4 머 벨거엔 곶아도 나가 살아야 텔거난,

102013 #1 흐 번은 아 경 험시난 화투를 침시난 아기가 우리 세 번째 아덜, 아까
장계가 못먹을 그 아덜 놔두언 와부난 안안 화투를 헤낫수게게, 암만해도 화투를
못 허릅디다 안안, 아기 안안 화투를 츠마 못 허릅디다.

102013 #4 미치갱이나 마찬가지로. 미쳐노니까예.

102013 @ 예.

102013 #1 계난 아까 그 나 존경흐는 그 어른이.

102013 @ 예.

102013 #1 이 사름아 화투는 손 떼는 게 버는 걸세 손 떼자 손 떼자 으, 손 떼
는 게 버는 걸세 흐단, 또 이거 살만이 살아가니까 이제랑 가끔 빗 또 허멍 어디
강 놓고 화투도 흐 번씩 흐멍 살자 영 흐멍 곶아나수다게 어른이.

102013 @ 아,

102013 #1 이제 경 흐멍.

102013 #4 아이고 난 노름 곶아가민 흐 번은예 노름을 하도 지나치게 허니까.

102013 @ 예.

102013 #4 아이고 이 예기덜 들양흐고예.

102013 #1 지나치게 아니라 흐 이삼 년 이랏수다 그 때.

102013 #4 이 예기덜 들양 나 어덜 가민 강 어떻 행 살콘. 나가 밤이 이제 시어
머니가 저 트로 살앗수다게.

102013 @ 예.

102013 #4 어머니 나영 어떻 놀음허는디 좃앙가게 흐난 아이고 아기 어떻아 가
민 어떻허는디, 경 해도 난 이 예기덜 밥을 안끓지젠 허민 이 걸 막아야 됩니까, 흐
난에 계민 느 같질타 흐난에 나영만 곶읍센, 아 씨어머니 들양 간 그 디 그 이제
어촌게 전홀동 어촌게 짓인 바로 여피우다 그 디서만 어떻, 이 집에서 노름을 허는
거 닻수다 창문이고 뭐 다 헤 바려부니까양 불은 싸 놓은 공기는 엇고, 다 바려부
난 7만이 산 들으난 노름흐는 소리가 나 어떻, 이디 노름험수다 어떻은 부모고 난
가속이니까 나를 메질사 혈티, 어떻이 들어갑센 아기 어떻아 난 못 들어간다 아이
고 어떻 허민 좋코 흐 동안 샷단 나가 문을 확 올안 나도 힘은 써져 나수다게 영
꼬느라도,

102013 @ 아,

102013 #4 그 둘레 둘레 돈을 싸 논 거라도, 양착 손으로 박하게 엇안 복끈 심어

수계계 심으난 불을 안싸노니까 남즈 몰라마씨.

102013 @ 예.

102013 #4 소섬 사름은 소섬 사름인디 이렇게 테니까 그 남즈가 나 손만 땀라고
에를 써도 나 손을 못 땀 거라마썸. 아이고 나가 우리 서방 돈이 아난디, 나가 웨
남이 돈을 먹어, 스그모니 이 손을 벗드니까 그 손을 빼연에 이젠 저 나 즐음에 가
렌 그 디 사름들이 보네시난 급방 또 나갑디게 그냥 네벼수다게 허고씨고, 계난 이
제 저 그 서울 보넨 간 오란 후제 구신ㄴ찌 땀 다 이제,

102013 #1 계난양 화투란 흐는 건 늡잇사름 저 사름은 호강으로 헛젠 헛나게 견
흔디 그계 아넛디다게 난양 어렵게 살아온 사름 아넛과 돈 흐 폰을 어떻 어떻 늡흔
티 가민양 걸 추금흐렌 흐고만 욱심난 가진거라.

102013 @ 아,

102013 #1 게 늡덜은 호강으로만 생각힙니다 호강이 아니우다게.

102013 @ 본전생각예,

102013 #1 늡 안티 돈 일러부민예,

102013 #4 어리석어노니까.

102013 #1 눈이 별경헨양 사름을양 예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납디다게.

102013 #4 추구리는 말에.

102013 #1 돈에 돈에 게메 돈 때문에 사름을 죽이는거 아넛과게 지금.

102013 @ 으,

102013 #1 양 지금 계난 지금 돈 엇영에 노름을 못허니까 사름 미쳐질 지경입디
다게.

102013 #4 우리 씨어머니가예 약흔 할망이라,

102013 #1 추분흐젠,

102013 @ 추분,

102013 #1 호강 흐젠 흐는게 아니라.

102013 #4 계난양 아들을 쯤금은 때리고 욱혜시문 흐주만은 씨어머니가 막 순
헌 할망이우다게.

102013 #1 우리 어머니가 므음은 어질어수다게.

102013 #4 순헌 할망이난 나만 막 웨면 나만 씹는 사람으로 처도양 학불은 엇수
다만은 말로는 나가 서방을 이겨수다게 양양 거리지 앗으민 살 수가 엇인디마씨 밥
을 굶게 돼니 늡이 집이, 꼭 오 년을 살아숫게, 남이 집이 겐 오 년 살단에 오 년
살아네 우리 저 서울간 셋 아덜 흐 몇 설 때에 이집을 산 들어와수다게 경 허난 오
늘날까지 그자 노름을 오늘날까지 설르난 신간 편안 허게 살앗수다.

102013 @ 예게 아이고,

102013 #4 아이고 나가 이 이 저 사람광 어떻연,

102013 #1 저 성공일은 양.

102013 #4 무신 희망을 받 살아저신고양.

102013 #1 소 질환 소 키완양 칠십 삼년도에 나 암소 송아지를 하나 사와숫다게.
102013 @ 예.
102013 #1 소가 잇언 그 때는 쉼이 채고라수다 쉼 아니면 쉼은 여러 가지 일을
해줍주마썸.
102013 #4 쉼이 이제 저 우리가 살았수다.
102013 #1 소는 이제 세끼나그네 돈 벌어주지양 또 제 때 농스 시겨주지 소똥
싸면은 걸름흐지 또 굴묵짓지 그거 들랑.
102013 #4 이제는 노름은 설르니까 쉼을 질환 부제가.
102013 #1 소가 그 때 으라가지 역할을 해마썸.
102013 #4 덜씩덜씩 해 갑디다게. 밧도예 삼백 쉼짜리 저 천 쉼짜리 사고 또 천
육 쉼짜리 사고 큰 거랑 네배도 써어머니덜 물려준 거 존존흔 들랭이 흔 서너개 물
려줍디다게 경 현디 그 쉼 풀민 쉼 하나 풀민 밧 하나라마썸 경 허멍 어뎡 어뎡 거
엇이 살단에 양 부제가 똥곳똥곳 올라오난양 에기덜도 건강흐고예.
102013 #1 아 계난.
102013 #4 저 춤 췌안흐게 오닐까지 살았수다게.
102013 @ 아이고 잘도예.
102013 #4 참 나가 삶이 삶으로 안 알양 살아수다게 아이고.
102013 @ 예.
102013 #1 이 저 계난 처음엔 소로 해네 지금 이제 저 소가 지금 여기 그 췌 숫
소만 나네 이 돈이랏수다게.
102013 @ 예.
102013 #1 계난 숫소를 총총 다섯 번이나 낚디다게 다섯 번이나 나단 보난에 그
수소 풀안에 이제 춤 저,
102013 #4 게 아기덜토 큰아덜 하나만 떨어 놓고는 착허는디 큰아덜이 돈이 너
무 써어, 그 아방엿 아덜로예, 돈이 한강물로,
102013 #1 돈이 써도예 복이 잇수다.
102013 #4 나도 막 걱정이우다.
102013 #1 복이 서 두가지가 이제 월급이 일 억 이상 똤우다 즈식도.
102013 #4 일 억이고 삼 억 이고 돈 그만 써면양.
102013 #1 각시가 이제 저 공무원,
102013 @ 예.
102013 #4 돈 월급타는 게 문제가 아니우다게.
102013 #1 지도 공무원 다 이십 년 이상 다녔수게. 다 삼십 년이나 똤숫게.
102013 @ 예.
102013 #1 지금 계난 복이 오히려 돈은 써도 복은 잇고양.
102013 #4 늙은 또 우리 큰 아덜이.
102013 #1 즈식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잇고,

102013 #4 아방에 아덜로 늠 주는게 정 좋아허난 칠천 만원을 늠 뵙여숫게. 각시가 혼 번 나신디 며누리 밤 열시에 전나 와십디다 아이고 아기 어멍아 이 밤이 어멍연 전나 완디 허난에, 어머니를 들으면은 좋은 전난 아니우다게, 아이고 아기 어멍아 어떤 일인고 허난에 저양 ○○이 아방이 늠이 돈 육천 만원을 뵙여수다게 나 아기덜 놔벼동 돌아나불कु다. 기여 돌아나라 니 살아도 우리 아들이영 살아도 희망 엇다 돌아나라 경 헨 이제 숨느려 션 딱 전달헛숫게 메누리신디, 아기 어멍아 나이 느신디 곶은 말이 거 어떤 말고, 살암시민 살아진다. 느 가불민 저 ○○이 누게가 키울것고 나가 느가 예를들언 나간다면, 나 주식보단 더 손지를 잘 키우키여만은, 설마 느가 우리 아덜 네비여뵙 갈티야, 살암시민 살아진다. 아이고 나도 그 생각이 우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아기 어멍아 고맙다 경 헨 오늘까지 우리 메누리 산디.

102013 #1 중학교 동창.

102013 @ 아,

102013 #1 말이 좋주게.

102013 #4 나가 게 메누리신디,

102013 #1 그 늠안티 거

102013 #4 돌아나불렌까지 곶아수다게.

102013 #1 오천 만원 빚저졌단 농협마다 땡이멍 다 천만 원씩 다섯밧디 오천 만원,

102013 @ 음,

102013 #1 이자까지 허난 천만 원까지 육천 만원 그 빚을 이제,

102013 #4 아, 하느리 이제 ○○○이 아들만 오천 만원 뵙수게.

102013 #1 게 게메게. 경 헨 이제 우리 아들이 어멍 말잇과 월급이 차압 부떠노난,

102013 #4 우리 메누리가 그거 다 물어수다.

102013 #1 군청에 잇일 때 월급이 차압뵙노난 거 어멍 그걸 아니 갚양 뵙니까 게.

102013 #4 계난 그 사름이 이제도 안물고,

102013 #1 계난 그 사름은 이제 가남봉사 뵙수다.

102013 #4 계난 그 사름은 이제도 안물어수다 경 헨도,

102013 #1 이제 계난 그 주식은양.

102013 #4 우리 큰며느리가 착허우다.

102013 #1 그 돈을 빚저단, 전기 저 고속화물, 차 두테 산 거에다 썩끔헨 이것에 딱시붓그단보난 이것 저것에 몰아먹언 잇어,

105015 #4 게 아덜은 못낫수다만은,

105015 #1 경 헨도 지금양,

105015 @ 예.

105015 #4 저 메누린 진짜 착헌 메누리 헛수다.

105015 #1 지금양 지금은 웬찬허우다. 지금은 경 해도,
105015 #4 우리 예기 어멍ㄴ라 돌아불라ㄴ장도 나가 현 사람이고 우리 아덜이영 살아도 희망 엇덴 현 사람이고 오늘날ㄴ지 살아준 메누리가 고마운 사람이우다게 아이고,
105016 @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붙이고 싶은 그 삼춘이 그 철학이라든가 잇어민,
105016 #1 철학은,
105016 @ 게 살아온 게 모든 게 철학이우다마는
102016 #1 예.
102016 @ 예게.
102016 #1 계난 머니 해도 난 그자 첫체는 저 즈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고,
102016 @ 예.
102016 #1 즈식 농스가 잘 돼야 됩니다게 첫체는,
102016 @ 예.
102016 #1 나가 느낀 건 뭐냐, 육성회장으로 땡이멍 옛날에 그 춤 강정숙, 그 줌 교육장,
102016 @ 예 강정숙예.
102016 #1 그 사람은 이 우리 가난 우리가 그 때 무신 사건이 잇엇는고흐니까 나 육성회장 때, 하 김찬흡교장이 아 큰일 나수다 회장님 무신 일잇과 저 초등학교에 양 큰 난리가 낫수다. 무신 난릿넛과 허난 초등학교 선생덜이 토요일 날 나 강이 월요일 아침 때 배 잡앙 종달리로 들어오는 거라 계난 도선주가 도선주가 고발을 해분거라 교육청 아피, 학교 선생덜이 요일날 저 일요일 날 안 들어왕 월요일 아침 드러왓젠 경 흐난 강정숙 교육장이 이 세끼 교장부터 모가지 쫄라부켄, 경 헨 이제 해가난 우리 저 김찬흡교장이 힌트를 알아신ㄴ라 아 나신더레 어멍 험니까허난 나 여기 이장 동창회장 동문회장 초등학교 동문회장 들앙 가네 어멍 험니까 다 음부턴 이런 일 없게 시리 허크메, 우리 열심이 춤 머허크메 춤 소정흐난 강정숙이 저 교육장이 알아수다 당신네가 영 와부니까 나가 용서는 허쿠다마는, 당신네 아니 오라시민 나 다 쫄라불뻔 헛수다 헛는디 어멍 험니까. 줌 촌에서 어렵게 살아도 즈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까 나 그 말을 거기서 들어수다 아,
102016 @ 으,
102016 #1 아, 즈식 농스 잘 지어사 돼는구나 또 나도 과거에 설움을 받았기 때 문에양,
102016 #4 아이고 배 고팡 어멍 허코씨,
102016 #1 경 헤네 신경은 써수다마는 경 해도 크게 신경은 못 써숫다게.
102016 @ 예.
102016 #1 시시각각이라 사람은 양 벤소에 갈 뻔 므음광 돌아 올 때 므음이,
102016 #4 나면 어디신가?

102016 #1 틀리는 거 아니라게 양! 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라 계난 어떤 때는 교육도 중요하주만은 또 돈도 중요하는 생각이 나는거라.

102016 @ 맞수다.

102016 #1 어린 때 못 살아난 생각허멍.

102016 @ 예.

102016 #4 아이고 계메 사는데 뭘지 사난 사는거우다.

102016 #1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마음을 하나로 못 잡았수다.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전예 지금.

102016 @ 변해전예 예.

102016 #1 야 츠츠로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102016 @ 삼촌 앓아 이신디 막 불편,

102016 #1 엇수다.

102016 @ 아프거나 허지 않험수과.

102016 #1 으으 어떻 아녀. 아 계메 흘만하주 쁼찬허우다.

102016 @ 억지로 허는 거는,

102016 #1 예게.

3. 밭일

103001 @ 삼촌 농사를 여기서도 많이 지어나니깐예 다, 밭 산디 소허고

103001 #1 예.

103001 @ 조 농사 보리 농사.

103001 #1 예.

103001 @ 밭 산디 예,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고마씨? 밭일이문 농사 일이주 마씨예 어떤 것들이 잇이고예?

103001 #1 예 계난 그 년도 별로 그 년도 별로 틀립주마씨 그 밭 농사일이, 옛날에 팔십년도 이전에는 조 보리 농사만 헛수다. 조 보리만,

103001 @ 막 그 옛날에도예.

103001 #1 예, 그 팔십 년도 이전에는 옛날 조상 데데로 그 자 보리허고 조만 갈아서 우선 의식주,

103001 @ 예.

103001 #1 이제 입에 풀칠 할 것만 험습주. 돈 사젠도 앓고, 그렇게 헤오다가 팔십 예, 육십 년도까지, 그래서 육십오 년도부터는 고구마를 쫄쫄씩 갈기 시작헤수다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서속에 까지 보테서 이제 먹기도 헛고 이젠,

103001 @ 서속마씨? 아까 고구마를 서속에,

103001 #1 예, 조조 조예, 서꺼서 밥도 헤 먹기도 허곡 가난헌 집은 이제, 또 이

제 겨울에 간식으로 찌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주만은 그 때는 또 이제 신식 고구마가 나오라났수다. 옛날 제춧 감자라고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 데 나온 건 동글동글 해갓고예, 게 고구마가 잘 들어마썸 옛날 거 보담, 이제 그 고구마를 츠츠 츠츠 안 해가니까 이제는 절간고구마, 이제 술 월료 그거 만드는 절간 고구마를 흐기 시작해십주.

103001 @ 예.

103001 #1 그 레서 흐 팔십 년도 깐지는 구십 년도 깐지는 이 저 땅콩이 나오기 전 깐지는 구십 년데 깐지는 이 절간고구마를 많이 해가수다게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수메도 하고 농협에 으탁을 허는 수메도 해서 걸 또 주장 에 농협에서 받아 갖고 또 이제 농협에서는 각 이제 주정공장에 술 월료로 이렇게 이제 나가기도 허고 풀기도 해수다.

103001 @ 으,

103001 #1 글다가 구십 년도 와서는 이제 그 츠 땅콩,

103001 @ 예.

103001 #1 또 웨 고구마를 또 저 안 같기 시작 헛드냐허면은 중국산 전분이 들어 와가니까 그 전에 흐 팔십 흐 오 년에 오륙 년도 칠 년도 깐지는 절간 고구마를 흐다가 팔십칠년도부터 구십년도 이삼년 사이에는, 전분 월료로 고구마를 저 큰섬에,

103001 @ 예.

103001 #1 육지에 실러 날랐수다. 저 성산포 하천리 공장에.

103001 @ 예.

103001 #1 아니면 또 저 예월에 거 무슨 공장에 이렇게 해서 전분 월료를 이제 쟁고구마를 실러 날랐는데 그 사이 이삼년 실견 날르다보니까 이젠 전분 전분 공장이 있어도 공장이 줄어들어부러서마썸 제주도에 나가 알기로는 이 십군데 전분공장이 생겨났수다게.

103001 @ 예.

103001 #1 경 흐다가 중국산 전분이 들어와가니까 이젠 수지가 안 맞아가니까 저 전분공장이 이젠 다 폐업을 흐기시작 흐는거라.

103001 @ 아,

103001 #1 또 이제 세로 시작을 흘랏고흐니까 으세 이 환경 관계로해서 신식으로 해야웨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또 중국에서 전분 월료가 많이 들어와가니까 경쟁해서 수지가 안 맞암직흐니까, 예 전분공장덜을 다 폐업헤여 버리니까 아 우리가 생산을 고구마를 가 풀아 올라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서마썸.

103001 @ 예.

103001 #1 예, 그렇게 해서 힘이 드는 도중에 아 땅콩을 같아보니까 지금 소득이 생기는 거라마썸 그래서 이젠 땅콩을 같자,

103001 @ 예.

103001 #1 땅콩을 갈아서 또 농협에 팔다보니까 아, 농협에서도 이젠 저 유통공사엔 혼디서가 더 이상 받아들이질 못허겠다, 그걸 사서 가공할 사람들이 벨 이제 좋게 생각을 안해서, 수량도 적게 나곡 또 우리도 취급허기가 까다로우니까 앞으로 받아들이질 못허겠다고 허니까 아 계문 큰일 낫다 허여서 그 때 우리 국회사원 앞세와 갖고,

103001 @ 으,

103001 #1 유통공사에 가서 삼 년만 받아 주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작물로 데쳐할 수 잇는 준비를 헐테니까 해주세요 허니까, 계민 그렇게 허라고해서 아 삼년째가 돼니까 이제 우도가 관광지가 돼분 거라마썸.

103001 @ 거난 어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예.

103001 #1 예 이야기 해십주.

103001 @ 시대별로 해서 얘기 그런 저기 마늘깎지는 들언예.

103001 #1 예 헛고예.

103001 @ 예 그런데 그 이외에 것들.

103001 #1 그 건 이제 여름농사고 땅콩은.

103001 @ 예.

103001 #1 또 이제 겨울농사로써는 이제 그 마늘을 허기 시작 현 겁주 마늘을,

103001 @ 마늘예.

103001 #1 거 이제 마늘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마늘은 썬갈긴 갈아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갈았수다. 많이 안갈았는데 예, 농협에서 계약제배를 허는거라마썸.

103001 @ 으,

103001 #1 또 농협에서도 이제 저 그 중앙 정부이 에서 그 지정을 해주겠다고 허니까 농민덜 생산헌 마늘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해라.

103001 @ 예.

103001 #1 이렇게 해서 아 농협에서 폴아먹기가 쉬운거라마썸.

103001 @ 예.

103001 #1 그 웨에는 마늘 생산해갖고 못 폴아갖고 나도 일 년 늬이한테 폴아갖고 일 년치 깎도 못 받안 네불러수다.

103001 @ 예.

103001 #1 겐디 농협엔 받으니까 즉시 수매해서 데금 정산도 해주고 허니까 마늘을 갈기 시작 해오는 도중에 또 이제는 쪽파를 썬썬 갈기 시작헌거라.

103001 @ 예.

103001 #1 으 쪽파, 갈아서 이제 행 오니까 쪽파가 쉬웁고 또 저 보성 등지에서 쪽파를 무조건 선호해마썸 중자가 좋다고해서,

103001 @ 씨앗으로예.

103001 #1 예 씨앗용으로.

103001 @ 예.

103001 #1 또 저 충청도 서산 예산 서천 이 지방에서는 노지제배도 허곡 겨울에는 하우스 제배를 허는거라 그렇게 해서 수지가 맞으니까 우도 이제 그저 쪽과 씨를 사 가기 시작하는 거라마씨.

103001 @ 예.

103001 #1 게 우도는 이제 또 저 육지 제주 본섬에 이제 그저 한림이나 이 예월 지방더러는 우도 씨를 사갓고 제배해그네 그걸 또 상품용으로 상품용으로 육지에 팔기도 합니다.

103001 @ 음,

103001 #1 게 까 갓고.

103001 @ 예.

103001 #1 게 우리는 우도에서는 까 질을 얇고 그자 순종자종으로만 팝니다게,

103001 @ 종자 종으로예.

103001 #1 우도쪽과는.

103001 @ 그 이외에 밭에 밭일 거 농사 일이고예.

103001 #1 예.

보리농사

103002 @ 그 이외에 밭에 밭일에는 또 경허젠 허면은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103002 #1 예.

103002 @ 거름도 해야 되고.

103002 #1 예.

103002 @ 등등 허는다.

103002 #1 거름은,

103003 @ 예전에 조허고 보릿 때를 짝끔 곁아주시고 땅콩헌 거.

103003 #1 옛날에는 이제 그 듬북을 허다가,

103003 @ 예.

103003 #1 육십 년도 부떠는 비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마씨,

103003 @ 예.

103003 #1 게 비료로만 이제 밭디 뿌리는거라. 퇴비를 생산 안해마씨. 게 비료로 이제 저 지금 농협에서 게 주문을 허민 농협에서 사다 주는거라마씨.

103003 @ 예.

103003 #1 그래서 화학 비료만 막 써와십주. 요 근레에는 유기농 유기농 해서 저 텬비가 혼 삼십 프로 가 그 섞어져수다 그렇게 해서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집니다게 지금,

103003 @ 그 전에 헐 때 그 비료엔 헌 건 어떻 그 전 옛날에는?

103003 #1 아주 옛날에는 비료가 엇어십주. 그자 저 헤조류,
103003 @ 예.
103003 #1 그 듬복을 헤어그네 쌓아 낫다가 그거 이제 밧을 갈아그네 듬복을 깔
아서,
103003 @ 예.
103003 #1 게 보리씨를 빼영,
103003 @ 예.
103003 #1 경 그자 보리씨 더퍼그네,
103003 @ 예 그게.
103003 #1 이제 쉼로 갈앙 사이 이저 사이를 쉼로 갈아수다.
103003 @ 예.
103003 #1 소로 갈아 갈면은 양쪽으로 흑이 뉘서 그 듬복이 감춰저마씨예.
103003 @ 예.
103003 #1 그렇게 해서 이제.
103003 @ 그 게 거름이엇고예.
103003 #1 예.
103003 @ 돛거름은? 또.
103003 #1 돛거름 돛거름도 마찬가지로 뿌려수다. 밧디 강.
103003 @ 예 돛거름.
103003 #1 예 저 수산ㄱ튼 디나 이런딘 강 보면은예, 바람이 안불기 때문에 밧이
땅이 흐리기 때문에 바람이 안불기 위해서, 이 돛 걸름을 마당에 네 놔그네 그레
보리씨를 빼여그네 막 소로 볏아.
103003 @ 예.
103003 #1 볏아그네 이제 따시 그걸 전부다 그릇에 가져가그네 밧디 강 쪼금씩
쪼금씩 떡ㄱ치 갈라 놔나서,
103003 @ 예.
103003 #1 저기는 예 거기는 예 빠지 았고 여기는 이제 돛 거름ㄱ튼 것이 있으
면 그테로 듬복하고 ㄱ치 섞어서 뿌려수다.
103003 @ 섞어서 부리고예.
103003 #1 그 고랑에 깔고 또 걸름도,
103003 @ 예.
103003 #1 고랑에 놓아그네 그 자 밧을 갈앙 엇어그네 보리를 갈기 시작 헤났고,
103003 @ 거름 헤주고,
103003 #1 예.
103003 @ 그 다음에는 밧 갈아주고,
103003 #1 예 그 때는 육십 년도ㄱ지 뿐이고,
103003 @ 예.

103003 #1 옥십 년도 이후에는 보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듬복을 하지 안
헛수다.

103003 @ 예.

103003 #1 이젠 듬복이 필요 없거든마씨 비료를 하니까.

103003 @ 예.

103003 #1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너을 들이면서 듬복을 흘필요가 없다고 지금.

103003 @ 맞수다. 거문 이진 종자 잇곡.

103003 #1 예.

103003 @ 그 다음,

103003 #1 보리를 갈아갓고 조는 조는 그렇게 보리 갈아난 그르에 듬복은 들어
난 그르에는 조는 잘 돼여마썸. 비료도 비료도 없거니와 비료 안해도,

103003 @ 예.

103003 #1 겐디 듬복을 안들여난 밧디 조를 갈양은 또 조가 안되는 거라 땅 땅
힘이 약허기 때문에,

103003 @ 예.

103001 #1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밧이 만헌 사람들은 자기 밧에 이제 듬복을 체
왔다가 좀 남으면 이제 없는 사람 밧 없는 사람덜 빌려줘나수다게 여기 듬복을 들
여서,

103003 @ 음,

103003 #1 보릴 갈아라 게민 그 그르에는 또 조가 잘 돼니까,

103003 @ 으,

103003 #1 조는 못 갈고 보리만 갈아먹어라.

103003 @ 아, 보리만.

103003 #1 이렇게 헤 놓고도 그 밧테 듬복은 들이고 썸 듬복이 부족헛 못들이
면 보리를 갈지 말아라.

103003 @ 응,

103003 #1 음 그 땅에는 듬복 안들이면 보리를 갈지 말라 혼 것이 그렇게 옛날
에는 그렇게 헤낫수다.

103004 @ 거문 저기 조나 보리 같은 거는 씨는 이너이 행 나뵤다가.

103004 #1 준비헤 나두십주.

103004 @ 준비 행 이너 갈아난 거를,

103004 #1 예예,

103004 #1 헤 나뵤다그네. 예 보리 갈안 이너 준비헤 뵤다가,

103004 @ 예.

103004 #1 일 년에 몇 마지기 갈꺼 또 듬복이 얼마 뵤난 저거 몇마지기 헛꺼.

103004 @ 예산 헤 가지고예,

103004 #1 딱 짐작 헤여근네 보리는.

103004 @ 예 뿌리고, 그 다음에는 뿌려야난 다음에는 검질 메야 되고,
103008 #1 예 춤 검질은 언제 메느냐하면 예 저 음력으로 정월달에,
103008 @ 예.
103008 #1 예 이제 또 양력으로로는 혼 이 월 들썹 뽕주마썸계.
103008 @ 예.
103008 #1 보리 검질을 한 이십 일 썸 뽕주마썸.
103008 @ 예.
103008 #1 나도 중학교 텅길 떼는 어머니 딸아가네 늬이 밧디 가네 보리검질도
혼루 메 나숫다. 혼 번 메나숫다.
103008 @ 예 보리 검질메고예 조는.
103008 #1 좇검질은 여름 떼에,
103008 @ 여름 떼에.
103008 #1 초불 두 불 세 불까지 마나수다.
103008 @ 세불까지예.
103008 #1 망중 웰 떼까지.
103008 @ 예.
103008 #1 저 그렇게 해서 일 년에, 예 조검질을 한 삼십 일네지 스십 일 동안
초불 두 불,
103008 @ 음,
103008 #1 세 불까지 메젠 혼난 스십 일 동안 거렛수다 옛날에.
103008 @ 예.
103008 #1 예 이런 날도 지금도 옛날 그뜨민 지금시기에, 막 조밧디 강 검질 벨
떼우다예.
103010 @ 예 맞수다. 경 행 크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 할 거 아넛과예.
103010 #1 수확은 이제 또 음력으로 구 월 초싱 뽕면예,
103010 @ 예, 그거하고 또 보리하고,
103010 #1 양력으로 시 월들나면 또 조 비여그네 조코고리 가그네 호미로 다 툃
야그네 예 그거 이제 가마니에 담아가네 집이 와그네 마당에 놔그네 도리께로,
103010 @ 도리께로 두들경예.
103010 #1 보리도 마찬가지로 보리도.
103010 @ 보리도예 보리도.
103010 #1 보리도 옛날에는 밧에 보릴 비영,
103010 @ 예.
103011 #1 이제 그테로 넣어 낱 조 마르면 걸 조금 이렇게 무경 등짐 지어그네
집이까지 지어와그네 집이서 이제 마당에서, 흘테영 혼 거 있어 흘테 보리 영 흘트
는 거 흘테, 흘테도 보리 흘타그네 영 심지영 비나 즈주 오곡 흘테은 방 방안에서
마루에서 흘타 낱으네, 방안에 흘타 낱으네 헛다그네 테작하게 뽕민, 바꿧디 네놔그

네 도리끼로 테작히고 이렇게 해놔주.

103011 @ 그 건 조나 헌디 보리는 또 잘도 잘도 어려우큰게예 까스레기영예.

103011 #1 보리가 좀 어렵주 조보다는 쫄쫄 더 어려와마씨, 예 멩텅이도 많이 담 아와십주.

103011 @ 예 저기 경 허면은 그걸 행 오면은 그 때도 수매를 해신가마씨?

103011 #1 아니 아니 그 때는 순전히 농사용으로 해여그네.

103011 @ 이녁 먹을거예 양석예.

103011 #1 예 그 때는 몰그레 몰방아, 몰잇는 사람은 연자방압주 연자방아 연자 방아 돌릴 적에 사람힘으로도 돌리곡 소 없는 사람은 저 서로 수눌어 갖고, 혼 네 사름이나 세 사름이나 다섯 사름이나 돼야 몰방아를 돌려서마씨 경 혼디 소는 혼 사름만 저 소 하나로 사름 뒤에서만 쉼 체찍질만 허면서 이렇게 돌아가게시리 허면 돼나서.

103011 @ 예.

103011 #1 그래서 그 몰방아에서 보리도 찍어먹고 또,

103011 @ 예 그 보리나 조허게 돼민 여기는 그 메뚜기 와그네예.

103014 #1 예 메뚜기는 이제 으물이 반 으물끝 때 반 으물끝 펜 메뚜기가 그 즈 연적으로 생겨서마씨 그 때는,

103014 @ 그문 어떤 식으로 생기코 메칠 사이에 그냥 썩 생겨서,

103014 #1 예 멩 칠 스이에 메뚜기가 생겨그네 저 그 조코고리를 갈아 먹어서마 씨.

103014 @ 예 메뚜기 날아 난거 기억 납니까?

103014 #1 예예 우리 흑교 간 올 쎄,

103014 @ 예.

103014 #1 메뚜기 잡양 막 썰에 췌여,

103014 @ 예.

103014 #1 이만씩 췌멍 또 집이서 득을 혼 두 마리씩 길름주게.

103014 @ 예.

103014 #1 주곡 이렇게 흑곡 워낙 메뚜기가 어떤 때 갑자기 시면은예, 심지어는 몰축곳이엔 헤그네,

103014 @ 예 몰축곳,

103014 #1 이저 우리 당에 당에 가그네 심방 데려 가그네 곳을 헤여마썸,

103014 @ 예.

103014 #1 몰축 돌아날 돌아나췌쎄, 경 허민 그 자 심방 저 수심방흑곡 또 아레 심방흑고 꺾 그 췌 농장에 가그네, 골목으로 뎅기면 몰뚝이 돌아나가렌 휘어휘어 허멍 막 달리멍 이렇게 해놔어.

103014 @ 거문 막 무시겨 두들기멍.

103014 #1 예. 우리 어릴 때.

103014 @ 예. 어릴 적에는예 몰축굿예. 경 허곡 말축들이 막 같이 그냥 확 날아가곡 확 날아오곡 헐 때는 막.

103014 #1 그렇게 심하게 심하게 놀어난 건 우리 안봐 여기는 심하게 안하고 그자.

103014 @ 무리 지언에 달리는 건 안 판예.

103014 #1 에 여간 몰축 그자 조코고리 붙엇덴 헤그네 좀 피혜 감젠 헤그네 지금 경 워낙 짝금 심혜 가민 헨는디 막 무더기로 놀아다니는 건 안봐마씨.

103014 @ 지금 비료 잇고 기계 잇고 헨 거 빼예, 이거를 현대 세상빼고 옛날 세상에는 밧 일에는 밧 같고,

103014 #1 그 후에 육십 년데까지는 에 이제 몰방아 허다가,

103014 @ 예.

103014 #1 에 육십 년데 이후부터는 정미소 기계로, 보리를 곱기 시작하는거라 조도,

103014 @ 계난에 예 기계가 나오기 전,

103014 #1 예 기계 나오기 전에,

103014 @ 기계 나온 이후는 뭐 이미 다 뭐 똑 같으니간예.

103014 #1 예예.

103014 @ 그 나오기 전에 일을 만약에 생각헌덴 허민,

103014 #1 예.

조농사

103016 @ 그 한 몇 가지로 헌덴 허민 어떻 허쿠과? 밧을 갈고 준비허젠 허민예.

103016 #1 처음에는 이제 조를 갈 젠 허면?

103016 @ 예.

103016 #1 조를 갈젠 허면? 조 갈젠 허면은 밧을 벌업주마씨. 일 차로 밧을 갈아 마씨.

103016 @ 예.

103016 #1 보리끄리에.

103016 @ 예.

103017 #1 보리 그저 그르 썩으라고, 일 차 밧을 갈아 놓고,

103017 @ 예.

103017 #1 다음에는 썩을 만 흐면 혼 이 주일이나 혼 이십 일이나 되면, 이젠 조를 갈기 시작해마씨.

103017 @ 예.

103018 #1 계민 이제 그 때는 보통으로 이 저 음덕으로 에 칠 월 칠 일이 이제 소서니까 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름 밧 가름 밧은 소서 넘어그네 혼 삼 일까지 돼야허곡 또 이제 난전 밧 난전 밧은 가름에서 벗어난 밧.

103018 @ 예.

103018 #1 이제 가름에서 벗어난 밭, 가름에서 벗어난 밭은 난전 밭이엔 협주 이제, 가름에서 지금 한 일 키로 이상 떨어진 밭덜 이런 덜, 난전 밭이엔 헤기네 그 밭덜은 또에~ 소서보다 혼 일주일 먼저 흐여마씨. 이제 예 자라 나는데도 흐끔 지장이 있고 이렇게 허니까.

103018 @ 예 먼저 갈양예.

103018 #1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곡 또 물 앓인 물 앓는 밭덜이 있어마씨.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옴팍 파진 밭덜은 게문 또 저 두 불 농사도 허여마씨. 두 불 건 저 물 앓아나민 조가 안 납주마씨 썩어 버령, 안 나면 도로 이제 두 불 갈기도 흐곡 세 불까지도 헤여, 세 불차는 머 췌시령으로 강 안 나는 부분만 췌시령으로 글그멍 씨 뿌령으네 또 밭을 세울라고 이렇게 흐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흙네 자꾸 흐는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조농사를 허면은,

103021 #1 그 다음은 혼 일주일만 헤가민 딱시 저 조가 나기 시작 허거든마씨. 혼 나면은 세 입 두 입 저 세 입 네 입이 돼가는거라 그 때는 초불검질이엔 초불검질 메는거라.

103021 @ 음.

103021 #1 그 때는 정식으로, 약 한 삼 센치에 하나씩을 조를 세와주는거라. 처음에는 무데기로 막 좃게 뿌려줬다가 나중에 흐나흐나 일연에 그저 간격을 두면서 이저 슈아주곡 또 이저 검질 뽑아주곡 그렇게 흐다가 두 불가면 또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 돼니까 또이제 또또 흐나씩 더 뽑아주는 거라마씨. 이제 그렇게 세 불차는 이제 뽑지는 아녀마씨 이제는 검질이 흐나씩 잇거든 마씨 그 검질을 이제 메어줘그네 해야 이제 조팍디 검질 엇어그네 조가 잘 췌텐 헤연 세 불까지 메는 디가 잇엇수다.

103021 @ 예, 메고 저기 좃은 디는 거 슈아주고.

103021 #1 슈아 주고.

103021 @ 또 부족흐 디는 더 저기 옮겨 심어주고예.

103021 #1 예 경 흐고 또 이제는 만약에 드문 드문 안 난디는,

103021 @ 예.

103021 #1 또 비가 왕 즈 머헌 때는 메영 가그네.

103021 @ 예.

103021 #1 그 뒤엿 거 즈 좃이니까 메어다그네 거 심어그네 그땐 간격을 전부다 영 티와주고 헤낫수다 지금.

103021 @ 예 경 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그 다음은 거뒤드릴 건게예 수확을.

103021 #1 그 다음은 이제는 저 서 불검질 메면은 이제는 한동안은,

103021 @ 예.

103021 #1 이젠 고고리 나왕 여기서 곡식이 이젠 고고리가 나왕 고고리엔 협주

여기선,

103021 @ 예.

103021 #1 고고리가 나왕 그제 열매가 이젠 멩 뗏기 시작헤여마썸.

103021 @ 예.

103023 #1 열매 뗏엉 이젠 여물이 들면 이젠 노랑게 익어가마썸 그 머 흰허게 알아잡주마썸 이 그 열매 이 정도면은 수확을 해야 돼겏다는 걸 알면 그 때는 비여그네, 비여그네 이젠 어느 정도 썸 돌르면 이제는 고고리를 톨는 거라마썸.

103023 @ 예.

103024 #1 톨아그네 멩텅이에 담아그네 집이 왕 마당에 놔그네 이젠 도리께로 두들여, 겐 이제 그걸 브람에 이젠 불려마썸.

103024 @ 예.

103024 #1 불리면 체는, 알맹인 저 알맹이만 거기 나오곡 썸 썸 없는거나 겐 덕ㄴ쁜 거는 다 놀아나봄주마썸 이젠. 그렇게 해서 그걸또 이젠 물방에 가그네 썸 어그네 이제 떡곡 이렇게 해나십주.

103024 @ 예 경 행예 수확헤그네. 조코고리는 밧디서 톨다솨과?

103024 #1 밧디서 톨다솨다 집이 왕 안톨다그네, 흙치 다 지어와마썸 마당에 놔그네 도리께로 이제 톨는거라.

103024 @ 조농사를 위주로 헤가지고 보리농사는 아까 말 잘.

보리농사

103002 #1 보리 농사도 이제 아까도 잘,

103002 @ 보리농사 짓젠 허면은 처음에 준비허는 거를 제일 큰 걸 몇 가지.

103002 #1 제일 준비 허는 걸 우선 듄복을 헤 듄복 첫체로.

103002 @ 거름 준비 허는 거예.

103002 #1 듄복 듄복 안 허면은 보릴 못 갈아 먹어십주. 멘 땅엔 보릴 갈양 안돼여마썸 보리 비료가 엇일 때난, 옛날에는 육십 년대는 비료가 안나올때는 지금,

103002 @ 예, 게난 보리씨 보리씨 종자허고,

103002 #1 예 썸중으로 씨 준비허고,

103002 @ 그 담 받가는 거.

103002 #1 예예 그 다음에 밧을 갈아.

103002 @ 가는 것도 소 썸로 갈아,

103002 #1 소 갈아.

103002 @ 예 소로예.

103002 #1 소 있는 사람 아니면은 보리 저 농사를 못헤 먹엇주마썸.

103002 @ 예예, 소 헤가지고예. 거름은 또 듄복으로.

103003 #1 예 듄복 또 듄복도 허고 또 돛걸름.

103003 @ 아 돛 걸름 맞수다 돛 걸름.

103003 #1 돛 걸름도 네어그네 이룬디 제영 낫당 집안에.
103003 @ 예예.
103003 #1 이룬 디 제영 낫다그네 좀 어느 정도 짝끔 물량
103003 @ 예.
103003 #1 수분끼 끼 짝끔 빼어그네 이젠 밧디 강 뿌려그네 거 지어 가그네 등
집으로 지어다그네 다 영 드멍드멍 낳 뿌려그네 다 ㄱ찌 섞어그네 뿌려그네 이젠.
103003 @ 거름은 흔 해에 몇 번 내는고예.
103003 #1 그 때 뿐입주 그 건.
103003 @ 흔 번 냅니까?
103003 #1 예 그거 뿌리면 비료 엇일 짝이는 것 뿐이라마썸.
103003 @ 거름을 돛거름 내는 거.
103003 #1 돛거름 내는 건 일 년에 부갓칩이 사름덜은예.
103003 @ 예.
103003 #1 보릿칩 ㄱ쁜 걸 저 돛통에 이제 돛통에 두 번 세 번 놓는 사름도 잇
업니다게 두 번씩 푸는 사름도 잇고 또 보릿짚 없는 사름은 보릿짚 에껴갓고 것도
돛통에 흔번 네왕 흔 번 네는 사름도 잇고,
103003 @ 예.
103003 #1 도야지가 또 크면은 도세기가 큰 도세기 길루면, 거름을 많이 만듭주
마씨 이제 많이 블루곡마씨,
103003 @ 거름을 낼 때는 예 돛통이 저 저기 집 옆에 잇일거 아닛과예.
103003 #1 집 안에 돛통이,
103003 @ 집 안에,
103003 #1 잇입주.
103003 @ 예 그러면은 거름은 밖으로 내칠 것,
103003 #1 아, 집 안에,
103003 @ 집 안에 마당에,
103003 #1 집안 에 어느 구석에 마당 어느 구석에.
103003 @ 어느 구석에,
103003 #1 예예.
103003 @ 그 바로 저기 통시.
103003 #1 밧긋디 ㄱ지는 멀고,
103003 @ 예.
103003 #1 지치지 앓읍니까게. 게 케난 집이 울에염 잇이면은 좀 너른데,
103003 @ 예.
103003 #1 영 앞 뒤론 말고 읍 디로,
103003 @ 옆에,
103003 #1 흙 읍으로 영 헤그네,

103003 @ 헤기네,
103003 #1 그데로 쌓아둡주마씨.
103003 @ 예.
103003 #1 경 머 덮어두어그네 이제 비 안들게끔,
103003 @ 비가 안들게 시리.
103003 #1 이제 덮어두기도하고 경 하고 듬복은 듬복은 이제 헤어 줌 바다에서
해조류를 케어오면 거기서 몰려,
103003 @ 예.
103003 #1 등짐 지어그네 이제 집 가까이 갖다와그네,
103003 @ 예 경 행,
103003 #1 듬복눌 놓어그네,
103003 @ 예.
103003 #1 저 느람지 세로,
103003 @ 예.
103003 #1 느람지 만들어,
103003 @ 예예.
103003 #1 경 그 우이 돌르는 거라마씨 이제 우엔 주쟁이 주쟁이 저 가운데론
물 들어가지 못허게 주쟁이.
103003 @ 주쟁기 헤 가지고 놓고예.
103003 #1 저 덩어곡 헤그네 게그네 혼 멧 게월 동안 보관 헛다그네 떼가 뉘면
눌 걷어그네 그 듬복을 이젠 주워 돛아 밧디 저 갑주.
103003 @ 예.
103003 #1 나 옛날에 저 우리도 저 비양이엔 혼디 간 살아났는디 춤 거 어디 할
망하곡 이제 듬복 하루종일 저 중앙에 하루종일 지어가난 적이 잇수다. 나 열세 설
때,
103003 @ 아이고,
103003 #1 저 인정상 또 없어 노니까 또 그 집이 강 밥이라도 얻어먹곡, 또 이제
그거 지어주면 딱시 보릿쌀 혼 말 조 혼 말 이렇게 주기도 험니다게.
103003 @ 아,
103003 #1 품삯으로,
103003 @ 품삯으로예.
103004 @ 보리는예, 언제 누게가 어떻 갑니까? 이 동네는 보리는 보리 갈 때는
구 월 저기, 씨 뿌리는 거,
103004 #1 음녃 음녃 입동 들면,
103004 @ 예 입동예,
103004 #1 음녃으로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조는 이제 소서를 기준으로 하곡예.
103004 @ 예.

103004 #1 보리는 입동을 기준으로 협주마씨.
103004 @ 예.
103004 #1 그렇게 해서 음력으로 보통 그자 시 월 혼 스무 날 음력 시 월 스무 날 보름으로부터 시 월 스무날 그 사이에 이제 보리를 갈기 시작 협주마씨.
103004 @ 그 누계가 갈 저기 저기 갈코예?
103004 #1 우리 저 여기 집집마다 다 남자들이 잇지 았웃과 남자들.
103004 @ 집집마다 남자들이 허고예.
103004 #1 남자들이 있으니까.
103004 @ 예 보리 갈 때,
103004 #1 그 데로 보통 집집마다 다 남자 한 사람 정돈 다 잇엇주게,
103014 @ 예, 보리 허는건 아까 듬북 깔아놓고,
103014 #1 예.
103014 @ 그 다음 밭 갈아 놓고,
103014 #1 예.
103014 @ 그 다음 뿌리는 거는,
103014 #1 뿌리는 거는 딱시 남자가 뿌리든지.
103014 @ 씨로 영 뿌령예.
103014 #1 보통 남자가 많이 뿌립주마씨.
103014 @ 보리는 심는게 아니라 뿌리는거예?
103014 #1 뿌리는 겁주 보리씨는.
103014 @ 보리씨는,
103014 #1 경 허민 보리씨가 백 평에,
103004 @ 예.
103004 #1 백오십 평에 혼 말지기라고 허십주. 백삼십 평 백오십 평.
103004 @ 백오십 평에 혼 말 지기에.
103004 #1 예. 천 평이면 혼 일곱 말.
103005 @ 멩텅이 낱 옆에 놔그네.
103005 #1 예.
103005 @ 멩텅이에 씨를 놔그네.
103005 #1 예 멩텅이에 낱 가그네.
103005 @ 예.
103005 #1 그 디 밧디 지영 강 조그만헌 그릇에 즈그마헌 그릇에,
103005 @ 쫘그마헌 그릇이 어떤 거.
103005 #1 조그마헌 씨 그릇 옛날에 멩텅이라헌 그릇도 잇어낫수다.
103005 @ 예 멩텅이.
103005 #1 씨뿌리는 그릇도 잇어낫어 씨 담양에 뿌리는 그릇도 잇고,
103005 @ 씨 멩텅이?

103005 #1 예.

103005 @ 예.

103005 #1 그 건 그런 건 갖춘 사름들토 있고, 또 간난허고 또 머헌 사름은 못 가진 사름도 있고,

103005 @ 예, 거문 그거 잇인 사름은, 그걸로 행 저 어깨에 메고 엇인 사름은,

103005 #1 예 젠디 차룽도 있고야 차룽,

103005 @ 예 차룽도 있고,

103005 #1 예 또 바구리 바구니도 있고, 저 머냐허면 바구니는 머냐면 구덕을 짜 거든마씨, 저 웃드르ㄴ뽀든 디서는 구덕을 짜그네 이기 풀레와마씨. 우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기 웃드르든 데가 많거든마썸.

103005 @ 예.

103005 #1 데를 헤그네 구덕을 짜그네 여기에 오면은 우리가 사는거라. 상 어느 정도 씨당 중고품이 되면 이젠 형벽을 블라 형겼, 이런 형겼을 블라그네 풀 썩그네 불황 브름구덕을 멩그는거라 브름구덕에 그 브름구덕에 이제 그 쓸을 놓기 시작허는거라 보리쓸이든지 좁쓸이든지 그 브름구덕이 이젠,

103005 @ 예.

103005 #1 그릇이 웨는겁주 브름구덕 하나 만들면은 혼 십 년 이상 씹주게.

103005 @ 예예.

103005 #1 지금,

103005 @ 예 그거 헤 가지고 뿌리 옆에 놔그네양.

103005 #1 예 브름구덕에 씨 놔기네 뿌리기 시작헙주게.

103005 @ 앞으로 옆으로 영 가면서예.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인가마씨?

103006 #1 계난 슬보리가 잇꼭 곁보리가 잇어 슬보리가 잇고 곁보리가 잇이난,

103006 @ 슬보리 슬오리렌 헙니까?

103006 #1 슬보리는 저 꺾데기 없는 보리,

103006 @ 예 거난,

103006 #1 건 슬보리엔 허고,

103006 @ 슬보리엔 헙니까 슬우리엔 헙니까?

103006 #1 슬보리 슬보리.

103006 @ 슬보리렌 헙니까?

103006 #1 예 슬잇는 보리.

103006 @ 아,

103006 #1 꺾데기가 없는 보리.

103006 @ 슬보리엔 헙니까?

103006 #1 예, 꺾데기 또 주녕이 보리.

103006 @ 주녕이 보리?

103006 #1 주냉이 보리는 머냐면 지금 맥주보리 이제 가는 맥주보리.
103006 @ 예, 보통 두 가지마씨?
103006 #1 예, 계난 맥주보리 말곡 주냉이 보리도 잘 웬덴허여그네, 근디 그계
물그랑에 곶첸허민 까다로와, 껍질이 이 저 뚜꺼우니까.
103006 @ 에예.
103006 #1 슬보리는 줌 흔 번,
103006 @ 흔 번만 허민,
103006 #1 얼마아니 갈아도, 또 껍질이 베껴져그네 쉬웁는다, 그렇게 헤도 가끔
그 곶보리 저 주냉이보리만 가는 사람도 잇어낫수다.
103006 @ 응. 보리밭 밟으는 거 밟아줘야 되잖아예.
103007 #1 찝끔은 붉아줌은 불아줌은헝주. 붉아줌은,
103007 @ 아 안 붉음 붉지 안 허기도 헝니까?
103007 #1 아, 씨 날 정도는 갈면 감좌집주마씨. 경 헤도 찝끔씩은 다니멍 씨 보
이지 보이는 건 줌 붉아주곡 헝주마씨.
103007 @ 아, 말 놔기네 붉으거나.
103007 #1 물 허는건 저 머 흘 떡에 조 갈 떡에, 조조 조농사 헝 떡에는 물로나
쉐로나 불러줘수다.
103007 @ 예, 경 현디 그러면은 보리 헝 때는 막 저기 떠그네 막 밟아줘야 현덴
허는다.
103007 #1 그데신 그거 헤방 세봄 나민, 이제 세봄 나민은 밧을 붉아줘수다. 웨
냐허민 겨울에 춥거든마씨. 이제 근넌 헝주 곳아불민 땅이 부꺼불민 그 뿌리가, 잘
부착이 땅에 안웨영 몰라 죽어부는 수가 잇어. 계민 몰라 죽지 안 허게시리 붉아
낫수다.
103007 @ 그민 그 보리밭을 다 밟아야 될 거아니웃과?
103007 #1 계메 그 헤에,
103007 @ 예,
103007 #1 막 추운 헤가 잇어. 추운 헤가 덜 추운 헤가 잇고, 또 붉는 사람 잇고
아니 붉는 사람 잇어,
103007 @ 아,
103007 #1 지금 계난 이제,
103007 @ 밟는 사람 잇고 안 밟는 사람 잇어.
103007 #1 계난 우리 초등학교 떼 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보리 붉아줄 디 잇거
들랑 붉아주렌 동네 반장안티 곶아, 계 반장은 또 동네 사람들안티 보리 붉을 사람
잇이넌 허면은 우린 밧 붉아드렌 붉아첸 아 으집이 할망, 강 이제 나 이 학년 떼가
일 학년 떼, 밧 붉으노렌 허난 그 할망이 저, 고구마 떡 고구마 물린거 그 떼는 저
그걸 곶아그네 그루로 만들어수다.
103007 @ 예.

103007 #1 고구마도 물렁, 경 그것도 시리에 천, 와네 막 우리 시리에 네명 먹으
명 하나수다게 지금.

103007 @ 아, 고구마 시리떡예.

103007 #1 예 우리 일 학년 때예. 지금 저 친구백 스십육 년도 칠 년도까지만도
흐드라도 그렇게 까지 고구마떡을 먹어나수다.

103008 @ 보리밭 매기에 밭 보리밭을 저기 그 검질 맬 때는예,

103008 #1 예.

103008 @ 몇 번 매키예?

103008 #1 보리밭은 흔 번만 메면 돼여마씨.

103008 @ 흔 번만예.

103009 @ 보리밭에 검질은 대충 여기서는 보통 어떤 검질들이 납니까? 보리밭디
검질 난 것은.

103009 #1 보리밭디 ㄹ뜨디에서는 글썄 보리 ㄹ뜨 사시레기 사시레기엔도 허고,

103009 @ 사시레기.

103009 #1 예,

103009 @ 또,

103009 #1 제완지 제완지는 안 나 나실꺼라. 제완지는 조코리 좇밭디 나고,

103009 @ 응,

103009 #1 예, 이제 또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좇밭디 좇밭디 나 나고,

103009 @ 해바라기 꽃을?

103009 #1 예, 해바라기 그 게해바라기라고 야 지금 우리 꽃 피는 해바라기가 아
니고, 또 여기 토종 해바라기가 잇수다.

103009 @ 아, 해바라기, 크기는 어느 정도 험니까?

103009 #1 크기는 ㄹ 정도까지 안 돼여마씨.

103009 @ 아, 사름 준등이까지 올라오는구나예.

103009 #1 예, 이렇게 가지 치어그네 가지가 많읍니다. 가지가 흔 스무게.

103009 @ 게해바라기예?

103009 #1 예예 게해바라기는 지금 뿌리가 상당히 깊으게 들어가곡 우리 지금
나 이 땅콩밭디 강보민 해바라기가 많이 나잇수다. 나가 지금 더위부난에 그거 못
멩 잇수다게.

103009 @ 게해바라기예, 그리고 또,

103009 #1 또 물풀이엔도 허고예, 계난 그 보리밭디는 물풀이엔흔 거 많이 나났
수다.

103009 @ 물풀이,

103009 #1 예, 그거 이제 많이 나나고,

103009 @ 사시레기 게해바라기 물풀이.

103010 @ 보리 수확은? 배는 거 허고 묶는 거,

103010 #1 예,
103010 @ 묶으는 건 어느 정도 묶으는 거.
103010 #1 예, 어느 정도 묶엉. 경 헤그네 그걸 지게에 지어그네,
103010 @ 예, 그 베는 거는 이 호미로?
103010 #1 예 호미로,
103010 @ 호미로 베어그네,
103010 #1 호미로 베어그네 즈근즈근 이러 늘어 늘어 놓는 거라마쌌.
103010 @ 예.
103010 #1 이젠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
103010 @ 예예.
103010 #1 경 멧 칠 썩 물류면은 묶엉 이젠 그전에도 안 물류면 지어 올라면 무
겁주마씨 이제,
103010 @ 예.
103010 #1 그래서 어느 정도 물리면 다 묶으는 거라마쌌 묶엉,
103010 @ 묶을 때는 엇 어느 정도 낱 묶음니까?
103010 #1 이 이정도로 무꺼야 땡니다. 이 정도,
103010 @ 예, 이 정도 묶엉예 ,
103010 #1 저 보리짚이 하나로 보리짚을 서로 겹쳐,
103010 @ 예 보리짚으로예.
103010 #1 머리와 머리끼리,
103010 @ 예예.
103010 #1 겹쳐 돌려그네 경 무끄는 거라마쌌.
103010 @ 묶어그네예.
103010 #1 춤 지게 지민 많이 지는 사름은 쓰무 못까지도 우리 지어났수다. 쓰무
못까지,
103010 @ 보리는 못이엔 험니까?
103010 #1 예 스무 못.
103010 @ 아,
103010 #1 혼 못 두 못 헤그네예, 스무 못 스무 못까지도 지어그네 춤 이제 지
게, 지켓 가달로 영 흥면 세세 게씩 놔집네다 흥나 둘 세계 낱 그걸 혼 일곱 단계
까지는 놔져, 일곱 단계까지,
103010 @ 예.
103010 #1 경 오면은 이제 떨어지지 않게 배줄을 뒤로 메영 막 땡겨그네 여기에
걸리는 거라마쌌. 경 해도 이제 지영 와 가면은 워낙 무꺼노니까 움직이지 움직영
떨어지지 않읍주마씨게.
103010 @ 예.
103010 #1 게 그렇게까지 행 오고 또 그러지 않은 여자들은 배로,

103010 @ 예.

103010 #1 배로도 지영 읍니다 배로.

103010 @ 배로 지고,

103010 #1 예 배 배 영 헤그네 놓아그네 거지 헤그네 열 못 정도는 놓아그네 배
에 무꺼그네 지어오기도 하고,

103010 @ 지어오고예 경 흐곡예.

103011 @ 타작은? 보리는 타작 할 땐 어떻 헛수과?

103011 #1 테작 흘 떼는 집이 와그네,

103011 @ 예.

103011 #1 아까 안 곁아, 집이 와그네, 이제는 놀어 놓는 거라 첫 체는,

103011 @ 예.

103011 #1 우선은 비가 오면은 문제가 됐니까. 놀어 낫다가 이젠 흔 못씩 흔 못
씩 가져다명 이제는,

103011 @ 예.

103011 #1 흘테에서,

103011 @ 예 흘테에서.

103011 #1 흘트는거라.

103011 @ 흘테에서 헤그네,

103011 #1 흘트는 것도 이젠 마당에서 흘트당,

103011 @ 응,

103011 #1 비가 자주 와가거나 영 흐면 그걸 다 거둬드려야 돼거든마씨. 경 흐
면은 흘 수 없이 당장은 뭐 흐니까 이젠, 방에 그 보리도 방에도 놀 떼가 잇어마씨
딱시 마루에도 놀때도 잇고,

103011 @ 예예.

103011 #1 경 방에 놔기네 허당 또 비가 자주 안와가민 일을 못 흐거든마씨 경
흐민 흔 못씩 빠 가명 방에서 흘타그네,

103011 @ 흘타그네.

103011 #1 경 보리짚으로 헤다그네 딱시 딱로 누는거라.

103011 @ 놀어그네예.

103011 #1 보리 누는 디는 딱로 잇곡 보리짚 누는 디가 딱로 잇어마씨.

103011 @ 예예.

103011 #1 놀어그네 이젠 거 보리짚으로 펠감을 흐는거라마씨 경 헨 거 보리테
작 흘텐 이런디 마당드레 다 네놔 네놔 찌끔 벳 맞춰가명 이젠 테작흐는거라마씨,

103011 @ 테작 흘텐,

103011 #1 테작헨 그걸 이젠,

103011 @ 도리께로,

103011 #1 도리께로 타작 헨 그걸 바람에 불리는 거라마씨.

103011 @ 예.

103011 #1 알맹이만,

103011 @ 예.

103011 #1 껍질은 이젠 다 꺾시락하고 껍질은 다 떨어 놔 버리는 겁주 경 그 알
맹이만 헛당,

103012 @ 예 그 다음 쌀은?

103012 #1 집이 왕 영,

103012 @ 예, 보리쌀은예,

103012 #1 멩텅이엥 구덕이엥 다 낫 당,

103012 @ 예,

103012 #1 이젠 햇빛 나민은 영 도로 말리는 거라 몰려,

103012 @ 예,

103012 #1 몰려그네 이젠 딱시 건 이젠 몰꺾레에 골레 가는 거라마씨.

103012 @ 몰꺾레에예.

103012 #1 예. 몰꺾랑에 이제 연자방아에 곱앙으네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양 그
걸 버러버러던 말이우다 그 우리 조상 그 이런 도구리 머가 없으니까 물 담는 그릇
이 없으니까 돌로, 돌 토꺾리 돌로 이젠 그걸 다 파 갖고 도고리를 만들양 거기
이젠 그 보리를 놔그네 씻근다고, 씻경 이젠 저 구덕에 건지명 건지명 이젠 들방에
더레 갖다놔, 갖단 왕 이젠 들방아를 돌리는 거라.

103012 @ 아, 건지명마씨?

103012 #1 예 그 들방아를 돌리는 거라.

103012 @ 경 허문 잘,

103012 #1 썩으로 썩으로 안뒤어,

103012 @ 물 적진 덴 험니까 물을,

103012 #1 적저마씨.

103012 @ 물 적진 덴 험니까?

103012 #1 예예 적저,

103012 @ 물 적저그네,

103012 #1 예예,

103012 @ 간 물곡,

103012 #1 예예 경 어느 정도 헤나민 그 돌 토고리도 고망을 딸좌, 게 고망 처음
에 헛 떡에는 고망을 막앗당, 네중엔 그걸 다 써나민 영 딱시 그걸 빼버려, 고무
그걸로 물 나오게 흘러나오게시리, 사름 흘뎀 그걸 막아그네 또 이젠 씻그곡,

103012 @ 예, 거문 연즈뎀 경 흐곡 집에 오라그네

103012 #1 또 이제 집이 왕 또 이젠 마당에 멩석에 몰려야뒤어 또 그걸,

103012 @ 예 멩석에 꺾려그네,

103012 #1 몰랴,

103012 @ 그 다음 멧돌에 골아야 되큰게,

103012 #1 집이 왕 이제는 멧돌에,

103012 @ 멧돌이엔 험니까 방에엔 험니까?

103012 #1 여기에서는 ㄹ레엔 험주 ㄹ레,

103012 @ 연자메엔험니까?

103012 #1 ㄹ레 ㄹ레,

103012 @ 예 ㄹ레예.

103012 #1 ㄹ레에 골아그네 이젠 저 두 게로 썩게 집주. 그테로 허는 건 통보리엔 허고 두 게로 썩게는 건 이제 저 그 건 무신 거엔 까끈보리엔 험주마씨 그걸, 게서 이제 그 그걸 이젠 밥을 흐면 이 통보리 보단 ㄹ레에 골은 보리가 밤이 빨라. 이제 빨리 익어그네 경 험,

103012 @ 응,

103012 #1 꼭 골아야 웹주마씨 ㄹ는 사람들이 많이 잇엇수다. 통보리로 먹는젠 허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마씨 지금 이제.

103013 @ 보리쌀로는 대부분 밥 행 뭐 어떻 험니까? 보리쌀로는 저기 뭘 험니까? 밥 행 먹는거 허고,

103013 #1 아, 보리쌀로 행으네 보통 장 웬장이 없는 사람은 웬장도 헤 먹어 또 밀 밀쌀로도 저 웬장 헤 먹꼬,

103013 @ 예,

103013 #1 밀 웬장도 맛 잇고 보리 웬장도 맛 잇입니다게,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미처 일을 못 허난 붓찰보리, 보리 ㄹ레 골지도 아년 보리로 웬장을 담안 우리 먹어나서, 원첿 그게 영양가가 잇는 거주게. 따 좗 보면,

103013 @ 아,

103013 #1 웨냐흐면 보리엔 겹질이 그 게 영양가가 잇거든 실지 지금 따 좗 보면예,

103013 @ 예 눈 눈 눈을 얘기허는 것과?

103013 #1 예 눈이 잇으니,

103013 @ 그걸 보참, 보참보리,

103013 #1 예예,

103013 @ 보참보리.

103013 #1 보참보리, 저 ㄹ레 돌ㄹ레 안 곤 보리는,

103013 @ 돌 ㄹ레 안 곤,

103013 #1 뭇방에나 돌ㄹ레나 안 곤 보리,

103013 @ 예 보참보리예, 경 헤그네예.

103013 #1 그 런 보리로, 우리 어머니 춤 웬장을 담아그네 우릴 췌 낫수다게

103013 @ 예, 거문 그걸로 이제 옛기름도 만들거 아닛과? 그거 저기예.

103013 #1 모르쿠다.

103013 @ 미숫가루 만들엉 먹어나지,
103013 #1 미숫가루는 만들주 미숫가루 겐디 미숫가루도 줌 험다고 가난헌 집인
숫가루를 안 행 먹었다고,
103013 @ 예.
103013 #1 예 부짓칩이나 미숫가루 헤 먹어그네 또 미숫가루 선물도 이제 줌 갖
다주곡 미숫가루 헤그네.
103013 @ 미숫가루엔 안 허고 게역이엔 허지예?
103013 #1 게역이엔 게역 미숫가루엔 안허고 미숫가루은 으근레에서 듣는 말이고,
게역헤엔 이제 저 게역흐는디도 부짓칩이 싸름덜만 게역허주 가난헌디 사름은 이
쌀이 험허게 들어간다고, 이제.
103014 @ 예. 그 보리껍데기흐고 보리짚허고예.
103014 #1 예,
103014 @ 보리에 헤난 까끄레기 잇지예?
103014 #1 예,
103014 @ 그 건 또 어떻 험니까?
103014 #1 아 그 건 늘어 놓는 거라 딱로, 늘어 낫당 이젠 방 아궁이 굴묵 굴묵
방 아궁일 떼는 거라 걸로,
103014 @ 그 까끄레기,
103014 #1 거 흐곡 저 소 길르는 사름은, 그 소똥흐곡 섞어그네 게민 어떻 방이
똥는지이방도 똥고 그 보릿까락 그 꺼꺼 까락이로만은 방이 경 똥질 아녀,
103014 @ 아, 소똥허고,
103014 #1 소똥 석끈것광이, 경 헤도 소 없는 사름은 머,
103014 @ 보릿짚은 테우는거 허고예,
103014 #1 보릿짚은 집이서 아궁이 떼야 흐는거. 걸로 밥 헤 먹는거라.
103014 @ 밥 헤 먹는 거고예, 똥감허고,
103014 #1 으,
103014 @ 보리겨는? 껍질 뱃겨난 거는?,
103014 #1 게메 그 껍질은,
103014 @ 그거 허고?
103014 #1 이젠 그거 이제 보릿까레기흐고,
103014 @ 예 까레기흐고.
103014 #1 그저 마치 서꺼지게 도망 이제 불리면은 도망 가거든 것도,
103014 @ 예예.
103014 #1 그 보리 똥도 마치 도망가고 그거는 이제는 곡식이 없는 거거든 게문
그걸 늘어놨다가 이젠 저 굴묵 아궁이,
103014 @ 굴묵예.
103014 #1 이 이 겨울에 아궁이 떼기 시작험주마씨 이제.

103015 @ 보리농사에 저기 가장 생각나는 거는예 어떻 거 잇잇쿠과? 한번 경험 했던 거 보리농사에 대해서, 삼촌이 경험 했던 거. 어릴 적에 그 듬북 해난거가 제일 생각날 쿠과 어떤?

103015 #1 듬북도 이제 어릴 땐에는 저 생각이 나주만은 듬북도 이제 나도 청년 시절에는 이제 그 난 맛이 우린 전혀 없었주마씨게, 맛이 엇어부난에 심지어는 저 이 거 우리 일갓 사름이주만은 그 즐나시 듬북 즐나시 말허지 았읍디가, 즐나시 듬북,

103015 @ 예예 즐나시,

103015 #1 그 큰 긴 췌로,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흐민 그걸로 이제,

103015 @ 예예.

103015 #1 물속에서 이렇게 흐면 그 듬북이 배어지는 거라 게민 듬북이 떠 게민 뒤에 화물선이 잇어 화물선이 걸 저 배에 실러다간 곳디 와기네 그걸 푸면, 걸 지게로 다 지어그네, 곳데 다 널지, 널영 몰령 이 그거를 다 분배를 흐는거라 이제. 분배 헤그네 분배 받아다그네 이젠 자기 만씩 다 들어 노는거라 그렇게 이제 그런 듬북도 흐고, 또 이젠 바람에, 바람에 또 이제 바람맛이 되는 헤안 곳에는 브름에 올르는 수도 잇주. 겨울에는 이쪽으로 북서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많이 올르고 여름에는 또 이쪽으로 이제 동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올르고,

103015 @ 응,

103015 #1 심지어는 또 올라그네 듬북이 엇이민 고지기라고, 또 즘수들이 물속에 가그네 일부러 케어, 케어그네 홍약 망아리에 담아왕 집이 와그네 기냥 곳디 퍼그네 그걸 킬류왕 놀엇다그네 또,

103015 @ 보리 갈 보리 농사에 대해서는 거문 듬북이 제일 생각 나긴 남구나예. 그걸해야,

103015 #1 예 듬북이 없으면 보릴 못 갈아먹어, 저 밥은 주카 몰라, 사람이 곳 들어가면 밥은 먹으라흐카 몰라 듬북은 가져가렌 말 안헤여,

103015 @ 아,

103015 #1 그렇게 귀하게 듬북은 생각흐거라. 겨고 옛날도 이제 우리 소시ㄴ똥때 들어보면 저 월정 김녕ㄴ똥디 사는 사름들은 시집간 사름은, 날 아침이 가그네 바닷게에 가그네 듬북 흐 바구리 아이 헤오민 시집을 못 살앗텐 우리 그런 말도 여기서 듣고 헤낫수다게.

103015 @ 예 맞수다예.

103015 #1 듬북이 그렇게 귀헷던거라 지금,

103015 @ 저 비료 대신에예 거름 대신에.

103015 #1 그런디 육십 년데부터는 요소비료가 나오기 시작헤 가니까 이제는, 그런 듬북이 없어도 것만 뿌리면 그데로 밧디 그데로 그저 씨만 뿌려그네 비료만 뿌리면 보리를 잘 헤 먹엇거든, 그래서 옛날엔 저 수산 고잡 사름덜, 여기 보리 비레

와나서 그 때 옛날에 그 들판 나오기 이전에는 육십 년째까지는 이제 거기는 단지
뚝걸름으로만 보리 갈아 먹었거든 보리가 얼마 안돼어 쟈디 보리가 나옴직 시작허
니까 거기는 이제 비료로 보리 갈기시작하니까 오십 섬씩 삼스십 섬씩 헤 먹었다고
허거든 거긴,

103015 @ 응,

103015 #1 또 토지가 널른 디고 허니까.

103015 @ 예 토지가 널르니까.

103015 #1 게 그 후로는 여기 보리빌레 안왔어. 하이고 여기 보리 빌레 오면 보
리빌레 왓수텐 허면은 오지 말렌 허는 사름도 잇곡, 또 오면은 비는 체허민 으만인
주어그네 으 거 비영 갑서, 갑서 행,

103015 @ 갑서 행예,

103015 #1 집이도 오고, 그렇게 깐지 헤낫어 저 수산 고잡 싸름덜은 경 허다가
이젠 육십 년데 이후에는 비료 나오기 시작하난 보리 잘 돼지 또 이제는 감굴 제배
허기 시작허기까 이제는 그디가 부자 아넛과? 이제는 여기보다. 감굴 나오기 시작
허니까.

조농사

103016 @ 삼춘예, 조농사를 허젠 허민 이것도 마찬가지로우다 보리 현거 처럼예,

105015 #1 예 보리도,

105015 @ 조농사를 허젠 허민 준비를 해야허는데 몇 가지 정도 준비는,

103016 #1 첫체는 조농사 조는 보리 보리 갈아난 그리에예 이제는 비료를 안허
여 비료도 엇일 때난 들판 아무것도 안허여,

103016 @ 예.

103016 #1 첫 체는 밧을 갈아놔야돼,

103016 @ 예.

103016 #1 보릿그리를,

103016 @ 예.

103017 #1 갈아그네 보릿그를 썩커놔야 허 이 십일 동안 좀 썩을 동안 이십 일
동안 썩으면 이제는 때가 돼면 밧을 가는거라 갈아그네 이젠,

103017 @ 응,

103017 #1 어느 정도 허 일차론 편편 흘 정도론 이제 글라 놔 밧로 경 줍씨 빼
영,

105017 @ 응,

103020#1 그 때 부떠는 이젠 사름들 소는 제테로 뽕으곡 또 소나 물이 잇는 사
름은 소나 말로 뽕고,

103020 @ 뽕곡예.

103020 #1 뽕곡, 그렇게 해서 조깅든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돼어 땅속에

다 물어지어그네,
103020 @ 예.
103020 #1 이렇게 해서 이제,
103020 @ 예 이렇게 허는 거고예,
103021 #1 그렇게 났아난 후에 혼 열흘만 돼어 가면은 조가 나서 이제 혼 두 일 세 일이 돼어가기 시작 하는거라.
103021 #1 그 때는 이제 초 불 검질 메어가기 시작 하는거라. 그 때는 이제 초 불 검질 메어가서 이제 두 불 세 불 검질 메어가서 혼 스십 일 걸려,
103021 @ 예,
103021 #1 그 때 돼어가민 이젠 혼 오십 일 돼어가민 막 망일이 네리기 시작해 여.
103021 @ 예.
103021 #1 마지막 이파리 잎새기가 네리곡, 이 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여가주.
103021 @ 삼춘, 조밭에 거름은,
103021 #1 겐디 그 때는 그러다가 이 동풍이 불면 이쪽으론 조를 못 헤 먹어서, 이쪽으로는 이제 동풍 바람에 지금 며 헤 부니까 겐디 으쪽으로는 잘 돼서 우리 서 광리나 바르지 않거 때문에 바람 으지가 돼서 바람 으지가 돼서,
103021 @ 바람 으지가 돼서예.
103021 #1 개선지 그대신 보리가 잘 돼나서 읍고 땅이 좋고 읍고 이렇게 헛는데, 여기에 천구백 스십팔 년도 썸부터 오십팔 년까지 오 년동안 흉년 들어났수다게. 고구마도 잘 안들고 그 때는 또 조도 잘 안돼고, 으 이렇게 혼 오 년동안 흉년 들 연 엄청난 고생을 여기 해수다.
103021 @ 으.
103021 #1 저 조농사도 잘 안돼닛가양 조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해안가에 툇 툇 이엔 혼거 비여다가 비여다가 이제 좁쌀에 섞어서, 이제 먹기 시작해수다. 게 그것 도 나는양 커서 헤시민 즐건디 끝나기 시작 헐 때부터 비여다 먹어부니까 모지라갓 꼬 그렇게 헛고 여름 때는 딱시 보리가 안 돼영 부족하니까 프레엔 혼 거 있어, 프 레엔 혼 거 여기에 없으니까 저 큰섬에 강 배 풍선 잇는 사름은 풍선 타갓고 저 하 도 그 게오리개엔 혼디 가그네 저 프레를 해단에 밥을 보리쌀 서꺼그네 먹어난 적 이 잇수다지금 여기,
103021 @ 예.
103021 @ 조밭에 거름은 없덴 허고예. 보릿그르에 허난까예.
103021 #1 예,
103021 @ 보리끄르엔 헛니까 보리 뒤엔 헛니까.
103021 #1 아, 보리끄리에 이제 조는 같고,
103021 @ 보릿그르,
103021 #1 조크리에 또 보리는 같고.

103021 @ 예 조크르에.

103018 @ 조는 조 가는 거는 아까 저기 동짓달 그믐쯤에 저기 조가는 거는예,
103018 #1 조 가는 거?

103018 @ 예.

103018 #1 아니게,
103018 @ 아, 보리 다음에 허니까는 칠 월예,
103018 #1 보리 가는 거는 시 월 저 조가는 건 칠월 칠 일 양녀 저 유 월절에주 유 월절,
103018 @ 음,
103018 #1 소서,
103018 @ 예.
103018 #1 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같고 또 이제 보리는 입동,
103018 @ 응,
103018 #1 입동이면 동지가 겨울이 되는거.
103018 @ 예 동지.
103018 #1 아닛과.
103018 @ 예.
103018 #1 그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같곡,
103019 @ 좁씨 뿌리는 것도 어떻 험니까?
103019 #1 게 좁씨 뿌리는 것도 기술적이라 그거 포 많이 가는 딴 많이 가지 말 고 골고루 가게시리 게서 혼 번 이렇게 혼 줌 잡으면, 스무 번까지 이렇게 하는 사 름 있어 스무 번까지 그 게 기술이라 그게.
103019 @ 아,
103019 #1 게민 골고루 가거든마씨 혼 뺨에 폭 머혜불면 아무리 머해도 혼 더레 모여질 건디 영 하게 뿌리면은 골고루 가거든마씨.[제보자 휴대폰소리 울림.]
103020 @ 좁씨는 경하고 조밭 검질 매는 거는 저기 아 조 밭디 헐 때는 조를 밟 을 때예, 조를 밟을 때예,
103020 #1 예.
103020 @ 밭로만 밟는 건지?
103020 #1 밭로만 밟고, 또 소가 없는 사름은 저 소로도 밟는 사름도 있어낫수 다. 소나 말로도 밟곡.
103020 @ 소나 말로예?
103020 #1 예.
103020 @ 남테나?
103020 #1 남테 잇는 사름은 남테로 헛는데 남테가 우도에는 몇근데 없었어요.
103020 @ 아,
103020 #1 혼 두 근덴가 세 근테벳긴 엇엇고, 남테도 밟음은 밟아도 헛는데,

103020 @ 끄게엔 헛 것도 잇수과? 돌테 끄게?

103020 #1 끄게는 엇고, 저 끄게는 머냐면 그 밧을 갈아놓으면 저 밧로 ㄱ르는데 거보다 씨 뿌리젠헛면 어느 정도 골라야 돼거든, 그 이렇게 투블투블헛니까, 게민 그것이 이제 나뭇데기로 거기 돌을 놔 갖고 게서 그걸 눌러지게해서 이제 거 땅을 골르는 거라. 골라서 이제 그레 씨를 뿌리는 거라. 왜냐하면 이렇게 울통불통헛면, 씨를 뿌려볼면은 어떤 데는 깊으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야트게 들어가거든마씨. 거 고르지 못 허는 거라.

103020 @ 씨 뿌리기 전에예.

103020 #1 예, 밧을 갈면 이렇게 깊은 다가 잇거든 이런 차이가 나서. 게민 너무 깊어볼면 안 나오기도 허지 어느 정도 짝꿍 수평이 ㄱ타야,

103020 @ 그거는 무시거엔 허는 골르는 이름은 엇인가마씨?

103020 #1 그 게, 그거에 골으민 그거에 남테엔도 허곡, 딱시 이제 그 건 잘 몰라. 게난 그 건 그렇게 헛는 사름도 잇고, 또 그런 걸 아니 헤그네 밧로만 이제 밧로 행 툃툃 차면서 이제 골르는 사름도 잇곡 이제.

103021 @ 조밭 검질은 세 번 맨덴 헛지예?

103021 #1 예 세 세 번.

103021 @ 세 번예.

103021 #1 예.

103022 @ 저기 조밭에 검질은 어떤 것들이 남신고예? 검질.

103022 #1 게메 게난 보통으로 나가 헤바라기 췌비름이 보통 많이나 제완지.

103022 @ 제완지.

103022 #1 제완지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와 제완지,

103022 @ 제완지 허고예 헤바라기헛고예,

103022 #1 췌비름,

103022 @ 예.

103022 #1 췌비름은 또 ㄱ물아 갈 때 이추룩 벳나 ㄱ물아 갈 뻑에 잘 나그네,

103023 @ 조 수확은? 고구리 꺾어그네 묶어그네, 수확허는 거, 조를 수확허는 거.

103023 #1 무끄질 안 허여 조는,

103023 @ 묶으진 안허여?

103023 #1 비여낭 그테로 넣어 낱.

103023 @ 예.

103023 #1 그테로 고구릴 툃는거라.

103023 @ 아,

103023 #1 고구리만 툃아뿔 조짚을,

103023 @ 예.

103023 #1 뻐감 헛라고 또 조짚만 별도로 묶영 경 집이 지어당 넣어 놓는거라

또.

103023 @ 아,

103023 #1 늘어 놓았당 빠가멍 이제 아궁이 때 돼민 저 불을 때면서 밥을 헤떡어서. 조칩은 쉼도 멕이곡 어떤 집이는 쉼 길르는 집이는 쉼도 멕이는 멕어나십쥬. 고구맛 줄도 멕이곡 것도 멕이곡 출 대신.

103024 @ 타작은 조는 타작은 어떻 허코예?

103024 #1 조도 도리께로 네낭 것도.

103024 @ 도리께로예.

103024 #1 예. 툃아다그네,

103024 @ 도리께엔 험니까. 뤼엔 험니까?

103024 #1 도께엔 도께.

103024 @ 도께예.

103024 #1 예. 도리 릿제는 안 부짱 도께엔헤여 도께.

103024 @ 예, 도께엔 허고 나중엔 이 허는 거는 므수는 거는 덩드렁마께예?

103024 #1 예 스스이 그자 쩍금씩 허당 남은건 그자 저 덩드렁마께 저 허는 사름도 잇고.

103024 @ 덩드렁마께 허는거예.

103024 #1 나중에 마지막 그자 쩍끔 남은 건 도리께질 허질 못힐 정돈된 건. 많은 건 도리께질 허고.

103025 @ 쯍쌀 마지막 밥 헝 먹젠 허민예 마지막에 장만은 어떻 허코예?

103025 #1 쯍쌀?

103025 @ 예, 밥 헝 먹을 정도로,

103025 #1 네네 그 강 저 조 곶아오면, 곶아오면 초불에 저거 그 때 담번에 저 곶질 안헤실거라.

103025 @ 예.

103025 #1 초불 두 불 곶아나실거라. 곶아그네 이젠 어느 정도 영 보아그네 다 곶아저시면 갖영 오는거라.

103025 @ 으,

103025 #1 갖정 낫다그네 곶로 이젠 밥을 헝 먹기 시작험쥬.

103025 @ 응,

103025 #1 겐 처음에는,

103025 @ 예, 연자메 가그네예.

103025 #1 밥 헝 떡에는 밥 헝 떡에는 물만 놔 어느 정도 물이 막 끓여지민,

103025 @ 예.

103025 #1 이젠 쯍쌀을 놓는거라.

103025 @ 예-.

103025 #1 녁 핫쌀 쯍만 잇이민 밥이 돼부는 돼는거라.

103025 @ 예.

103026 @ 좁쌀로는 대부분 대충 무신 거 헤신고예?

103026 #1 좁쌀로?

103026 @ 예.

103026 #1 밥 행 먹꼬,

103026 @ 조팝 허고,

103026 #1 또 히린 좁쌀은,

103026 #4 차차 차 끓여오쿠다게.

103026 #1 으, 강 헤여와.

103026 #1 예예.

103026 #1 히린 좁쌀은 또 이제 오메기떡,

103026 @ 오메기떡.

103026 #1 부젓칩들 허는 거 부젓칩덜 저기,

103026 @ 예, 떡예.

103026 #1 저 무신 잔 무신 제삿 떼나 허고,

103026 @ 예예.

103026 #1 히린 좁쌀을 잘 안 갈았어.

103026 @ 아, 흐린조 안 갈안예.

103026 #1 부젓칩이만 부젓칩 사람덜만 갈앙.

103026 @ 아,

103026 #1 경 행 그자 저 제삿 떼만 헤 먹쟁 갈곡,

103026 @ 예.

103026 #1 또 좁쌀에 보릿쌀에 서꺼그네 또 먹쟁,

103026 @ 예.

103026 #1 옛날 부젓칩덜은, 저 좁쌀 보릿쌀을 일 년 네냥 섞엉 먹엇거든, 게 가난헌 집이 사람덜은 조 떼는 조만 먹곡, 보릿 떼는 보리만 먹엇거든게 가난헌 사람 들은,

103026 @ 아, 감주나 술 허고,

103026 #1 감주ㄴ쁜 거는,

103026 @ 저 식께 허젠 허민,

103026 #1 예.

103026 @ 해야 될거 아넛과.

103026 #1 오메기떡 만들앙.

103026 @ 예.

103026 #1 오메기떡 만들앙 이제 그저 탁주 탁주 청주. 것도 부젓칩이 아니민 가난헌 집인 우리집더렌 원 그런 건 원 우리 어머니는 그거 원 냄세도 못 말쳤어. 가난 헤부난.

103026 @ 예 맞수다.

103027 @ 그 조짚은 또 아까 허는거, 불 태우는거예.

103027 #1 게메, 불 태워그네 허고 여유가 잇는 디는 좀 여유가 잇는 디는 또 소
가 잇는 디는,

103027 @ 예.

103027 #1 소떡일거 없으면 걸로, 먹이긴 헛는디 얼마 못 헤여,

103027 @ 예.

103027 #1 걸 곳곳이 걸 고구마줄기만이 많이 안 먹어.

103027 @ 아,

103027 #1 그냥 잎사귀만 잎사귀만 뜯어 먹이면 말지.

103027 @ 아,

103027 #1 이 데는 잘 아니 먹영 네 버려. 경 해도 거 걸름도 흥곡,

103027 @ 걸름도예.

103027 #1 거기 네북도 흥고 먹단 건,

103027 @ 예. 조농사에 대해서예 특별나게 생각허는 건

103027 #1 소 걸름도 저 소 걸음도 이제 저 보리밭디 농사를 헛주게.

103027 @ 아, 조 조.

103027 #1 응,

103027 @ 조 조.

103027 #1 조 어땡.

103027 @ 예 조칩으로,

103027 #1 게메 조짜에 조짚으로는 조짚으로는 아까 저 화목도 허곡,

103027 @ 불 때는 거예.

103027 #1 예예. 옛날에 췌도 맥이고 경,

103027 @ 예게, 췌도 먹이고예.

103028 @ 조농사에 대한 생각나는 거.

103028 #1 생각나는 거 머, 게메 게난 우리는 춤 조를 많이 가난 흥 집이난 밧이
엇언 조를 못 갈아낫봐수다. 보리나 쩌금 듬북헨 어머니나 듬북 쩌끔 헤여오면 두
말지기 서 말지기 그 정도 보리벧기 못 갈아 것도 초시기에 이제 옛날은 예 호미
받은 아, 칼 받은 삼월 호미 받은 스 월이엔 헛다고, 웨냐 으, 흥흥년 이기 때문에,
스월 들 나면은 보리 익기 전에 호미로 다 비어당 먹어불면은,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엇다고,

103028 @ 칼 맞은 사월예.

103028 #1 우리 우리집더렌 그렇게 헤서.

103028 @ 예예, 그 말 들엇수다 우리도예.

103028 #1 우리 어머니가 워낙 가난 헤부니까 춤 보리 잘 나민 흥 말 아이민 두
말 아이민 서 말 갈아그네 두 석 섬 흥면은 흥 사름이 보통 보리 흥 사름아피 보리

두 섬은 갖어야 돼여.

103028 @ 예.

103028 #1 두 섬은,

103028 @ 양석 허젠 허면,

103028 #1 예, 조농사까지 먹젠 허면 지금, 경 흐는데 흐 사름흐 흐 섬 뭍이도 못헤여 경 헤그네 겨우 조농사 보듯그 텡이꼭또 조농사 낫나면은 다음 보리 때 낫지는 그 때 기간이 좀 오래지 조 낫을 때보다.

103028 @ 예.

103028 #1 한 칠 게월 팔 게월 텡지 원추, 팔 게월 동안 살 젠 허면은 어려왓지.

103028 @ 맞수다.

콩 농사

103029 @ 삼춘 콩도 있어야 될거 아니웃과예. 콩 농사

103029 #1 콩?

103029 @ 예.

103029 #1 콩 얼마, 콩 여기 얼마 안 갈아서.

103029 @ 삼춘도 콩 안 갈아나숫과?

103029 #1 부жат칩이나 갈앗주. 우린 어머니 콩 안 못 갈아봐서.

103029 @ 거문 된장허젠 허면은?

103029 #1 게메 부жат칩이 싸름덜은 콩을 갈아,

103029 @ 아-.

103029 #1 게난 어머니는 콩을 콩이 엇언 우리안티 보리장이나 만들어 주곡, 콩이 보리가 엇언 갖고,

103029 @ 아,

103029 #1 또 어디 강 겨우 얻어단 그자 콩장 좀 만들양 부족허면 보리장 만들야그네 또 보리장을 못 만들민은 껍질차 껍질차 만들양,

103029 @ 아,

103029 #1 우리 주민 우린 것도 맛있게 우린 입메가 좋양 맛있게 먹어낫수다.

103029 @ 예-. 삼춘, 콩은 저기 농사 안 지어봄디과? 젊은 때.

103029 #1 젊은 때?

103029 @ 예.

103029 #1 나 젊은 때는 이 우리 시대에는, 나 저 이 사람허고 결혼 현 후에는 벨다르게 저 콩을 헤도 콩 사다그네, 사다그네 이제 흐 번이나 헤 먹당 이젠 웡장 다 농협에당 사당 먹어,

103029 @ 음,

103029 #1 웡장 안 담야 이 사름 웡장 담으렌 헤민 간세헤그네 웡장 안 담양,

103029 @ 아, 콩 사다그네예.

103029 #1 예. 그 전인 콩 사당 장 담아나서 옛날에 말이있어 여자는 장담아야
일 년 저 집인 일 다 허고 남자는 세, 세 해당 집 일어야,

103029 @ 예.

103029 #1 집 일어야 뒤야 남저 혈 일 다 헛젠 그런 속담이 있어났주게 옛날에.

103029 @ 거문 여기 저기 소섬 우도에는, 콩 농사 지어난 사람이 배랑 엿이키여
예.

103029 #1 아, 여간 부젓칩이 사람덜은 짝금씩 지어나서 짝끔씩.

103029 @ 짝끔씩예.

103029 #1 전문적으로 많이 짓지는 아녀고 콩 잘 튀지도 아녀 여긴 바람 불영
계근에.

103029 @ 거문 콩 종류도 배랑 엿이쿠다예? 밥에 콩을 낱 먹어 보지도 못해서키
여예,

103029 #1 그저 어떤 사름덜은 조 조팠디,

103029 @ 예.

103029 #1 콩 콩을 드멍드멍 심엇당,

103029 #4 차 끓이는 솜씨가 엿숫다게.

103029 @ 아이고 솜씨가 예 어젯게 맛있게 먹엇수다예. 저기 배예,

103029 #1 배 까짱으네 갖다놔 이레,

103029 @ 예, 우리 반 받아 와수다 삼춘.

103029 #1 이 분네 어디 간 오늘 저 하우목동 당긱허는디,

103029 @ 으, 예-.

103029 #1 경 험 이 우도 헤난 콩으로 저 웬장은 안 담아 먹어나수다.

103029 @ 된장도 안 허고 밥에 낱 먹는 것도,

103029 #1 밥에 낱 먹지도 앓고.

103029 @ 예, 콩은예.

103029 #1 콩밥은 여기서 헤먹어 본격도 앓고,

밭벼 농사

103039 @ 삼춘 산디는 갈아 납디가? 산디,

103039 #1 우리도 가난 헤부난 산디는 못 갈아봐서,

103039 @ 아,

103039 #1 부젓칩이는 허고,

103039 @ 산디는 어느 저,

103039 #1 오십, 오십,

103039 @ 난전에,

103039 #1 예 난전에 난전 밧디가 잘 튀어,

103039 @ 난전 밭디에예.

103039 #1 이 사름 이 사름 저 제주시에 가기 전에는 이 사름네 집인 쪽꿈 부젯
칩이난 산디 같아나 실거라 이 사람 어릴 떼.

103039 @ 아, 삼춘은 저기 산디 같아낫솨과?

103039 #4 산디마씨?

103039 @ 산디 산디.

103039 #4 예 산디 같아 난 아니 씨가에 와는 안 같고, 우리 친정에는,

103039 @ 예, 친정에서,

103039 #1 우리 친정에서,

103039 @ 헐 떼 한 번 곱아줍서.

103039 #4 예.

103039 @ 삼춘 흐끔,

103039 #4 것이 어릴 떼 우다마는,

103039 @ 예.

103039 #4 산딜 같면,

103039 @ 예, 아 삼춘 저기에. 삼춘 저가 질문 허면예 그거에 맞게 곱아줍서예.
저기에 산디 농사 농스 허젠 허민예

103039 #4 예.

103039 @ 어떤 준비를 어떻 해야 될건고예.

103039 #4 그,

103039 @ 밭을 먼저 갈아야 될 건가마씨?

103039 #4 산디를 갈라면,

103039 #1 처음에는,

103039 #4 이 산디라는 거는 마 물론 밭딘 안뵤고, 밭이 질어가지고,

103039 #1 습기가 잇는 밭

103039 #4 물기가 많이 잇는디 가는디, 우리 친정에는 물기가 많이 잇이문예 산
디를 헤 오면예 예 두 섬도 허곡, 또 스무 말도 안 뵤 떼는 스무 말도 허면은 그
뵤 기계가 없을 떼니까,

103039 @ 예.

103039 #1 뵤ㄴ레로 해야뵤.

103039 #1 그 뵤ㄴ레라는 것이 잇어수다 밭을예,

103039 @ 예예.

103039 #4 우리 사는 밭을예,

103039 @ 예.

103039 #4 게민 그 뵤ㄴ레에 강 곱민 쓸이 혼 스무 말씩 헤기네 우리 어머니네
이웃집이도 혼 사밭씩 주고 우리도 먹어낫는디,

103039 @ 응,

103039 #1 씨가엔 오난에 그 산디를 갈지 안헙디다게.

103040 @ 계난 산디는 언제 갈 어떻게 갈 건고예? 시기가.

103040 #1 옛날엔 뼈꾸기 울민 뼈꾸기 울면은 세 산디 간텐 헤난는데.

103040 @ 응,

103040 #1 이른 봄에 갈아 일른 봄에,

103040 @ 이른 봄에예.

103040 #1 응 웨냐하면 그 건 이제 보릿그르엔 좀 늦어, 보릿그르엔 늦고,

103040 @ 보릿그르엔 늦고,

103040 #1 봄 달화난디 봄에 농사 안 헤어난 밧디.

103040 @ 아,

103040 #1 여름 겨울에 놀러난 밧디.

103040 @ 아 예-.

103040 #1 경 허면 한 사 월 달, 어 오 월 들쭈메 사 월 네지 사 월에 갈아야
돼. 좀 일찍 늦인 봄에 갈아야돼.

103040 @ 응,

103041 @ 산디밧디 거름은 어떤,

103040 #4 거름은 안 헙니께.

103040 #1 아 안헙니다.

103041 @ 아, 안헙니까.

103041 #4 비료도 아무것도 안 허고.

103041 @ 아, 비료도 안 허고예.

103041 #1 그 떼 비료도 안 나올 떼고 그 떼 산디 갈 떼.

103042 @ 산디는 뿌리는 거는 산디도 씨는 뿌려야 될거 아니웃과예.

103042 #1 예.

103042 #4 씨는 뿌립니다.

103042 @ 보리씨 ㄹ치룩 뿌리는가마씨?

103042 #1 보리씨 뿌리듯이,

103042 #4 예, 보리씨 ㄹ치룩 뿌립니다.

103042 @ 보리씨 ㄹ치룩예.

103042 #1 계도네 조컴질 매듯이,

103042 #4 나 어릴 때라부난 자세헌 모르쿠다마는,

103042 @ 예예.

103042 #4 우리 어머니는,

103043 @ 검질은 조컴질 매듯이 혼 세 번예.

103043 #1 예.

103043 @ 예,

103043 @ 경 헝고 김매기는? 검질매기,

103043 #1 두 번,
 103043 @ 으,
 103043 #1 두 번째지 세 번은,
 103043 @ 예 두 번 네지 세 번에.
 103044 @ 이 저기 산디에 검질은 어떤 것들이,
 103044 #4 거검질마씨?
 103044 @ 예 산디밭디 검질은,
 103044 #4 아 검질은 원 아명토 안헌디.
 103044 #1 제완지 해바라기,
 103044 #4 해바라기.
 103044 #1 물풀 이런 거.
 103044 #4 예, 그런 거 납니다마는,
 103044 #1 췌비름 췌비름,
 103044 #4 나 어린 때라서,
 103044 #1 네나 조밭디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44 @ 아, 예예.
 103044 #1 여름에 나는 검질이 잇고 겨울에 나는 검질이 잇주게.
 103044 @ 맞수다예 계절 별예.
 103044 #1 온도에 따라 딱 ㄱ트질 아녀주게.
 103045 @ 산디도 수확 할 때는 그 어떻 험니까 베어다가 묶어다가,
 103045 #4 비어다가예, 그 때는 기계가 엷이니까.
 103045 #1 흘테 흘테로,
 103045 #4 도께로 뚜듬니께 도께라는 건 아주머니네 모릅니다게.
 103045 #1 그 때는 흘트지 아녀신가?
 103045 #4 흘 테에 흘트긴 흘트는디,
 103045 #1 흘트기도 해난 산디는,
 103045 #4 이렇게 흘타 놓코 저런 마당에 놔서 저,
 103045 #1 도께로 두드려.
 103045 #4 우리 어머니네 소리흐면서 예야홍아 예야홍아 허멍 그 우리 어머니네
 그 우리 어머니네 두드려난 기억이 납니다게.
 103045 @ 아, 거문 도,
 103045 #4 거 일을 버치문예 그 노래로 그 일을 이깁디다게.
 103045 #1 어 도리는게 네네네,
 103045 @ 예.
 103045 #1 거 즘수질 허멍 저 머 허듯이,
 103045 @ 예.
 103045 #1 네네 또 밧디 강 일 허멍도 검질 메멍도 또 검질 메는 소리가 잇거든.

103045 @ 예.
103045 #1 검질 메명도 이제 그 흥곡 또 이 마당질 흥면서도,
103045 @ 으,
103045 #1 이제 그 도깨질 흥명, 예야 흥아 예야 흥아 흥명,
103045 @ 예, 예야 흥아 이어도 흥아,
103045 #4 막 어린 때 우리 어머니네 노래를 해난,
103045 #1 박자에 맞추왕 그것 또 박자에 맞추민 돼주게,
103046 @ 그 산디로는 산디 짚은 귀허긴 해신기 이거는 어떤때 해 먹어신고예.
103046 #1 제삿삿때,
103046 @ 식께 때,
103046 #1 제사 때 해여먹고,
103046 @ 예 식께 때 허고,
103046 #1 보통 제사 때 해 먹고 해 먹엇주.
103046 @ 식께 때 저 메 쫄이나,
103046 #1 으으 메쫄로,
103046 @ 또 저기 흰떡 허젠 허민,
103046 #1 또 떡 허젠 허문 그 산디 글양에 허고,
103046 @ 산디 글양에 허고,
103047 @ 산디 짚은 또 어뎡 써신고예.
103047 #1 산디 짚은 옛날엔 신도 삼아나고이 신.
103047 @ 신허고예,
103047 #1 신, 명석도 짜나고 명석 걸로 이제,
103047 @ 음, 모자도 짜나신가마씨?
103047 #1 모자는 산디짚으로 안허고 보리짚으로, 보리짚으로 모자를 찿주.
103047 @ 보리짚으로마씨?
103047 #1 우리때 깰지만 허드라도 보리 짚으로 저 꾀타리 끈어그네,
103047 @ 응,
103047 #1 꾀타리 끈어그네 그거 해그네 짜그네, 경 해기네 그 걸로 으으렇게 으
너비로 짜그네 걸로 이제 바늘로 이제 망 만들아그네 저 만들아 나고,
103047 @ 아 모자는 경 흥곡예 모자 그 페랭이에,
103047 #1 페랭이 모자,
103047 @ 여름에 페랭이에,
103047 #1 예,
103047 @ 예.
103047 #1 나 그 그런 모자 지금 거 사 씨엄주마는 세 케나 잇는디 지금,
103047 @ 그 경 허면은 이제 비 올 때 우장은 만들아 나신가마씨?산디로,
103047 #4예, 아니 산디가 아니고 산에 강 세 비여당.

103047 #1 세세.
103047 @ 세예.
103047 #1 우장은 산에서 나는 세로,
103047 @ 세로예, 예, 거문 그 산디 짚으로는 무시 거 덕끄는 거 뭐 초석 같은
것 마당에 까는 것도 명석같은 것도 안헤신가마씨.
103047 #1 그 건예.
103047 #4 그 건예 우리 하르버지네 명석을 만들어 낫수다.
103047 #1 명석만 만들고,
103047 @ 산디로 명석 헤마씨?
103047 #1 예예 명석 명석을 짜.
103047 @ 산디 산디 짚으로예.
103047 #1 예 산디 짚으로 명석을 짜 딱시 이제 신도 삼꼬.
103047 @ 신 삼꼬예.
103047 #1 신 삼꼬,
103047 @ 산디 짚으로 신 삼은 거가 신이 좋은 종텐 헤실 건가마씨?
103047 #1 아니 아니 산딧짚 아니면은 신을 삼을 게 없주게 미엔 혼 거 잇수다
미,
105015 @ 미,
105015 #1 예 미엔 혼 거 저 어디 이 우도에는 엇고 저 어디 곳에서 들어왔어
|가,
105015 @ 예.
105015 #1 그 거 시 늘을 헤서 늘,
103047 @ 예.
103047 #1 세기를 꼬아 갖고 늘을 만들앗어, 산디 짚보단 그게 질기니까 지금 이
제,
103047 @ 예, 그거 허고예. 거문 저기 여자 삼춘은,
103047 #4 아니우다게 드십서게. 점심이영 사 잡습디가?
103047 @ 예예 우리 막 먹엇수다 이것도 먹어 봄서예. 삼춘네 걱정 안허게 시리.
103048 @ 거문 여자 삼춘은 산디 헤 나면은 어머니네 마당에서 이야 흥아,
103048 #4 예. 이야 흥아 어야 흥아.
103048 @ 어야 흥아 이어도 흥아.
103048 #4 그렇게 헤서 나 어릴 때 보면,
103048 @ 예.
103048 #4 어머니네가 경 헨 그 산디졸을 굴면, 들그레라고 험니다게 이제는 기
계가 잇이난 테작허지만은,
103048 #1 연자방아게 연자방아,
103048 #4 그 떼는 이만큼 흐니까.

103048 #1 물 ㄹ랑,
 103048 #4 둘레 돌을 만들어 가지고
 103048 @ 이 거 먹읍서 예.
 103048 #4 아이 그치록 해난거 나가 기억이 납니까.
 103048 @ 예. 그치록 해난거예.
 103048 #4 우리 어머니넌 못 살진 안햇수다게.
 103048 @ 예예.
 103048 #4 저 제산은 좋아낫수다게.
 103048 #1 빛이 혼 이 삼천 평은 잇어낫수다게 여기 사름덜.
 103048 #4 제산은 막 좋아 낫는다,
 103048 #1 막 존건 아니고 혼 이삼천 평잇어.
 103048 #4 우리 어머니네가 저,
 103048 #1 우리 장인 어른이,
 103048 #4 나 공부 안시켜부난 이제 막 후훤힙니까,
 103048 #1 ㄹ찌 안 살안, 육지 저 배타부니까,
 103048 @ 으,
 103048 #1 우리 장인어른 헝고 ㄹ찌 오래 살지 저 혼디 동거 생활을 안해부난
 농사를 많이 헝 수가 엇엇주 빛이 좀 잇어도.
 103048 @ 음,

고구마 농사

103049 @ 이제 고구마 농사 고구마예
 103049 #1 음,
 103049 #4 고구마는 많이 해낫수다. 고구마덜은.
 103049 #1 고구마는 육십 년데.
 103049 #4 고구마는 누나 엇이,
 103049 @ 음,
 103049 #1 육십오 년,
 103049 #4 이 우도 ㅁ을이 다 전체가 해낫수다게.
 103049 #1 육십오 년도부터 혼 팔십 년도 팔십오 년까지.
 103049 @ 고구마 농사 허젠 허민, 준비를 어떻 허코예? 고구마 저,
 103049 #1 고구마 씨를,
 103049 @ 씨가 예,
 103049 #1 이제 상자에, 상자에 방에 낫다가 방에, 낫다가 이제 에 봄 나면 입춘
 들면 저저, 이제 이 월 혼,
 103049 @ 유 월 유 월 전에.
 103049 #1 아, 이 월,

103049 @ 아, 이 월.

103049 #1 음력으로 이 월 보름경에,

103049 @ 예.

103049 #1 음력으로 이 월 보름경에 이제 모종을 놓니께.

103049 @ 예.

103049 #1 묘상을 만들앙,

103049 @ 예.

103049 #1 예, 거 옛날에는 으근래에 육십 년도 이후에는 비료 나옴시작 하니까
는 비니루 뒤엿주만은 그 전에는 비니루 안 뒤엿수다게.

103049 @ 예.

103050 #1 즈연적으로 나게끔 했는데, 옛날에는 즈연적으로 나게끔 이렇게 헛고
저 유 월 한 십 일부터 유 월 일이나 십 일부터, 유 월 일 일부터 밋디 가 심읍주
마씨.

103050 #4 수확 허는 거 말잇과?

103050 #1 아, 심는 거.

103050 #4 아, 고구마 심는 거.

103050 #1 저 경운기로나 소로나 같아그네,

103050 @ 응,

103050 #1 같아그네 이제 그 심는 거라마씨.

103050 @ 응,

103050 #1 이레 영 부찌 가면서 이제 그 이랑에.

103050 @ 이랑에 영,

103050 #1 예. 이랑에게,

103050 @ 거문 고구마 줄은 어느 정도씩 짧라그네.

103050 #1 삼십 센치가 좋읍니께.

103050 @ 아, 삼십 센치.

103050 #1 고구마가 삼십 센치 그 이상은 썩르면은 저 에 썩끔 수확이 떨어져
흔 오십 센치로 싱거버리면 이 양쪽으로 고구마가 드니까 양쪽으로 이제 고구마가
들리니까, 그 삼십 센치가 좋다힘디다 보통으로.

103050 @ 삼십 센치. 예에. 게 고구마 순 심을 떼는 손으로만 꺾 놀리면.

103050 #1 예.

103050 @ 아, 그렇게만.

103050 #1 이렇게 꺾 놀르민,

103050 @ 꺾 놀러그네.

103050 #1 그 가운데까지도 들어가.

103050 @ 예.

103050 #1 그 땅이 며 혈 떼는,

103050 @ 응,
103050 #1 들어 강 이젠 덮어그네,
103050 @ 응,
103050 #1 이렇게 해서 허보면 또 가을되면,
103050 @ 예.
103050 #1 그테로 해서 거머 그 전에는 고구마 그 검질도 메 주어.
103050 @ 검질은 저기.
103050 #1 고구마가 완전히 얼켜지기 이전에,
103050 @ 예, 고구마는 유 월에 유 월 초에 부터에 저 심는,
103050 #1 유 월 십 일까지라.
103050 @ 예, 유 월 십 일까지
103050 #1 유 월 혼 이 십일 까지도 심어.
103050 @ 예.
103050 #4 심 심으는 거 말잇과?
103050 @ 예 소나 그런 이랑을 만들어그네예.
103050 #1 예 이랑을 만들엉,
103050 #4 봄에 심을 겨우다게.
103051 @ 경 허곡 고구마 밭에 거름은 엇 거름은,
103051 #1 비료, 옛날에는 저 지금은 비료고,
103051 @ 예 옛날에,
103051 #1 옛날에는 듬복 갈아나니까.
103051 @ 아, 듬복,
103051 #1 비료가 웨어 잇는거라.
103051 @ 예.
103051 #1 옛날에는,
103051 @ 예, 듬복 해난,
103051 #1 비료가 엇일 펜,
103051 @ 고구마 심기전에 저기 농사 지어난 밭,
103051 #1 아, 계난 보리끄르에 가는 거라.
103051 @ 보리끄르에예. 보리끄르에,
103051 #1 보리끄르 아니면 밭이 엇으닛가.
103051 @ 예-, 불치는 저기 고구마 헐 떼 불치 썩니쓰지예?
103051 #1 불치 안 뿌려.
103051 @ 불치 안 뿌려마씨?
103051 #1 불치 안 뿌려.
103051 @ 으,
103051 #4 이젠 불치가 엇수다.

103051 #1 불치도 엇고,
 103051 @ 옛날에,
 103051 #1 아니,
 103051 @ 옛날에 불치도 고구마에는 안 해놔수과?
 103051 #1 안 해여 안 뿌려. 불치는,
 103051 @ 어,
 103051 #1 보통 보리 가는데 겐디 그게 보리 갈 때 불치를 많이 부렸다고 옛날
 엔,
 103051 @ 보리 보리,
 103051 #4 그걸 던져 불지 못 허니까,
 103051 #1 던져 불지 못 허영,
 103051 @ 아,
 103051 #4 거 불치를 처분을 못 허니까.
 103051 #1 불치를 네 불지 못 허니까.
 103051 #4 거 밧디를 저 이런 마당에,
 103051 #1 굴목에 잇는 불치,
 103051 #4 데밀 수가 엇으니까 밧디 간 뿌린 거지.
 103051 #1 어,
 103051 #4 걸름으로 뿌린 건 아니우다게.
 103051 @ 아,
 103051 #1 게메.
 103051 #4 네가 생각 헐 때는 걸름으로 뿌린게 아니고,
 103051 #1 저 어떤 사름덜은 걸름 웬다고도 헝고,
 103051 #4 처분을 못 허니까.
 103051 #1 어떤 사름은 안 웬다고도 헝고,
 103051 #4 밧디 간 뿌린 거라마씨.
 103051 @ 아, 불치가.
 103051 #1 예.
 103051 #4 예.
 103051 @ 그러면 감자도 안 심어놔수과?
 103051 #1 감자를 감자를 위해서 불치는 안 뿌려나서. 안 뿌려.
 103051 @ 예. 아까는 저기,
 103051 #4 보리 갈 때,
 103052 @ 예, 손으로 이 고구마는 이 손으로 똑꼭 눌러그네예.
 103052 #4 예.
 103052 @ 양쪽 끝으로예.
 103052 #4 예.

103052 @ 고구마 밭에도 김이 올라오잖아예. 그거는,
103052 #4 이 거 고구마 줄 아납니까?
103052 @ 예.
103052 #1 그러면은 이렇게 반이가 이렇게 올라가지면,
103052 @ 예 경 쪽쪽 늘렁예,
103052 #4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103052 #1 늘려,
103052 #4 끈끈 늘려서 예 그렇게 해수다게.
103052 @ 예,
103053 @ 고구마 밭디 김, 저 김질은?
103053 #1 맵니다게.
103053 @ 예, 김.
103053 #1 겐디 이제는 약 줘 불면,
103053 @ 어,
103053 #1 이제 제초제 해 불면 안 나는데,
103053 @ 지금 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103053 #1 어우러지기 전에,
103053 @ 예, 흠끔 나가민
103053 #1 싹이 나지 못허여 그 김질이 나지 못 허는데.
103053 @ 예.
103053 #1 옛날에는 그런 제초제 안 나올 뎜 고구마 김질은 메수다게.
103053 @ 김질예.
103053 #1 예.
103053 @ 영 앓아그네 영 영 특허게.
103053 #1 전부 고구나 낭거 다 뽑아 줘수다게.
103053 @ 으-,
103053 #1 전부 어우러 저불면 그늘 저불면 또 안 나는거라. 저어,
103053 @ 맞수다.
103053 #1 그늘저 불면 안 나거든게.
103053 @ 으,
103053 #1 그늘 안 질뎜 나고,
103053 @ 으, 맞수다.
103053 #1 햇빛 받으면 나곡 햇빛 안 받은 딴 못 나.
103054 @ 고구마 밭디 김질은 또 어떤 것들이 잇어신고예? 그 떼.
103054 #1 네네 것도 마찬가지로 췌비름,
103054 @ 췌비름,
103054 #1 제완지.

103054 @ 채완지이.

103054 #1 예.

103055 @ 어-, 고구마 고구마를 팔 때에 팔 때는 그 어땡허고 줄부터 먼저,

105055 #1 옛날에는 줄 다 호미로 다 잘라.

105055 @ 예 줄 걷어난 다음,

105055 #1 줄을 걷는 거라 경 해난 다음에 골쟁이로,

105055 #1 예 경 행 옛날에는 골쟁이로 파는데 지금은 이젠 저 경운기.

103055 #4 기계가 좋아노니깐.

103055 @ 지금은 경운기로 하고.

103055 #1 예, 지금은 저 이제 파는 기계가 있어,

103055 @ 옛날 옛날에.

103055 #4 그 때는 기계가 엇이니까,

103055 #1 옛날에 손 손으로,

103055 #4 손으로 다 파지만,

103055 #1 아, 또 손으로,

103055 #4 지금은 시설이 좋아 가지고,

103055 #1 아, 손으로도 파어. 손으로도 파어,

103055 #4 험니께게.

103055 @ 아, 손으로도? 아, 저,

103055 #1 손으로

103055 @ 골쟁이 안헤그네 기계로 안 헤기네,

103055 #1 이 이랑을 가는거라.

103055 @ 어-,

103055 #1 이랑을 이랑을 갈면 고 저 고구마가 이렇게 이렇게 나서 둥글어,

103055 @ 어,

103055 #1 둥글어 게민 막 주워서 모여 놓는거지.

103055 @ 아, 손으로예.

103055 #1 예.

103055 @ 흙이 막 딱딱 허진 안 험니까?

103055 #1 아, 안 딱딱허여 안 딱딱허여,

103055 #4 우리 지금 고구마 싱거 잇수다.

103056 @ 아, 고구마는 검질 보관은 어떻 험니까?

103056 #1 고구마는 여기는 옛날에는 구덩이 파그네 묻어놔는데 아주 옛날에는,

103056 @ 예.

103056 #1 이제는 구덩이 안 팡 그자 상자에 놔서 그 자 방안 에 놔두면,

103056 @ 옛날에는,

103056 #1 옛날에는 구덩이 팡 묻어나서,

103056 @ 구텡이 팡,
103056 #1 구텡이 파,
103056 @ 으,
103056 #1 그기 육으로 느람지 둘러놓아 도 우이 느람지 더꺼 더꺼그네 겨울 네
냥 그자 그 구멍으로 손 디물량, 이제 갓더 꺼네다명 찌어도 먹고,
103056 @ 예 고구마 이제 우리는 감저엔 허는디예.
103056 #1 으, 감저,
103056 @ 감저 감저엔,
103056 #1 으, 감저,
103056 @ 예 경 허면은 그 저기 구텡이에서 썩은 거가 절반일 건디예.
103056 #1 경 그 덴,
103056 @ 감저는,
103056 #1 잘 못 잘 못 팔리흐면 또 물이 들어가거나 온도가 안맞거나 허면 썩
을 수가 잇엇지. 잘 관리 해야.
103056 @ 감저늘은 저기 집이 몇 개 정도 늘어 이십니까?
103056 #1 우리 우리 우리 저 사는 사름덜은 고구마 아니?
103056 #4 우리 여기 이 하르버지 만난 올 덴 그런거 엇어수다.
103056 #1 그 덴 고구마 7지는,
103056 #4 열 일곱 열 다섯 설에,
103056 #1 구텡이 안 묻고
103056 @ 예.
103056 #4 그 고구마를 늘엇지 지금은 안 늘엇수게게.
103056 @ 예.
103056 #1 예-, 한 육십 년데 이전에,
103056 @ 으,
103056 #1 육십년 데 이전에는 나가 웨가에 강 보면은 웨하르방네가 고구마를
구텡에에 물어그네,
103056 @ 으.
103056 #1 이제 헨헨 걸 봐났주.
103056 @ 나중에 수매해 부니깐 바로바로 헤그네 가불고예.
103056 #1 예, 나중에는,
103057 @ 예, 여기 저기 여기서 감저는 절간 고구마 흐고,
103057 #1 예.
103057 @ 또 소주로 행 육지 파는 거 흐고,
103057 #1 예.
103057 @ 그 전에는 쓸망 먹은거 흐고,
103057 #1 게 절간 고구마가 육지에 푸는 거.

103057 @ 예 절간 고구마 하고 그거 하고,
103057 #1 에 또 썩고구마는 썩고구마는 여기 씨로도 냉기고 씨로 냉기는 거 뿐
이주.
103057 @ 씨로 냉기는거예.
103057 #1 게고 또 간식으로 짬뽕 그자,
103057 @ 으,
103057 #1 먹을라고 냉기는 사름도 잇고 경 현디.
103057 @ 예.
103057 #1 즈 헤 간식으로도 잘 안 먹었었다고,
103057 @ 아 그 옛날에도 저기 감저 숲망 먹어나지 안 해수과?
103057 #1 아, 옛날에는 고구마로 떼 행 먹었주.
103057 @ 떼 행 먹고예.
103057 #1 밥을 아니 행 먹영 쫄이 엇어그네,
103057 @ 예.
103057 #1 고구마로만 떼 산 사름도 잇어.
103057 @ 예 감저예.
103057 #1 떼를 떼운 사름도 잇어,
103057 @ 절간고구마가 뺏데기 아닛과?
103057 #4 예.
103057 #1 빼떼기 빼떼기,
103057 @ 빼떼기예 저기 그 뺏데기 널 때,
103057 #1 예.
103057 @ 널고 드리코 비 맞으면 안되니까예,
103057 #1 밧디 썰멍 그데로 밧디 널어나서. 게 말 말르면 하나 하나 좇엇나서
경 하단 그 이후에는 망사 ㄱ뜬 것도 나오고 그물 ㄱ뜬 것도 나오고,
103057 @ 으,
103057 #1 경 해서 이제 썰면은 이제 망사에도 널곡 그물에도 널면 쉽지,
103057 @ 응,
103057 #1 그 전에는 그 그물 망사 엇일 뻬에는,
103057 @ 밧디.
103057 #1 저 그 자 흑ㄱ뜬디 널엇다그네 하나 하나 밤이 밤이가네 하나하나 좇
어나서 비 온텐 하나하나 땅 속에 흔 거 하나 하나 일일이 좇어났다고, 세 나서 세
나서, 하나 하나,
103057 @ 비 예 비 비 맞히면 안되니까예.
103057 #1 으, 비 맞히면 안 돼니까 지금.
103058 @ 그 옛날에 저기 저기 감저즐기는데, 옛날에,
103058 #1 예.

103058 @ 그거는 어떻게 해기네 누구 췌 맥어나신,ㅏ
 103058 #1 소 먹을 용으로,
 103058 @ 예-.
 103059 @ 여기 이 저기 감저예 이 농사에 대해서 어릴적에나 나중에 지금이라도 제일 큰 뭐 수확이 좋아그네 해그네 돈을 하영 사났던가 해난 그 그런 기억이라든가.
 103059 #1 그 고구마에,
 105015 @ 예 감저엔 곱아줍서 감저 고구마가,
 105015 #1 감저에 돈 사보기는 뭐 큰돈은 못 사. 그자 저 췌 고구마로 해서 그자 혼 천 예을 갈면은 그자 혼 뺑만 원 나신가?
 103059 #4 아, 그 때는 늘 고구마로 받아가 낫숫게.
 103059 #1 늘 고구마로게 게메,
 103059 #4 아, 돈이 뷌든 말든 예를 들어 가지고 천 췌을 싱그면 몇 가마니 나오면 완저 상인덜 받아가 나숫다게.
 103059 @ 특별허게 추억 같은 거. 저 감저에 대해서 예,
 103059 #1 추억 ㅏ쁜 건 어릴 적에 감저 숲양 먹어 난 거나 인칙에 국민학교 일학년 때 조 불리레 가니까는 그 주인 어른이,
 103059 #1 게난 고구마가,
 103059 @ 아, 감저.
 103059 #1 좋다는 건 우리가 조 보리보단 좋다는건 춤 고구마를 풀아서 우리 쌀을 사 먹엇어. 그 전에는 췌 낱 못먹엇어, 고구마 갈기 시작헌 후론 숲양먹기 시작헷다고,
 103059 @ 으, 아 것도 좋은거우다,
 103059 #1 고구마가 우리 숲아 맥여 준거지.
 103059 @ 예.

기타 농사

103060 @ 그 밖에 농사로 수박, 참외, 배추, 무, 지슬, 피?
 103060 #1 아녀 아녀 그런거 안 갈앗어,
 103060 #4 이 우도는 그런 거 안 헷니다게예.
 103060 @ 므물?
 103060 #4 므물도 안 헷니다.
 103060 #1 안 헷니다.
 103060 #4 옛날은 췌금씩 이제 갈아났는디,
 103060 #1 아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오십 년테에는 췌금씩 갈아나서,
 103060 @ 므물, 므물은 어디 저 난전,
 103060 #1 난전 밧디,

103051 @ 아,
 103051 #1 우리 어린 때 으 앞이 그 수박 갈안 막 치언에,
 103051 @ 예 원두막예.
 103051 #1 그 영 막에서,
 103051 #4 아 도둑질 해 먹으레 갑니께. 청년덜,
 103051 #1 직허는 것도 봐 나고 이제 춤 도둑질도 해 먹으레 가나고 이렇게 해
 낫수다.
 103051 @ 예. 그 무수.
 103051 #4 무수도 우도는 많이 안 갑니다.
 103051 #1 우린 무 안갈아,
 103051 #4 우영팟디,
 103051 #1 우영팟디,
 103051 @ 우영팟디이, 무시 거 갈앙 먹코예.
 103051 #1 우영팟딘 무우도,
 103051 #4 가정용으로 가정용은 갑니께.
 103051 @ 예 가정용으로,
 103051 #4 게 가정용은 갑니께.
 103051 #1 무우, 무우 베추는 우영팟디 갈앙 해 먹엇어,
 103051 @ 우녕팟디예.
 103051 #4 예.
 103051 @ 배추도,
 103051 #4 예 배추 게고 이제 가는 사람 엇입니다.
 103051 #1 옛날에는,
 103051 @ 응,
 103051 #1 저 자기 집에서 무우나 배추 갈앙 김치를 담양 해 먹었는데,
 103051 @ 예.
 103051 #1 이제는 그 게 고급이 안 돼어,
 103051 @ 아,
 103051 #1 전문가들이 저 지은 거라야 속도 잘 앓고 또 공력도 덜 들고,
 103051 @ 그 지슬도 이녁 우녕बाट디서 갈아그네 이녁,
 103051 #1 지실감저,
 103051 @ 예, 지실감저.
 103051 #1 지실감저도 가는 사람 없고,
 103051 #4 가는 사름 엇입네께.
 103051 @ 이녁 우녕बाट디도?
 103051 #1 예, 자기 우녕बाट디도 안 갈아.
 103051 #4 예에 다 사만 먹지.

103051 @ 그 옛날에도?

103051 #4 예 그 옛날에도 지슬감저 놓는 사름도 없고 또 부제집이는 쫓 멧 방
울석 놔가지고 가정용 잘,

103051 @ 지슬도 잘 될 거 님은디,

103051 #1 거 한도,

103051 #4 돼긴 잘 돼긴 먹을 건 나옵니다게.

103051 @ 음,

103051 #1 흐민 돼는디 흘라고,

103051 #4 이딘예 굿이 큰섬하고 틀리우다게.

103051 @ 맞수다게.

103051 #4 사는 게 많이 나오면 이런 게 필요없다 사 먹자 그렇게 해서 안갑니
다게.

103051 @ 돈이 잇이난,

103051 #4 이 우도 사름덜은예 우리는 예 여녕도 많이 먹고 못 허지 많은예 하
루 가면은예 오십 만원 칠팔십만 원 받아옵니께 혼 스십 데 오십 데는 또 오십 데
라고 다 잘 흐는 것도 아니고 스십 데라고 잘 흐는 그 물엿거도 일 이등이 잇입니
께 해녀가,

103051 @ 음,

103051 #4 수심 지폰디 간 들어 가민예 소라를 혼 팔십 키로씩 잡앙 납니다게.

103051 @ 으, 삼춘 그거는예 흐끔,

103051 #4 우리 동네도 그런 사름이수다.

103051 @ 흐끔 잇다그네,

103051 #4 예.

103051 @ 나중에 삼춘이 그거 바당이 일은 곱아줍서예. 바당이 일은 흐끔 예껏
당 그 말은 지금 곧지 말야그네.

103051 #4 예에,

103051 #1 으,

103051 @ 이제 들어 볼 때,

103051 #4 예에, 우리는 쫓짜고,

103051 #1 묻거들랑 대답흐곡, 묻지 아년 거랑 대답흐지 말아게.

103051 #4 아이고 우리는 쫓짜고예.

103051 @ 예,

103051 #4 우리 동네도예 오십 데 이제 혼 안직까지는 육십 데 그 여자 둘이가
잇는디 상군이우다게 소라,

103051 #1 거는 묻거들랑흐여.

103051 @ 거는 나중에랑,

103051 #4 예-,

103051 #1 물거들랑 대답하여,
103051 #4 무시거라고?
103051 #1 물으길랑 대답하여,
103051 @ 나중에 나가 저기 들어보쿠다.
103051 #4 예예예.
103051 @ 이 순서가 이서부난예 이거.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삼춘, 이제는예 소 키워난거 곶아줍서.
104001 #1 나?
104001 @ 예, 소는예 소 들 허는거 소나 말이나 허는거 먹는거 그런 것들 들어 보는디예 그 소에 대해서 한 열 가지우다 소는 췌 췌,
104001 #1 예,
104001 @ 어떻 기릅니까? 길르는거.
104001 #1 나가 지금 소를 나 생전에 시작 혼 지는 언젠고 혼니까 에 칩십 삼 년도부터 시작 하기 소를 암소 혼 므리 키웠주.
104001 @ 예.
104001 #1 농사용으로 경 헨 경 소를 사다가 이제 메 날 그 때는 아침저녁으로 소 먹이레 다니는 거라. 길가에 또 아니면 버리 동산ㄱ뜬디 그디 가서 소를 심어갓 고 소를 풀을 뜯지는 거라 게민 한 두 시간 세 시간 뜯으면은 배가 조금 불어 이 정도면 텃구나 경 헨 집에 가그네 어디 좀 공지에 소를 메어 두엇다가 저녁 때 그 디 가서 어디 가서 또 이젠 또 배 채우레 나가야 돼여 저녁 때 그 디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메어 두엇다가 또 아침이 또 나가, 게서 이제 메 날 아침 저녁 반복이라. 경 헨 흐다가 농삿 때가 돼면 으, 이제 밤이 심지어는 저 서머리 서머리, 그 때 서머리 가그네 남이 출밧디 강, 이 남이 풀밧디 가그네 소도 먹이고 흐다그네 배를 채와그네 밧도 갈곡 이제,
104001 @ 으,
104001 #1 그 때는 그렇게 흐곡 그 이후에 이제 보릿가루가 나기 시작하니까 보리를 많이 갈안 보리가 가루가 나오기 보릿가루를 먹이는 거라 소에게, 보릿가루를 먹여서 배를 불라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혼 거라.
104001 @ 아,
104001 #1 그래서 소가 게서 소가 일 년에 똑 혼 므리씩 세 킬 낱아, 이제 꼭 혼 므리씩 세킬 낱으면은 암소 낱는 헤 또 숫소 낱는 헤 이제,
104001 @ 응,

104001 #1 이렇게 해서 나 그 때 낳은 소가 계속 오 년동안 암쏘 저 숫소만 나 더니구저 숫소 값이 그 때 핑장이 갔어 경 험 수소 그래서 용돈을 벌었지 가용돈을 벌었고,

104001 @ 소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쿠과? 무슨 가라마여 무슨.

104001 #1 아 계난 여기는,

104001 @ 청충메여 흑메여,

104001 #1 우리 홀 떡에는 토종 췌랐는데,

104001 @ 예.

104001 #1 혼 팔십 년도돼니까 브라만이엔 현 췌가 있었어.

104001 @ 예.

104001 #1 브라만이엔 췌 어떤 췌냐하면은 이저 제주도가 축산 선진지니까. 그 미국에 가서 도입을 해 온 거라. 제주도에서 도입을,

104001 @ 계난 저기 외국에서 온 소 말고 우리가 저기 허젠 허민예 그 옛날에,

104001 #1 계난 그것이 브라만이고,

104001 @ 으 그 전에,

104001 #1 그 이전에 순 토종이었지.

104002 @ 토종은 어떤 종류.

104002 #1 옛날 위 조상들이 길루던 소라.

104002 @ 거난 흑색은 무슨 저기,

104002 #1 아, 검은,

104002 @ 검은 췌.

104002 #1 토종도 검은 췌가 잇고,

104002 @ 예.

104002 #1 또 이제 붉근 췌가 잇고,

104002 @ 붉은 췌는 적다마엔 험니까? 적다마엔 험니까?

104005 #1 아니 아니. 저 거니까 나이는 저 금싱은 다간 사롭 나롭 금싱은 혼 슬 다 간은 두 슬 사롭은 세 슬 나롭은 네 슬 그 다음부터는 다숫 슬 여숫 설 이렇게,

104005 @ 예 나이에 대해서는예.

104002 #1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104002 @ 그 소 저기 췌 털 색깔로,

104002 #1 예,

104002 @ 털 색깔이나 뿔 모양으로,

104002 #1 응

104002 @ 뭐 이름 소이름 부렁이여 뭐여,

104002 #1 계메 나 부렁이는 숫췌보고 부렁이 이렇게 흐고 또 암컷보고 암췌엔 흐고 영 흐곡 또 색깔로는 머 겁다그,

104002 @ 거른 췌 , 검은거?

104002 #1 그 건 식혜엔 햅여. 식혜는 머냐면 검은점도 백혀지곡 붉은 점도 섞어
진걸 그걸 식혜엔햅여,
104002 @ 식혜 맞수다. 식혜 얼룩쉐.
104002 #1 얼룩쉐는 흰점도 백혀겨지곡 붉은 점도 백혀지곡,
104002 @ 얼룩쉐는 흰점도,
104002 #1 백혀지곡 붉은 점 백혀진건 얼룩쉐
104002 @ 빨 빨 모양으로,
104002 #1 으,
104002 @ 저 슷 슷쉐는예.
104002 #1 으,
104002 @ 저기 슷컷은,
104002 #1 으,
104002 @ 슷컷은 빨모양으로 슷컷이나 암컷이나 다 빨잇인,
104002 #1 아 게네 게난, 빨은 빨인데 아무래도 암쉐가 슷쉐가 빨은 슬지고 크고
슬지고 암쉐는 짝 빨이 낱늘고 죽지게 지금,
104002 @ 예, 그걸로 뭐저 이름을 정허거나,
104002 #1 그걸로 머는 없고,
104002 @ 삼춘 그 쉼 헐 때는 이 저기 우도에 쉼을 사단에 기릅디가 아니면,
104002 #1 예 여기 저 우리 친구 어머니가, 기루던 쉼주 지금,
104002 @ 아,
104003 #1 경 해서 네가 농사용으로 지금 그 쉼 쉼가 없어갓고 상당이 어려움이
많데, 지금 이제,
104003 @ 응-,
104003 #1 제 시기에 쉼을 가져그네 고구마ㄴ쁜 것도 심어야지 경 아년에 햅다
보니까 늦게 심단보니까 기훼가 잘못 뉘언 막 모든게 죽어불고,
104003 @ 음,
104003 #1 이렇게 햅길래 아, 꼭 쉼가 필요허구나 해서, 춤 돈을 빚저그네 쉼을
샅는데 그 쉼가 고맙게시리,
104003 @ 게난 그 때 쉼은 밭 갈용으로로서,
104003 #1 밭 갈용이고 첫체는 밭도 같고,
104003 @ 예.
104003 #1 또 그 쉼가 세끼를 나면 세끼가 세끼를 풀아서 돈이 뉘고,
104003 @ 새끼 차그네 돈이 뉘고예,
104003 #1 또 똥을 싸면 또 집이 아궁이 뉘금도 햅고,
104003 @ 뉘감도 햅고예,
104003 #1 으,
104003 @ 또 쉼로 이제 물 건 나르는 거 밭디서,

104003 #1 물건은 좀 행 나르지 않고, 그냥 밧만 가는거라.
104003 @ 밧만 저기 보리짚 같은 거 운반용으로,
104003 #1 운반용으로 안써, 이 우도에서는 잘 안써,
104003 @ 경 하고 여 저기 밧 저기 곡식 갈 때,
104003 #1 응,
104003 @ 방앗간에 연자메,
104003 #1 아, 연자메 그 그 떤 나 소 허기 시작 흘 떤 연자방아는 엇어질 떤,
104003 @ 응,
104003 #1 엇어질 떤주. 육십 년데 저 칠십 년데 이후에라부난,
104004 @ 소 저기 새끼 낳으면예, 한 살 이나 두 살 때부터 질 들이지 않습니까
예.
104004 #1 웨냐흐면,
104004 @ 어디 강 어떻 그 길들입니까.
104004 #1 소가 이제 두 술 나기 시작흐면, 그 밧가는 걸 가르켜낫어 옛날에는,
104004 @ 응,
104004 #1 밧 안 가는 밧 갈줄 모르면 좀 돈을 좀 덜 받았지 지금,
104004 @ 응,
104004 #1 여기는 순 밧용으로 허니까 옛날 소가 어려울 떤,
104004 @ 예.
104004 #1 경해도 두 술 나면은 밧 가는 걸 가르켜 줘야돼,
104004 @ 게민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가르킵니까?
104004 #1 처음 처음에는 이제 그저, 쟁기를 ㄱ에 ㄱ뜨면 저 다이야 ㄱ뜨는 걸 이
렇게 등어리에 해서 이제 그 오리목에 만들어그네,
104004 @ 으,
104004 #1 꺾기 시작헤어 꺾는 걸 배 배와 낭 네중에 그 게 어느 정도 숙달이
돼면, 그 다음에 이제 쟁기에 메왕,
104004 @ 예,
104004 #1 응, 쟁기에 메왕그네 이젠 흔 사름 잡고,
104004 @ 예.
104004 #1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모살에 강.
104004 @ 예.
104004 #1 흑밧디서 안 갈양 모레왔디서 갈기 시작헤어,
105015 @ 모레밧디강이네,
105015 #1 모레밧디서 이제 흔 멧번 갈아나면은 쩌금 숙달이 돼어,
104004 @ 으,
104004 #1 게민 또 이젠 흑밧디 강 갈기 시작헤어
104004 @ 음,

104004 #1 흑बाट 강 갈 때도 이젠 뒤에서 같고 앞에서 심꼬 이제에,
104004 @ 응 경 행 배와정으네예,
104004 #1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가 가면 이제 앞에 심은 사름이 이제,
104004 @ 으,
104004 #1 또 가는석도 땡겨주곡 이리 저리 안 가게끔 또 가는석이란 게 있어
가는 석,
104004 @ 으,
104004 #1 그걸로 좌우를 조정해 주지 걸로 영 이레 가라 저레 가라 땡겨줘그네.
104004 @ 응,
104005 #1 그 소 나이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예 금송,
104005 #1 예 혼 술은 금싱,
104005 @ 금싱 그 다음,
104005 #1 그 다음 두 술은 다간,
104005 @ 다간.
104005 #1 세 술은 사릅.
104005 @ 사릅,
104005 #1 또 네 술은 나릅.
104005 @ 나릅.
104005 #1 그 다음 다숫 술 으숫 술.
104005 @ 다숫 술 으숫 술.
104005 #1 예,
104005 @ 열 술까지도,
104005 #1 열 술까지도 허곡 어떤 사름은 쓰무 술까지도 키우는 사람도 있어,
104005 @ 아,
104005 #1 게 늙어 가민 고기용으로 풀아버리기도 허곡하는데, 보통으로 혼 열다
섯 때 가면은 하 이제 청춘이 늙어지고 이젠 혼 세상 넘어 강 이제 도살장으로 가
게 돼는거,
104005 @ 예.
104006 @ 삼춘 그 소에 저기 밧 갈 때,
104006 #1 예,
104006 @ 그 쟁기여 길마여 멩에여 허는게예,
104006 #1 예,
104006 @ 그 명칭예 생각 나는데로 한번 쟁기부분에예,
104006 #1 예.
104006 @ 이 거 표준말로 쟁긴디 쟁기부분에 명칭들 생각나는거 곴아줍서.
104006 #1 쟁기를 영 잡는 건 양짚머리,
104006 @ 양짚머리.

104006 #1 양쪽으로 잡는 양짓머리.
104006 @ 예, 이거는 양짓머리.
104006 #1 딱시 영 보섭끼우는 것이 머냐하면 그건 머엔 혼다만은 다 것도 잊어
불었네이.
104006 @ 예-.
104006 #1 그리고,
104006 #4 그 이름 튜네 집네까.
104007 @ 길마 길마는 소에 우에 얹이는거 좇아예.
104007 #4 그것 ㄱ란 질메엔헤,
104007 #1 질질메엔,
104007 @ 질메,
104007 @ 질메 거 저기 생각나는 거 잇수과?
104007 #1 난 질메를 안 헤봐서,
104007 @ 아, 질메를 안허고,
104007 #1 질메엔 헨거 써 보질 안 헤수다.
104007 @ 질메를 허젠 허면은 그거 저기 구루마 헤가지고 허젠허민 그거 허는거
고예, 소 이거 이기 영 헤가지고 저기 밧 갈때 허젠허민 그멍에 지른 텐 허는디 그
멍에엔 헨 거,
104008 #1 멩에는 여기 영 목 우에,
104008 @ 목 우에
104008 #1 예, 목 우에 헤그네 한 줄, 한 줄 영 헤그네 짓 줄 무끄는 거.
104008 @ 아, 그거를 줄이엔 험니까?
104008 #1 이거는 한 줄,
104008 @ 멩에는 소 이,
104008 #1 이 우에,
104008 @ 우에 헤 가지고,
104008 #1 목 우에 영 이렇게 헤 갖고,
104008 @ 예.
104008 #1 으 양 꺾으로 이쪽으로 줄 잇고 이쪽으로 줄 잇어그네 연결시키는 거,
104008 @ 예 경 행 연결시키는 거 멩에,
104008 #1 걸 멩에렌 허곡,
104008 @ 예에 그 부분 멩칭은 뭐 나중에 그거 허고, 목장,
104007 #1 보섭 양짓머리,
104007 @ 양짓머리?
104007 #1 성에 성에엔 허는거 몽클 영 버섭 끼우는디 영 휘아진 건 저 몽클 몽
클 몽클이엔 흐주 몽클,
104007 @ 보섭 몽클,

104007 #1 또 영 쭈욱하게 나간 건 양젓머리엔 하고 양젓머리,
104007 @ 예.
104007 #1 아 양젓머리 아니고 저 성에 성에,
104007 @ 아,
104009 @ 삼촌 그 좀 전에 맥이젠 허문 아침에 가그네,
104009 #1 예.
104009 @ 낮 전이 가그네 한 세 시간 정도 행 맥이고 열 시까지,
104009 #1 열 시까지 아침 으쓱시에 새벽에 일어남 강 혼 세 시간,
104009 @ 세 시간?
104009 #1 두 시간 네지 세 시간 맥여야,
104009 @ 응, 맥여야.
104009 #1 어느 정도 배가 부른 거라,
104009 @ 배 불르게하고.
104009 #1 혼 네 시나 다숫 시 썸 나가그네 또 이제 맥여야 배가 어느 정도,
104009 @ 배가 불어불고,
104009 #1 아침 저녁으로 배를 채와줘야돼여,
104009 @ 채와줘야예, 경 헤그네예.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 같은 거 반복 행 험수다마는,
104010 #1 난,
104010 @ 일 년에 혼 마리씩 새끼 나주곡,
104010 #1 게메 난, 솔찍이 쉼을 키우기 시작헌 이후로는 이 중학교 육성 회장이
여 머여 중앙에 감투를 많이 썼어. 경 허면은 웨이 보레 가곡 그런디 다 출입 허젠
허면 저녁 쉼을 못 맥이지, 아침 떼는 쉼을 못 맥이거든 겨민 이제 밤에 남이
산 ㄱ뜬디 강 밤이 강 비여, 밤이 경 마데 ㄱ뜬 거 앓영 강 거기에 담아그네 집에
와그네 어디 저 소 음에 강 낫당 아침 일찍 나가그네, 거 갖어당 소 주영 그 날 아
침은 소를 안 먹이는 거라, 안 먹이는 거라.
104010 @ 으,
104010 #1 경 저녁 떼는 이제 다숫 시나 으쓱 시나 돼야 그 쉼 딱시 시간 있으
니까 막 소 먹이면서 이거 혼 이삼년 동안 그렇게 헤 왔다고, 지금,
104001 @ 으,
104001 #1 네가 그개 춤 이제 좀 용돈을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이
장 하면서 그 쉼 이 동네서 제일 마지막으로 네가 쉼 키왔다고 다른 사름덜은 쉼을
설러부는디 이제, 썸그만 쉼을 하나 길환에,
104010 @ 으,
104010 #1 길환에 이제 허곡 또 네가 그 팔십 팔십 육 년도엔가 지금 이백칠십
만원에 그 암소를 풀아갔고 그 천 평짜리 밭 하나 샅어 그 때,
104010 @ 아,

104010 #1 게 그 게 지금 십 억짜리 빚이 났어 지금.

104010 @ 바닷가에 잇수과?

104010 #1 응, 세 번째 아들한테 물려 줬는데, 물려줬는데 그거 지금으로 하면은 십억 짜리가 댜다하여,

104010 @ 삼촌은 어릴 적에는 늬이 소 맥이레 텅겨나거나 경은 안 해 났과?

104010 #1 늬이 소 먹이질 안 해서 늬이 소는 흔 번도 쪼끄만 해서민 나 늬이 소를 먹였더라면 그 늬이 소 먹여주레 갖더라면은 중학교도 못 입학 흘뵐 했어.

104010 @ 아,

104010 #1 으기에 사름 지금 즘 잘 사는 어른인디 소 먹이는데 아 그 어른이, 나가 못 살고 해가니까 흥년 때 못 살고 하니까 자기네 집이 왕 소 먹여주고 자기네 아들하고 공부시켜주곡 으, 가르켜주곡 하면서 저, 소만 먹여 달라고 허도, 그 집이 가문 네가 고생 흘 걸 생각해서 어머니도 절데 가지 말아라 나 가라고 말은 못 흥 겠다, 게 난 배고프니까 가고 싶은 생각은 난 거라 게도 가면 고생 흘 생각이 나는 거라.

104010 @ 응,

104010 #1 그래서 세 번을 와도 네가 세 번제엔 못 가겠다. 영 헨 그 해 춤 저겨울 지나니까 봄 때 네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

104010 @ 음,

104010 #1 게난 나가 운명이 그 어른 말 들영 그 집이 강 살았시면은 중학교는 못 다녔지,

104010 @ 응,

104010 #1 지금 이제. 게도 그렇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주.

말 기르기

104011 @ 삼촌, 말을 길러 남디가?

104011 #1 어,

104011 @ 물 물,

104011 #1 물은 못 키워 봤어.

104011 @ 응, 어릴 적에도?

104011 #1 겐디 남이 말로 저 밧 갈아주레 갖다가, 물이 나 여기 물어분 적은 잇어예. 밧갈다가 여기 질메 통이 벗겨지길레 거를 잘 쳐메주레 가니까 바싹허게 물어부는거라 물 사람 물어,

104011 @ 어, 이 빨 막 췌고예.

104011 #1 으으, 겐 물어변 나 이디 간 막 나 울명 해났다고 이디 간 겐디 많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허고 그자,

104011 @ 어,

104011 #1 확 확해 벗다고 지금,

104011 @ 말은 어떻 기르코예 보통예, 삼춘 들어나지 안 혜수과?
104011 #1 예? 말도 쉼나 마찬가지,
104011 @ 소나 마찬가지. 맥이고,
104011 #1 어? 겐디 말은,
104011 @ 겐디 말은 낡 키웁니께.
104011 #1 어? 게 저 겨울에,
104011 @ 집에 안들이고 예,
104011 #1 겨울에 이 저 그 어디 저 여기는 허는데, 여기는 그런 목장이 엇주게.
104011 @ 응,
104011 #1 목장이 좁아, 경 허고 말이 아니 겨울에 잘 견디는ㄴ라 난장에 메어두
긴 헤여 말은,
104011 @ 으,
104011 #1 쉼는 메어두지는 앓는데 우리 소 키울 떡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소막
앞에 저 아침 뉘면은 저 낮이는 네 낮다가, 밤이는 소막 안에 또 들여메곡 또 네어
농곡 들여농곡 헛다고,
104011 @ 쉼는 경허곡예.
104011 #1 겨겨울에는 게서 이제 쉼가 추우면은 축진다고 살찌질 못한다고 살이
저기 축난다고, 이렇게 해서 데게 소관리를 그렇게 헛다고 아침 저녁으로,
104011 @ 예. 건데 그 밧디서 이것 저것덜 행 오젠 허민예 구르마를 허거나 말
에 말이 잇어야 운반을 헛 건디, 그 쉼라도 어디 강 행 오젠허민,
104013 #1 여기 들기르는 사름이 몇 사름 없고,
104013 @ 예.
104013 #1 들로 운반용으로 말 기르는 사름은 없어,
104013 @ 그 육 저기 수산서 그 새라도 행오면은 걸 저 배에서 네리면 그거를,
104013 #1 다 등짐으로 지어왔어,
105015 @ 다 등짐,
105015 #1 으 가까운 포구ㄴ지 으 포구예,
104013 @ 응,
104013 #1 여기서 그자 혼 오벙 메다.
104013 @ 응 가까우니까,
104013 #1 혼 오벙 메다 거리에 잇는 배들이 가서 싣겨 실러 오거든,
104013 @ 응,
104013 #1 게민 벳 저 등짐으로 저 오면은 혼 스무 못 열 다섯 못 스무 못씩 지
어 앓앙 집이 와그네 집이 와그네 또 집이 늘엇다가,
104013 @ 예.
104013 #1 이제 또 몇 못 꺼네영 즐줄,
104013 @ 응,

104013 #1 줄을 이제 만들아그네 이제는 춤 집 일 떡에는 지붕에 올려그네,
104013 @ 아,
104013 #1 집 일고 그렇게 헛는데,
104013 @ 거난에 운반용로는,
104013 #1 등짐으로,
104012 @ 예, 다 등짐으로 다 헛구나예. 그 말 종류 인칙에 저가 잘못 아까 혼돈
해서 헛는데 말이 이름 같은 거 말 종류에 따라 가지고,
104012 #1 어,
104012 @ 알아지는 거 혹시 잇이문 저기,
104012 #1 말 종류는 잘 모르크라.
104012 @ 말 종류.
104012 #1 우리 옛날 우리 지금 다 토종말, 호마엔 혼 말 들었어,
104012 @ 호마?
104012 #1 어, 저 이제 신식으로 웨국에서 도입 웬 것덜,
104012 @ 아,
104012 #1 키 큰 것들,
104012 @ 제주 말에 대해서는,
104012 #1 제춧 말은, 이제,
104012 @ 조랑 말 마씨 제춧 말은? 듣기로는,
104012 #1 여기서는?
104012 @ 예.
104012 #1 그저 여기서는 뭘 몽생이,
104012 @ 뭘 몽생이?
104012 #1 응 몽생이.
104012 @ 응,
104012 #1 저 순 암말 보고는 암말 숫말이 그 게 이제 잇일 거라.
104012 @ 어, 청충매 청충매엔 현 말 안들어 봐숫과?
104012 #1 어?
104012 @ 청충매,
104014 #1 그 머 못 듣고 뭘 혼 술 두 설 이수 삼수엔 헤실꺼라. 이수 삼수.
104014 @ 예.
104014 #1 두 설 보고 이수 삼수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잇고 뭘,
104015 @ 뭘 구르마도 베랑 안허고예?
104015 #1 겐데 저저 팔십 년데 멧 사람이 뭘구르마차 조합을 네 사름인가 헤낫
어. 마차 조합.
104015 @ 예.
104015 #1 건 운반 용으로 건 어디 운반 헛냐면 일반 저 에 검멀레 모레 운반

할라고,

104015 @ 아,

104015 #1 여기 그 저 각 집집마다, 우물이 있어, 물통이 있어물통 정부에서 여기 봉천수 봉천수가 자꾸 달라가지고 이제 쓰레또 지붕을 계량해서 쓰레또에서 물으 받아그네 그 물을 먹어라.

104015 @ 응,

104015 #1 게민 집집마다 우물을 파라.

104015 @ 응,

104015 #1 우물을 파켄하면은 호당 얼마씩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모레가 필요헌 거라.

104015 @ 응,

104015 #1 모레가 필요허니까 모레를 곳에 강 사 올순 엇고 저 검멀레엔 현대 이제 검멀레에 모레가 있었어 그 건축용 모레,

104015 @ 응.

104015 #1 그 모레를 집집마다 실어서 돈 벌려고 세 사름이 심지어는 밧을 풀어서 마차를 샀다고.

104015 @ 응,

104015 #1 우리 친구 하나는 이제 경 해서 그 집집마다 그저 모레를 실어날라서 저 돈을 벌어났었다고,

104015 @ 그뻬 후제예.

104015 #1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젠, 것도 다 낫나니까 들도 풀아불고마차도 풀아불고 이제,

떡이

104016 @ 그 췌하고 들 떡이가 보통 우리는 출이엔 허는디,

104016 #1 출,

104016 @ 예, 보통 출이엔 험니까?

104016 #1 예, 출.

104016 @ 예, 출 말고는 어떤 무시것덜, 저기 칙칙, 뭘엔 험니까?

104016 #1 칙은 칙은 저 육지 곳이 여기 칙 또 산에 가면 짝끔 잇주만은 여기 칙이 흔허지 안여는데, 머 줄 만든 거 줄 받는거,

104016 @ 예,

104016 #1 건디 여기는 칙 ㄱ뜬거는 소 맥이거나 들 맥이지는 안 허여,

104016 @ 거민 들에 가면은 소 먹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잇이는고예.

104016 #1 산에 가민?

104016 @ 예.

104016 #1 산에도 잔디 순 잔디 잔디 크면은 그자 뜯어먹고,

104016 @ 잔디엔 험니까 테역이엔 험니까 무시거엔 험니까?
104016 #1 머 테역이엔 허주게.
104016 @ 큰 것덜,
104016 #1 예, 테역출,
104016 @ 테역초.
104016 #1 테역출-.
104016 @ 테역출이엔 험니까?
104016 #1 응, 테역출이엔 허주.
104017 @ 풀은 거니까 출은 마련 험거 힘들어기네 그냥 우에 가그네 저기 저,
104017 #1 이 이 여기 동네 사름은 저 서머리에,
104017 @ 예.
104017 #1 서머리 산에 가그네 소를 아이 키웠는데 저 동착녁 사름덜,
104017 @ 예.
104017 #1 그디 한 몇 집은 서머리에 자꾸 아침 저녁으로 들락 날락 험다고,
104017 @ 으,
104017 #1 게민 어느 정도 한 한 오십 메다.
104017 @ 응,
104017 #1 그 범위네에 돌아다니면서 뜯어 먹게끔,
104017 @ 응,
104017 #1 말뚝을 박아 논다고,
104017 @ 응, 말뚝을,
104017 #1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말이나 소가 돌아다니면서,
104017 @ 응, 먹는 거라예.
104017 #1 이제 지금 이제 풀을 뜯어 먹는거라.
104017 @ 응,
104017 #1 경 행 또 아침 뎨 그렇게 흥곡 또 저녁 떼 또 다른딜로 고쳐 박아주
고, 읊겨주고,
104019 @ 예, 경 허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인척에 골앗듯이 감저 저기 줄예. 감저
줄 같은 길로 헤기네예.
104019 #1 계난 감저줄도 지금 이제 취테한 데로 소 한 마리 일 년 먹일랴고 허
면 한 사 천 평 오천 평치 고구마 녁쿨을 모아와야 뉘어.
104019 @ 예예.
104019 #1 모아 다그네 한 두 늘 세 늘을 늘어 놔야.
104019 @ 예예.
104019 #1 걸 이제 꺼네명 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 줘야뉘어.
104019 @ 세 번 줘야 되니까예.
104019 #1 아침에 세 번씩. 주곡 또 물 하루 강 또 물 혼 번 가그네 우물곳에 가

그네 물 맥여 와야되고,
 104019 @ 으기 나는 물에 가그네 저기 물 맥영 와신가마씨?
 104019 #1 우리 저 나 키울 떡에는 이제 수돗물이 얼마 안나 그 때는 안나부난,
 이 저기 우물궂가 있었다고 저기,
 104019 @ 우물 무슨 물세이엔 험니까?
 104019 #1 우물, 동네에서 그 때 빨레터,
 104019 @ 아,
 104019 #1 빨레터 물을 맥여났다고,
 104019 @ 응, 거 무슨 물이엔 험니까? 그 물은,
 104019 #1 걸 여기서는 곳인물이엔 허는디,
 104019 @ 곳신물?
 104019 #1 곳인물,
 104019 @ 곳인물,
 104019 #1 곳인물인디 그 빨레터주 빨레터,
 104019 @ 예, 곳인물이에.
 104019 #1 게고 거 빨레터 물을 저,
 104019 @ 그 물을 맥영예.
 104019 #1 비누도 비누도 좀 비눗물도 좀 섞어진 거지만은 소를 먹여왔다고 그
 때,
 104021 @ 응, 인척에 삼촌 그 강 쉼맥여난 추억은 예 아까 고티시난에예.

땃감

104022 @ 삼촌 저기 부엌에 밥해 먹젠 허민 땃 땃 ㄱ슴 잇어야 될거 아넛과예?
 104022 #1 저 보리짚.
 104022 @ 보리짚?
 104022 #1 예.
 104022 #1 보리짚허고 조짚허고,
 104022 @ 예 보리짚허고,
 104022 #1 거 허다그네 옛날에는 걸로 흥쓸 부족허면은 우리시테ㄱ지는 곤노가
 나와벗주.
 104022 @ 예.
 104022 #1 겐디 우리 어머니 시테는 그 보리짚 좃짚이 떨어지면 이제 저 ㄱ이
 강 설피 설피엔 흥거 헤와,
 104022 @ 저 ㄱ이는 어느 쪽엇과?
 104022 #1 큰섬에 큰섬에 강.
 104022 @ 큰섬에 가그네,
 104025 #1 큰섬에 종달리 하도 뭐 헤 월정 행원ㄱ지 월정ㄱ지 갓엇수다. 집집마

다 강 그디 강 방, 가네 잡남덜 잇잖여 그 디 거 빌영 이 이만큼씩 묶영, 묶영 걸
포구에 갖다 노면 여기서 배에서 배가 가그네 실러당 그거 싹꺼당 여기 다 집이 집
집마다 행 늘어놔그네 거 다 찢르면서 걸로 밥 해 먹고, 또 그 이전에는 딱시 그
이전에는 베도 만컨 허민 또 산에 강 잔디, 잔디 헤다그네 거 케당, 겨울에는 잔디
말라버리거든 풀이 엇이 저 푸리지 않고 하얀때 걸 이제 케어그네 털어그네 터럭서
네 이제 잔디가 나와 그걸 혼 짐씩 지영 집이 왕 들렀다그네 불 떼곡,

104022 @ 잔디예. 저 저기서는 저 솔잎 걷으는 식으로 여기는 잔디를 헤그네,

104022 #1 예.

104022 @ 거 들러그네.

104022 #1 예.

104022 @ 뽕아그네.

104022 #1 잔디 잔디.

104022 @ 응,

104024 #1 솔잎도 그 때는이제 해방 돼자마자 나무들 다 비어다 먹어부니까 솔
잎 소낭도 얼마엇어부니까 솔잎도 얼마 없었어 그 때는, 지금 거 솔잎은 저디 강
굵어단에 묶어나그네 또 이디 와그네 단에 뽕곰도 헛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 큰섬에
가서.

104023 @ 소똥 말뚝은 배랑 아 소똥 말뚝은,

104023 #1 소똥 말뚝은 엇어서 저 이저.

104023 @ 굴묵 지드는 거.

104023 #1 첫 채는 굴묵 떼는 거 아궁이 떼는 때만쓰고 또 걸름용으로만 헛주.
불은 안 떼주.

104024 @ 계난 저기 옛날에는 그 한동이나 월정 같은 디 가 가지고 ㄴ에 가 가
지고,

104024 #1 예, 설피.

104024 @ 설피를 행 왕예.

104024 #1 예 설피를 행 왕.

104024 @ 설피예 설피 설피면은 크기는 어느 정도 막 크게 헤신고예? 막.

104024 #1 지금 이 우안음으로 혼 안음 남아 지금,

104024 @ 아,

104024 #1 혼 묶음이,

104024 @ 혼 묶음이에,

104024 #1 길이는 혼 발 이렇게 우리 혼 발 발정도 돼고 거 나무를 그런 식으로
찢라,

104024 @ 예. 그렇게 찢라그네.

104024 #1 예.

104024 @ 둥글러그네 왕예.

104025 #1 그거 잡담덜이주 마이 그저 찝끔 올라 가면 팍짜서 지금도. 꽃자왈 ㄹ
 뜬디 이제 나는 남덜,
 104025 @ 아, 그기 준 남예.
 104025 #1 꽃자왈 ㄹ뜬디 나는 나무덜 잇잖여 그런디.
 104025 @ 음,
 104025 #1 경 허다가 이 전기 곤 저기 석유 곤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젠 다
 석유 곤노로 인젠 데쳐헤부니까 안다니기시작헤연,
 104026 @ 예 솟 솟은 구원,
 104026 #1 솟도 안 구워서,
 104026 @ 솟은예, 식께 때 고기 굽젠 허문 어떻 구워신고예? 생선 굽는 거.
 104026 #1 네가 찝끔 찝끔 만들어 놓은 사름도 잇긴 잇어 그 때 찝랴고,
 104026 @ 으. 경 안 허면은 불치에 구워그네 굽는다든가.
 104026 #1 아, 불치엔 안 굽고 솟을 만들앙, 물 뿌려그네 솟을 만들앗당 걸 잘
 관리 헛당 그거에 이제 씨게 돼면은 종이 ㄹ뜬 거 놔그네 불부찌그네 연결헤그네
 화로에 놔그네 적 걸쳐그네 거기에서 적을 굽기도 헛주게.
 104026 @ 음,
 104026 #1 미릿에 준비를 헤 놔그네.
 104027 @ 음, 거문 삼춘은 거 어머니영 ㄹ찌 텡기명 그 땀곰 허젠 헤난 그런 추
 역같은 거는 옛날 생각.
 104027 #1 네가 이에 오십 삼년도 사 년도에 우리 큰 형님히고 우리 죽어분 형
 님히고 나하고 형님 다섯 설 우에 형님인디 그 형님히고 저 서머리, 땀곰 허레 메
 일 다녀서,
 104022 @ 예, 서머리에,
 104022 #1 그 때 흥 흥년 땀디,
 104022 @ 예.
 104022 #1 그걸로 헤단에 저 헤조류, 가시리 넵페 폰레 이런 건만 메어단에 끓
 여먹어서,
 104022 @ 아, 그거 헤다근예예,
 104022 #1 계난 양식도 없거니와 그 건 땀곰도 없어그네 저 서머리 가그네 지금
 때 단 헤단 허멍,

사냥

104028 @ 이 소섭에는 그 족제비 같은 거 꿩 같은 거 잇인가마씨?
 104028 #1 없어 없어.
 104028 @ 꿩도 엇어?
 104028 #1 지금은 꿩 잇어.
 104028 @ 옛날에는.

104028 #1 옛날에는 죽제비도 없고, 꿩도 엇어 낫는디 꿩이 여기 들어 오기 시작
헌디가 혼 이십년 됴서.

104028 @ 아,

104028 #1 꿩이 일부러 씨를 헤와서 여기 여기 관광지로 헤그네,

104028 @ 꿩 꿩,

104028 #1 게,

104028 @ 예,

104028 #1 어, 게 꿩이 지금 너무 남발 헤영 웨 꿩을 헤왔느냐고 지금 농사짓는
사름들은 원망이라 그 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라.

104028 @ 꿩이 물 건너 못가는 구나예.

104028 #1 못가는 모양이라. 여 여기 여기 꿩이 많이 이서 지금,

104028 @ 아, 게난 어틸 적에는 뭐 이런 사냥은 헤 본적이 엇이큰게예.

104028 #1 사냥은 헤본지가 없고 지금은 여기 이장으로 잇던 죽어 부러지만 우
도에 혼 번 관광지 만들어 보자고 행, 꿩을 멧 마리 갖다 낫는디 그게 이제 막 번
식 뉘어부러서.

104028 @ 예 아이고 경 헛구나예.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 물질 허지 안 헛수과예?

105001 #4 예예.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잇입니까? 물질 허는 일들허고,

105001 #4 저 저 바다에 강 뜯어 오는거.

105001 @ 뜯어 오는거허고,

105001 #4 천초,

105001 #1 천초허고,

105001 #4 예, 소라.

105001 @ 예, 소란 물 속에 들어 간,

105001 #4 천초는 이 삼 월에 허는 거고,

105001 @ 예,

105001 #4 예 소라는 이제 팔 툴 추석에 허는 거고,

105001 @ 예, 경,

105001 #4 또 이제 성게라고 흐는거 잇는거는 혼 동지 셋들에 허는 거 우다게.

105001 @ 아, 성게는 동지,

105001 #1 동지 셋들에 또 흐곡 또 사 오 월에도 허곡,

105001 #4 예 사 오월엔 바빠가지고 안 들고,

105001 #1 예 오 뉴월에 오 뉴월에,
105001 #4 오 뉴월에 허는거.
105001 @ 아,
105001 #1 거 오 뉴월에 비양 ㄱ뜨디 영일동 ㄱ뜨디.
105001 @ 아, 성계는?
105001 #4 예 성계는 원칙으로 허면은 동지 셋 들에 허는 거.
105001 #1 겨울에도 허곡 여름에도 허곡.
105001 #4 겨울에 그거는 철을 슬진 때 혼다고 해서 그 들에 험네께게
105001 @ 예 그 들에 허고.
105001 #4 지금은 막 설 때우다 성계가.
105001 @ 예예.
105001 #4 동지 셋 들에 막 슬쳐 가지고 맞도 잇고 그렇게 흡니다.
105001 @ 예.
105001 #1 산란기가 오뉴월 때가 아주 산란기우다.
105001 @ 예.
105001 #1 그 때가 제일 살찌고 막 머 허난,
105001 @ 예 허는거 흐고 바당에 물건은,
105001 #1 전복은 엇수다.
105001 #4 예 전복은 전복은 머 저 상군덜 오십 데 육십 데 뺏긴 우리 전복 구
경 못 험니다.
105001 @ 맞수다 옛날에 옛날에.
105001 #4 아, 옛날에는 아 전복도 머 하나 두 게 허는 거 우린 전복 많이 안뜨
주만은 혼 육십 데 오십 데는, 혼 세 게도 뜨고 두 게도 뜨고 이렇게 헤낫는디 지
금은 생복씨 지엇수다게.
105001 @ 예 지언예.
105001 #4 가다오다 가끔 이 하나 정도 떼어오는 사람도 잇긴 잇입니께마는 건,
105001 @ 예. 거난 바다에도 남자허는 일 여자허는 일잇인거 아넛과예. 남자허는
일은 그 넙메역도 헤나고 줄줄나시 헤 가지고,
105001 #1 예.
105001 #4 주인 양반이 험니다 넙메역은,
105001 @ 예 그런 거 헤나고 예 고기 낚으는거,
105001 #1 그물에 그물에서 고기 낚아,
105001 @ 그물에서 고기 낚그는 거예.
105001 #1 예.
105001 @ 거곡 저기 주낙이엔 현 것도 한 사 십 년대 이후에 썸 헛텐 허고 예,
105002 @ 듬북 감테는 그 썸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듬 감테도 바당에서,
105002 #1 예.

105002 @ 짤랑 올렸지예.
105002 #1 옛날에야,
105002 @ 테우에,
105002 #1 팔십 년도에서부터 팔십오 년까지 할망하고 나 하고 감테 즈물어나서.
105002 @ 감테 즈물아네예.
105002 #1 에 풍 범선 헤 갖고,
105002 @ 범선,
105002 #1 할망 하고 나 하고 또 우리 친구 하고 해서 헤네 너 이서 감테,
105002 @ 으,
105002 #1 감테 즈물아네 감테 혼 층에 만원씩 헤네 일 년에 혼 백 층씩 허연 혼 뺑만원씩 벌어나서,
105002 @ 어,
105002 #1 할망 하고 나 하고,
105002 @ 어, 그 헐 뎀 범선으로 헤기네예.
105002 #1 예.
105002 @ 거면은 이 바당에,
105002 #1 바당에서 할망이, 감테 즈물젠 물속에 들어가민 이저 줄 줄을 등에 짊어정 들어가.
105002 @ 예.
105002 #4 건 빨리 올라오라고,
105002 #1 감테를 비영,
105002 #4 뎅기 거예요.
105002 #1 비어그네 ㄱ만이 잡앙 잇이민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 이제. 알면은 뎅겨주는거라 뎅겨주면 올라왕으네 감테 안앙 딱시 그걸 우리가 걸 안앙 배더레 놓곡,
105002 @ 아,
105002 #1 또 이제 들어가면,
105002 @ 물속에 들어 가네,
105002 #1 이젠 딱시 들어 갈 뎀 징긋이 들어 가당 네중에 감테 즈물앙 고계영 들 뎀 줄이 흑삭헤여,
105002 @ 예.
105002 #1 썩끔 어지럽고 허영.
105002 @ 거문 확 잡아 뎅영,
105002 #1 아 이거 저 잡앙 머리 들렀구나 그 신호가 나는거라.
105002 @ 아,
105002 #1 게문 뎅겨 올링 토허게 흑곡 걸만 계속 반복허는거라.

105002 @ 예.
105002 #1 경형 그저 바닥으로 흔 흔 백 바닥씩 배에 저 신그곡,
105002 @ 아,
105002 #1 싱글 정도로 막 지금 신겨 오곡 막 한 건 오 메다.
105002 #4 아, 백 발은 안 돼어.
105002 #1 흔 스 메다 오 메다벳긴 안돼여 건 아주 얇은디.
105002 #4 그런 지폰디 강 감테 못 즈물아 읍네께.
105002 #1 지금 더 이상 깊은 디 못 가.
105002 #4 우리 발로 흔 너 발 정도 예예,
105002 @ 아이고예.
105002 #4 이 거 너 발 안 쉐 거우다.
105002 @ 예.
105002 #4 안 쉐니당게.
105002 @ 예 세 발 정도.
105002 #4 이 거 저 남저 발로 두 발 반이나 두 발벳기 안쉐니다. 흔 서 발정도
그 정도 가는 디 이젠 그 디 못 들어 갑니께.
105002 @ 예 게.
105002 #4 이젠 텍도 엇수다.
105002 #1 그 덴 젊은 떼고,
105002 #4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흔 발 반 정도벳기 못들어 갑니다.
105015 #1 할망도 오륙십 데고 그때,
105002 @ 예 게 오십 데 상군 헐 데고,
105002 #4 예 감테 즈물민 그 떼도,
105002 #1 다른 사름은 안 허고,
105002 @ 으,
105002 #1 우리 집 주소 우리만 헛주 우리만 헛어,
105002 @ 아,
105002 #1 우리 몇 흔 두어 사름만 세 사름만,
105002 @ 듬북 허는거는 바당 틀 때 아니고 그냥 우도 사름덜 다.
105002 #4 예, 올르면,
105002 @ 듬북 헐 때 올르면은,
105002 #1 응 올르면,
105002 #4 예 그거는 안 좋아 헐니다게.
105002 @ 응, 허고,
105002 #4 바람 불영 올른 거는 헤 오고,
105002 @ 예.
105002 #4 쟈디 이제는 아니 헐니께.

105002 @ 이제는,
 105002 #1 그 옛날,
 105002 @ 그 옛날에,
 105002 #4 예 옛날에.
 105002 @ 그 옛날에도 배 저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허면은 배 가진 사람허고,
 105002 #4 예.
 105002 @ 그저 듬북 즈물 때도 밀에 가 가지고 넘미역 혈 때나 혈 때도 거 싹
 행 와기네 널영 돌령 배 가진 사름 세 게 가지곡, 그 담 몇 개씩 가지고,
 105002 #4 아니,
 105002 #1 넘미역은 보통 너 이서 험주게. 너 이서,
 105002 @ 응,
 105002 #1 너 이서-,
 105002 @ 응,
 105002 #1 흔 사름은 선장질허고 또 흔 사름은 줄 세 게 놔그네 땡 경허면 배도,
 105002 #4 벤 안 해봐숫다.
 105002 #1 또 서이서 동아리 흐는 수도 잇고 너이 서어,
 105002 @ 응,
 105002 #1 이제 또 저 혼자만 이제 해서 너 이가 작업을 허라고 딱시 빌려주는
 수도 잇고 게민 이제 혼자만 이제 그 투자를 헤기네 배를 만들앙 너 이서 작업 혈
 뻑에는 배 흔 축을 줘주.
 105002 @ 예,
 105002 #1 게민 흔 너이 흐곡 배 흐곡 허민 다섯씩 되는 거.
 105002 @ 예 다섯 싹 갈르는 거예.
 105002 #1 예.
 105002 @ 다섯예, 네 명에서 다섯 명.
 105003 @ 삼춘, 우리는 여기 고동이엔 험니까? 소라를,
 105003 #1 소라 보고.
 105003 #4 사투리는 고동이엔 흐고 이제 험니께 소라,
 105003 #1 고동이엔 흐고,
 105003 #4 이제 궂이 사름들은 오민 소라라고 허고 토백이는,
 105003 #1 토백이는소라엔
 105003 @ 구쟁기엔 흐고예.
 105003 #1 구쟁기엔 구쟁기엔도 흐고,
 105003 #4 구쟁기엔도 여깃 사름은 안 허고 저 궂이 사름만,
 105003 @ 궂이 사름만 흐고,
 105003 #4 저 서춘 사름만 구쟁기 험디다게.
 105003 @ 여기는 고동이엔 흐고예.

105003 #4 예, 이디 고동이엔 하고,
105003 @ 예,
105003 #4 거다 집안마다 이름이 다 틀립디게,
105003 @ 예예. 옛날부터?
105003 #4 나도 서춘 사름이영 영 잠시 잊어봤는다. 구쟁기, 경 허주 여기 시름
은 고동이엔만 험니께.
105003 @ 고동이엔예.
105003 #4 예. 거 사투립주게.
105003 @ 예,
105003 #1 여기 사름도 구쟁기엔 곧는 사름도 잊어서.
105003 @ 응, 옛날에도마씨?
105003 #4 옛날에도 소라엔 안 허고 우리,
105003 @ 고동 잡앙 왓저,
105003 #4 고동 잡으레 가자.
105003 @ 예. 고동 잡으레 가자예.
105003 #4 경 경 헤낫수다게.
105003 @ 예 구쟁기엔 안 허고예?
105003 #4 예,
105003 #1 구쟁기젷이엔도 하고 고동젷이엔도 하는거.
105003 #4 이제도 이제도 젊은 사름도 고동이엔 허주 소라엔 안험니께 이제도
야 오 십 데 스십 데도예 소라엔 안 험니께, 우리 고동 잡으레 가자.
105003 @ 예예.
105003 #4 저 그것이 우리가 나오는 말이우다게.
105003 @ 나오는 말예. 갱이엔 험니까 쟁이엔 험니까?
105003 #1 쟁이?
105003 #4 아, 우리 사투리론 갱이 갱이 하는디 여기서.
105003 #1 게 게 게보고?
105003 @ 예 여기서는.
105003 #1 갱이엔 갱이,
105003 #4 갱이.
105003 @ 갱이예.
105003 #4 갱이라고 험니께.
105003 @ 경 허곡,
105003 #4 예.
105003 @ 고동 하고 고동하고 갱이는 어떻 잡읍니까? 잡을 때.
105003 #1 아 게난 고동 하고 갱이 하고는,
105003 @ 틀리지예?

105003 #1 틀립주게 강이는 굿디서만 썩끔.
105003 #4 아니 소라는 저 고통은 이런 우이 다 얹어지고,
105003 @ 얹어지고,
105003 #4 이것이 이제 다 돌이라고 하면 이 만씩 현 돌 2명에 잇는거고,
105003 @ 예.
105003 #4 강이는 머 그냥 자기데로 막 벌어 텅이는 거기 때문에 강이는 못 잡
웁니다게.
105003 @ 거문 고통은 가그네 영 강 손으로,
105003 #4 예,
105003 @ 영 영 돌트멍에서,
105003 #4 예예 숨이 긴 사름은, 다섯 게도 앓영 나오고,
105003 @ 예.
105003 #4 우리도 숨 썩른 사름은 두 게 세 게도 앓영 나오꼭 이젠 하나도 못
앓영 읍니다 없어 가지꼭.
105003 @ 예, 계민 갱이는 발아다니는 거 확 강 톡,
105003 #1 강이는 저,
105003 #4 강이 잡을 수가 엇수다.
105003 #1 여러 가지.
105003 @ 예.
105003 #4 엇읍니께 여기,
105003 #1 깊은 바다에,
105003 #4 잇당 헉나이나.
105003 #1 사는 강이가 잇고 빨강흔 거,
105003 @ 예.
105003 #4 잇당 헉나이나 잇인다.
105003 #1 거 육상에,
105003 #4 까꾸리나 꼭 좇아 가지고 나옵니께게,
105003 #1 육상에 저 돌 일르면, 돌 속에 사는 강이가 잇고 준 준 흔 거 준 준
흔 거,
105003 @ 아. 깊은 바당에서는 저기,
105003 #1 막 훑은 거.
105003 @ 배로 가그네.
105003 #4 예.
105003 @ 잡는 거고예.
105003 #4 소라도 배로 강 잡아 읍니다게.
105003 #1 여기도 그렇게 또 배로도 없꼭 강이 잡으레,
105003 #4 아니, 이제 배질은 안 헉니다마는 이제 육십 데 오십 데는 자기냥으로

막 나잡니께.

105003 @ 먼 바당에 가그네예.

105003 #4 이제도 흔 망아리씩 잡아옴네다 그 여녕 어린 사름은,

105003 @ 응,

105003 #4 게난 우리는 경 해도 고동 저 이 십 계를 못 잡양 나옵니당게.

105003 @ 응,

105003 #4 이제 가면.

105004 @ 삼춘, 생각나는 고동 이름 한번 곱아줍서, 큰거나 작은거나,

105004 #4 아, 고동이 이름이우다.

105004 @ 거난 작은 거는?

105004 #4 작은 건 구쟁이 아니 작은 거나 큰 거나 저 고동이라고 흡니께,

105004 #1 겐디 이게 막 쌀방구엔도 허곡게, 옛날엔 쓸방구 작은 고동은 쓸방구.

105004 #4 아, 쌀방구.

105004 #1 거 준 거.

105004 @ 쌀방구? 예 고동 준 준 험 거는?

105004 #4 예, 준 준 험 거는 쌀방구라고.

105004 @ 쌀방구? 또.

105004 #4 우리 하르방 잘 알양.

105004 @ 막 큰 거는?

105004 #4 건 고동.

105004 @ 막 큰 것도 고동?

105004 #1 민둥고동, 민둥고동 막 커근에 빨이 없는 거.

105004 #4 민둥고동이엔 헤그네,

105004 #1 빨이 없는 거 빨이 없는 거.

105004 #4 막 이 만큼 흡네께.

105004 #1 예.

105004 #4 그거 웨롭니다게.

105004 #1 빨이 없는 고동이 잇어 .

105004 #4 건 열 계에 하나,

105004 #1 고동이.

105004 #4 쓰무 계에 하나,

105004 #1 오레 불면,

105004 #4 우린 구경도 잘 흐지도 못 허고,

105004 #1 민둥 민둥 고동이엔 흐여 민둥 고동이라.

105004 #4 깊어 가지고,

105004 @ 막 깊이 나이가 많을수록 빨이 죽아지는 구나예.

105004 #4 예예,

105004 #1 계 경 흐는 모양이라.
105004 #4 계 만 만이 저 여녕이 많애 가지고,
105004 #1 나이가 많애 가지고 뿔이 엇이는 모양이라에.
105004 #4 뻗갓디 못 나갑니께.
105004 @ 아,
105004 #4 수심 깊어 가지고 무서와서,
105004 @ 어, 민등고동,
105004 #4 예 민등고동이라고 합니다.
105004 #1 건 며 저 수심이 이십 메다 이상 웬디라야.
105004 @ 예, 민등고동 흐고 그 다음,
105004 #4 쌀방구 흐고,
105004 @ 쌀방구 흐고,
105004 #4 그거뻗기 가릴 수가 엇어,
105004 @ 그냥 고동흐고예.
105004 #4 예.
105005 @ 강이 종류는?
105005 #4 아, 그냥 강이라고 뻗기 우린 아니 불런 낫수다.
105005 #1 강이 말고는 엇어.
105005 @ 강이,
105005 #4 강이 엇입니다 여기.
105005 @ 붉은 강이 저기 물 깊은 디서 나는 거는,
105005 #4 것도 강이라고 험네께게. 왕강이 왕강이라고 험.
105005 @ 왕강이?
105005 #4 예, 왕강이라고 크니까 왕강이라고 허는 겨우다게,
105005 @ 으.
105006 #4 이름이 아니고,
105006 @ 불을 밤중에 불을 싸그네예,
105006 #4 예.
105006 @ 바당에 강 무시거 잡앙 오지 안음니까. 그럴 수도 잇지 았웃과?
105006 #4 그 옛날에는,
105006 @ 불 싸그네,
105006 #4 불을 쌍 가지고 문어를 잡아 왓수다. 계난 사람마다 았고,
105006 #1 문어가 았고 낙지 낙지,
105006 #4 아니 계난 멍게도 잡고 낙지도 잡는디며,
105006 #1 지금도 지금도
105006 #4 보통으론 낙지가 없어서 멍게 잡으레 가는다.
105006 #1 옛날에.

105006 @ 그 옛날에.
105006 #4 예, 바리,
105006 @ 헛바릿과?
105006 #1 예.
105016 @ 헛바리?
105016 #1 헛바리 바리 바리.
105016 @ 바리에.
105006 #4 불 싸그네 가는거.
105006 @ 예.
105006 #1 바릿 잡으레 가자. 왜냐면 보말 잡으레 가는 것도 저 바릿이엔 허고,
또 그런 소라 잡는 것도 바리엔 허곡,
105006 #4 기냥 바릿이엔 안허고 여깃 사름덜은 소라 잡으레 가자.
105006 #1 헛바릿이라고 해서 휘는 머냐면,
105006 #4 저 오분제가 뜨레 가자허멍 헛바리 드는사름은 혼 사름도 엇어.
105006 @ 소라 잡으레? 고동 잡으레 아니고?
105006 #1 띠 띠를 묵은 띠를 무꺼그네,
105006 #4 고동잡으레 가자.
105006 #1 묽엉 불을 부쩍니다게. 그 기름엇일 펜, 경 행 불을 물에 부치는거라.
경 물에 부치는 걸 헛바리렌 험니다. 경 허곡 기름이 많이 나온 후로부떠는 그 기
름에 이제 깡통에 기름은 행 가그네 기름 적지면서 이제,
105006 @ 옛날에는 가젠허민 그거 몇 개 허리에 창가지예?
105006 #1 예예, 헛바리 멧게 창 강 그거 다 웰 떼까지 이저 작업을 허는거라마
쌈. 집이서 만들영으네 가그네.
105007 @ 저기 여기 원 원이엔 헌거 잇수과? 원담?
105007 #1 예게. 원이엔 헌 건 옛날 멀치.
105007 @ 예.
105007 #1 멀치덜 이제 즘 험 펜 잡을 펜,
105007 #4 저 즘 혼 걸 잇수다게.
105007 #1 멀치 헤네 원에서 멜 거리기도 헤수다게.
105007 @ 으,
105007 #1 물 싸 불민 이제 머 헤그네 헨디, 이제는 먼 바당에서 잡아버리기 시
작헌 후론 멀치가 없어,
105007 @ 응,
105007 #4 거 원래,
105007 #1 거 원에 들어 온 멜도 엇수다,
105007 @ 멜 만 잡젠 원을 헤신가마씨?
105007 #1 예게.

105007 @ 원담?

105007 #4 예.

105007 #1 원담이엔 험니까? 갯담이엔 험니까?

105007 #4 예예 원담이엔 험니다.

105007 @ 원담.

105007 #1 멜 멜치랏는다,

105007 @ 응,

105007 #1 곳에 ㄱ뜨디도 보난 문어도 잡고 거기서 딱 딱시 저 다른 망치 ㄱ뜨
것도 거기서 잡고 영허기도 험디다양. 이거 ㄱ에 ㄱ뜨디는,

105007 @ 아, ㄱ에 ㄱ뜨디도 경 허는다, 여기에는,

105007 #1 여기는 순 딸치로,

105007 @ 원에 멜 저기,

105007 #1 예,

105007 @ 고기 들어오는 것이 잇는가마씨?

105007 #4 건 엇입니께.

105007 @ 개엔 안 헤숫과?

105007 #1 어?

105007 @ 개엔도 안 헤숫과?

105007 #1 개엔 안 헤.

105007 @ 개엔 안 허고 그냥 원으로.

105007 #1 개엔헌건 그자 움막 들어간디가 켜테,

105007 @ 예.

105007 #1 이제 원보고 개엔 안 허고,

105007 @ 음,

105007 #4 개엔도 헤낫수다 할망덜은,

105007 #1 개엔도 헤낫어.

105007 #4 개엔도 헤 낫수다 켜디.

105007 #1 켜디 지금은,

105007 #4 그 지금은 그 말 안 험니께.

105007 @ 그 옛날에.

105007 #1 원이라는 존재가 없어,

105007 #4 옛날엔는 그 개라고 헛지, 지금은 개라고 헨 말 안 씩니다게.

105007 @ 응, 개가 배들어 온테를 개엔 허지 았읍니까예.

105007 #1 예.

105007 #4 이렇게 좀 둘레 헌디만 개라고,

105007 #1 배가 드나드는 디를 개엔도 허고,

105008 @ 원은 저기 돌 허물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그네,

105008 #1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 낫는데, 이제는 원이란 존재가 엇수다게.
105008 @ 지금은 말고 옛날에,
105008 #1 그 밑에 생계 ㄴ뜨거,
105008 @ 응,
105008 #1 성계 ㄴ뜨거 잇으니까 성계 잡을라고,
105008 #4 원을 막 판나 부럿수다게.
105008 #1 원에,
105008 #4 이렇게 다와 논거. 성계 깎이 워낙 좋아노니까.
105008 #1 원 그전에 해서 멜도 안들고, 멜도 안들고,
105008 #4 그 힘 잇인 사름덜 간 몬 간 헤크란 성기를 잡안, 돌을,
105008 @ 응,
105008 #4 아, 지금 경 험니께 지금이 옛날 거를,
105008 @ 응.
105008 #4 옛날은 그 원을 다와진양 잇었는디, 작년 오 월 올리 힘이신 여자덜
간 문짝헤네 흐루 흐 망아리씩 헤 노난 어떻 말잇과?
105008 @ 아,
105008 #4 경 험 헤완 이제
105008 #4 판처불어숫게.
105008 @ 판처불언에, 거난 지금말고 옛날에 옛날에는 원이.
105008 #1 예예.
105008 @ 이렇게 막 저기.
105008 #1 예.
105008 #4 다와져 잇어나수다게.
105008 #1 떨치 잡을라고 원을 만들어 잇어나수다.
105008 #4 다와 잇어나수다.
105008 @ 만들고 이제 보수도 해야 텔 거 아닛과?
105008 #1 예, 보수도 헤나고 경 헤,
105008 @ 보수허젠 허민 마을에서 저기 남자 어른덜 가기네,
105008 #4 예,
105008 #1 지금은 이제 원을 원이 필요 없어 이젠,
105008 @ 응,
105008 #1 멜 잡을 이젠 조건이 못 돼어 이젠 멜 멜이 안들어서 가지고 또,
105008 #4 올리 원 막 멩그러네 성기를 오 키로씩 잡으난에 누가 강 거 막읍니
까. 이제 안 잡앙 먹을라고 그냥 네배숫게.
105008 @ 내불엉,
105008 #4 계난양 상군덜 흐 으남은이 간 그 원을 히갓 디벼놔수다 그 원을, 힘
덜토 존 사름덜이우다게. 계난 돈 처 벌엇수게 마 우린 거 불좌지지도 않고,

105008 #1 경 험 우도에는 흥 두 어군넌 잇수다.
105008 @ 응,
105008 #4 원 엇수다 막 뿔싸부난
105008 #1 관광용로 아이 저 뿔쑤원으론,
105008 #4 아이 저디난 모르쿠다.
105008 #1 으 뿔쑤원 그뽏딘 잇어.
105008 #4 우리동넌 엇수다.
105009 @ 뿔은 옛날에 그 원에 들어 온 거를 뿔을 거럿지예.
105009 #1 예.
105009 @ 겐디 그거 거릴 때는 무시거 뿔로 거럿수과?
105009 #1 족바지 족바지.
105009 @ 족바지로,
105009 #1 족바지로,
105009 @ 어, 사들이엔 흥 건 엇어수과?
105009 #1 엇어수다게.
105009 @ 족바지로,
105009 #1 족바지도 흥고 저 사들이엔흥거 양쪽으로 잡아그네 영허는거.
105009 @ 영허는거 사들은 안허고 그냥 족바지로,
105009 #1 족바지도 사들도 멘드는 사름은 멘들아낫수다.
105009 @ 으, 사들 사들이엔 흥 것도 멘드는 사름은 헤난 헤난예.
105009 #1 예 헤난.
105010 @ 이 바닷고기는 어떻 헤기네 낚아 올릴 건고예. 옛날에예, 지금은 머 발 동선으로 강 그물로 흥 허주만은 그 옛날에는,
105010 #4 고기씨도 지 엇엇수다.
105010 #1 옛날에는 보통 갈치, 갈치는 돛단배,
105010 @ 예.
105010 #1 막 달리면서 밤이 강 낚아와낫수다게 지금은 이제 저저저저 머엔 허 나, 어 방어 비습흥 건데, 멩팅구리엔도 허곡 뿔텐 머엔도 흥는건디, 예 그런 걸 이제 돛단배로 달리멍도 이제 낚아나고 또 저립도,
105010 @ 예.
105010 #1 저립도 돛단배로 달리멍도 낚아나고, 또 가만이 배가 정착 흥도 또 이제 줄 풀로 흥도 낚아나고, 저립도,
105010 @ 응, 저립.
105010 #1 예,
105010 @ 예.
105010 #1 그 웨로는 머 저 다른건 그자 주낫으로나 그물로나 잡아싹주, 다른 것도,

105010 @ 주낙이나예.

105010 #1 예.

105010 @ 그 옛날에 그물은 어떻 만들어신고예. 그옛날에 그 백 년 전이.

105010 #1 뽕 년전이는,

105010 @ 증조 증조 하르버지네는 그물을 어떻,

105010 #1 예, 옛날에 뽕 년 전에는 저 그물, 이제 그저 모도리 저저 모도리를
머라허나, 상어,

105010 @ 예.

105010 #1 상어 그물 상어 그물을 찢찢 찢으로,

105010 #4 산디 찢으로 산디 남쟁이,

105010 #1 찢 노로 찢으로 이제 세끼를 꼬아 갖고,

105010 @ 예.

105010 #1 그걸로 이제 그물을 만들앗어 그걸로 이제 상어를 잡앗어. 상어 지느
러미가 요리에 상당이 중국요리에 상당이 비싸게 비싸거든 중국요리에, 그래서 그
걸 지느러미 상어를 많이 잡아네 그 지느러미 풀아네 돈을 번 사람들이 잇어 부자
웁 사람들이 잇어. 옛날에는,

105010 @ 예, 옛날에예.

105010 #1 예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상어 그물은 네네 찢으로,

105010 @ 응,

105010 #1 세끼를 꼬아 갖꼬 이제 그물을 만들앗어 그물을 짜서.

105010 @ 예.

105010 #1 짜네.

105011 @ 거문 그 저립 낚싯대 낚싯줄 낚시 뽕돌이엔 헌거가잇인데예,

105015 #1 예.

105015 @ 그 저립 헐 떼는 저립 낚을 떼는 이거가 낚싯대허고 낚싯줄은 어떻 헤
기네 했을건고예.

105011 #1 저 저립은 저 저립광, 이저 입광 그 이제 딱시 줄 사이에 그이 저립이
니가 아주 썸주마씨.

105011 @ 예.

105011 #1 이가 거치니까 그디 안 단을랴고 췌로 췌줄로 췌줄로 이 정도는 저립
니겍, 이 정도로 허고 알로는 췌,

105011 @ 췌?

105011 #1 췌로 해서.

105011 @ 췌은 어떤 췌로 헤신고,

105011 #1 췌은 이제 일반 명주췌 그든 걸로 헛는데, 멧 겹 헛지 멧겹 천,

105011 @ 아, 멧겹 처그네,

105011 #1 멧 겹천 수십 겹 처네,

105011 @ 아 수십 겹 처그네,
105011 #1 예. 경은 허고 으근레는 또 정수로,
105011 @ 예정수,
105011 #1 정수로,
105011 @ 예.
105011 #1 바꾼지는 얼마 안 뵈 저 해서 이제 정수는 허건디는 혼 이 삼년 안뵈
엇어져벼서 이젠.
105011 @ 예, 낚시대는 어떻 행 와신고 대는,
105011 #1 데는 앓고,
105011 @ 줄로만,
105011 #1 그데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갖고,
105011 @ 예.
105011 #1 이제 살에 놓는거라 그저 줄을,
105011 @ 예, 건 주낙 아넛과예.
105011 #1 예 아니아니 그저 저립 낚으는 뵈도 줄도,
105011 @ 아, 거기에,
105011 #1 예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갖고, 둥그렇게 만들기도 흐곡 네모나게 만
들기도 행,
105011 @ 예.
105011 #1 거기에 빙빙 살에 낚.
105011 @ 예,
105011 #1 경 어느 정도 저 혼 뵈 십 발만 나가그네 헤그네 그거 물어 차가면
이제,
105011 @ 풀게끔,
105011 #1 이제 나가지 같이,
105011 @ 아,
105011 #1 게 이제 나갈만 하민 딱 저으면 따시 저 고기가 돌아가면 또 뵈기곡
또 이제 창나가면 또 이제 저 풀어줬다가 또 뵈기곡 그렇게 흐다 뵈 번 헤가면 지
쳐 지치는 거라. 자기 힘데로,
105011 @ 아,
105011 #1 지쳐그네 낚아 올리고 그렇게 헤나서 지금,
105011 @ 아, 게 상어정도 상어나,
105011 #1 낚아 올리면 어느정도 영 낚양 막 뵈겨왕 가까이 있으면 까꾸리란게
있어 까꾸리,
105011 @ 예.
105011 #1 예 까꾸리로 탁 경 까꾸리로 들어올리는 거지,
105011 @ 그 풍선 헤 가지고예.

105011 #1 예, 풍선행.

105011 @ 예 풍선을 타 가지고, 건디 이거는 큰 거고예. 이 고기는 큰 거고,

105011 #1 예 큰 거고,

105011 @ 고기 잡을 때는 큰고기만 잡아 집니까게 존존훈 고기 잡을 때는,

105011 #1 아, 작은 거는,

105011 @ 선창에서도 이제 낚싯대 해 가지고 잡아야 될 건디,

105011 #1 아, 낚싯대 잡는 고긴 엇어서. 여기서 으근레는 그자 소소히 한치ㄴ쁜
것덜 무시거 소소헌 것덜 그자 저 시기에 뜰앙 그 뭐에 뜰앙에 나오는 거도 있주.

105011 @ 거문 다 범선이 하시큰게예.

105011 #1 그 때는 보통 여기가 개맛이 훈 세 군데 세세군데 잇었는데 그 게 훈
이십 척 뿔주 이십 척.

105011 @ 개맛 훈 개맛에 이십 척?

105011 #1 예. 아니 아니 훈 개맛에 훈 데 으숫척 잇주.

105011 @ 대 으숫 척 그러면 훈 마을에 대으숫척이 잇엇단 거 아넛과예.

105011 #1 우도에 지금 거흐면 스오십 척 뿔주 범선이,

105011 @ 으,

105011 #1 경 현디 저립이라고 낚으는 거는 이 도아리만 해서 어장이 바로 가까
운디만 잇어부니까.

105011 @ 응,

105011 #1 으 동네 흐곡 으 동네만 다넛주.

105011 @ 예.

105011 #1 게고 저 동네는 못 다넛어, 저 거리가 멀어부니까.

105011 @ 거문 저립 헐 때나 상어 헐 때나 뿔들은 안씨신게예.

105011 #1 뿔들은 안 썼어.

105011 @ 췌로 헤시난예.

105011 #1 갈치는 뿔들을 췌주 갈치.

105011 @ 갈치는 예. 그 때 뿔들은 어떻 돌로 헤네,

105011 #1 아니 아니 연철. 연철이엔 현 거 잇어.

105011 @ 연철 안 나올 땐 어떻 해실건고예.

105011 #1 연철이 나왔엇다고 그 때는,

105011 @ 그 옛날에도 연철이.

105011 #1 예.

105011 @ 아, 연철이 돌아매여네.

105011 #1 연철이 나오기 시작 허난, 갈치를 낚으기 시작 현거라 연철이 있으
니까.

105011 @ 옛날에 그 생선은,

105011 #1 연철이 없으면은 그저,

105011 @ 들어가지 안 허주예.
105011 #1 들어 갈 수가 없지.
105011 @ 예. 옥토미.
105011 #1 우리 우리 옥을 떼는 연철이랴는디 그 후에는 몰라 어떤 걸 씻는지 모르크라 그 떼는,
105011 @ 으,
105011 #4 아, 이제 뽕돌허는 거 연철 아닛과?
105011 #1 아, 게메 연철게.
105011 @ 아,
105011 #1 게난 우리 데 으숫 설 그 이전에는 모르크라.
105011 @ 이 전에는예.
105011 #1 이후에는 연철이고,
105011 #4 이제도 저 우리 저 해녀 차는 것도 다 연철 아닛과?
105011 #1 거 연철이주게.
105012 @ 작살로 고기는 어떻 잡을 건고예 작살로,
105012 #1 작살은 물속에 들어 강 영 고기 있으면, 작살 이 거 저 홍아리에 끼왔다 끼와서 가져갔다 이제 꺼네그네 경 헤기네 여기서 고무 늘라기네 잡아얏엉 들어가기네 저 쏘으는 거주게.
105012 @ 쏘아기네, 하영 잡아 집니까.
105012 #4 이디 작살이문 여기 고무줄을 달립니다게, 그러게 고기가 히어다니면 나도 쏘아낫수게게.
105012 @ 예게.
105012 #4 이것이 막 이 꺼장 이제.
105012 #1 우리덜토 젊은 떼 고기 쏘레 다녀낫수다.
105012 #4 우리 많이 쏘아다 먹엇수다게.
105012 #1 우리도 해엄처네,
105012 #4 이것이 막 늘르면, 고기가 2만이 잇이민 착 고무 네 부면 그 고무에 강 맞으면예 나도 이만큼 현 물숫, 멧 게 잡아다 먹어낫수다 젊은 떼, 이제도 잇어 십디다마는양 무서와서 저 작살질 못험니께.
105012 #1 작살은 저 조심허게.
105012 #4 나도 무서와서.
105012 #1 저 사람 몸에 걸려.
105012 #4 나도 막 저저 흔 삼 년 스 년전에는 멧 게 쫓당 먹어수다게. 이만씩 흔 고기,
105012 @ 으,
105012 #4 그렇게 쏘아 낫는디, 지금 올리도 이십디다마는양, 작살질 허기가 겁나서 안험수다게.

105012 @ 겁나그네예.

105012 #4 고기 갖아오자 저.

105012 #1 작살 안 갖어 간 날은 보이고 갖어 간 날은 안보이고 허는거라.

105013 @ 고깃배는 어떤 종류들이 잇을건고예. 고깃배 여기는 범선이엔 헤신디.

105013 #1 여기는 지금 육십 년데 이후 부터는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해연,

105013 @ 예.

105013 #1 나이롱 그물 시작 헛주게.

105013 @ 예.

105013 #1 나이롱 그물.

105013 @ 예.

105013 #1 게 나이롱 그물에 삼마이 그물 헛다가 삼마이 그물은 이젠 흔 몇년
헤 가니까 정부에서 못허게 헤불고 행정에서 못허게 헤불고, 그자 다른 그물만 헤
도 삼마이 그물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고기가 잡혀,

105013 @ 옛날에 고깃배에는예 여기 소섬에,

105013 #1 아니 테우로는 저 나이롱 그물 안허고,

105013 @ 그냥 낚시, 낚싯배 고깃배,

105013 #1 테우로 안허고 낚시질만 허고 옛날에,

105013 @ 테우는 잇어낚숏과?

105013 #1 게 아주 옛날에, 웨정 떼에 감테 조물젠 감테 조물젠 테우를 헤난 모
양이라. 고기 낚으젠 얇고, 또 테우로 자리도 거려난 흑시 거려난 배가 잇일런지 모
를거라.

105013 @ 으,

105013 #1 자리도,

105013 @ 풍선으로도 자리도 거리지 안습니까?

105013 #1 육십년데 낚지도 자리 거리고,

105013 @ 자리 거리젠 허문 그물을,

105013 #1 육십년데 낚지만 헤도예, 이렇게 이제 뿔 만드는 뭐가 이십주. 거기
두 겐데 두 겐을 서로 포게 갖고 그레 영 그물을 언저 갖고 물속에 넣읍주마씨. 놓
양 놔두면 자리가 물 떼에 딸양에 그 그물 우로 물 조류에 따랑 그 그물 우터레 올
라온다고 이제 그물을 막 땡기는 거라.

105013 @ 확인은 수경으로 확인헤그네.

105013 #1 예 수경으로 보아그네.

105013 @ 이 우도에서도,

105013 #1 나도 그렇게 자리 거리명 헤마다 큰돈은 안벌어도 우리 젓같은 헤낫
수다게. 저 우리 나 배에 땡기는 그 사름이 기술이 좀 서투러, 자리를 기술 잇는 사
람이 헤야지 또, 바다에 여, 물 떼를 잘 알아야 돼여.

105013 @ 으,

105013 #1 자리를 잘 거릴려면 첫체는 여를 잘 알아야되고 물 때를 잘 알아야 되고.

105013 @ 으,

105013 #1 물이 어디로 돌아오는거.

105013 @ 거 테우히고 범선히고 풍선히고 옛날에는예.

105013 #1 예.

105013 @ 나중에는,

105013 #1 범선이 풍선이주.

105013 @ 아, 맞아 범 자가 거곡 나중에는 나이롱 그물하고,

105013 #1 예 나이롱 그물이 시작흔디는 그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 흔디는 육십 년데부터 육십 오 년도부터 나오기 시작 헛주게. 그 때부터 발동기도 다 나일롱 그물하고,

105014 @ 여기는 해너엔 험니까 즘너엔 험니까 옛날에.

105014 #1 즘수게 즘수.

105014 @ 옛날에도 즘수엔 해낫수과.

105014 #1 즘너엔도 허고 즘수엔도 허고.

105014 @ 즘너예, 즘너들이 이 바당에서이 저기 이 채취허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잇일진고예. 해산물.

105014 #1 첫체는 아까 그 우묵가사리.

105014 @ 우묵가사리,

105014 #1 예 미미 미역,

105014 @ 예.

105014 #1 어 그 다음에 이제 패류 종류는 소라 오분제기, 고동.

105014 @ 고동예,

105014 #1 응 여기는 고동,

105014 @ 오분제기는 늘 어디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분제기 허고예.

105014 #1 응, 오분제기,

105014 @ 오분제기허고예.

105014 #1 성게.

105014 @ 성게허고,

105014 #1 솜.

105014 @ 솜 음,

105014 #1 게도 성게 그또거,

105014 @ 여기 군소도 나온 나와나신가,

105014 #1 군소도 나오주.

105014 @ 군소도,

105014 #1 겐디 흔허질 아녀 흔헌데가 잇고 즘헌,

105014 @ 옛날에도예.

105014 #1 겐디 군소는 저 돈이 뿔뿔 헝쓸 잡고 경 안허면 안 잡아.

105014 @ 응,

105014 #1 경 흔하지도 았고.

105014 @ 귀엔 험니까 성게엔 험니까.

105014 #1 성게보고 귀엔허주,

105014 @ 귀예? 숨은 그냥 숨이고예.

105014 #1 숨이엔도 헝꼭 밤송이엔도 허꼭 어떤 사름은,

105014 @ 그리고 또 저기 그 다른거 먹는거.

105014 #1 해섬 굴맹이,

105014 @ 예, 청각 청각, 청각이엔 험니까?

105014 #1 청각?

105014 @ 예.

105014 #1 청각도 좀 나긴 나는디 건 이제 썩썩 으동네 썩썩씩 잡꼭 이 동네 썩썩씩 케는디 거는 저 머라야돼여 저 바다밑이 모레판이라야 돼여 청각은 모레가 썩썩 섞어져야 청각이 나 메 돌밭에는 잘 안나,

105014 @ 몸도 허지에 몸예.

105014 #4 예 몸은 이제도 썩니께.

105014 #1 몸도.

105014 @ 예.

105014 #1 몸 나는 돌이 잇어 저것도 돌에 따라 나주 경 씨가 부착 돼는 돌이 잇어 부착 안돼는 디는 안나는게 아니고,

105015 @ 그 막 가는 가늘어그네예 길어기네 허는 실 무시거엔 험게마는 실거리? 실거리엔 험것도,

105014 #4 그 썰거리엔 험거는 엇입니다. 몸뻐기 몸은 겨울나민 헝썩 썩니께 겐디 그돌이 해녀들이 몸나는디 뒤엎어부니까 성게 잡을랴고.

105014 #1 몸 나는 것도.

105014 #4 수확 안남니께.

105014 #1 으동네헝고 으동네헝고 이 우이 두 동네는 안나 몸 다 나는 게 아니라.

105014 @ 아, 돌이 잇어사.

105014 #1 예. 저 돌이 잇어야돼고 그 주위에 몸이 처음에, 그 씨가 나난 주위에 만나지 먼디는 낱지는 안 가거든 지금, 게난 몸 잇는 동네는 이우이 다섯 동네엔 해도 이 양동네 뿐이라.

105014 #4 몸 먹어 납디가.

105014 @ 예게 몸.

105014 #4 목은 몸 잇숫과?

105014 #1 흥쓸 안네어게.
105014 @ 엇숫다 엇숫다.
105014 #4 몬 안네뵘서.
105014 @ 아이고 아이고,
105014 #4 목은 몬 우리 우리가 저.
105014 @ 녀, 음.
105014 #4 목은 몬이사 올 겨울에 현 거라부니까.
105014 @ 아,
105014 #4 견디 그게 소쿠리에 낳으네 뵘면 아 그냥 다 헛상 나갑니까 목은 거
니까. 올 겨울에 현 거우다 셋 덜에 췌거.
105014 @ 아이고 삼춘, 이,
105014 #4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예. 그것이 이제 뵘지뵘다구 딸려가지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메날 먹을 수가 없습주게.
105014 @ 예게.
105014 #4 그냥 저,
105014 @ 그 툷 몬도 허고, 툷도 허고예, 녀페도 허고예,
105014 #4 지금 녀페 씨도 지어수다게.
105014 @ 예, 게난 옛날에,
105014 #4 예.
105014 @ 삼춘네가 할 수 있었던 거,
105014 #4 예.
105014 @ 바당에서 케넨 것들,
105014 #4 예, 녀페도 메어다가 췌앙 국 끓리문 맛잇는디 아, 그게 어떻게 헤서
씨가 짓는지예.
105014 @ 응,
105014 #4 하나 안남니까게.
105014 @ 녀페도 안나고예.
105014 #4 예게 예, 흥 삼스 년 전이는 우리 메어다가 국 끓여 먹엇는디,
105014 @ 응,
105014 #4 지금 하나토 엇십니다.
105014 @ 응,
105014 #4 가다오다 그자 흥 가지 두 가지 거이자 흥 걸로 아념니까.
105014 @ 그 저기 바당에서 나는 것들을 이름을 알아지는데로 곶아저지쿠과, 고
동 저기에 보말이엔 험니까?
105014 #1 보말,
105014 #4 보말.
105014 @ 보말,

105014 #4 예.
105014 @ 보말허고 메옹이고동,
105014 #4 메옹이고동.
105014 #1 또 굽벗,
105014 @ 굽벗,
105014 #4 쟁이.
105014 @ 쟁이.
105014 #4 예.
105014 #1 데오살.
105014 #4 데오살.
105014 @ 예 데오살.
105014 #4 예 데오살이엔 혼 건 돌 꼬명에 이런 돌 꼬명에 꼭꼭 박아집니다게.
105014 @ 뽕쭈 뽕쭈난 것들,
105014 #4 예, 그거 꼬득꼬득 험니다. 꼬실 꼬실허고,
105014 @ 아,
105014 #4 그걸 이제 저 함네께 그건 이제도,
105014 @ 에예.
105014 #4 이 저 작은 망녕이 아덜이, 그 어머니 돌에 깍깍 박아진거 해당 먹으
면은 무릎 안아픈다고 게도 그게 무신 약이 됩스니, 게 앓어당 먹으민 맛입네께 것
도 커셔마씨, 이제 그런 건 많이 이십네께.
105014 @ 음,
105014 #4 그 데오살이엔 혼 건,
105014 @ 데오살예.
105014 #4 굽벗도 하고,
105014 @ 데오살이 이 저기 우도 말잇과? 데오살이? 데오살,
105014 #4 예 우도말이우다게.
105014 @ 우도말이,
105014 #4 예, 데오살.
105014 @ 데오살예.
105014 #4 경 허난에 그걸 해당으녕에 굿이 사름덜은 무릎 아프문 할문니 메날
그거 딸렁 그거 먹으민 존텐 헤렌 헤도 아이 그거 무슨 약이 됩스냐고 해서,
105014 @ 아, 그거 딸렁 먹으면 무릎이 좋텐마씨?
105014 #4 무릎이 아픈 사름이 존넌 헤도 거 고정 안들어집네다게. 하수다게 그
런 거.
105014 @ 으,
105014 #4 과작 또 그거 저 흥파다가 삶아다가 먹으민 맛입네께.
105014 @ 예.

105014 #4 께십니다게.

105014 @ 예예.

105014 #4 겐디 그걸 흘 시간도 엇고게. 또 걸 약으로도 생각 아녀고,

105014 @ 으, 돈 되는 물에 들어 강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웨니까예,

105014 #4 그런 거 안헙니다. 노는 사름이나 허주 막 이제도 와서, 저 우리동네
에 엇이민 지네 동네 엇인 사름은 막 흥파 갑네께. 그걸 왕,

105001 @ 응,

105001 #4 아, 머허자고 영 흥팡시니허문 아이고 삼춘 이걸 먹으면 맛있어, 맛있
어 허명 흥파갑니다 저 우뭇게사름들은 여기 와 가지고,

105001 @ 응, 예.

105001 #4 건 예 아무뎡 사름 헤 가도 욱 아넘니께.

105001 @ 대오살 뽕쭈뽕쭈헌 거. 부처 같은거를.

105001 #4 꼬슬 꼬슬 흥여 영 헤여.

105001 @ 뽕쭈뽕쭈헌 거예.

105001 #4 까릿 까릿 이파리는 헙니께.

105001 @ 예예.

105015 @ 삼춘, 그 즘 물질 허젠 허문예,

105015 #4 예.

105015 @ 필요한 것들이 잇인디예 무신것들이 필요헙니까? 물웃 필요하고, 수정
필요허고,

105015 #4 수정허고 고무웃 뵈기 필요엇어.

105015 @ 고무웃허고,

105015 #4 예, 그 것 뵈기 필요엇입니다.

105015 @ 허리에 차는 거허고,

105015 #4 뽕들,

105015 @ 뽕들허고,

105015 #4 예.

105015 @ 망사리허고.

105015 #4 망사리허고 그거우다게.

105015 @ 테왁,

105015 #4 테왁허고,

105015 @ 테왁에 망사리?

105015 #4 테왁에 돌아메는 거 망사리.

105015 @ 망사리 허고,

105015 #1 예.

105015 @ 또 큰망사리 죽은 망사리, 문어허젠 허면은,

105015 #4 아 저 문어야 머,

105015 @ 잡아지면 헐거.
105015 #4 잡아지면 허면 까꾸리로 헤가지고,
105015 @ 담아 놓는 거.
105015 #4 저 까꾸리로 꿩망아리에 들이쳐도 돼는 거고,
105015 @ 예,
105015 #4 그 건 메날 잡는 게 아니고,
105015 @ 계난 으기 쪼끄만 허게 저기 큰망사리 말고 쪽은 망사리,
105015 #4 거 아녘니까.
105015 @ 아녘니까?
105015 #4 우미 즈물 때 만약에 문어가 봐지민, 저 까꾸리 잇인 사름은 잡아다가 우미 망아리에 들이치곡,
105015 @ 으,
105015 #4 그렇지 앓은 사름은 까꾸리 잇인 사름은 문어 네벼등 뎅깁니다게.
105015 @ 음,
105015 #4 까꾸리 잇이 멀로 잡읍니까.
105015 @ 비창,
105015 #4 비창은 우린 안헉니까 상군들은 행 뎅깁니다 이제도,
105015 @ 계난 젊은 때,
105015 #4 예.
105015 @ 비창,
105015 #4 젊은 뎨 비창 헤낫수다.
105015 @ 비창허고,
105015 #4 까꾸리 굴책이허고,
105015 @ 굴책이허고,
105015 #4 예, 굴책이허고,
105015 #1 이거 행군 거주마는양.
105015 #4 이 거 묵은 몹이우다 올리,
105015 #1 잘 물린 거난 맛십니다 이거.
105015 #4 겨울에 뼈다구 딸리문 맛입니까게.
105015 @ 예.
105015 #4 두 게에 쌍와사 아주머니 하나 아저씨 하나 앓앙 같거.
105015 @ 우리 혼 집이우다.
105015 #4 혼 집잇과?
105015 @ 예.
105015 #4 게메 부부로구나예.
105015 @ 예.
105015 #4 부부민 똬수다게.

105015 @ 거문 쏘살,
 105015 #4 예.
 105015 @ 쏘살은 옛날도 필요 했고예.
 105015 #4 쏘살은 우린 쏘살ㄴ라 저.
 105015 #1 작살ㄴ라 쏘살이엔 허주게.
 105015 @ 예.
 105015 #4 작살보고 쏘살이엔 허는디 작살.
 105015 @ 물에 들젠 허문 옛날에 속같은거,
 105015 #4 밀 막읍니께 밀,
 105015 @ 밀,
 105015 #4 예.
 105015 @ 밀로 막아그네.
 105015 #4 그걸로 이제 찰흙 사다가 이제 만듭니께. 밀이 없으니까.
 105015 @ 예.
 105015 #1 껌 껌으로, 껌으로 헤기네,
 105015 #4 껌허고 찰흙허고 헛거 가지고 우리 이제 그거 막읍니께.
 105015 @ 응. 옛날에는 속 헤 가지고,
 105015 #4 응, 그거 안 막으민 우리 물에,
 105015 #1 옛날에는 멋과,
 105015 #4 혼 발도 못 들어갔어.
 105015 #1 저저 벌,
 105015 @ 예.
 105015 #1 벌통 벌에서도 저 밀,
 105015 @ 밀,
 105015 #1 밀 만들어 나지 안 해서게 벌에서게.
 105015 #4 청쭈시로,
 105015 @ 청쭈시,
 105015 #1 벌통 청쭈시로,
 105015 @ 예 청쭈시.
 105015 #4 이젠 찰흙이 나부니까.
 105015 #1 벌통 쭈시로.
 105015 #4 그거 필요 엇수다게.
 105015 @ 으,
 105015 #4 찰흙 상점에 가민 그거 사고 또 그 밀을 만듭니께.
 105015 @ 밀을 만들앙 예,
 105015 #4 이제도 우리 컷고망에 막읍니다 안 막는 사람도 잇고 막는 사람도 잇고 험니께.

105015 @ 으, 쑥도,
 105015 #4 쑥으로는 밀을 안헙니께.
 105015 #1 쑥로는 머냐허면 눈 싯끄젠 눈,
 105015 @ 아, 눈 싯끄젠,
 105015 #1 눈 영 싯끄면은 눈이 뭍아 쑥으로 우리 어린 뎨,
 105015 @ 예.
 105015 #4 쑥으론 못막읍니다 물 들어 갑니다 쑥으로,
 105015 #1 눈 눈 싯끄젠 눈 싯끄젠,
 105015 @ 눈 싯끄젠,
 105015 #4 아, 눈 싯끄젠 이제도 헙니께.
 105015 #1 예,
 105015 @ 예, 이제도예.
 105015 #4 이제도 쑥을 행 강 그걸로 땀으면 환허고, 걸로 안 땀으면 캄캄 헙니
 께.
 105015 @ 그 지금은 물웃은 잇이난 고무웃 잇이난 허는디 그 옛날에 고무웃 엇
 일 때 육십 년대 험 때는,
 105015 #1 솟곳,
 105015 @ 속웃 입고,
 105015 #4 예.
 105015 #1 뎨 뎨웃,
 105015 @ 예 저기,
 105015 #1 속곳입으민 거뎨,
 105015 #4 물수건 쓰고,
 105015 @ 물수건 쓰고 속곳 입고,
 105015 #4 예, 그 건만 험낫수다,
 105015 #1 돈 잇는 사름은 이거 행 줌 입데,
 105015 @ 우에 적삼입고.
 105015 #4 저 서춘더레는 이 물 웃을 입는디 우리 동쪽에는, 이제 고무웃 나고험
 헤도 그 전 몇 년전에도 물 웃을 안 입어낫수다 서춘들 사름덜 뱃기,
 105015 @ 아,
 105015 #4 서춘 사름덜은예, 뎨 년이 아니고 이제도 저 경북 강 보민, 그 물싸쓸
 입읍니께,
 105015 @ 물 사쓰예.
 105015 #4 예 물싸쓸 입는디 이디 사름덜은 이 동촌 사름덜은 안 입어마씨.
 105015 @ 그 고무웃 나오기 전에,
 105015 #4 예.
 105015 @ 전에 입은 거 소중 저기,

105015 #4 예, 속곳이라고 험니께
 105015 @ 속곳이라고, 이기 떠허고.
 105015 #4 예,
 105015 @ 여기 해 가지고,
 105015 #4 예.
 105015 @ 여기 단추 옆에 험거예.
 105015 #4 예.
 105015 @ 솟곳 입고예.
 105015 #4 이제 솟곳 안 입을니께.
 105015 @ 예, 이젠 안 입고 그 옛날에 속곳 입었지예.
 105015 #4 그 옛날은 그거 다 험 입엇수다.
 105015 @ 물수건 허고,
 105015 #4 또,
 105015 @ 눈 써기네예.
 105015 #4 예.
 105015 @ 눈도 작은 눈도 잇고 큰눈도 잇지예.
 105015 #4 큰 눈도 잇고,
 105015 @ 삼춘 눈은 저기 어디다 어디가 어디 가기네 맞춰다기네 험납디가?
 105015 #4 여기 상점 출렁,
 105015 #1 점방에도,
 105015 #4 상점에 가민 이제 사 온 것들 잇수다게.
 105015 @ 지금 말고 옛날에,
 105015 #4 옛날에도,
 105015 @ 그 옛날에,
 105015 #4 상점에 놔수다게 상점에 이시니까 그걸 찌거 아잇과.
 105015 #1 아주 옛날에 여기 눈 멘드는 사름도 잇어났어 옛날에는,
 105015 @ 아, 눈 멘드는 사람예.
 105015 #1 예, 아주 옛날에는,
 105015 @ 아주 옛날에,
 105015 #1 예. 이제 점방에서 흐주만 여기서 옛날 계국장시네 집이 무신 저,
 105015 #4 예, 눈 헤나서,
 105015 #1 하르방도 눈 멘들고 머흐고 그디장,
 105015 #4 그 몇 년 뒤신디,
 105015 #1 게메 저 그 때 오십 년데,
 105015 @ 예, 오십 년대,
 105015 #1 스십년데,
 105015 @ 으,

105015 #1 오십 년데,
105015 #4 이제 눈 벌러지면 중앙에 상점에 가면 사웁니다.
105015 @ 지금은 경 헨디 그 옛날에,
105015 #1 그 옛날에는,
105015 @ 만드는 사람 잇언예,
105015 #4 그 옛날엔 쁘로 만들어 가지고,
105015 @ 예.
105015 #1 예, 우도에서 눈 만드는 사람이 잇언예.
105015 #4 쁘로 만들어 가지고
105015 @ 쁘로 만들양 예.
105015 #4 씨낫수다게,
105015 @ 눈에 맞게예.
105015 #4 예, 이녀 얼굴에 맞추와 가지고.
105015 @ 얼굴에 맞게예.
105015 #4 얼굴에 맞추와 가지고 썻는디,
105015 @ 응,
105015 #4 지금은 얼굴에 맞추는 사람이 엇입니다.
105015 @ 그 때는 눈 저기 놓는 광도 잇어나지 안헤수과.
105015 #4 예, 잇어나수다.
105015 #1 예, 눈 광 잇어나서,
105015 @ 눈광예.
105015 #4 예.
105015 @ 예, 눈광 헤 가지고예.
105015 #4 그렇게 쁘수다게.
105015 @ 으,
105015 #4 몇 년 전에,
105016 @ 그 이제 물질 허는 거 옛날 지금 물질허고 옛날 물질 허고,
105016 #4 예.
105016 @ 그 저기 비교 한번 해봅서. 옛날 어떻게 썻나과?
105016 #4 비교라는 거는, 옛날에는 고무옷도 없고 이런 물옷만 입어 가지고 저 허는디 시간 시간,
105016 @ 물속에 들어간 시간.
105016 #4 시간 상으로,
105016 #1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5016 #4 세 시간을 못 살안 나왔는디.
105016 @ 응,
105016 #4 지금은 며 일고 으듭시간 삽니다예.

105015 @ 예 일고 으둡 시간을,
105015 #4 예 일고 으둡 시간을 사는디, 지금은 우리 여녕 먹으니까 혼 세 시간
정도 살양 빼끼 못나옵니다게.
105016 #1 옛날에 혼 삼십 분 아이민 혼 시간이라서 옛날엔 속옷만 입을 뎌, 뎌
뎌 몸으로 들어 갈 뎌, 막 힘이 존 사름은 혼 시간,
105016 #4 두 시간 깃장은 삼니다게.
105016 #1 또 그 아닌 사름은 삼십 분, 혼 시간 경 뵈기 못 살아.
105016 @ 지금 거문 물에 들영 일고 여덱 시간 물에 들영 살젠 허민,
105016 #4 예.
105016 @ 배고프민 어떻 험니까.
105016 #4 그 사람,
105016 @ 주먹밥 같은거 만들양 가는가마씨.
105016 #4 아니 아무것도 안 먹읍니다게. 우리 동네 우리는 며 두 시간 저 살
양 나오주마는 오십데 육십데 그것도 이제 상중군 잇수다 상중군있어,
105016 @ 응,
105016 #4 상 줘는예, 그냥 먹지도 앓고 해도야 오십 키로씩 잡양 납니께 소
라, 막 먼디 나갑니께,
105016 @ 응 먼디 가그네예.
105016 #4 배로 갈 정도로 나가는디 우리 그딘 못갑니께.
105016 @ 예. 거난 그 옛날에 험 뎌 혼 삼십 분 한 시간 저 물,
105016 #1 헤 낮는데,
105016 #4 예.
105016 @ 물옷 입어그네 뵈과 소중이 입영 나가면은,
105016 #1 예.
105016 @ 추우면은 불턱에 와그네 불 쪼거 아닛과?
105016 #4 예, 불 췌수다.
105016 #1 불 췌그네 예,
105016 #4 남 주어다가.
105016 @ 남 주워다가.
105016 #1 나무 집이서 또 나무도 갖영 가야돼여.
105016 @ 갖영 가그네예.
105016 #4 갖영도 가고 또 부납허면 부족허면,
105016 #1 부족허면 그 주워엿 거 좃어다가.
105016 #4 주워도 와서 저,
105016 @ 응, 그 때는 혼 대여섯 명이 ㄱ치 불 췌수과? 아니면,
105016 #4 열도 앓곡 으둡도 앓곡 불턱 그 찌리찌리 앓읍니께 여녕 많은 사름
또,

105016 @ 많은 사람.
105016 #4 짧은 사람,
105016 #1 상군끼리 중군끼리.
105016 #4 그렇게 해녀질을 많이 집집마다 허니까 허주만은.
105016 @ 허니깐예.
105016 #4 지금은 예 해녀 집집마다 엿수다게.
105016 @ 예.
105016 #4 이제 혼,
105016 @ 거문 그 때 옛날에 저기 삼춘 뜰내어 봄서마는 불턱에서 서로 막 회의
도 허고, 물건 값 어떻 허는 것도 허곡,
105016 #4 아이고 갯긋이서,
105016 #1 이런 저런 말 많이 협주.
105016 @ 이런 저런 말들,
105016 #4 이런 저런 말 농담도 허곡,
105016 @ 농담도 허고,
105016 #4 예, 잔말을 허는디,
105016 #1 동네 일어나는 말,
105016 #4 지금은 웨이를 불러고허면 회장을 협네께 회장,
105016 @ 으,
105016 #4 잠수회장 게민 그 집이 모여 말을,
105016 @ 허지예.
105016 #4 역사를 뛰어줍니께. 게민 그런가 봅니다게.
105016 @ 그 때는 상군이 저기 제일 우두머리가 될 건가마씨?
105016 #4 예, 그 때나 지금이라도.
105016 @ 그 옛날에도,
105016 #4 그 지금이나 저 이제나 그 때나 상군 잇입니께게,
105016 @ 상군이 헤그네 상군이 지도자도 해녀 대표,
105016 #4 예.
105016 @ 회장이엔 헤나신가마씨? 그 옛날에,
105016 #4 예. 그 중에서도 물질 잘 허는 사름으로 회장허고 또 좀 머리가 좋고
글을안 사람도 회장도 허고 영 해낫수다마는,
105016 @ 음,
105016 #4 저 우리도 저 회장 즈격도 엿인디 막 츠레메기로 헤야웬텐 해낫수다
게.
105016 @ 예,
105016 #1 이 할망도 혼 헤 혼 번 저 해녀회장 해낫주.
105016 @ 예,

105016 #1 돌아가명 의무적으로,
105016 @ 응,
105016 #4 예 해 낫수다마는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없고 지금은 젊은 세대가 허는 때문에.
105016 #1 회장 허문 봉사적으로 해야 되고 춤 괴롭주마썸게.
105015 @ 으,
105016 #1 이것저것 통솔을 허곡 마음을 조정 흘려고 허면 괴로우니까 안헐라고 허여,
105016 @ 응,
105016 #1 큰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5016 @ 예.
105016 #4 게게 동네,
105016 #1 의무적으로 헤여 돌아가면서 헝는 거기 때문에.
105016 #4 그 며, 일 볼 떼헝는 거기 때문에,
105017 @ 이 즘녀들이예 물웃이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소중이만 입고,
105017 #4 예예.
105017 @ 수건 입었고 그 다음에 한 칠십 년대 후반부터는 고무옷덜 나완에 입었고,
105017 #4 예. 고무옷 나온 후젠 이 가호마다 편리헝게 살압수다게.
105017 @ 예.
105017 #4 예를 들어 가지고 오만 원 벌어 올디 사오십 만원 버니까 어떻게마썸,
105017 #1 돈 버는 차이만 잇지, 시간상 물질은 거이 비슷헤여마썸. 시간상으로 비슷헤,
105017 #4 아, 시간상으로는 우리 ㄱ튼 여녕 많이 먹은 사름은 이녀 즘신이 없으면 나는 거고,
105017 #1 아니, 게도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엇입니께.
105017 #4 따로 이제 힘이 이신 사름은 어둑두룩 살아도 누게 말리는 사름도 없고.
105017 #1 물건도 많이 없고,
105017 #4 즘유우다 즘유 시간은,
105017 @ 응, 옛날은 추워그네,
105017 #4 예.
105018 #1 그런데 천초ㄱ튼 거 흘 떼는 통제힙네다.
105018 @ 으,
105018 #1 부락장이,
105018 @ 예.
105018 #1 가서 어 흘 시간이,

105018 #4 세 시간씩은 물에
105018 #1 세 시간만 허자. 헤어그네 고동을 불고,
105018 @ 툷 허문예 그 천초가 이제 나올 건디예, 툷은 개인으로 험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툷 바당 탁 터그네 저 공동으로 험니까.
105018 #4 저 천초 즈물 떼마씨?
105018 @ 툷, 툷,
105018 #4 아, 툷 험 떼는,
105018 @ 예.
105018 #4 우리 하르방이 잘 암니께마는,
105018 @ 응,
105018 #4 가호마다 집집마다 험 사름이 험 집이 한 사람,
105018 @ 한 사람씩 공동으로 험 떼는예.
105018 #4 예, 공동으로 예 공동으로,
105018 @ 공동으로 험고 개인은 안 험니까?
105018 #4 개인은 안 험니다.
105018 @ 안 험고예,
105018 #4 공동으로는,
105019 @ 천초는?
105019 #4 천초는 개인으로 험고,
105019 @ 천초는 공동으로 안 험고 개인험고예,
105019 #4 예 개인으로 험고,
105020 @ 그리고 전복험고 고동은?
105020 #4 그것도 다 개인으로 험니다게.
105020 @ 개인으로 험고예.
105020 #4 예.
105020 @ 아, 고동도 개인으로 험니까.
105020 #4 예예.
105020 @ 모든 바당 탁 터기네,
105020 #1 예.
105020 #4 예, 탁 터 놓면은,
105020 @ 툷 때 시기만 툷고,
105020 #1 예, 날짜.
105020 @ 개인으로 험고,
105020 #4 개인으로 허민 엄청나게 버음니께게.
105020 @ 예 개인으로예.
105020#4 오십 데 육십 데는,
105021 @ 그 전복험고 고동에,

105021 #4 예.

105021 @ 암전복하고 숫전복이 잇인데예.

105021 #4 예,

105021 @ 암고동 허고 숫코동 잇인데 그거,

105021 #4 그거 고동은 저 분세 못흡니께.

105021 @ 아 고동은 분,

105021 #1 암커 숫커 구별 못 헤여,

105021 구별 못 헤여,

105021 @ 구별 못 헤여마씨?

105021 #4 예 전복은 아는디,

105021 @ 응,

105021 #4 전복은 수커 암커 아는디 소라는 몰라마씨.

105021 @ 수커를 숫빰이엔 험니까?

105021 #4 거 모르곡.

105021 #1 숫전복 암전복이엔 헤여.

105021 @ 아, 숫전복 암전복?

105021 #4 숫전복 암전복이엔 험네께게.

105021 @ 숫전복호고 암전복은,

105021 #4 꺾뻑으로 암네께게.

105021 @ 꺾뻑이 어떻 험니까?

105021 #4 숫전복은 양 움막호고 스랑, 이렇게 스랑 흐는디 암전복은 이렇게 넙
 짹,

105021 @ 넙시렁, 넙짹험니까?

105021 #4 예. 납짹허우다,

105021 @ 예, 납짹헤기네예.

105021 #4 겐디 숫전복이 웨롭니다게.

105021 @ 예.

105021 #4 암전복은 쉬웁고 아 우리는 머 늙어부니까 점복 못 톱니다마는 젊은
 사람 터 오민 암전복은 터 오주 숫전복은,

105021 @ 으,

105021 #4 잘 잇는생이라마씨.

105021 @ 암점복 틀 때는 어느 물에 암전복이 터 지는고예?

105021 #1 한 이십 메다 깊이 들어가야.

105021 @ 이십 메다?

105021 #4 그건 저 그 전복이라는 건 이제도 궂빰디도 잇입니께.

105021 #1 잇다가,

105021 #4 잇주마는 이제는 전복이 웨로와가지고 흐 조금에 흐나 트는 사람 잇

입네다게 멧 조금에 그 날 운이 좋으면은 오십 데 육십 데 떼는 터 읍니께 이제도,
 105021 @ 음,
 105021 #4 하나 터와도,
 105021 @ 그 옛날에,
 105021 #4 그 옛날엔 아이고 그 옛날엔 말 헐 수가 엇수다게. 많이 터 읍니께 으
 라 게,
 105021 @ 거난 삼촌네그 옛날에,
 105021 #4 다섯 마리도 터 오고,
 105021 @ 예.
 105021 #4 세 마리도 터 오고 두 마리도 터 오고 혼 마리도 못 헉는 사름도 잇
 고,
 105021 @ 못 헐 때도 잇고예.
 105021 #4 예.
 105021 @ 운에 따라 가지고예.
 105021 #4 예.
 105021 #1 게고 그리고 머정이 잇는 사름이.
 105021 #4 우리 전복 못 터 나숫다. 잘허민 가다오다 춤 일 년에 혼 두 번이주.
 105021 @ 아 삼촌은 원래 젊은 때도 전복 못 터 낚디가?
 105021 #1 못 터 낚주.
 105021 #4 못 터 낚수다 수심 지폰딜 못가니까.
 105021 #1 수심 지폰딜 못가.
 105021 @ 아,
 105021 #4 이건 수심 지폰딜 가야 헤 읍네께게.
 105021 @ 아, 예.
 105021 #4 게난 그것도 머정이라고 허는디,
 105021 #1 우리 할망은 넙메역 즈물레도 못 가낚수다게. 상군 아니라부난,
 105021 #4 수심 지폰디 못갑네께게.
 105021 #1 상군덜른 넙메역 즈물도 가는디 넙메역 즈무는 가는 사름이 상군이우
 다게. 넙메역,
 105021 @ 예, 십오 메타 이십 메타에 들어가니까예.
 105021 #1 예.
 105021 #1 나 발로 혼 일고 으둑 발 뿔거,
 105021 #4 난 혼티 시집 온 후에 넙메역 즈물레 못 가봤수다게.
 105021 #4 예 나 못 즈뭍니께 넙메역,
 105021 @ 으,
 105022 @ 테우에 대해서 한 번 곶아취봅서. 테우, 삼촌.
 105022 #1 테우?

105022 @ 예.

105022 #1 테우논게,

105022 @ 테우는 그냥지예?

105022 #1 예게,

105022 @ 테우로 녀미역 해납디가?

105022 #1 아이 해낫수다. 우리 이전에 웨정 때, 테우가. 육십년 오십년테 이후엔 테우엔 헌배가 엇어낫수다.

105022 @ 테우 탕은 예 옛말 듣기로,

105022 #1 예.

105022 @ 테우 탕 어디까지 가 낫덴 말 들어 난적 엇수과?

105022 #1 엇수다 그런 말 엇수다.

105022 @ 테우 탕 막 어디로 터 낫덴,

105022 #1 옛날 우리 증조할망 말론 우리 으, 우리 당할망 말로 우리 증조하르방 마 중간 동생 잇엇는디, 저 화투를 잘 헤신 7라 화투허당 동네 그 화투 돈 꾸어준 사름이 돈만 네 노렌허난, 날씬 불고 강 저 불락이나 뉘으고 그 할망 그 사람 귀흙 이나 허젠 나갓단에 풍과 만난, 불런 브름에 불런 어디 간 죽엇젠 경 굴습디다 우리 할망이,

105022 @ 아, 오지 못허고,

105022 #1 예 경 허난 우리 할망은 우리집안 사람들은 어디 강 호투허영 안 웬다.

105022 @ 으,

105022 #1 옛날 조상이허난 안 웬덴 허멍 우리 당 오춘이 화투치레 뎡겨가난에 우리 당할망이 그런 옛말 곱아난 적이 잇수다.

105023 @ 그, 범선예.

105023 #1 예.

105023 @ 범선에 대해서 아는데로 한 번 곱아줘 봅서. 삼춘은 범선은 타낫지예.

105023 #1 풍선이여게.

105023 @ 예, 풍선 허면은,

105023 #1 풍선이 그 길이가,

105023 @ 예.

105023 #1 쓰물다섯 자 짜리 배도 잇고 또 쓰무 자 짜리 배도 잇고 배 크기를 잣수로 따집네다.

105023 @ 자수로예.

105023 #1 예.

105023 #1 또 막 큰 건 서른다섯 자 짜리도 잇고,

105023 @ 예.

105023 #1 또 삼테 받이엔 딱시 혼 오십 자 스십 자도 잇고,

105023 @ 아, 삼데 받아는 배가,
 105023 #1 예, 삼데 자치로,
 105023 @ 예.
 105023 #1 삼데 받아는 돛이 세 계.
 105024 @ 예, 돛은 뭇로 만드는데.
 105024 #1 돛은 저 광목 옛날에,
 105024 @ 광목으로예.
 105024 #1 예. 광목으로 만들고 저 무지엔 흔 거 잇수다. 광목보단 머 무지엔 흔
 것도 있어,
 105024 @ 무지마씨?
 105024 #1 예예 특수흔 기지라 그 건,
 105024 @ 아,
 105024 #1 그런 기지로 만든 돛 만드는 만들엉 허는 배 저 돛 만드는 배도 잇어
 낫수다. 고아목에 물 안들이고 기지가,
 105024 #4 흰차 해낫수
 105024 #1 광목보다는 좀 든든 해낫수다. 뚜껍고 무지엔 헨 그와 ㄴ찌,
 105024 @ 아, 광목은 옛날에 무명 만든 걸로 저기 해낫수와 아니면은,
 105024 #1 무명으로 좀 행 아녀고 광목으로 이 많이 해수다.
 105024 @ 예 광목은 기계에서 나온 거 광목 아닛과?
 105024 #1 예 돛 천 돛천예.
 105024 @ 아,
 105024 #4 화가 너븐 거고 미녕이렌 흔 거는 쥌고,
 105024 @ 노는? 노는 안써나신가마씨?
 105024 #1 무사마씨 뉘 세 노 세 썩 놔야됩니다.
 105024 @ 경 허난에 이물 이사공아 저물 저사공아,
 105024 #1 예게.
 105024 @ 아, 고물 고사공아, 그런 말이 이게.
 105024 #1 예예 경 허난 이제 브름 자그네 돛을 이용 못 흘 뎌,
 105024 @ 예.
 105024 #1 뉘 뉘 세 계나 놔그네 뉘 데는가 세 군데라숫게,
 105024 @ 아.
 105024 #1 세 군데 놔그네 젓어그네 배가 이동을 흔는거라.
 105024 @ 배가 나가그네, 거문 배를 움직이지 안허게 딱 정 이 고정시경 허젠허
 민은,
 105024 #1 닳닷,
 105024 @ 닳을 내려야 되큰게예.
 105024 #1 예. 쉼로 만든 닳이 잇엇수다 지금.

105024 @ 예. 췌로도 허고 돌로도 된,
105024 #1 돌로 허는 건 보통으로 저 돌로 허면 약해그네,
105024 @ 들어쳐,
105024 #1 땅에 부뜨질 못헤여,
105024 @ 아,
105024 #1 게 배가 꺾어내려 브람에
105024 @ 으,
105024 #1 겐데 췌로 현 것은 딱 박아지면,
105024 @ 박아저그네.
105024 #1 박이지는 힘으로,
105024 @ 그문 그 췌를예 묶으는 거.
105024 #1 예.
105024 @ 췌에,
105024 #1 옛날에는 산디짚.
105024 @ 산디짚?
105024 #1 옛날에 산디짚으로 이제 닻을 만들기도하고 그 후에 신사라.
105024 @ 신사라?
105024 #1 예, 신사락이엔 혼 거 잇엇수다.
105024 @ 예.
105024 #1 신사라로 이제 저 닻을 만들야그네 저 로프엔 혼 거,
105024 @ 예. 지금은 로프엔 혼 거가 잇고예. 처음에는,
105024 #1 칩도 헤낫수다.
105024 @ 예, 칩,
105024 #1 예 칩도 저 이제 곳에 가그네 어디 강 뭐 혼 사름덜은 이 곳에 강 결
에 잇는 사름들은,
105024 @ 으,
105024 #1 곳에 강 칩 구헤당.
105024 @ 칩 구헤다그네,
105024 #1 칩 칩으로도 이제 닻을 멘들아 낫수다.
105024 @ 아, 새는 빨리 영 끊어져 부니까예?
105024 #1 예예 세 좀 칩 보다는,
105024 @ 남총남이넌 현 말 들어봐나,
105024 #1 남총도 마찬가지로다 남총남도 여기 짝끔씩 잇어낫수다.
105024 @ 짝끔씩 잇어낫수과?
105024 #1 예.
105024 @ 그거가 막 질기지 안읍니까?
105024 #1 예 질깁주마씨 그게 신사락보다 더 질깁주.

105024 @ 신사락보다 더 질겨그네예. 근데 낭이 낭이 흔허질 아니헤네예.
105024 #1 예 질기지 아니 헤납주마씨.
105024 @ 거 제배 헤난 사람이 엇어수다. 흔허게,
105024 @ 거 돛대의 부분명칭에 대해 곴아봅서 앞에 잇는거.
105024 #1 앞에 잇는 건 야웃데,
105024 @ 야웃데,
105024 #1 또 이 뒤에 잇는 큰 건 허럿데,
105024 @ 허럿데, 뒤에 큰 거는.
105024 #1 야웃데,
105024 @ 예 그 다음 돛이 그거고,
105024 #1 예.
105024 @ 돛 배 전체 앞머리는 뭐엔 험니까?
105024 #1 이물,
105024 @ 이물.
105024 #1 뒤에는 고물,
105024 @ 뒤에는 고물.
105024 #1 예.
105024 @ 거난 이물 이사공아 저 찌기,
105024 #1 예예, 이물에 잇인 사름은 이사공 저 이사공이고,
105024 @ 예.
105024 #1 고물에 잇인 사름은 고사공이고,
105024 @ 그 다음 노는?
105024 #1 예?
105024 @ 노는?
105024 #1 하네가 잇고 젓걸이가 잇엇수다게.
105024 @ 하네허고,
105024 #1 예.
105024 @ 젓걸이허고,
105024 #1 예 젓걸이에.
105024 @ 하네는?
105024 #1 하네는 바로 치 치 엠에 잇는 걸 하네엔 흐고,
105024 @ 하네엔 흐고예.
105024 #1 양쪽,
105024 @ 예.
105024 #1 파악에 잇어그네 잇는 건 이제 젓걸이엔 헤낫수다.
105024 @ 그 다음엔 앓으는 거. 이 경 헤도 저기 이 판데기에 앓아그네 노를 저
어야 될 거 아넛과예

105024 #1 판떼기에 앓질 아녀고 저 그 후다덜, 감빵덜이 잇어수다 후다덜,
105024 #4 배 과락에 앓아 낫수다게. 겐디 그 멘길아 나진 안헤수다 배는, 우리
도 그 배에 앓아 낫숫게마는,
105024 #1 이 저 배 넹 엇일 떼는,
105024 @ 이름 이름,
105024 #1 다 사야 웹주마씀, 앓지 안헙니다.
105024 @ 다 사그네예.
105024 #1 예, 노젓젠 허문 다 사그네 노젓는거주.
105024 #4 예.
105024 #1 노방이 잇어 노방이,
105024 @ 노방이?
105024 #1 예, 노방이라는 건 넹에 영 길이 잇어 거기에 끈 끈 걸리는 몽클 잇어
몽클, 몽클에 걸여그네 밑에 노방에 헤그네, 거에 걸렁 그거에 기준이웬 그걸로 맞
게시리헤그네 밑엇당 멩겅당 헙주마씨, 넹쫘이 잇어 넹쫘,
105024 @ 에 넹쫘예.
105024 #1 그 고망에 끼와그네,
105024 @ 구멍에 끼와그네,
105024 #1 예예 그 구멍으로 갓다왔다 허고,
105024 @ 예 경 흐고.
105024 #1 넷단지.
105024 @ 넷 단지마씨?
105024 #1 예 넹 끼우는거 이제 넹에도 나뭇데기를 붓집니다.
105024 @ 예.
105024 #1 단지를 헐랴고 허면, 구멍 파는디 구멍 파는게 구멍파는 그것이 별도로
으맏게 삼각형으로 으만이 헤그네 넹에 부찌는거라, 게 넷단지엔 헤서 넷단지,
든든헌 나무로 달아지지 않게시리 든든헌 마무로 예, 넹축 아, 넷입 넷입, 예 물에
들어가는 건 넷입,
105024 @ 넷입 아,
105024 #1 아, 멩얼 잇는 건 끈 돌리는 건 몽클이엔 허고양, 거 썩썩허게 나온
건 으 이제 딱시 넹 멩 들어 가는 건 넷단지 네 단지, 넹넹단지,
105024 @ 넹단지,
105024 #1 노단지 노단지 노단지주 노노,
105024 @ 아 예.
105024 #1 노엔 헤십주게.
105024 @ 예 노단지 허고, 거문 키도 방향을 하는 건 뭇로 헤신고예.
105024 #1 으 노로도 방향을 조정 헙주마씨,
105024 @ 노로도 방향을 조정흐고,

105024 #1 예 켄디 하네는,
 105024 @ 예.
 105024 #1 방향 조정헛기가 쉬운데 첫걸이는,
 105024 @ 하네는,
 105024 #1 방향 조정헛기가 힘들어,
 105024 @ 하네는,
 105024 #1 예 양쪽에 이제 걸러부니까. 하네는 걸리는 데가 잇는데 거 양쪽구역
 이 없는데 첫걸이는 구역이 잇다 거 파락에,
 105024 @ 예.
 105024 #1 거 파락에 .
 105024 @ 예.
 105024 #1 파락에 걸러그네 줌 저 조정을예, 하늘 췌는 멀리서 영 그걸 움직여
 줘야 그 방향이 조정 췌는데,
 105024 @ 으,
 105024 #1 저 첫걸이는 조정헛기가 힘들어마씨.
 105024 @ 그 배에 허민은 물이 들어 올거 아닛과예.
 105024 #1 예.
 105024 @ 그 물을 막 거려놔야 될 거 아닛가예.
 105024 #1 아니우다게.
 105024 @ 배 물 안 들어갑니까?
 105024 #1 물 안 들어 갑니다게.
 105024 @ 거 물 안 들어가게 어떻 만들어 신고예?
 105024 #1 양, 아 저 나무와 나무끼리,
 105024 @ 예,
 105024 #1 이게 다 접촉 시기면은,
 105024 @ 접촉 시경예 그 뜨명에,
 105024 #1 나무가 또 물이 차가면 더 힘이 저 불어나그네.
 105024 @ 불어나그네예.
 105024 #1 더 저 머 헛거든 구멍이 안생기는 거라.
 105024 #4 뺑끼 메겨수게게 칠을.
 105024 @ 아니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범선에,
 105024 #1 아니 게메,
 105024 #4 칠 메겨그네 물 안들어가게,
 105024 #1 경 혼 간에 알로 칠 메겨부리면 더 이제,
 105024 @ 그 옛날에도 뺑끼 칠 헤신가마씨?
 105024 #4 칠칠,
 105024 #1 칠이엔 혼 거 칠,

105024 @ 칠?

105024 #1 예.

105024 #4 예-.

105024 #1 지금보다 좀 약헌 겹주. 지금보다,
105024 @ 칠은 어떻 헉는 칠인고예.

105024 #4 칠이란 꺼멍흔 거.

105024 #1 페인트 우다 페인트 종류우다게.

105024 @ 화학 저기 사다그네 화학,
105024 #1 페인트 종륄데 으 옛날에 ㄱ뜨면은 이제 기름, 기름에서 조금 강흔거
강흔 부분이란 모양이라. 예 칠이란 게예.

105024 @ 아, 기름 뭐 동백기름이라든가 그런 거,
105024 #1 아니아니 이저 이저 나오는거 석유 종류에서.

105024 #4 석유주유소,
105024 #1 게 아주 옛날에는 이제 웨정 이후에는 기름이 흔허게 나오기 전에는
그 칠이 엇어실거우다.

105024 @ 거문 배가 엇어시쿠다. 그 옛날에예.

105024 #1 야?

105024 @ 배가 엇어시크라,
105024 #1 아, 배가 잇어도.

105024 @ 막 큰 배나 뭐뭐 기술적으로 안만들면은, 아니면 테우로만,
105024 #1 엇수다 배가 나오기 시작 혼 디는 한 천구벙년도 부터 배가,
105024 @ 예. 천구벙년부터,
105024 #1 배가 범선이 나오라십주,
105024 @ 그 전이는 테우로,
105024 #1 예, 저거 이제 일본사람들이 와네, 저 배를 이제 보급 시겨실거우다.

105024 @ 우도에도 배 만드는 사람은 잇어신가마씨?
105024 #1 예, 목수가 이제 혼 열 사름 이상 잇어수다.

105024 @ 아,
105024 #1 육십 년테에는, 육십 년테에는 열 사름 웨여,
105024 @ 게민 냥을 헤다그네예.
105024 #1 예. 나무 ㄱ이 육지 강 사다그네 지금 배를 지어그네 영업적으로 푸는
사름도 잇엇고,
105024 @ 예.
105024 #1 배를 지어주는 사름도 잇어나고예.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데맹이, 데가리
201002	대가리	데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골
201005	제비초리	제비세 풀리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쫘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럭지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땅다	답다
201014	비녀	낭저
201015	고수머리	뽕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가르메
201019	이마	이명이
201020	넓다[廣]	넙다
201021	이마빼기	임뎡이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놋바닥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얼굴
201026	그리다[寫]	그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셋숫데
201028	씻다[洗]	시치다
201029	거울	멩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볼타가리
201032	뺨따귀	볼타가리

201033	때리다[打]	딱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타가리
201036	불거리	특지기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지개
201039	주름살	주름쌀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눈
201042	검은자위	검은눈
201043	눈꺼풀	눈꺼풀
201044	거적눈	눈뚜께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검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세
201049	수침(垂針)	푸린줄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까롭다
201052	눈곱	눈겉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
201055	눈웃음	눈우심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마루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구녕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닥따
201064	콧수염	콧수염
201065	인중	입마루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씨다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달
201072	입술	입술
201073	헐다[毀]	헛사지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근다
201076	입방아	입방에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허풍치다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呑]	느리다.
201081	가래침	가래침
201082	뱉다[吐]	맞다
201083	느침	늘치름
201084	턱받이	톡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따끄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이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든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오금니빨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오다
201098	옥물다	조금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귀	귀불락
201105	귓볼	귓자락
201106	귓구멍	귓구녕

201107	귀칭(고막)	귓구멍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홍푸기
201110	가는귀	막은귀
201111	귀밑	귀턱
201112	구레나룻	턱수염
201113	목	야가목
201114	굽다[顛]	훅다
201115	모가지	야가지
201116	먹살	목아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목뒤
201119	꼭뒤	목뒤
201120	뒷덜미	뒷목

상체

201121	어깨	웃дук지
201122	어깨뼈	дук뼈
201123	어깨죽지	듯짱
201124	겨드랑이	젯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따시
201127	새기다[刻]	세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дук술
201131	팔꿈치	폴꼭꿈이
201132	팔목(=손목)	손목
201133	뼈	뼈
201134	뼈다귀	뼈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웬쪽손
201137	오른손	늑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손잡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심
201145	할퀴다	극다
201146	손가락	손꼬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꼬락
201148	검지손가락	간주에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키다리 손꼬락
201150	약손가락	노노에기
201151	새끼손가락	귀호에기
201152	손살	손거름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위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고고리
201160	젓명얼	젓명얼
201161	짜다[攢]	빠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벧뜨롱
201167	옆구리	윤가심
201168	갈비뼈	윤갈리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망머리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걸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줄기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ㄴ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잠지폐기
201188 궁둥이뼈 엉치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 ㄴ냥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가뻘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살툼
201195 가래뚝 정가지 명을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무릎팍
201201 무릎뼈 정구지뼈
201202 뼈다[脛] ㄴ똥끄다
201203 정강이 정구지
201204 정강뼈 쟁쟁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주실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귀마리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나쁘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모가지

201214	겹질리다	고무끄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꼬락 곳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럽다
201220	간지럼	근지름
201221	발가락	발까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발까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까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중발까락
201221-4	넷째발가락	하발까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까락

201222	발살	발가락세
201223	까치눈	발가락 거름
201224	티눈	퀴눈
201225	고린내	발냄세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세염
201229	허파	숨통
201230	마음	므옴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작은베설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벳기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서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기쁘다
202004	입덧	긋게설다
202005	낳다[媿]	낳다
202006	태(胎)	애기붓
202007	탓줄	베뜨롱줄
202008	나이	여녕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차이
202011	갓난아이	물에기
202012	싸다[包]	꼴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엿저지	애기엿게
201019	폼다	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레다
202026	지린내	찌렁네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붓딛적삼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지성귀
202032	포대기	뜨데기
202033	보자기	포데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베끼다
202037	쳐네	뜨데기

202038	띠	걸렁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튼 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줌줌
202041	곤지곤지	연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선다선다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짹짹
202045	부라부라	들락들락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루다
202048	곤두박질	느리치다
202049	곤두서다	곤두서다
202050	가동가동	들씩들씩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청에고개
202054	흥내	슁
202055	흥내질하다	승보다
202056	엄살	요망시럽다
202057	쌈	긱인척하다
202058	자라다[成長]	크다
202059	부아	화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므음
202062	밉다[憎]	긱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공기치기
202066	딱지치기	떼기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곱을락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밥허멍 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94	줄목	모나기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갱이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페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들다
202100	편벽하다	펜들다
202101	팽이치기	헝이치기
202102	팽이	헝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드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수리테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달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가운데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브름구멍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풍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실패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사금파리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
202120	밑신개	*
202121	굴렁쇠	웨들리기
202122	구르다[轉]	굴리다
202123	썰매	미끄럼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키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지드깨트기
202130	기지개하다	기지개하다
202131	경기하다	정정하다
202132	놀라다[驚]	노레다
202133	졸음	즘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선즘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잠
202138	자다[眠]	즘부찌다
202139	잠꼬대	즘꼬대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캐틀레기
202145	딸꾹질	틀국지
202146	재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벗헛쟁이
202148	방귀	방구, 똥소리
202149	방귀뀌다	방구뀌다
202150	방귀장이	방구쟁이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그곳네
202153	사레들다	슬에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기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엷다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머릿허물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웁	웁
202165	버짐	버짐
202166	마른버짐	마른버즘
202167	진버짐	물버즘
202168	주근깨	주근깨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다
202174	굳은살	굳은슬
202175	부스럼	*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종지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물나다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예옥
202182	고장물	물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고완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기
202190	소경	눈 어둡은 봉사
202191	칭맹과니	*
202192	먼산바라기	눈 멀어진 사람
202193	애꾸눈이	웨눈
202194	사팔뜨기	사팔뜨기
202195	다래끼	다래끼
202195-1		계집
202195-2		돌릿
202196	언칭이	청부
202197	외언칭이	*
202198	쌍언칭이	*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
202201	병어리	말모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이
202203	혀짤배기	세쫄레기
202204	입비뿔이	입토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허풍쟁이
202207	곰배팔이	폴병신
202208	곰사등이	곰세
202209	절뚝발이	잘룩발이
202210	얇은뱅이	다리얇은 사람
202211	문둥이	문둥이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버	느네아방
203004	어미	느네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 갓, 두가시, 두 부체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스나이자식
203012-1	큰아들	못이

203012-1	큰아들	장남, 큰아들, 못이
203012-2	둘째아들	차남, 둘째
203012-3	셋째아들	셋째 놈
203012-4	막내아들	작은 놈, 말젓놈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 아들
203012-6	둘째아들	둘째 놈
203012-7	셋째아들	세 번째 놈
203012-8	넷째아들	네 번째 놈
203012-9	막내아들	다섯 놈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우리아들
203014	의붓아들	다심 아들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오누이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가족
203021	어비딸	애세끼
203022	어비아들	애비 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따
203024	어이딸	애세끼
203025	어이아들	애세끼
203026	만이	못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누이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성님, 언니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독자, 웨아들,
203034	외딸	무남독녀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가리다
203037	같다[如]	닮다, 잘그리다
203038	양자	양자, 양제
203038-1		양제 데리다
203038-2		데리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흐루, 일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203045	권당	퀼당
203045-1		퀼당
203045-2		집안
203046	얹은잔치	*
203046-1	암창개	*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느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아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장모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동네삼촌, 동네어른
203056	아주버니	시아버니
203057	아주머니	삼촌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어르신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정ㅎ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골골하다
203064	거동하다	오몽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가
203072	외척	웨가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 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 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삼촌
203084	이모부	이모부, 삼촌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웨할망
203088	넋손자	손자
203088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계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계모, 다슴어멍
203095	웁딸	비룬딸
203096	누구	눔
203097	남[他]	므른사람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 ㄹ 심
204002	끓다	쫄른다
204003	명주	맹지, 비단
204004	명주실	맹지썰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세미녕
204010	엿새무명	읏세미녕
204011	생목	생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삼,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
204018	숨틀	소게틀
204019	숨틀집	멘타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올메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남
204028	산뽕나무	산뽕남
204029	오디	뽕남올메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방망이
204032	펴다	폐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머끔
204035	물거품	머끔
204036	빨랫돌	팡돌
204037	빨랫방망이	세답막게
204038	빨랫바구니	질구덕, 흘구덕
204039	헝구다	헝구다, 보세다
204040	빨랫줄	빨랫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왕데막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것다
204045	바래다[褪]	발다
204046	헝겊	헌벽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헌벽조가리

복식

204049	바지	바지, 굴중이
204050	바짓가랑이	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마
204053	치맛자락	치멧단
204054	풀치마	두름치마
204055	옷고름	저고리곰
204056	옷깃	깃
204057	옷섶	섶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벌므작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밋부리
204062	중의	훗중이
204063	갈중의	갈중이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두르마기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쟁이, 속곳
204069	토시	토시
204070	누더기	주운옷
204071	거지	동년바치
204072	구두쇠	구두쇠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끈
204075	주머니	주머니
204076	호주머니	겻쌈
204077	넣다[入]	찌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불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코쟁이

204079	길목버선	털버선
204080	버선발	멘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훗
204084	겹옷	접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얹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깃
204091	홀이불	훗칭
204092	겹이불	접이불
204093	사이	새
204094	누비이불	끌레이불
204095	이불보	포
204096	보풀	부습

204097	홀청	꺼풀,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끼레이불
204103	방석	방석, 자부동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니
204107	베갯머리	베갯모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머리
204109	목침	낭베개, 목침
204110	삿갓	테페랭이
204111	패랭이	모자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털모자
204114	밀짚모자	밀짚패랭이
204115	미사리	초신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판총박이	*
204119	미투리	메투리, 미초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나막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트다	벌러지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남
204126	문수	뭉
204127	부채	부채
204128	미선	등근부채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놓 상지
204131	가위	ㄴ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손골미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실꾸리
204136	실패	골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졸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줍다, 준다
204143	실밥	썰밥
204144	접다	접다, 줍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즈봉틀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관	윤디관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얹는 얹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땀다[渴水]	쫄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밥
205012	반지기	반제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룽밥
205016	늘은밥	강밥
205017	더운밥	뜨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페밥
205019-2	파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보
205021	밥술	숟가락
205022	밥알	밥알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晚]	뜨다
205025	이르다[早]	제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칸네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건데기
205036	국물	궁물
205037	굶다[飢]	굶다, 켈식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팟죽
205042	섞다[混合]	섞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시레기죽
205045	깨죽	쾌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김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김치
205051	무김치	무수김치
205052	열무김치	애기늑물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막김치
205055	갓김치	동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근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곰
205064	소금버캐	소곰덩어리
205065	소금장수	소곰장수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보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숫주늑물
205071	무나물	무수체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체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순
205075	썬다[切]	క్క다
205076	곳[場所]	밧
205077	고비	*
205078	미나리	민네기

205079	부추	정구지,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추치
205082	푸성귀	푸습세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
205087	만물	촛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
205090	원두막	*
205091	갯잎	퀘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가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즉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잘 늙은 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잎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창지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흰떡
205109	백설기	흰설기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고속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시
205119	칼국수	칼국시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수제비
205122	푼다[淡]	알루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붕지	*
205127	과줄	과일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베기
205133	붓다[注]	비다
205134	기울다[傾]	주올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춘
205138	엮다	엮다
205139	술고래	술고래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심부름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키다
205146	갑시다	꼭끼다
205147	지짐이	지지미
205148	누름적	지지미
205149	산적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문
205152	불때다	부찌다
205153	불등걸	물망굴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지비
205156	내[煙氣]	네
205157	낮다[低]	놋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술아궁이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다
205164	부뚜막	덕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췌숫
205169	끓다[沸]	켄물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다그리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밑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부삽
205177	군손	군일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래
205180	부지깻이	부짓뎡이
205181	짚방석	줄깨방석
205182	성냥	불각
205183	성냥개비	불각살
205184	성냥갑	불각
205185	부시	부들

205186	부싷돌	부싷돌
205187	부싷깃	미불
205188	부시쌈지	주맹기
205189	부시통	부시통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솔	솔카지, 솔각
205192	호롱	호야등
205193	남포등	남포등
205194	접싷불	접싷불, 상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
205199	뜬숯	숯
205200	숯검정	숯검맹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칸네, 탄네
205203	불태우다	캐우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봉당
205210	화룻불	화리불
205211	불찌다	불찌다
205212	화상(火傷)	데다
205213	부손	*
205214	부젓가락	화리저뽀
205215	다리쇠	시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지세
205217-2		춤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뿌리
205224	담배통	담뱃곽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털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빈
205232	주발	사발
205233	사발	국그릇
205234	뚜껑	가짓깡이
205235	접시	쟁반
205236	굽달이	쟁반
205237	대접	테사발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종제기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통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짓물
205246	도시락	세오리차반지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작박
205250	박	콧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콧박
205253	쪽박	박세기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밀	시리
205260	시룻번	시리고냥
205261	정그레	바드랭이
205262	함지박	남박
205263	바구니	도구리
205264	소쿠리	구덕, 차롱
205265	대[竹]	수룻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수리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룻대	*
205270	굳은대	왕대
205271	무른대	*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돔베칼
205277	식칼	정제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씬돌
205282	날카롭다	지늘세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쭈세미
205289	떡살	본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공깃데, 흥깃께
205292	소줏고리	짓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만들다
205294	풍로	풍귀
205295	삼발이	시발쉐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신작로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헌집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흙집
206009	돌집	기와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웨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간
206016	결채	정지거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리먹다
206024	마구간	*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디딜광
206026-1	부출	나무광
206027	기척	*
206028	맞서다[拮]	마주기다
206029	냄새	냄세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늘
206036	짚가리	보리짚늘
206036-1	출늘	쉐출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늘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지
206042	엮다[編]	엮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브름막이
206044	디딤돌	광돌
206045	난간	뿔마루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상방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리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창오지
206052	얇다	얇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단장
206054	큰방	큰방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부엌방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帚]	밧자락
206064	밧자루[柄]	밧자락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멧기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벽장
206070	시렁	*
206071	선반	*반
206072	헛대	*
206073	도배	도배
206074	귀알	*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부엌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ㅎ다
206081	안뒤꼇	뒷우영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함섯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인다
206086	평고대	거왕데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맛기슭	집가지
206089	낙숫물	짓우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춘흑
206093	찰흙	진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흑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浹]	흑달루다, 이긴다
206098	산자(撒子)	서실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푹기둥
206101	뒗기둥	포기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용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
206110	외(椽)	서실
206111	인방	포
206112	문설주	문지둥
206113	문곶도리	웃지방
206114	문얼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문머리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갯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곰
206125	구멍	창구멍, 문구멍
206126	미닫이	미닫이

206127	여단이	여단이
206128	살문	창살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풍지
206132	돌쩌귀	걸짜
206133	암틀쩌귀	암걸짜
206134	수틀쩌귀	숫걸짜
206135	문고리	걸장, 걸쇄
206136	배목	걸쇄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셋데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서랍, 빼단이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툽
206146	거도	거도
206147	틀툽	큰툽
206148	툽밥	툽밥 ㄹ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손도끼
206151	노루발장도리	손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지럿데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막깨
206158	대괘	대괘
206159	개탕대괘	홈베기대괘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다

206162	곶자	곶은자
206163	떡통	떡통
206164	떡줄	떡실
206165	떡칼	떡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
206168	나무흙손	흑
206169	흙받기	판데기
206170	돌물레	돌물레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스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명에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밭들랭이
207006	병작(並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 나간 나무	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곤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버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앗저
207010	겨리	*
207011	벗밥	병덩이
207012	곰방메	곰방메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이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판
207017	거웃	판
207018	극쟁이	쟁이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계밭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번지
207021	쟁이	쟁이
207022	곡쟁이	벤줄레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렁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
207027	거름	거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앗, 종자
207030	알씨	씨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멩테
207034	꿈계	끄서기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돌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불매기
207041	세벌매기	식불매기
207042	가다[去]	간다
207042-1		가게
207043	호미	골쟁이
207044	홍아기	검질메는 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품, 품삿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골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호미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뜸못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호미등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날

207053	베다[刈]	빈다
207054	새괘기	미쟁이
207055	새끼	줄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밧줄
207061	짐바	세끼줄
207062	질빵	베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쉼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질메앞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질메뒤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가리석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가리석줄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가리석대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줄

207067 멍에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궤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한줄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줄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게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뻘)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베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작대기

207069	바지개	지개
207070	밭채	바작
207071	물지개	물지개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삭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클테
207076	벼훑이	홀트기
207077	그네	홀테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테작질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식은 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숨돌릴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죽록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끼말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호랭이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쭉정이	줄랭이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꼴왓
207089	꼴꾼	출꾼
207090	꼴단	단
207091	신다[載]	신다

207092	마차	마차
207093	북두	쉐앗베, 드레기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명석
207097	체	체, 거름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ㄴ는체
207099	끓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ㄴ는체
207101	챗바퀴	챗명
207102	챗다리	챗드리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체질
207106	까불다	푼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보름드레기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뒤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짐쟁이뒤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모말
207116	가웃	반
207117	끓다[不充滿]	끓다
207118	고무래	군데
207119	불당그래	굴목군데
207120	떡등구미	멕, 텅이
207121	가마니	멕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극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데

207127	거두다[收]	ㄱ실하다
207128	게으름	간세하다
207129	노라리	한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리롱하다
207133	밟다	밟다
207134	까끄라기	ㄱ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리곡메기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쌀우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주냉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릿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깜부기	깜부기
207143	귀리	데오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밭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슌다
207149	조이삭	고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코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밭
207162	밭벼쌀	산디쌀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ㄹ레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짜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짜	윗돌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짜	아랫돌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ㄹ렛구멍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ㄹ레손

- 207165 멧방석 멧방석
- 207166 매함지 ㄷㄹ리
- 207167 풀멧돌 *
- 207168 풀매 *
- 207169 썰기 *
- 207170 방아 방에
-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 207171-1 세콜방에
- 207171-2 네콜방에
- 207171-3 *
- 207172 방아확 돌혹
- 207173 방앗간 방엿간
- 207174 붓비다 차다
- 207175 방앗공이 절구
- 207176 남방아 남방에
- 207177 연자매 물 ㄹ레, 물 ㄹ랑
- 207178 방앗돌 물 ㄹ랑방돌
- 207179 연자멧간 물 ㄹ랑방엿간
- 207180 절구 *
- 207181 절곳공이 *
- 207182 빵다 굴다
- 207183 누 니
- 207184 고르다[擇] 고르다
- 207185 씹다[嚙] 씹다
- 207186 겨 체
- 207187 콩 콩
-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콩지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데, 콩데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두부
207194	두붓물	두붓물
207195	뜨겁다	떼불다
207196	비지	비지, 쭈시
207197	찌꺼기	건지
207198	완두	완두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돔비
207201	팥	팥
207202	팥알	팥알맹이, 팥방울
207203	팥밥	팥밥
207204	녹두	녹두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들깨
207207	참기름	참기름
207208	깻묵	팻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모를
207211	메밀밭	모를밭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채
207214	메밀국수	모를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를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메밀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를떡
207218	메밀묵	묵
207219	무르다[軟]	익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빼떼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곱데산이,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데
207225-2	마늘밀	마농뿌리
207225-3	마늘종	마농쥬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시
207227	파	파, 페마농
207227-1	파밑동	페마농빨리
207228	무	무수 늬삐
207229	무청	이파리
207230	시래기	*
207231	장다리무	쥬
207232	열무	*
207233	배추	베추늬물
207234	고갱이(배추)	베추속
207235	나물	늬물
207236	채소	늬물
207237	겉대	거폴
207238	다듬다	툏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강녕이
207240-1	옥수수	강녕이
207241	수수	데축
207242	쌀수수	데축찰
207243	비목수수	데축수수
207244	사탕수수	세당데
207245	수수깡	데축데, 수수데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즘수
207247	물길	물길
207248	물옷	속옷, 고무옷
207249	물안경[水鏡]	눈, 수경, 물수경
207249-1		큰눈
207249-2		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죽바지, 다마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돛단배, 범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앞강판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고물간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벋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돛대줄
207263	활대	활대
207264	외대박이	웨돛
207264-1	두 대박이	쌍돛
207264-2	세대박이	삼대바지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가잇네
207267	상책(노착)	노착, 네착
207268	노잎(노깃)	노
207269	노앞	함판
207270	노뒤	노뒤
207271	노손	몽고지
207272	눗구멍	눗구멍, 눗단지
207273	눗쭈	네쭈
207274	닢	닢
207275	닢가지	닢가지
207276	닢줄	닢줄
207277	닢들	닢들
207278	닢걸이	닢코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킷구멍
207281	키잡이	치쩍이
207282	강다리	풍선선장
207283	상앗대	사올짜
207284	떼[浮筏]	테우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동네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이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개촌
207293	마을가다	므슬간다
207294	밤마을	밤고녕이
207295	가게	상점
207296	구멍가게	ㄱ망가게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우스리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빛	빛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새끼난다, 벨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대장간
207313	풀무	풀미
207314	손풀무	풍노
207315	모루	모루
207316	모루채	메루채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엮다
207322	사냥	사냥
207323	사냥개	사냥개
207324	사냥꾼	*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잡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올가미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갖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네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여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여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여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뒤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세 말, 서 말
208005-4	(4/너, 녀)	흔 말,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흔 말 흔 돼	다섯말
208005-6	(6/엿)	흔 말 두 돼	여섯, 으섯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 두개	흔 두돼	흔 두말
208006-2	(2-3/두세)	두 세개	두 세돼	두 세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너돼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너돼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네다섯개	네댓돼	너댓말
208006-6	(5-6/대여섯)	대여섯개	대여섯돼	대여섯말
208006-7	(6-7/예닐곱)	여섯일곱개	예닐곱돼	예닐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 으덟개	일고으덟돼	일고으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덟아홉개	으덟아홉돼	으덟아홉말

208007 여남은 예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한조리
 208011 발[單位] 흔 발
 208012 밟다 밟고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서른자, 쓰물다섯
208014-2	명주	
208014-3	광목	서른자
208014-4	베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300평
 208016 뭇 단
 208017 묶다[束] 묶다
 208018 나르다[移] 나르다
 208019 동 흔 짐
 208019-1 흔 짐
 208020 조짐 줄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

208021-1	보리	*
208021-2	조(이삭 있음)	*
208021-3	콩	*
208021-4	밭벼	*
208021-5	꿀	*
208021-6	띠	*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냥
208027	돌이(양태)	줄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두
208028-2		두
208029	축	드름
208030	꿨미	못
208031	쌍(돼지)	저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자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에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배속머리
209006	들	들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간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가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가보내다
209014	함	홍세함, 예단
209015	위요(우시)	우시, 상객, 쫓어멍

209016	대반(對盤)	데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槩]	부러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여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밖사돈
209022	곁사돈	곁사돈
209023	상갓집	영장집, 상갓집
209024	수의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상주
209027	상주	큰상주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마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데나무
209031-2		머구남
209032	짚동	짚땡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209035	뒗자리	산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상여포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상여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장날
209044	장지	묘지
209045	광중	개관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층	호층
209048	무덤	묘,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역서꾼
209053	마치다[終]	못끄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성묘
209055	묘위전	제월전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께, 제사
209058	제삿집	식께침
209059	편틀	편틀, 제죽물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제육
209064	제편	친떡
209065	인절미	묵
209066	절편	펜떡
209067	웃기떡	웃기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돌리다
209070	뭇	찍시
209071	면례(緬禮)	철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맹질날, 설날
209073	세배	세배, 과세
209074	명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세끼멘다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장구
209080	뽕과리	뽕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래찜질
209085	추석	추석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문전비둘제, 조왕제
210004	당	당, 돈짓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멩디칼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술다, 테우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막은방, 튼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헛게
210018	무섭다	바짝사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조왕제
210021	고수레	코시레
210022	포제	포제, 천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벵디
211002	풀[草]	검질,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엿불

211004	불다[點火]	놓다
211005	내[川]	넷ㄴ랑
211006	넷가	넷가
211007	물가	물가
211008	따르다[從]	떨아가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굴렁지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가참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검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211015	돌무더기	머들, 돌동산
211016	갈림길	세갈랫길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거벵이길
211019	벼랑길	소릿질
211020	내리막길	네리막길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길
211022	길가	질곳
211023	큰길	신작로
211024	분화구	*
211025	꼭대기	꼭데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기슭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산꼬데
211030	상고대	눈꽃
211031	구렁	구텡이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씨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봉천수
211037	숲	곳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기바우
211041	바닷물	쫘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으프다
211045	물먹다	봉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짓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과도	절
211053	과뚝소리	눗 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늘
211056	굼뉘	누가크다
211057	물결	누
211058	잔물결	잔물결
211059	무수기	물찌

	무수기	방언형	날짜(음력)
211059-1	한무날	흔 물, 조금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 물, 조금	10일, 25일
211059-3	서무날	서 물, 조금	11일, 26일
211059-4	너무날	너 물, 조금	12일, 27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8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3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 물, 웨살	14일, 29일, 30일
211059-8	여덟무날	으덟 물, 웨살	1일, 15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 물, 웨살	2일, 16일
211059-10	열무날	조금	3일, 17일
211059-11	열한무날	조금	4일, 18일
211059-12	열두무날	조금	5일, 19일
211059-13	(열서무날)	다섯물	6일, 20일
211059-14	아끈췌기	막물	21일
211059-15	췌기	아끈췌기	22일
211059-16	한조금	한조기	23일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여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쓸물

시후

211066	오늘	오늘
211067	내일	네일
211068	모레	모레
211069	내일모레	네일모레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앞선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저께
211074	그끄저께	그끄저께
211075	새벽[曉]	동틀
211076	꼭두새벽	이른새벽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음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거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별
211091	은하수	은하수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쓰다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갓쓰다
211099	무지개	한구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저실
211105	입춘	새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세
211110-6	엿새	웃췌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으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사오일, 너닷세
211113	대엿새	테웃세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섹일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정월들
211120	올해	금년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후맹년
211123	작년	앞섯해
211124	재작년	제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하다
211128	땡별	벧살
211129	가을별	ㄹ실벧
211130	양지받이	해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굴메
211133	그늘대	그늘막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쉴다
211136	그림자	헤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우이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잡풍
211139	바람받이	브름받지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드쟁이주쟁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늦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든든하다
211148	빗줄기	박비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마
211149-2	가을장마	가을장마, ㄱ실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ㄱ랑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하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내친다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희다, 희양, 하양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물진뱅이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즈꿏디
211185	옆	윤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웬쪽
211191	오른쪽	늑단쪽
211192	밑	알착
211193	흐르다[流]	늑리다
211194	안[內]	안, 속
211195	밖	벧깃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윤
211199	가장자리	끗
211200	가운데	한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다, ㄹ짜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랭이, 솟췌
212005	취소	칙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알
212008	황소	맛갈췌
212009	얼룩소	식췌
212010	부리망	췌망울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등기다, 이끌다
212013	송아지	송에기
212014	배넛소	반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한수	금송
212015-2	이듭/두듭(2)	두수	이수
212105-3	사룻(3)	삼수	삼수
212015-4	나룻(4)	사수	
212015-5	다듭(5)	오수	
212015-6	여듭(6)	여섯수	
212015-7	이룻(7)	일곱수	
212015-8	여듭(8)	으듭수	
212015-9	아듭/구룻(9)	아홉수	
212015-10	열룻/담불(10)	열수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여물
212018	구유	남도ㄱ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마
212023	수말	웅마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검은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흰점백이물
212029	유마	벙마
212030	백마	벙메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즈랑물
212034	달리다[走]	든다
212035	마소	우마, 므쉬떼
212036	글경이	부구리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이끄다
212040	낙인	낙인, 녍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짚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드랭이
212048	비루먹다	드랭이 오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숫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쥬이	식고녕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털떠구니	털턱

212058	산떡	묵
212059	닭의어리	득팅에, 득수룽이, 득시렁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갈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란알,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자위
212062	끓다[腐]	고린다
212063	빙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득세기, 돛
212066	수돼지	숫돛세기
212067	암돼지	암돛세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분육하다, 가르다
212070	고기[肉]	추렴래기
212071	일숨씨	손숨씨
212072	생등이	서툼바치
212073	새끼 돼지	득세기세끼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췌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몰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돛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개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물오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프리, 진취, 티

212087	쉬슬다	쉬싸다, 쉬슬다
212088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버랭이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갈따기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훅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계우리
212102	회충	계수에
212103	거머리	*
212104	바구미	물바구니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하늘행이
212108	그리마	소금바치
212109	쥐며느리	쥐메누리
212110	노래기	노린제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땃물	진쉬
212113	진땃물내리다	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나눈이
212116	달팽이	들뱅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인들뱅이
212118	거미	게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큰게미
212121	불개미	붉은게염지
212122	메뚜기	뜰축
212123	방아깨비	소금바치

212124	여치	공쟁이말죽
212125	사마귀[螳螂]	곡주베기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말죽
212127	풍뎅이	새각시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심방벌레
212130	쇠똥구리	췌동부리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즙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제
212135	나비	네비
212136	호랑나비	네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잘
212140	고추잠자리	붉은잘
212141	장수잠자리	왕잘
212141-1		ㄱ을노스름, 오징에잘, 고치찰
212142	매미	메미
212143	매미허물	*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자리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물방개
212148	반딧불이	머난딧불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췌벌
212153	말벌	췌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부그리
212155-1		새끼부그리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송충

212157	개구리	게게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
212160	두꺼비	*
212161	뱀	베움
212161-1	뱀띠	베움띠, 뱀헤치
212161-2	뱀허물	뱀겹질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쿨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독사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소, 염송에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괘다	괘다
212173	쥐구멍	중이 ㄱ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
212176-1		굴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이가죽
212179	멧돼지	드세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꼬리

날짐승

212185	새[鳥]	날짐승
--------	------	-----

212186	꽁지	꽁지
212187	깃[羽]	세털
212188	새총	느랭이총
212189	새가슴	득가슴
212190	참새	밥주리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백른계비
212195	솔개	*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삐꾸기	*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짱꿩
212205	꿩알	꿩득세기
212206	꺼병이	꿩비에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굴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둥	고둥
212211	개울타리고둥	참보말, 코토테기
212212	명주고둥	뎡갱이
212213	눈알고둥	돌보말
212214	밤고둥	먹보말
212215	팽이고둥	수두리
212216	각시고둥	심방고메기
212217	두드럭고둥	멩옹기, 마타기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둥	가마귀보말
212220	대롱뿔고둥	웬보말

212221	제주개오지	고녕이넛밭
212222	애기삿갓조개	쟁브름
212223	거북손	오삭
212224	따개비	쟁브름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췌굼붓, 하레비군벗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고동, 소라
212227-1		쌀방구, 민둥구쟁기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전복
212228-2		숫전복
212229	전복갑	생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작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지름강이
212233	부채게	돌쟁이, 돌킹이
212234	엽낭게	왕밭
212235	참게	서강이
212236	꽃게	늘쟁이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밭	어금밭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물문주리
212242	성게	퀴살, 퀴
212243	말뚝성게	슌
212244	군소	굴멍이, 군수
212245	새우	세우
212246	불가사리	가멍이뚱게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득밭, 깐밭
212248	해파리	우방망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뚱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멍기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고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히리다
212257	잘다[細]	죽다
212258	썩다[腐]	멘허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페싸다, 베타다, 등타다
212261	생선(生鮮)	늘거
212262	미끼	닛꺨
212263	갯지렁이	계수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침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싯줄	침대줄
212268	붕돌	붕똥
212269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낙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레미
212274	아가미	어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꽃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즌갈치
212279	베도라치	브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졸락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오토미, 슬레기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갯돔, 물툫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벵에돔	구릿
212292	황돔	돔
212293	자리돔	채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초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부치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퀴치	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손치,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저립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툽상어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어우레기
212315	돌묵상어	막쟁이, 모드리, 쥐소도리
212316	수염상어	비깨
212317	두툽상어	막쟁이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수기, 곰시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남, 무냥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물풀
213002	갈대	글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품	어옥꽃
213005	화승(火繩)	훼심불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밭
213008	길차다	질기다
213009	빨기	뺑이
213010	사초	새각시
213011	천일사초	제완지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ㄹ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블레기꽃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쭈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쭈떡
213038	토키풀	고름풀
213039	개자리	계자리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보리풀
213042	무릇	물웃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가시
213045	영경귀	소앵이풀
213046	췌기풀	찔섶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
213049	별꽃	*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부깨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풀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찔섶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까메귀열메
213067	하늘타리	*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채손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느게풀

213072	배풍등	*
213073	휩	꼭
213074	휩덩굴	꼭줄
213075	휩뿌리	꼭뿌리
213076	댕댕이덩굴	*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
213083	송악	*
213084	인동	운동꽃
213085	멸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계풀
213090	수영(승아)	계술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갓노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ㄹ름풀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잉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피만지

213109	양하	양에
213110	과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꽃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
213129	진달래	*
213130	철쭉	*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	----	----

213142	잔뿌리	즌발
213143	줄기	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잎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썩
213151	솔가리	솔잎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땀감	땀곰, ㄹ심
213154	마디다	저지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팽낭,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남
213160	붉다[赤]	빨경흐다
213161	털구슬나무	*
213162	버드나무	*
213163	녹나무	*
213164	아카시아	*
213165	은행나무	*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남총남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남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유지남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
213183	유자나무	*
213184	비자나무	피즈남
213185	치자나무	*
213186	비과나무	*
213187	오동나무	*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옷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
213198	두릅나무	*
213199	향나무	상냥
213200	옷나무	*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가마귀똥남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중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불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껍질

213251	깎다	깎다
213252	벗기다	벗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산뱀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
213268	상동	*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
213273	보리수	*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
213276	앵두	*
213277	매실	*
213278	매화나무	*
213279	밀감	밀감낭
213280	밀감나무	유지낭
213281	탱자	*
213282	탱자나무	*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쫄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
213287	풋감	푸린감

213288	청미래덩굴	*
213289	맹감	*
213290	찹레나무	*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남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남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
213299	구실잣밤나무	조밤남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
213303	복숭아	복숭아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남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김
213312	과래	꼭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넙페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너메역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뎀
213321	청각	전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밭	*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